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용 우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백 인 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권 용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백 인 기

인 준 서

백인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①

심사위원_____ ①

심사위원_____ ①

심사위원_____ ①

심사위원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지리학적 개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사료나 자료가 갖는 의미에 대한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도의 지리적 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서 라첼(Ratzel)의 생활공간(Lebensraum), 비달(Vidal)의 생활양식(genre de vie), 그리고 지명(geographical name or toponym) 등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라첼의 생활공간 개념은, 유기체로서의 국가는 외부세력의 간섭이 없으면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산국은 독립적인 정치단위로서 고려시대 중엽까지 활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종 때에도 우산국도(流山國島)라는 지명으로 불릴 정도로 독자성이 강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정치단위인 우산국의 존재는 독도를 인지, 이용, 영유하는 근거가 된다.

세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결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지명(地名, geographical name, toponym)은 지역과 결합되어 오랫동안 유지되며, 역사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명은 과거의 지리적 인식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명이 일본에 영향을 주어서 일본의 지명에서는 한국지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의 죽도 지명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를 부르는 지명으로부터 파생된 이름들이다.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원래 무릉도(武陵島)에서 나온 무도(武島, 다케시마)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산(弓山)이라는 표기로부터 궁산(弓山)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여기에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

식이 덧붙여지면서 무도(武島)는 '물가에 대나무가 자라는 섬'이라는 의미의 '기죽도(磯竹島, 이소다케)가 된다. 林子平의 「三國接壤地圖」(1785)에 울릉도를 궁숭(弓嵩, 이소다케)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울릉도가 종상화산으로서 해안으로부터 높이 솟아 있는 높은 산[嵩, 岳. 다케]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이소다케라는 명칭은 대나무의 생산과 관련해서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일본식 지명이 다케시마는 무릉도(武陵島)와 우산(汚山)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다케시마는 그들이 연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지명에서 영향을 받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이용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전라도 남해안(특히 전라도 고흥) 어민들이 울릉도 이용에 관한 자료들은 우연히 울릉도에서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매년 주기적인 형태로 울릉도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울릉도행은 지방관들의 체문(帖文)이나 채복공문(採鮑公文)을 통해 허용되었다. 울릉도는 쇄환정책이나 수토정책에 의해 관리만을 받는 땅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던 땅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활발한 이용은 항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지역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항해자들의 뛰어난 해역인식은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섬주민들의 수백km에 이르는 항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동한난류 및 동해해류의 특성은 여름, 특히 8월에 울릉도와 포항지역을 순환하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해안의 어민들의 항해는 해류 등의 영향으로 매우 효율적인 항해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해안 어민들의 울릉도 이용과 관련해서 독도의 지명을 검토해보면, 독도는 근대 울릉도 개척이전부터 전라도 고흥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서 독섬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10가지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독도를 지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리학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은 독도를 인지하지 못한 반면에, 17세기에 일본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인지문제는 우산국의 존재나 남해안 어민들의 울릉도 이용실태를 통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생물학적인 영역개념이나 라첼의 국가유기체론에서 국가의 공간확장법칙 등을 고려하면 국가로서 우산국의 존재 및 조선초까지 우산국이 독립적인 정치단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영역으로서 이용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에는 쇄환정책과 함께 수토정책을 실시를 통해 울릉도를 관리하였다. 특히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진행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논쟁이 일단락되면서 일본인들의 도해가 금지되었고, 우리나라 어민들은 울릉도에서 매년 어채와 조선에 종사하였다. 특히 전라도 어민들은 1600년대 중반부터 1900년 조사 당시까지 울릉도를 왕래하였다. 19세기 자료에는 전라도어민들이 매년 울릉도에서 여러 척의 배를 만들고 있었다. 울릉도 주변의 탁월한 동해해류의 유형은 동남해안에서 울릉도로 직항하고, 돌아올 때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포항 앞바다에 이르는 데 유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라도 어민들은 이러한 해류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이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부르던 방식대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독도를 '독섬'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지명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 1904년 일본군함 천성호가 기록한 독도(獨島), 1906년 울도군수 심홍택의 독도(獨島)로 자리를 잡게 된다. 게다가 독섬이나 독도는 일본식으로 부르면 모두 도쿠시마(トクシマ)이기 때문에 일본이 Liancourt Rock을 다케시마(竹島、タケシマ)로 명명하는데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은 독도의 존재를 인

지하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는 주장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관계와 역사적 관계를 무시한 19세기 식민지적 발상에 불과하다.

둘째, 죽도(竹島, 울릉도)도항금지가 송도(松島, 독도)도항금지는 아니라는 주장은 안용복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조선과 일본사이의 영토쟁의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다. 막부가 죽도도항금지라는 이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죽도도해를 금지함으로써 송도도해 또한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리학적으로 경계가 형성되고, 그 경계가 하나의 장애(barrier)가 될 경우에 경계를 통과하는데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울릉도도항이 금지된 상황에서 독도도항의 이익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도항의 이윤이 사라진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울릉도 도항금지와 관련해서 안용복이 제기한 '송도(독도)도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리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더 많은 사실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7
3. 연구방법	17
4. 연구자료	19
II.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학술적 논의	28
1. 도서연구에 대한 지리학적 논의	28
1) 섬의 지리학	28
2) 영역성(Territoriality)과 생활공간(Lebensraum)	34
3) 생활양식(genres de vie)	37
2.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 논의	39
3.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비지리학 분야의 논의	44
4. 소결: 지리학적 연구의 필요성	46
III. 생활공간(Lebensraum)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49
1. 독립적인 정치단위와 영역	49
1) 우산국과 이사부	49
2) 고려와 울릉도	52
3) 조선초 울릉도 쇄환정책과 삼봉도 탐사	56

2.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류	57
1) 동해의 지리	57
2) 동해의 해류	62
3. 동일한 전통항해 영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67
1) 전통항해	67
2) 울릉도 해역 항해와 독도	75
3) 사료 및 수토키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울릉도 항해	80
4) 남해안(전남 고흥) 어부들의 울릉도 항해	83
4. 소결: 육지와 동일한 생활공간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89

IV. 지리적 인식으로서의 지명인지

1.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 문제와 지리적 인식	90
1) 울릉도와 독도 지명 문제 개요	90
2) 안용복 사건에서 울릉도와 독도 인식의 중요성	93
3) 「세종실록지리지」의 울릉도와 독도 관계 기술의 중요성	95
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의 중요성	96
2.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98
1) 안용복사건 이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98
2) 안용복 사건이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99
3)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101
4)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	102
3. 지명표기로 본 한일간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104
1) 한자를 이용한 지명표기	104
2) 울릉도와 독도 지명의 다양성 및 일관성과 일본의 지명혼란	106
3) 일본에 있어서 울릉도와 독도 지명표기	115

3. 울릉도와 독도 지명이 일본의 지명표기에 미친 영향	116
4. 소결: 지명으로 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일관성	118

V.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과 이용 121

1.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 이용실태 관련 주요 자료	121
1)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1882년)	121
2) 안용복 활약시의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자원채취 갈등	128
3) 라페루즈 탐험대의 항해일지 상의 울릉도	131
4) 수토기록 및 다산 정약용의 기록	132
2. 울릉도와 독도 이용	133
1)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의 자원	134
2) 자원별 이용실태	137
3. 자원의 이용과 “채복공문”의 의의	140
1) 수토정책과 울릉도 이용	134
2) 채복공문의 의의	137
4. 소결: 생활양식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이용	143

VI. 결론 14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삼국시대 관련 자료	19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	20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	22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	23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	26
<표 6> 마살제도 나뭇가지 해도	68
<표 7> Rebbilib 나뭇가지 해도(stick chart)	69
<표 8> 조선인의 일본표착	78
<표 9> 표류자의 출항지 및 표착지	80
<표 10> 독도 시마네현 편입 각의결정문	103
<표 11> 조선시대 주요지도 상의 독도의 명칭, 위치, 형태	109
<표 12> 서구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113
<표 13> 일본 다케시마 표기와 울릉도 지명의 관계	117
<표 12> 이규원의 검찰일기 주요 내용	124
<표 13>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검찰일기)	126
<표 14> 울릉도 체류자 분석(검찰일기)	126
<표 15>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계초본)	127
<표 16> 울릉도 체류자 분석(계초본)	127
<부록 표 1> 삼국시대 관련 자료	165
<부록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	167
<부록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	170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	174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	191
<부록 표 6> 다산 정약용의 울릉도 관련 자료	200

<부록 표 7>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및 독도의 지명	207
<부록 표 8>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항해관련 기록	210

그림 목 차

<그림 1>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3
<그림 2> 독도 해저지형도	3
<그림 3> 국제수로기구(IHO) 대양과 바다의 경계(1953)	59
<그림 4> 대양과 바다의 경계(1953) 동해부분도	59
<그림 5> 동해 해저지형	60
<그림 6> 동해의 해저지형	61
<그림 7> 1998년 하계(6월~8월) 동해해류	63
<그림 8> 하계(6월~8월) 동해 표층 해류의 모식도	64
<그림 9> 비하계 동해 표층 해류의 모식도	65
<그림 10> 미크로네시아 32방위 16쌍 천체방위도	70
<그림 11> 캐롤라인제도의 전통항해 사례	72
<그림 12> 미크로네시아 Yap州 일부 및 Chuuk州 일부	72
<그림 13>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연방 지도	73
<그림 14> 표착건수 및 표착인원	79
<그림 15>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중 竹島, 松島의 소속 ..	100
<부록 그림 1> 박석창 수토지도 「울릉도 도형」	212
<부록 그림 2> 일본 내각 각의결정문(독도편입)	213
<부록 그림 3> 임자평의 『삼국통람도』 「조선지도」	214
<부록 그림 4> 이찬 소장 『동람도』 「팔도총도」	215
<부록 그림 5> 『조선지도』 「울릉도」	216
<부록 그림 6> 1797년 라페루즈 『세계탐험기』의 지도첩 중 도면 46	217
<부록 그림 7> 4월 위성뜰개의 궤적도	218
<부록 그림 8> 6월 위성뜰개의 궤적도	219

<부록 그림 9> 8월 위성뜯개의 궤적도	220
<부록 그림 10> 10월 위성뜯개의 궤적도	221
<부록 그림 11> 위성뜯개 궤적도(2004)	222
<부록 그림 12> 위성뜯개 궤적도(2005)	223
<부록 그림 13> 위성뜯개 궤적도(2006)	224

1. 서론

1. 연구배경

“지리학의 영원한 연구대상은 땅이다. 땅은 지역, 환경, 공간, 또는 장소 등으로 표상화된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땅에 의미를 부여하고 갖가지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땅은 예나 지금이나 있던 그 자리에 의연히 자리 잡은 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 부단히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변화시킨다. …현대지리학에서 제기되는 각 패러다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성·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을 보다 다양하게 해석하거나 재구성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참신한 연구방법을 개척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든 지리학자들의 활력이며 미래이다.”¹⁾

지리학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규정하는 방식,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원의 변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과 인간활동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 그리고 인간의 공간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갖는다. 지리학자는 특히 공간적 현상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여 공간적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²⁾

일본은 독도(獨島)를 죽도(竹島)라 부르고 영유권을 주장한다. 죽도(竹島)는 ‘대나무 섬’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엔 대나무가 없다. 반면에 독도(獨島)는

1)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아카데미, pp. 3-4.

2) John A. Jakle, 1971, “Time, Space, and the Geographic Past: A Prospect for Historical Geograph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4), p. 1084.

독섬 혹은 돌섬으로서 바위섬(rock)을 의미한다. 지명은 지리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죽도(竹島)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인식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일본정부의 공식견해의 첫머리에서 송도(松島)와 죽도(竹島)의 도명(島名) 혼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³⁾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던 당시에 일본의 독도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와의 관련하여 이해하고 설명해왔다. 울릉도와 독도의 고립적 특성은 우산국의 존재와 같이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우산국의 존재는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만주의 고구려·발해·여진 등이 울릉도와 독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1953년 7월 13일자 일본측 구술서」에 첨부된 일본정부견해. (신용하, 1999,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3권).

“1. In considering this matter, it should be recalled in the first place that the island which bore the name of Takeshima or Isotakeshima in former times was what is now called Wul-Nung-to, and that the present Takeshima was known as Matsushima. This is a fact which may be established by Japanese literature and old maps published in the days of the Edo Shogunate. It is also evident from Korean literature that Wul-Nung-to was called Takeshima or Isotakeshima.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literature, we might refer to the geographical part of the second volume of “Shihoruisetsu,” compiled by Lee Soo Kwang, with a preface dated July of the 42nd year of Manreki(1614), containing a passage which reads: “It is reported that some Japanese have recently occupied Takeshima, which is also called Itotakeshima. The islands is Wul-Nung-to.” Also in a letter of Reiso Sanban of Korea addressed to Tsushima-no-kami, Lord of Tsushima in September of the 7th year of Genroku(1694), the following is mentioned: “In the neighboring waters, however, there are some fishing grounds for our people. Though originally called Wul-Nung-to, the islands is also known as Takeshima for the bamboo it produces, thus one island having been given two different names. This very fact is not only recorded in books of our country, but is also familiar to every one of the people of your province.”

However, in the map of Japan published in 1840 by Philipp Franz von Siebolt, Wul-Nung-to was mistakenly indicated as Matsushima and, as the result, the latter name has come to replace the former one in the maps subsequently made in Europe. The misnomer came into use also in Japan, causing Wul-Nung-to to be represented as Matsushima and the small island previously called Matsushima to acquire the name of Takeshima. ...”



자료: 한국해양경찰청(<http://www.kcg.go.kr>)

<그림 1>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자료: 국립해양조사원(<http://www.nori.go.kr>)

<그림 2> 독도 해저지형도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고려초의 일본까지 침범한 동여진의 침략을 고려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무력화시킨 이후로 우리나라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⁴⁾ 안용복 사건으로 한일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시정하는 형식이었지, 자신들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정부의 착오를 기대한 교섭에 불과했다. 1905년 일본의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킨 조치도 또한 일본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에 울릉도와 그 주변도서를 울도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일본은 19세기말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태정관문서」 등을 통해 분명히 하였다. 그러던 중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두 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당시 서구의 해도에서 Liancourt Rocks라고 불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하여 버린다.

이러한 사실은 외교적 절차가 아닌 지방관원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도군수(鬱島郡守)에게 알리고, 이를 들은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은 그 다음날로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인 편입하려 한다는 보고를 올리게 된다. 내부대신이 이를 시정할 것을 외부대신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문서를 끝으로 그 이후 대응에 대한 우리측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1906년에 한국정부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⁵⁾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지리적 관계

4) 이창섭, 2008, “11세기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 pp. 77-109.

5) 송병기, 1985, “고종조의 울릉도·독도 경영,” 독도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pp. 189-285.

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이다. 중심과의 관련성을 상실한 독도의 지리적 가치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와 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라첼은 생물학적 유추와 생활공간(Lebensraum)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가 보다 강력한 인접 국가들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팽창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국가유기체론을 주장하였다”.⁶⁾ 인접국가의 존재와 같이 영역의 팽창을 억제하는 제약이 없는 경우에 생활공간은 주변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장하는 도시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⁷⁾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시들이 발달하여 거대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북미지역의 경우에 1960년대에 이미 약 960km에 달하는 지역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된 생활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⁸⁾

울릉도는 원래 우산국이라는 독립적인 정치조직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고려시대 중엽까지도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독도를 두고 어느 사회, 어느 나라로부터도 영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중심부인 울릉도는 독도를 주변부로 포섭하여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905년 일본이 침탈을 시도하기까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

독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66)⁹⁾는 교토대 역사지리학부¹⁰⁾ 출신으로서 외무성에서 오랫동안 독도문제를 담당해온

6) 권용우-안영진, 2001, op. cit., pp. 99-100.

7) 권용우, 1985, “교외지역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지리학연구, 10, pp. 37-48.

8) 권용우, 1993, “메갈로폴리스 연구에 대한 상론,” 응용지리, 16, pp. 21-62.

9)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1996년 재발행)(해양수산부 역, 竹島の 역사지리학 연구, 1996).

10) 교토대 역사학과는 1908년 일본 최초로 지리학 강좌가 개설된 학과로서, 가와카미는 역사학과 지리학이 통합된 역사지리학부 출신이다. 따라서 가와카미는 국제법뿐만 아니라 역사학, 지리학 분야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독도문제 교과서로 인정되는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담당자이다. 가와카미는 국제법에 정통한 역사적 사료와 지리적 관계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는 일본에 유리한 지리 관련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리적 지식은 일반적인 지리학적 논리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지리적 사실을 내세워 일본에 불리한 주장을 은폐하고, 일본에 유리한 주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좀 더 일반적인 지리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으로서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울릉도와 독도는 섬으로서의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지어서 섬지리학적 (geography of island) 관점¹¹⁾의 접근이 필요하며, 나아가 영역간의 다툼과 관련하여 국경 또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¹²⁾. 무엇보다도 조선후기 울릉도는 한국인들의 생활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동해안 및 남해안 연안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자신들의 주요주장을 10가지를 담은 『죽도』 팸플릿을 한미일 3개 국어로 발간하였다.¹³⁾ 10가지 주장은 크게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2)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3)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4)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

11) 김영성, 2004a, “도서지역의 인구변동,” 지리학연구, 38(3), pp. 227-240; 김영성, 2004b, “서남해 도서 인구의 역사지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9,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16.; Stephen A. Royle, 2001, *A Geography of Islands*, Routledge.

12) 김상빈, 이원호, 2004, “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pp. 117-136.

13) <http://www.mofa.go.jp>

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은 과거에 독도를 실효적 지배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고 있고,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10가지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고유영토론과 관련된 주장은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②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독도를 정박장 또는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③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④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며, 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¹⁴⁾ 이 요구를 거부했고, ⑥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령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일본영토로 취급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 등이다.

둘째, 1905년 이전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와 관련해서 ⑦ 한국이 그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⑧ 한국 주장의 근거인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⁵⁾

1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15)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자산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1966)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이 확립된 2005년까지는 속종실록에 나타난 안용복의 진술만이 알려져 있었다. 속종실록에서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 사실은 인정된 막부가 죽도(울릉도) 도항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안용복의 활동은 단순히 독도영유권만을 확립한 것이 아니라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측 사료에서 나타난 우산도(于山島),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가 독도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독도 일본 고유영토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근거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물고 늘어지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노력이 헛된 것임을 밝혀주는 일본에서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가 일본에서 발견된다. 島根縣 隱岐郡 村上家に 보관되어 있던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가 발견되어 2005년 5월 17일 山陰 中央新聞에 보도된 것이다. 이 내용은 바로 국내에 소개되었고, 논문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같은 해 11월 26일 강원대학교 손승철 교수가 村上家를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울

⑨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과 ⑩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외교적인 영토침해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54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⁶⁾

울릉도와 독도의 인지 및 경영과 관련하여 일본측의 주장은 공간적 인식과 관련하여 봤을 매우 편파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의 하나의 예는 가와카미(1966)의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독도관련 일본측 주장의 핵심적인 논리의 제공자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66)는 시달거리(示達距離)라는 개념을 내세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수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이한기, 196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시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이라는 점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근대이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릉도와 자산도가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음이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2006년 4월에는 원문, 탈초문, 번역문을 소개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손승철, 2006, “1969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 공술자료-『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pp. 251-300).

16) 1954년 9월 15일 일본측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르자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 1954. 10 28 한국 정부는 일본측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1955년 2월 12일자 한국측 구술서」를 통해 그 요지를 분명히 하였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분쟁’(a quasi dispute)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소위 독도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한국과 대등한 지위에 두려고 일본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준청구권(quasi claims)을 설정하려고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90-191)

있는 지역을 자신의 공간에서 구태여 배제하지 않으며, 역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간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가와카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물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인간의 지리적 호기심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탐험하고, 이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영역으로 확립하려는 것은 지리적 세계인식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가와카미는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무 등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소위 공도정책(空島政策, 刷還政策)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울릉도의 상황에 비추어 보거나, 일시적으로 울릉도를 수토하는 수토관들의 입장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게 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울릉도에서는 사람들이 정주하지는 않았지만 약초꾼들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산삼 등 약초를 채취했고, 어민들은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 벌목을 하고 조선을 하는 동안 상당한 기간을 체류하였다.¹⁷⁾ 매년 반복되는 울릉도의 이용은 단순하게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 항해과정에서 독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을 것이며, 또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기회도 그만큼 많았을 것이다.¹⁸⁾

일본의 주장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이 독도의 인지 운운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역이 지도로 표현되

17) 이선근, 1963, “近世 鬱陵島 問題와 檢察使 李奎遠의 探險成果—그의 檢察日記를 中心한 若干의 考察,” 大東文化研究, 창간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295-335;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개정증보판, 삼인; 이해은,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 송병기, op. cit.; 이해은, op. cit.; 백인기·심문보, 2006,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해안 어민들의 울릉도 이용실상에 관한 다산 정약용의 포항 장기에서의 기록(響城雜詩)과 강진에서의 기록들은 유배지에서 접한 서민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준다.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들 지도에는 독도만을 표시하지 않고 울릉도와 함께 표시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며, 일본은 자기의 주변국가를 지도에 함께 표시할 때, 울릉도와 독도를 항상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섬이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았다. 조선은 동해상의 중앙에 위치한 두 섬인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동해상에 두 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였고, 지도에는 항상 두 섬을 표시하였다. 또한 두 섬은 명백히 강원도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도 분명하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松島, 독도)가 우리 땅 우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나 문제제기가 없었다.

② 울릉도 도항 금지가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도 또한 매우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도항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항금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바인 “독도가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기 위한 정박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적지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경우지로의 도항도 금지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장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경이나 장벽이 생겨나거나 교통로가 변하게 되면, 교류가 줄어들거나 급감하게 되고, 목적지 사이의 경우지들이 급격히 쇠퇴한다.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두 주장은 모순 그 자체이다.

④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독도 영유의사의 국제법적 재확인이었다는 주장 또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은 독도를 영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에 인식될 때까지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

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과거의 송도(松島)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1905년 독도를 마치 Liancourt 섬이라는 이름만큼 새롭게 발견한 섬으로 인식하고 편입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일본의 시마네현 독도편입의 근거인 무주지선점의 논리와도 모순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반환되어야 할 영토에서 빠진 것은 2차세계대전 후 새롭게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던 미국의 해양전략적 차원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6.25전란 중에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최종 조약문에 문서화하는데 반대함으로써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바다에 평화선을 선포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일본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2차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식민지국가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전세계적으로 식민지의 독립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6.25전쟁이 휴전으로 가는 것에 반대했고 미국정부는 휴전으로 6.25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던 때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진행되던 와중에 미국은 태평양을 비롯하여, 인도양, 대서양으로 전세계의 해양에 대해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확대하던 중에 있었다. Royle(2001)은 『섬의 지리학(Geography of Island)』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각 대양의 섬들은 강대국의 힘 앞에 무력하게 군사기지나 군사용 시설의 입지로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비키니, 팜, Johnston 섬을, 인도양에서는 영국령 이었던 Diego Garcia 섬을, 남대서양에서는 Ascension 섬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등 해양기지를 확대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동해의 제해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측의 영토로 인정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⑥ 독도가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일본영토로 취급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이 사실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였고, 이에 주일 미공군사령관은 훈련지역을 해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인명피해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일본측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폭격훈련구역을 지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잘못된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을 무릅쓴 주장이다.

이처럼 스스로 모순되고, 자기부정적인 주장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이 가와카미(1966)의 주장으로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보다는 독도를 외교적으로 분쟁지역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아마도 매우 제한적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그것은 독도의 특수한 사정에서 연유한 것이다. 첫째, 독도는 일본이 해양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전쟁의 현장이다. 둘째, 독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육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셋째, 과거 독도에 대한 인식의 형태와 현재 독도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시대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독도연구는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독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해양중심적 시각의 확보가 쉽지 않고,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한일간의 독도문제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2차대전후 연안국들은 대륙붕의 자원개발을 위한 해양 팽창정책을 내세

우게 되고, 패망한 일본은 이에 편승하여 독도를 새로운 형태의 영토침략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가 남북분단, 신생국가의 독립, 6.25전쟁으로 혼란하고, 우리의 영토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승전국과 패전국간의 강화조약에 참여할 수도 없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던 그 시기에 일본은 미·소간의 냉전을 빌미로 친일파 윌리엄 씨볼드(William Siebold)를 내세워 독도 침탈을 기도한 것이다.

미·소간의 냉전은 동해가 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독도는 일본의 러일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일본의 제국주의적 욕망의 잔재가 깊게 각인된 곳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해에 대한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의 제한적인 역할과 혹시 모를 한국전 패전 등의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미국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우호적인 전략을 택했을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다. 과학적 세계인식과 종교적 세계인식이라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인식¹⁹⁾과 비교하면,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과 그것이 담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

19) 민속학에서 본 세계인식의 한 보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지금이나 과거나 인간은 복수의 삶의 세계를 살아왔다. 일상의 상식적인 세계,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 합리적인 과학이나 테크놀로지의 세계, 종교의 세계, 예술의 세계 등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복수의 세계이다. 이들 각각의 세계는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이런 모든 세계는 유한한 의미의 세계로 나름의 독특한 인지양식과 실제의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세계에서 통용되던 것이 다른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과학적 활동은 상식적이거나 실용적 관심보다는 이론적 관심이, 정복과 적용보다는 관찰과 이해가 중심이 되는 특수하게 제한된 행위이다. 따라서 과학의 실천이 인간 삶의 전부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것은 실재를 질서지우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a special ordering of reality)으로서, 인간은 또 다른 의미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이용범, “민속신앙과 과학,” 비교민속학회지, 제28집, 2005.)

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인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한일간에 국토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坊坊曲曲)’이라 하고 일본은 ‘진진포포(津津浦浦)’라 한다는 점이다.²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독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양중심적 사고에 친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역동성이 미약한 농경적인 세계관을 투영하여 우리문화 전체를 해석한 것이다. 육지에 한정시켜 본다면 해도 전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특히 통칭 고대사에 관한 한 우리는 농경문화만을 이루고 산 것은 아니었다. 소위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중요한 활동무대인 만주지역은 벼농사지역이 아니었으며, 기타 농경에 적합한 주요지역이 아니었다. 농경과 함께 평원과 초원에서 이루어지던 목축이 있었으며, 동만주 일대에서는 목축과 사냥·수렵 채취가 매우 중요한 삶의 형태이었다.”

“우리역사와 문화에는 해양문화가 통념보다도 발달했으며, 해양문화의 특성인 불보존성(不保存性)으로 인하여 비록 경제생활에 관해서는 어로의 양식과 규모 등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사료 혹은 유물 유적들의 비교를 통해서 해양을 매개로 각국 혹은 지역간의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육지와 해양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해 들어가는 ‘海洋史觀’이 필요하다.”²¹⁾

20) “오늘날 우리는 전국을 지칭하는 관용어로 ‘방방곡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진진포포’라는 표현을 쓴다. ‘방방곡곡’이라는 말에는 육지중심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고 ‘진진포포’란 말에는 해양중심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강봉룡, 변남주, 2006, “조선시대 호남지역 포구 조사연구-무안반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8, pp. 249-250).

21) Ibid.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또한 무주지였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논리의 핵심은 조선은 1904년 이전에 독도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일본인 자신들이 독도를 새로운 섬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19세기말 일본은 명치유신을 거쳐서 대외적으로 팽창을 시도한다.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진출을 시작하면서 어족자원이나 벌목을 목적으로 한 일본상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도 시작된다. 명치유신 이전에는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의 항해나 조업은 일본막부정권의 도항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류에 의한 항해나 불법적인 잠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성격까지 지니고 있었다.²²⁾

따라서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독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을 깨달은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착오적 인식의 약점을 바탕으로 역으로 한국의 독도인식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시도한 일본의 독도인식 혼란 내지는 부재는

22) 일본의 이러한 논리는 자신들의 독도에 대한 인지의 부재를 감추기 위한 역공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 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의 조치와 주장들이 독도의 존재와 관련하여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당시에 일본은 독도가 정확히 어느 나라에 속하는 섬이며, 전통적으로 어떤 섬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았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이전에도 일본인 중에서는 울릉도를 동해상의 새로운 섬이라 생각하고 편입후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고, 독도는 기존의 송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호가 발견한 섬으로서 량고도(Liancourt Rocks)로 인식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각의 결정에 명시한다. 일본은 울릉도를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고 개척을 건의한 상인의 착오와 같이, 中井養三郎이라는 일개 어부가 새로운 섬을 점령하고 이를 영토에 편입한 후 자신에게 강치 어업을 위해 대하해 줄 것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영토에 편입한 것이다. 즉 조선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를 어부의 착오를 빙자하여 새로운 섬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영토에 편입한 것이 된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량고도라 부르는 섬을 한국인들이 독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이지만,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논리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이러한 약점을 오히려 새로운 반박논리로 재생산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당연히 독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혹시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대적인 해상측량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가깝게는 대한제국 및 6.25전쟁 중의 한국정부가 정확한 독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정황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본은 연합군 사령부 미국인 고문 씨볼드(Siebold)를 활용하여 샌프란시스코 최종 조약문에서 한국에 돌려줘야 할 영토 중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한국측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로, 공도정책에 따라 조선은 독도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논리, 우산도와 독도는 다른 섬이라는 논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논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 등 반반논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본정부견해라는 형태로 한국에 전달되고, 1966년에는 외무성 직원 출신인 가와카미(川上健三)가 『竹島の 歴史地理學的 研究』라는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일본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이전에 조선은 독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조선후기 안용복사건 이후에 우리가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관심이 고조된 시기에 두드러진 쟁점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문제지향적인 연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학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

지만 학문간의 통합적인 연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리학분야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의 공간성 혹은 지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치, 영역, 변경, 경계, 섬의 지리학 등을 포함하는 지리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연구가 절실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학적 관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의 생활공간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동해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항해의 전략적 거점이었고, 울릉도와 독도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이용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울릉도와 독도의 공간성(spatiality) 혹은 영역성(territoriality)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지리학 분야에 서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을 규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역, 섬 등 지리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독도관련 쟁점과 기존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해양관련 조사자료를 활용을 포함해서, 사료와 문집에 나타난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 이용의 실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과를 지리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기 때

문에 다음의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생활공간, 중심지이론, 생활양식론 등 지리학의 다양한 영역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섬의 지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동일생활권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특성을 지정학적 개념, 영역적 개념,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양환경과 항해의 특성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울릉도와 독도의 공간적 인식의 결과인 지명의 특성과 지명에 내포된 한·일간의 독도인식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섯째,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역사적인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조선후기 울릉도 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공도정책으로 버려진 땅이 아니라 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연안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서 우산국이래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인지되고 이용되어 온 울릉도와 독도가 근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리학적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연구자료

첫째, 삼국시대 관련 자료.

<표 1> 삼국시대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三國史記	512년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 우산국은 명주의 正東에 있는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혹은 鬱陵島라고도 이름하는데, 땅의 둘레는 100리로 사람들이 험한 것만 믿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이찬 이사부를 아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三國史記는 고려 1145년(인종 23년) 김부식에 의해 편찬
三國史記		이사부(異斯夫)(혹은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는 성은 김씨이며 내물왕의 4세손이다. … 13년 임진(512)에 아슬라주(何瑟羅州)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于山國)을 합치려 하였으나, 그 나라 사람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 항복받기 어려우므로 피로써 굴복시키기로 했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실어 그 나라의 바닷가에 가서 속여 말했다.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 뱉아 죽이겠다.” 그 나라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항복했다.	「列傳」異斯夫條
三國遺事		<박이종을 시켜 섬 오랑캐를 치다> 또 아슬라주(지금의 명주) 동해 안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곳에 우릉도(汚陵島)(지금은 우릉도(羽陵島)라고 쓴다)가 있었다. 주위가 2만 7천1백30보나 되었다. 섬의 오랑캐들은 그 깊은 바닷물을 믿고 교만하여 조공(朝貢)하지 않았다. 왕은 이찬 박이종(朴伊宗)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했다. 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싣고 그들을 위협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놓아버리겠다.” 섬 오랑캐는 두려워서 항복했다. 왕은 이종을 포상하여 아슬라주의 장관으로 삼았다.	三國遺事 第一卷, 第二紀異篇 上, 智哲老王 (삼국유사는 一然(1206-1289)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

둘째,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高麗史	930	병오에 우릉도(芋陵島)가 백길과 토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거늘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	태조 13년 9월
高麗史	1018	우산국(于山國)이 동북 여진(女眞)의 침입을 입어 농업을 폐하므로 이원구(李元龜)를 보내어 농기구를 내려 주었다.	현종 9년 11월
高麗史	1019	기묘(己卯)에 우산국(于山國) 민호(民戶)로서 일찍이 여진(女眞)에게 잡혔다가 도망쳐 온 자를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현종 10년 7월
高麗史	1022	“우산국(于山國) 백성으로 여진(女眞)의 노략질을 입어 도망하여온 자는 예주(禮州)에 두고 관(官)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 아주 편호(編戶)를 삼으소서.” 하니 이를 받아 들였다.	현종 13년 7월
高麗史	1157	왕이 동해 가운데 우릉도(羽陵島)란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지가 기름져서 예전에 주현이 있었던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監倉) 전중 내급사 김유립(金柔立)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김유립이 돌아와 아뢰기를,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더이다.” 라고 하니, 드디어 그 의론을 그만두었다.	의종(毅宗) 11년 5월
高麗史	1246	국학 학유(國學學諭) 권형운(權衡允)을 급제 시키고, 사정순(史挺純)을 울릉도 안무사(蔚陵島安撫使)로 삼았다.	고종(高宗) 33년 5월
高麗史	1273	대장군姜위보(姜渭輔)를 울릉도 작목사(蔚陵島斫木使)로 삼고 이주와 함께 가게 하였는데… 드디어 사신을 원 나라에 보내어 울릉도에서 나무 베는 것을 그만 … 할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모두 들어주었다	원종(元宗) 14년 2월
高麗史	1379	왜적이 무릉도(武陵島)에 들어와서 반 달을 머물다가 물러갔다.	신우(辛禡) 5년 7월
高麗史	1389	영흥군(永興君) 환(環)이 일찍이 어떤 일로 무릉도(武陵島 울릉도)로 귀양갔는데, 생사를 알지 못 한 지가 19년이나 되었다.	공양왕(恭讓王) 원년 9월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高麗史</p>	<p>地理志</p>	<p>울진현(蔚珍縣)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고우이군(古弓伊郡)이라고도 하였음)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郡)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내려 현(縣)을 삼아 영(令)을 두었다. 울릉도(鬱陵島)가 있다.(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우산국(于山國)이라 칭하고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도 하였다. 넓이가 100리이며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 백길사두(白吉士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의종(毅宗) 11년에 왕이 울릉도(鬱陵島)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적에 주현(州縣)을 두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溟州道監倉) 김유립(金柔立)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니 김유립(金柔立)이 돌아와 아뢰기를, “섬 가운데 큰 산(山)이 있어 산정(山頂)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가면 바다에까지 10,000여 보(步)가 되고 서쪽으로 향해 가면 13,000여 보(步)가 되고 남쪽으로 향해 가면 15,000여 보(步)가 되며 북쪽으로 향해 가면 8,000여 보(步)가 되며 촌락(村落)의 기지(基址)가 7개소 있으며 석불(石佛)·철종(鐵鐘)·석탑(石塔)이 있으며 시호(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가 많이 나서 있으나 그러나 바위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니 드디어 그 의론을 중지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蔚珍縣 本高勾麗于珍也縣 (一云古弓伊郡)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郡, 高麗, 降爲縣置令, 有鬱陵島,(在縣正東海中,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智證王十二年, 來降, 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士豆, 獻方物, 毅宗十一年, 王, 聞鬱陵地廣土肥, 舊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 往視, 柔立, 回奏云, 島中, 有大山, 從山頂, 向東行至海一萬余步, 向西行一萬三千余步, 向南行一萬五千余步, 向北行八千余步,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佛·鐵鐘·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然多岩石, 民不可居, 遂寢其議, 一云, 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p>	<p>志 12, 地理, 東界, 蔚珍縣 지증왕 12년은 지증왕 13년의 오기(誤記). 世家에는 태조13년 백길사두(白吉士豆)가 아니라 백길토두(白吉士豆)가 방물(方物)을 바침.</p>

셋째,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태종실록	1407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보내와 토물(土物)을 바치고, 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무(貞茂)가 무릉도(武陵島)를 청(請)하여 여러 부락(部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므로,	태종 7년 3월 16일 무릉도(武陵島)
태종실록	1412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태종 12년 4월 15일 유산국도(流山國島)
태종실록	1416	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按撫使)로 삼았다. (金麟雨 爲 武陵等處安撫使)	태종 16년 9월 2일
세종실록	1426	간사한 백성이나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무릉도(茂陵島)나 대마도 등지로 도망하여 가서 화약(火藥)을 만드는 비술(秘術)을 왜인에게 가르치거나 앓을까 염려되오니...	세종 8년 12월 13일 茂陵
세종실록	1438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사직(司直) 조민(曹敏)이 무릉도(茂陵島)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	세종 20년 7월 15일 護軍 南薈 司直 曹敏 回自 茂陵島 復命
세종실록	1438	김안(金安)이 수모(首謀)가 되어서 무릉도(茂陵島)로 도망해 들어갔사오니, ...	세종 20년 11월 25일 무릉도(茂陵島)
성종실록	1471	지금 듣건대, 영안도(永安道)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무릉도(茂陵島)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다.	성종 2년 8월 17일 무릉도(茂陵島)
성종실록	1472	삼봉도 경차관(三峯島敬差官) 박종원(朴宗元)이 거느린 군사와 더불어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지난 5월 28일에 울진포(蔚珍浦)로부터 출발하여 ... 이달 초6일에 강릉(江陵) 우계현(羽溪縣) 오이진(梧耳津)에 이르렀습니다.	성종 3년 6월 12일 무릉도(武陵島)
중종실록	1511	강원도 무릉도(武陵島)가 그 곳과 서로 바라다 보이는데, 밤에 불빛이 있으니 왜선(倭船)이 숨어 닿았든가, 혹 우리나라에서 죄를 얻고 도망간 사람이 비밀히 우거(寓居)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중종 6년 5월 21일 무릉도(武陵島)
명종실록	1556	강원도 울릉도(鬱陵島)에 검은 새가 하늘을 뒤덮고 연해(沿海) 등처로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늘 있는 일이 아니고 보면 어떤 기(氣)에 몰려서 그런 듯합니다.	명종 11년 2월 3일 江原道 蔚陵島 , 黑鳥蔽天, 飛出沿海等處。

넷째,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자료.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광해군일기	1614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릉도에 왜노(倭奴)의 왕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書啓)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回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광해군 6년 9월 2일 鬱陵島 禁止 倭奴來去之意
현종실록	1664	대마도가 흥양(興陽)의 표류인 모주복 등 19명을 송환하였다. 예조로 하여금 편지를 써 그들의 호의에 답하게 하였다.	현종 5년 5월 12일
숙종실록	1693	“왜인(倭人)이 이른바 죽도(竹島)는 바로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린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人民)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숙종 19년 11월 18일 倭人 所謂 竹島
숙종실록	1694	계유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찢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숙종 20년 2월 23일 박어둔, 안용복
숙종실록	1694	당초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鬱陵島)에 관한 일로 임금에게 아뢰어, 접위관(接慰官)을 보내 맞바로 회빈작주(回賓作主)하는 짓을 책망하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숙종 20년 8월 14일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숙종실록	1696	동래(東萊) 사람 안용복(安龍福)·흥해(興海) 사람 유일부(劉日夫)·영해(寧海) 사람 유봉석(劉奉石)·평산포(平山浦) 사람 이인성(李仁成)·낙안(樂安) 사람 김성길(金成吉)과 순천(順天) 중[僧] 너헌(雷憲)·승담(勝淡)·연습(連習)·영률(靈律)·단책(丹責)과 연안(延安)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에 가서 일본국(日本國) 백기주(伯耆州)로 들어가 왜인(倭人)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襄陽縣) 지경으로 돌아왔으므로, 강원감사(江原監司) 심평(沈枿)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치계(馳啓)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 내렸다.	숙종 22년 8월 29일 동래 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왜인과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숙종실록	1696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安龍福)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너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숙종 22년 9월 25일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숙종실록	1696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의 일을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더니, ...’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혹 조정(朝廷)에서 시킨 것처럼 하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숙종 22년 10월 13일 좌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하다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1697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숙종 23년 3월 27일 안용복을 감사하여 정배하도록 명하였다
숙종실록	1699	강원도(江原道) 월송 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고 대풍소(待風所)로 돌아왔다.	숙종 25년 7월 15일 월송 만호 전회일 울릉도 수토
숙종실록	1702	삼척 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과 왜역(倭譯) 최재홍(崔再弘)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돌아와 그곳의 도형(圖形)과 자단향(紫檀香)·청죽(靑竹)·석간주(石間朱)·어피(魚皮) 등의 물건을 바쳤다. 울릉도는 2년을 걸러 변장(邊將)을 보내어 번갈아 가며 찾아 구하는 것이 이미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었는데…	숙종 28년 5월 28일 삼척 영장 이준명 울릉도수토
숙종실록 보궐정오	1714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인(浦人)의 말을 상세히 들건대,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障礙)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잇달아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년(1049)과 임진년(1050)에 모양이 다른 배가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지경에 표류(漂流)해 왔으니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숙종 40년 7월 22일 鬱陵之東, 島嶼相望, 接于倭境
영조실록	1769	임금이 제조 원인손(元仁孫)에게 명하여 일찍이 삼척 영장(三陟營將)을 지내어 사리를 잘 아는 자와 더불어 울릉도(鬱陵島)의 봉만(峰巒)·형승(形勝)·물산(物産)을 그려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영조 45년 10월 16일
영조실록	1769	울릉도(鬱陵島)는 … 본도(本島)의 삼화(蔘貨)가 근처 고을에서 두루 통행되다가 현발(現發)되어 속공(屬公)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영조 45년 11월 29일 울릉도 삼화(蔘貨)
영조실록	1769	강원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울릉도(鬱陵島)에 인삼을 캐는 잠상(潛商)을 삼척 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가 엄담하여 붙잡았는데, 추잡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	영조 45년 12월 9일 울릉도에 인삼을 캐는 잠상
영조실록	1770	강원 감사(江原監司) 서명선(徐命善)을 인견하였는데, 울릉도(鬱陵島)에서 삼(蔘) 캐는 일을 금지시켰다.	영조 46년 1월 4일
정조실록	1787	“울산(蔚山)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복(魚鱓)·향죽(香竹)을 채취하였는데, 삼척(三陟)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防禁)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兵營)의 채복 공문(採鯪公文)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 그 병사(兵使)와 부사(府使)를 감죄(勘罪)해야 하겠습니까.”	정조 11년 7월 25일 울산의 해척 울릉도에서 어복채취 (5월에 라 페루즈 탐험대 울릉도 발견)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정조실록	1787	“삼화(蔘貨)가 흘러 들어가는 데에는 따로 열린 길이 있는 듯합니다. 울릉도(鬱陵島)의 삼이 혹 흘러 들어가는 폐단이 있다 합니다.”	정조 11년 9월 30일 울릉도 삼화(蔘貨)
정조실록	1794	울릉도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정식(定式)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토관 월송 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정조 18년 6월 3일 한창국(韓昌國)의 울릉도 수토결과
정조실록	1795	이조 판서 윤시동(尹誓東)이 아뢰기를, “울릉도는 본래 산삼(山蔘)이 생산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한 해 걸러 산삼을 찾는 일이 늘 3,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캐낼 절기가 아니라서 번번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곤 합니다. 내의원의 의원들 모두 그 산삼의 품질이 매우 좋다고 말하는 만큼…”	정조 19년 6월 4일 울릉도의 산삼 채취시기를 앞당길 것을 아뢰다
정조실록	1799	“금년에 울릉도(鬱陵島)를 수색하는 것은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할 차례인데, 채삼 절목(採蔘節目) 가운데에는 단지 ‘영장(營將)이 갈 때에 채삼군(採蔘軍)을 들여 보낸다.’는 말만 있고, 만호가 갈 경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편리하게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조 23년 3월 18일 울릉도 채삼(採蔘)
순조실록	1804	심지어는 「고백령(古白翎)과 울릉도에서 병기(兵器)를 만들고 군량(軍糧)을 쌓아 둔다」는 설과 상소에 가탁하여 양서(兩西)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순조 4년 9월 5일 대역죄인 추국(推鞠)
철종실록	1852	“영양현(英陽縣)에 거주하는 정우룡(鄭禹龍)과 그의 아들 정자성(鄭自性) … 등이 작당(作黨)하여 …인심을 선동하고… 또 울릉도(鬱陵島)의 도적들과 이달 초10일에 모이기로 기약하였다고 하였으니…”	철종 3년 7월 11일 정우룡·이상우 등을 잡아 문초

다섯째, 고종대 울릉도 관련자료.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81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 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	고종18년 5월 22일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
고종실록	1882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 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陞)를 하였기 때문이다.	고종 19년 4월 7일 검찰사 이규원 소견
고종실록	1882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 을 소견 (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고종 19년 6월 5일 검찰사 이규원 복명하다
고종실록	1882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계청 (啓請)한 일에 대하여, … 일본인 들이 이 섬에 들어다 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 는 내용으로 …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19년 6월 16일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벌목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고종실록	1882	홍순목 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검찰사(檢察使)가 복명(復命)할 때 … 땅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우선 백성들을 모집하여 개간하게 해서 5년 후에 조세를 물리면 절로 점차 취락(聚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종 19년 8월 20일 울릉도 개간(開墾)을 윤허하다
고종실록	1884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金玉균(金玉 均) 의 장계(狀啓)를 보니,	고종 24년 1월 11일 울릉도 도장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토록 하다
고종실록	1884	“울릉도(鬱陵島) 를 앞으로 개척하게 되는데 … 직명 (職名)은 울릉도 첨사(鬱陵島僉使) 겸 삼척 영장(三陟營 將)으로 …하소서.”	고종 24년 3월 15일 울릉도에 첨사를 두다
고종실록	1884	“평해 군수(平海郡守)를 겸 울릉도 첨사(兼鬱陵島僉使) 로 하비(下批)하도록…”	고종 21년 6월 30일 평해 군수 울릉도 첨사 겸직
고종실록	1884	울릉도에 관하여 이경렬이 상소하다	고종 21년 8월 26일
고종실록	1888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평해군(平海郡)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의 자리를 만들어 해당 도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함으로써, 왕래 하며 검찰(檢察)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25년 2월 6일 월송진만호에게 도장을 겸임시키고 검찰하도록 하다
고종실록	1890	“울릉도(鬱陵島)로 말하면 더욱 멀고 궁벽한 곳이어서 외국 사람들이 서로 몰래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있다. …내려가거는 검찰하고 신칙하여 종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라.”	고종 27년 윤2월 18일 강원감사에게 울릉도를 검찰하고 신칙하게 하다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94	1. 울릉도(鬱陵島)는 지금 이미 개척되었는데 좌수영(左水營)에서 동쪽 바닷가 각 읍에 배정하여 삼척(三陟) 월송진(越松鎭)에 이속하는 것은 심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수토하는 선격과 집물을 이제부터 영영 없애라고 경상도와 강원도(江原道)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종 32년 12월 27일 강원도와 경상도에 울릉도 수토 선격과 집물을 폐지토록 함
고종실록	1895	“ 울릉도(鬱陵島) 를 수토(搜討)하는 규례를 이제 영구히 혁파하였으니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도장(島長)을 별도로 감당할 만한 1인을 택하여 도장으로 차정(差定)하여 도민 사무(島民事務)를 관령(管領)하게 하고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도민의 질병(疾苦)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32년 1월 29일 울릉도에 특별히 도장을 두다
고종실록	1895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 ‘울릉도(鬱陵島)에 도감(島監)을 두는 안건’ 상주(上奏)	고종 33년(건양 1년) 8월 16일
고종실록	1898	칙령(勅令)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고종 35년(광무 2년) 5월 26일 울릉도 도감 설치
고종실록	1899	“시찰 위원을 임용하여 해도(該島)에 가서 일체 정형을 자세히 조사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안착시키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36년(광무 3년) 12월 15일 울릉도 시찰논의
고종실록	1900	칙령 제41호, <강원도 의 울릉도 를 울릉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 [江原道鬱陵島以鬱島郡改稱島監以郡守改正件] > 을 ... 반포(頒布)하였다.	고종 37년(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41호, 울도군 설치의 건 반포
고종실록	1904	칙선서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보내고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였다. <칙선서(勅宣書)> 1. 이전에 한국(韓國) 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일체 폐기하고 전혀 시행하지 말 것이다. ...	고종 41년(광무 8년) 5월 18일 황제의 칙선서 반포 (러시아인의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벌목 특허를 폐지하다)

II.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학술적 논의

1. 도서연구에 대한 지리학적 논의

울릉도와 독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Royle(2001)의 “섬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섬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는 해양개발의 전초기지이고 관광·여가의 최적지이며, 국가안전 보장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는 국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를 확대시키는 지역으로 생산공간은 물론 생활공간을 유지 내지는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간이다.”²³⁾

1) 섬의 지리학

섬의 가장 두드러진 지리학적 특징은 고립성이다. 섬의 고립적 특성은 주변성, 자원성, 무기력함 등과 관련이 되며, 섬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은 섬의 사회적 특징, 특히 인구이동 등에서 특별한 유형을 보이게 된다.

가. 고립성

섬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생물종들은 육지와 연결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생물종의 수에 제한이 있고, 지역의 고립된 환경에 적응한 특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섬의 크기가 작을수록, 섬의 고립정도가 클수록 특

23) 김영성, 2004, “도서지역의 인구변동,” 지리학연구, 38(3), pp. 207-240.

산중이 발달하며, 또한 이들 특산종들은 종의 개체수가 크지 않을 경우, 환경변화에 취약해지기 쉽다.²⁴⁾

섬은 만조시에 물로 둘러싸인 육지지역으로서, 이동을 위해서는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제약요소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섬의 교통은 선박운항시간에 맞춰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형태의 통행료, 부두시설이용료 등 교통관련 부가적인 비용 외에도 날씨에 따른 지연비용 등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작은 섬의 경우에는 이용수요가 작아서 일반 항로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²⁵⁾

섬으로의 여행은 뜻하지 않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²⁶⁾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격포사이를 오가던 '서해페리호'가 침몰하여 주말을 맞은 관광객, 지역주민, 선원 등 292명이 사망하였다.²⁷⁾ 또한 날씨가 맑은 날아도 외해에는 큰 파도가 쳐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섬의 교통은 여전히 날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엄격한 시간을 따르는 현대의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서 생산활동을 하기 힘들고, 시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산업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울릉도에서 오징어어업이 주가 되었던 이유도 울릉도 어장에서 다른 어종의 경우 활어나 선어로 공급하는데 따른 비용, 운항시간, 날씨 등의 제약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24) Royle, 2001, *A geography of Island*, Routledge, pp. 33-38.

25) Idid. pp. 43-45.

26) Ibid. p. 45.

27) 10월 10일(일) 오전 9시 4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 파장금함을 떠나 부안군 격포항으로 향하던 110톤급 철선인 '서해페리호'가 심한 풍랑으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위도로 회항하려고 하던 중, 선수를 돌리는 순간 선체가 심한 너울파도에 맞아 승객과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북 침몰하여 승선원 362명(승객 355, 선원 7) 중 29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구조된 사고이다. 격포항에서 위도까지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40분 정도 소요된다.(해양경찰청, 2003, 해양경찰 魂 정립에 관한 연구, p. 5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

나. 주변성

섬의 고립성이 갖는 문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섬들을 주변화한다는 점이다. 섬은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도(首都)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중세로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성장했고, 남미 적도기니의 수도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방어에 유리하였기 때문에 본토에서 떨어진 섬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수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주변성(peripherality)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이 유발하는 문제는 절대적이다.²⁸⁾

다. 자원으로써 고립

고립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도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고립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가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휴가를 즐기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르몬교도들이나 독일의 Amana 그룹은 종교적 이유로 스스로 고립된 지역을 찾아간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주지로 섬이 선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북동부 잉글랜드의 Holy Island, 스코틀랜드 Aran에서 떨어져 있는 Holy Island,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Mont St. Michel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²⁹⁾

섬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랍인들과 유럽인들이 동부아프리카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탄자니아의 잔지바르(Zanzibar) 섬에 먼저 자리를

28) Ibid.

29) Ibid., p. 49.

잡았다. 이와는 좀 다른 이유이지만 미국은 이민자들을 뉴욕항의 엘리스 섬(Ellis Island)에 수용한 후 질병유무를 확인한 후에 이민을 허용했다.³⁰⁾

섬은 또한 감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수감생활을 했던 감옥은 케이프타운에서 11km 떨어진 Robben Island 였다.³¹⁾ 영화 더락(the Rock)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섬(Alcatraz Island)도 빠져나오기 힘든 감옥이었다. 나폴레옹의 유배지가 엘바 섬이나 세인트헬레나섬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섬은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섬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2차대전 때 남태평양 섬들은 항공기에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활주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주로는 먼저 일본이 건설하였고, 미국의 핵폭탄폭격기도 탈취한 섬에서 이륙하여 일본본토를 공격하였다. 장거리 항공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 전략적 위치를 차지했던 섬들 중에는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가 많으며, 군사시설들도 폐쇄되었다.³²⁾

하지만 이차대전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태평양의 북부 마리아나(Northern Mariana)와 정치적으로 분리된 괌섬(Guam Island)을 군사기지로 사용함으로써 오키나와와 같이 외국에 군사기지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전략적 목적으로 마셜제도(Marshall Islands)의 크와젤렌 환초(Kwajelen Atoll)를 미사일 실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양에서는 영국령 인도양(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의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를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를 위해 섬 주민들을 쫓아냈다. 이는 식민지 강대국들이 섬과 섬주민들의 악용한 사례이다. 대서양에서 영국은 어센션섬(Ascension Island)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포클랜드 전쟁의 전초기지로 이용하였다. 어센션섬은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는 섬으로서 1815년 인근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된 나폴레옹을 프랑스인

30) Ibid., pp. 49-50.

31) Ibid., pp. 50-51.

32) Ibid., p. 52.

들이 구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영국은 기지를 건립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영국의 서아프리카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노예선들을 나포하기 위해 기지를 설치하였다. 1899년에는 대서양횡단 전신선의 경유지로서 이용되었고, 1942년에는 미국에 의해 아프리카로 인력과 물자 수송을 위한 활주로가 건설되었으며, 1950년대부터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적기지로, 1960년대는 방송기지로 사용되었다. 1969년 달 착륙시에는 로켓추적 기지로 사용되었고,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발사된 아리안 로켓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³³⁾

섬의 고립성을 또 다른 격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이용하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유럽에 있던 신경가스정장시설을 미국이 태평양에 소유한 Johnston Atoll로 이전하였으며, 여기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이 환초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비밀기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1962년에는 핵무기 대기실험이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즈 제도(Hebrides Islands)의 Gruinard 섬에서 탄저균의 환경영향을 실험하기도 했다.³⁴⁾

핵무기실험 이야기에는 섬과 섬주민들이 보다 강력한 행위자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섬을 악용하는데서 오는 섬의 고립성과 함께 무력감을 보여준다. 비키니섬에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66번의 핵실험이 있었으며, 인근 Enewetok에서는 1개의 환초가 핵실험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태평양에서 영국과 프랑스도 유사한 핵실험을 행하였다.³⁵⁾

라. 섬의 무기력과 부족한 자원

33) Ibid., pp. 52-53.

34) Ibid., pp. 53-55.

35) Ibid., pp. 55-56.

소도(小島)는 힘이 없는 지역이다. 육지에 대해 한 때는 지배적인 역할을 했던 섬도 지위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Zanzibar) 섬도 육지 수도(首都)의 지배를 받는 외해지역이 되어버렸다. 모든 섬들은 강력한 외부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수적인 지위에 있어왔다. 모든 섬들은 계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³⁶⁾

소도는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나우루(Nauru)는 인산염산을 가지고 있어서 한 때 매우 부유했고, 대신에 나우루섬은 황폐화되었다. 섬의 제약은 규모와 위치에 따른 문제이다. 섬의 작은 면적은 필연적으로 자원을 제약한다. 또한 섬에서는 자원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상품생산에 거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장상황이 변하면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바구니를 떨어뜨린 것처럼 타격을 입게 된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어려운 환경하에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은 경제의 변화에 심각하게 반응하게 된다.³⁷⁾

섬에서 부족한 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물이다. 특히 산호섬의 경우에는 담수층의 규모가 작아서 물 부족에 심하게 시달린다. 산호섬이 아닌 경우에도 작은 섬들은 강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다.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 경제의 활성화가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다.³⁸⁾

마. 도서의 인구변화

김영성(2004)은 경제적 이유와 제도적인 이유에서 조선후기에 도서이주

36) Ibid., p. 57.

37) Ibid. p. 60.

38) Ibid. pp. 62-65.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

“조선시대에는 도서의 이주에 대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면서 육지주민은 섬으로 유입하였다. 유입동기는 경제적 이유로 소금생산, 해초채취 및 농경상의 이익 등이었다. 부가하여 정부로부터 조세, 부역 및 병역 등과 같은 각종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³⁹⁾

“입도민은 주로 왜란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리된 집단으로 17~18 세기에 집중적으로 (섬으로) 이주 정착하였으며, 전출지는 주로 도서에 인접한 육지의 해안지역이었다”⁴⁰⁾

그러나 도서지역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외부환경의 영향에 따라 인구변동이 심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도서의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서가 갖는 제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조선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하는 형태인 비거주, 주기적 자원이용은 쇠퇴정책이나 수토정책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영역성(Territoriality)과 생활공간(Lebensraum)

영역(territory)은 하나의 생명체 혹은 집단이 생존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지칭한다. 이 공간은 생존에 필요한 먹이(또는 식량)를 획득하는 공간이며, 2세를 양육하는 공간이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공간이다. 또한 영역이란 어떤 공간에 대해 점유자의 배타적 권리가 적용되

39) 김영성, op cit., p. 228.

40) Ibid. p. 229.

는 특별한 공간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에 이 영역을 영토라고 부른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나타나는 특성들을 영역성(territoriality)라고 부른다. Sack(1986)은 이러한 영역성을 만들어내는 10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 요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적 상황들을 설명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10가지 요소는 지역에 의한 분류(classification), 경계(the boundary), 통제(control), 권력의 구체화(reifying), 통제자와 통제대상 간 관계의 우회(displacement)⁴¹⁾, 영역성을 통해 관계의 비개인화(impersonalization), 장소 제거기능(place-clearing function), 사회적으로 비울 수 있는 장소(emptyable place) 만들기, 그리고 영역성에 의한 공간 채우기(space-filling) 등을 제시한다. 이들중 지역에 의한 분류, 경계, 통제는 모든 영역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⁴²⁾

라첼(Ratzel)은 독일의 팽창주의적 정책에 이론적 논거를 제공하였다. 그는 생활공간(Lebensraum)의 개념에 입각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경우 국가의 팽창주의를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받아들였다.⁴³⁾ 그는 1876년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을 통해 환경결정론적 입장에서 “국가건설을 진화적 필요성에서 파악하였으며, 정치적 단위의 성장을 유기체 성장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⁴⁴⁾

그의 국가유기체론은 국가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탄생·성장·사멸하며, 국가는 생활공간을 획득하기 위해 영구적인 투쟁을 지속하고,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른다고 보았다. 라첼은 유기체로서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내의 장애물 제거, 국경선 개선, 인접 토지 정복, 그리고 식민지 개척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첼은 1876년 “공간확장법칙(the law of spatial expansion)”을 제시하

41) 영역행동을 통한 통제.

42) Robert David Sack, 1986, *Human Territoriality*, Cambridge Univ. Press, pp. 31-34.

43) 권용우·안영진, 2001, op cit.

44) Ibid. p. 128.

였다.⁴⁵⁾

- “① 국가의 규모는 문화와 더불어 성장한다.
- ② 국가의 성장은 국민성장의 다른 표현이다. 그 국민은 국가의 성장을 선행한다.
- ③ 국가의 성장은 보다 작은 국가들을 집합체 속으로 병합하여 진행된다. 동시에 토지에 대한 그 국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된다.
- ④ 경계선은 국가의 주변기관이고 경계선의 요새화는 물론 그 경계선 성장의 담당자이며 그 국가 유기체의 모든 변형에 참여한다.
- ⑤ 그 성장과정에서의 국가는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위치를 완전 장악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국가의 공간성장에서 최초의 자극은 외부로부터 온다.
- ⑦ 영토병합과 융합을 향한 일반적 경향은 국가에서 국가로 이전되고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19세기말 식민지 제국주의는 자국의 국민이 점유한 토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약소국들은 병합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으며, 강대국 또한 다른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넓은 영토를 필요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의 경계선을 강화하고 요새화는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위치를 완전 장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라첼의 이러한 주장은 19세기 서구열강의 식민지 쟁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침탈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강력한 인접국가들의 제한이 없으면” 국가는 팽창하려 한다는 사실은 우산국이 오랫동안 독립적인 정치단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울릉도를 중심으로

45) 전용, 1997, “지정학의 기원과 발전과정,” 홍익대 인문과학 5, pp. 211-231.

자연스럽게 더 넓은 영역, 특히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서 독도를 자신의 생활공간(Lebensraum)으로 확보했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생물학적 영역확장의 개념에 기초한 라첼의 생활공간 개념은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우리의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생활양식(genres de vie)

프랑스의 지리학자 비달(Paul Henri Vidal de la Blache, 1845-1918)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생물지리학적, 생태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라첼의 관점과는 다르게,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사회와 지역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비달은 자연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현상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19세기 프랑스의 동·식물 생태는 인간이 수세기 동안 전혀 거주하지 않았던 국가의 동·식물 생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문화경관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⁶⁾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비달은 생활양식(genres de vie)론을 주장하였다. “생활양식이란 각 공동체가 우세한 자연조건에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며, 그 적응의 결과가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지역 또는 거의 유사한 자연조건을 가진 지역에 비해서도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하는 적응방식”을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과 사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국지적 생활양식은 장소, 즉 통일된 지역(unite terrestre)을 형성한다.⁴⁷⁾

비달은 역사의 창조자로서 인간이 자연의 가능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그 생태적 조건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았다.⁴⁸⁾

46) 권용우·안영진, 2001, op cit. p. 138.

47) Ibid.

과거 우리 역사에서 울릉도의 이용은 울릉도와 가까운 동해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려때 남해에서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목재를 울릉도에서 벌채해오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전라도의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조선(造船)·어채(魚採)에 종사하였다. 전라도 어민들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울릉도와 독도와의 원거리를 극복하고 양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오랫동안 형성된 전라도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이용은 중앙정부와 동해안의 과거 우산도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도인식을 갖게 하였고, 그 인식의 결과가 울릉도 해역의 독섬(돌섬, 石島)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일 수 있다. 즉 石島나 獨島라는 지명은 전라도 어민들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전라도 연안과 울릉도·독도를 연결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자신들의 생활권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제4장 참조).

48) Ibid. 139.

2.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 논의

한국산악회 65명의 학술조사단이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1947년 8월 약 2주일 동안 울릉도와 독도 조사에 나서 섬의 크기와 높이를 실측하고 동식물을 채집함으로써 해방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지리학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은 1971년 김도정이 울릉도 종합학술조사에 참여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김도정은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지리에 대해 조사하였다.⁵⁰⁾

김도정으로부터 시작된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지리 조사는 울릉도와 독도연구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지형분야는 현재까지 지리학자들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다. 1977년 지리학과가 중심이 된 경북대 학술조사단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⁵¹⁾ 1981년에는 "한국자연보호협회"가 주관한 조사에 박동원·박승필이 참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에 대해 조사하였다.⁵²⁾ 이후의 지형에 관한 연구로는 1984년 고의장의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경관에 관한 비교연구"⁵³⁾, 1996년 김우관의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⁵⁴⁾, 1997년 박희도의 "울릉도의 자연지리"⁵⁵⁾, 2006년 전영권의 "독도의 지형지"⁵⁶⁾, 황상일·박경근의 독도의 타포니 지형연구⁵⁷⁾ 등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연구에 있어서 지형연구 분야가 확립되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연구는 1977년 장보웅의 울릉도 투

49) 신석호, 1965, "독도의 내력," 독도, 대한공론사.

50) 김도정, 1971, "울릉도의 자연지리," 울릉도종합학술보고서, 문화재관리국, pp 15-26.

51) 鬱陵島·獨島踏查紀要編輯委員會 編, 1977, 鬱陵島·獨島踏查紀要, 경북대.

52) 박동원, 박승필, 1981.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한국자연보호협회 조사보고서. 제19 호, pp. 38-59.

53) 고의장, 1984,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경관에 관한 비교연구," 지리학연구 9, pp. 481-506.

54) 김우관, 1996,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자연실태종합학술조사보고서 제10집, 자연보호중앙협의회.

55) 박희도, 1997, "울릉도의 자연지리," 지리학연구 31, pp. 27-40.

56) 전영권, 2005, "독도의 지형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pp. 19-28.

57) 황상일·박경근, 2007, "독도 동도 서쪽 해안의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pp. 422-437.

방집 연구⁵⁸⁾, 2001년 오남현의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연구⁵⁹⁾ 등이 있으며, 『울릉군지』를 비롯한 지지 편찬사업에 지리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지리학계에서도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6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촉발된 한일간의 독도논쟁이 시모조 마사오와 김병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독도연구자들의 독도연구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육사의 김두일(1966)은 독도의 지리적 특성과 지정학적 성격을 고찰하고 정치·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⁶⁰⁾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 정부는 동해의 지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해 대한지리학회는 동해지명에 관한 지리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동해연구가 시작되었다. 1994년 이기석은 근대 일본이 원래 서구에 우리바다로 인식되어온 동해의 지명을 일본해(Sea of Japan)로 바꾼 부당성을 시정하고, “일본해의 독도가 아닌 동해의 독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해연구회”를 설립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동해연구소”는 매년 세계적인 지리학자들이 참여하는 동해지명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동해를 알리고, 유엔지명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동을 걸고 우리의 입장을 세계에 명확하게 밝히는 등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East Sea”를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해 지명 찾기는 서양의 지도에 나타난 독도표기 뿐만 아니라 해저지형 및 해양관련 용어에서 일본식 표기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리지식의 오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⁶¹⁾

58) 장보용, 1977,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집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2(2), pp. 25-34.

59) 오남현, 2001,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pp. 14-28.

60) 김두일, 1966, “지정학적으로 본 독도,” 한국군사, 3, pp. 10-22.

일본해의 부당성을 독도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는 고지도 부분이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인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고지도, 특히 조선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우산도의 위치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는 한국이 독도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은 조선후기 독도관련 일본 지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주로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관련 고지도 연구에 대하여 역사지리학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관련 고지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되었다.⁶²⁾ 고지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산도의 위치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들어있는 「동람도」의 우산도 위치는 강원도와 울릉도 사이에 우산도가 표기되어 있고, 대축척 지도인 군현지도의 경우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에 가깝게 그려진 경우가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일관된 지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측량지도가 아닌 편집지도의 성격이 강한 조선시대 고지도의 경우에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오상학(2006)은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박석창의 수도지도에서 “소위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우산도를 울릉도에 가깝게 그린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도의 여백이 부족한 경우에 섬의 위치는 실제의 위치가 아닌 곳에 표현되는 특징 등 당시 취약한 지도제작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세 일본이 내세우는 동해에서 죽도와 송도 표기 지도의 오류는 근대적 측량이 도입되었음에도 측량이 정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울릉도와 독도관련 한

61) 이기석, 2008, “동해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pp. 307-334.

62) 김지영, 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 pp. 7-46;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pp. 78-101; 김기혁·오상학·이기봉, 2007, 울릉도·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의 고지도가 사실성 보다는 상징성과 인식여부를 표현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지도 연구는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지명연구를 포함하거나(양보경, 2005), 별도의 고지명 연구⁶³⁾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보경(2005)은 독도관련 지명인 우산도(于山島)가 간산도(干山島),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등 지도제작과정에서 바뀐 사례를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김기혁·이용출(2006)은 울릉도 지도에 나타나는 상세지명을 수도지명에서부터 일제시대까지 지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울릉도의 상세지명은 수도활동이 강화되면서 점차 증가하며, 개척이후에는 더욱 증가하면서 지형위주의 지명에서 취락위주의 지명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독도에 대한 지리학회 차원의 노력은 2005년 일본의 '죽도의 날'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독도의 지정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형기주의 "독도 영유권 시비와 지정학," 양보경의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이기석의 "동해 및 독도의 지명표기와 향후 과제"와 함께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현철의 "독도 주변해역의 해저지형 특성 및 해산의 내부구조" 등이었다. 여기에는 지리학분야 김기혁, 이강원, 이혜은의 토의논문과 국제법 분야의 한국외대 이장희, 조선일보 김창균의 토의논문이 실려있다.⁶⁴⁾

손용택(2005)은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리교육 분야에서 독도문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⁶⁵⁾ 정광중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 나타난 지리정보 연구"에서 그간 역사학 분야에서 사료로서만 다루어진 『울릉도 검찰일기』를 울릉도의 지리적 사실과

63) 김기혁·이용출, 2006, "조선-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pp. 38-62.

64) 대한지리학회, 2005, 독도의 지정학,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65) 손용택, 2005,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 실태와 대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pp. 363-373.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김찰일기를 지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지리학자들이 독도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특성』 연구에는 김주환, 박수진, 공우석, 서태열, 양보경이 참여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 자연환경, 인문환경, 고지도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⁶⁶⁾ 김기혁·이용출은 울릉도와 독도관련 역사지리 사료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⁶⁷⁾ 이혜은은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김찰일기』” 연구에서 김찰일기의 내용을 울릉도 답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김찰일기』의 원본 사진을 첨부하고, 새롭게 탈초 작업과 함께 정확한 번역을 시도하였다.⁶⁸⁾ 백인기·심문보는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문제와 동해 해류 및 울릉도와 독도 근해 해류의 특성을 연구하였다.⁶⁹⁾

2007년에는 김기혁·오상학·이기봉이 『울릉도·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관련 고지도 자료를 정리하고, 각각의 고지도에 대해 해제하였다.⁷⁰⁾ 김주환 등은 울릉도·독도 사진 자료집의 발간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사진을 통해 알리고, 기존 울릉도와 독도 관련 주요 사진자료집에 대해 정리하였다.⁷¹⁾ 공우석은 동해의 한국과 일본의 섬들을 식물지리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⁷²⁾

66) 김주환 외저, 2006, 울릉도 및 독도의 지리적 특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7) 김기혁·이용출, 2006,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8)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9) 백인기·심문보, 2006,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0) 김기혁·오상학·이기봉, 2007, 울릉도·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1) 김주환·김종권·홍충렬, 2007, 울릉도·독도 사진 자료집 : 자연·인문지리 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 공우석, 2007, 동해상 한국령 도서와 일본령 도서의 식물지리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비지리학 분야의 논의

일본이 시마네현이 2005년 ‘죽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독도영유권을 대대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하자, 국내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크게 증대하였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자 일본 외무성은 공식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제기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시대별 쟁점과 연구동향의 심도있는 정리를 시도하였다.⁷³⁾ 여기서는 이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독도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에 대하여 1952년 1월 28일 일본외무성의 한국의 독도영유권 불인정 구술서를 보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53년부터 1962년까지 한일 양국정부간의 왕복 구술서를 통한 일본 4회·한국 3회에 걸친 ‘정부견해’ 공방⁷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66)의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와 이한기(1969)의 『한국의 영토』· 박관숙(1969)의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논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1977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제기된 독도문제에 대응하

73) 구선화·조명철, 2006,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철호, 2006, 명치시대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엄찬호·신동규, 2006, 전근대기 및 개화기 독도의 연구성과와 쟁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韓國史學報 28, pp. 353-383; 조명철, 2007,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일본의 대독도 방침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9, pp. 251-283; 한철호, 2007, “明治時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韓國史學報 28, 319-352; ;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대사연구 40, pp. 200-221; 엄찬호, 2007, “개화기 독도의 연구 성과와 쟁점,” 한국사학보 제28호, pp. 287-318; 신동규, 2007, “근세시기(朝鮮後期江戶時代) 韓·日 獨島 연구의 쟁점과 문제점 고찰,” 한국사학보 제28호, pp. 245-286; 허영란, 2008, “독도 영유권 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 이화사학연구 36, 101-132,

74) 신용하, 1999, 독도영유권 자료탐구 제2권·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가 참여하여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로 나왔고, 이로부터 7년 후인 1985년에 다른 연구논문들을 포함하여 『독도연구』로 출간되었다. 『독도연구』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역사학 분야의 송병기·신용하·양태진·임영정 등과 국제법분야의 이상면 등이 독도연구의 주축을 이루었다. 1982년 일본교과서 문제를 통해 독도문제가 다시 한일간의 주요쟁점으로 부각하고 이들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라 1996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일본은 다시 독도문제를 쟁점화 하였다. 이 당시 가와카미의 논리를 더욱 일본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주장하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와 국제법학자인 김병렬 간의 논쟁이 여러차례 지속되었다. 시모조는 지속적으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에 관한 저술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촉발된 한일간의 독도논쟁은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다. 국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독도연구센터가 설립되고, 교육과학부 산하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면서,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각 대학에 독도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들이 설립되었고, 관할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울릉도는 독도사업관련 전담팀을 두고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시모조(下條正男)는 2006년 일본 시마네현의 지원을 받는 “다케시마연구회” 좌장을 맡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독도영유권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일본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66)의 연구에 필적할 만한 연구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허영란(2008)은 독도영유권 관련 쟁점들이 이미 1952~1962년 사이 정부견해를 둘러싼 논쟁과 가와카미(1966)의 연구를 둘러

싼 논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드러났으며, 그 이후 큰 진전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와 같은 새로운 사료가 발굴됨으로써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가와카미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山邊健太郎의 비판(1965)이나 최근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의 안용복 관련 연구나, 호리 가즈오(池内敏)의 도해면허 연구 등 일본내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4. 소결: 지리학적 연구의 필요성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왔으며, 지리학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영유권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지리학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생활공간(Lebensraum), 지리적 인지(geographical perception), 생활양식(genre de vie), 자원론, 경제지리, 중심지이론 등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의 지리학적 연구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섬이다. 섬은 육지와는 다른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섬의 주민들은 바다를 인식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해양공간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변의 섬과 육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해양을 통해 연결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적으로 통합된 공간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 우산국이라는 독립적인 정치집단의 영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 생활양식을 통해 형성된 울릉도·독도와 전라도 남해안 어민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산국 복속의 역사적 사실은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우산국이 주변 해역에 있는 독도와 밀접한 관계만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지리학에서는 일찍이 라첼의 생활공간론과 국가유기체론에 입각해서 국가는 공간적으로 팽창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팽창의 결과로 우산국과 신라는 상호 충돌하게 되고, 결국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하게 된다.

또한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이란 거주자에게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자기 세계의 지리적 끝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은 자신의 지역을 확대하였고, 결국은 전지구적인 탐험을 통해 지구의 모습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이 미소한 세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지리적 호기심이 배제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 설정이 울릉도와 독도의 실질적 관계에 대한 사실 규명에 장애가 되어 왔다. 지리학적 지식의 부재, 지리학적 상상력이 배제된 인식은 소모적인 논쟁을 가속화시킨다.

조선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을 보고한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의 항해일지의 기록이나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 기록된 100여 명에 이르는 전라도 남해안 사람들의 조선(造船)과 어채(魚採) 활동 기록, 안용복의 최초 울릉도 도항시 언급된 다수의 전복 채취자들의 사례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기록한 포항시 장기면 사람들의 울릉도 대나무 채취와 강진어부들의 울릉도 어채(魚採)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사적 울릉도 영유사실이 보다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밝히기 위해서는 지리학에서 일반화된 개념들을 통해 독도영유권 관련 쟁점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의 출발점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

치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쇄환정책과 수토정책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한 조선정부의 통치행위와 그러한 틀 속에서 매년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한 동해안과 남해안의 어부들의 자원이용 행태는 영토와 생활권의 관점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도연구를 위해서는 지리학적으로 유용한 개념들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의 사실을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I. 생활공간(Lebensraum)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1. 독립적인 정치단위와 영역

1) 우산국과 이사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강역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울릉도가 신라 지증왕 때에는 신라의 강역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울릉도가 우리민족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울릉도를 신라의 강토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근거로 한 국가인 우산국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가로서 우산국은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우산국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을 것이고, 힘이 닿는다면 이를 더욱 확장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산국의 영토가 독도까지 확장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독도는 우산국의 중요한 영토의 하나로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국가로서 우산국의 존재는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라첼은 생물학적 유추와 생활공간(Lebensraum)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가 보다 강력한 인접 국가들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팽창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국가유기체론을 주장하였다.⁷⁵⁾ 우산국이 울릉도를 근거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산국의 영역확장은 영역을 확장 중에 있던 신라와 결

75) 권용우·안영진, 2001, op. cit., pp. 99-100.

국 서로 충돌하게 된다. 즉 신라의 우산국 정벌은 서로 영역을 확장하던 두 국가 사이에 영역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산국의 존재는 울릉도와 그 주변해역에 있는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외부 세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너머까지를 포함하는 국가영역, 하나의 생활공간을 형성했다는 증거가 된다.

울릉도가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년) 때이다.⁷⁶⁾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鬱陵島)에 자리잡고 있던 우산국(于山國)에 배를 타고가 계교로써 정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다시 삼국사기 열전(列傳)에도 실려 있으며, 열전에서는 이사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⁷⁷⁾ 이사부는 울릉도를 정벌하기에 앞서 가야국을 마희(馬戲)로써 속여 취하였다고 한다. 이때 취한 가야국이 어디 인지는 알 수 없다. 이사부는 아슬라주의 군주(軍主)가 되기 전인 지증왕 6년(505년) 실직주(悉直州)⁷⁸⁾의 군주(軍主)가 되는데 군주라는 직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때 신라에서는 배의 이점을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⁷⁹⁾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이시기에는 신라가 본격적으로 해상으로 진출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사부는

76) 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浪異斯夫 爲阿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三國史記 新羅本紀 智證王 13年(壬辰, 서기512년))

77) 異斯夫 或云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 國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謀并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降 眞興王在位十一年 大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大勝 (三國史記 卷 第四十四 列傳 第四 異斯夫).

78) “실직곡국(悉直谷國)은 본서(삼국사기-인용자) 권35 잡지 지리(2)에 '陟郡은 본래 悉直國이었는데 파사왕 때 신라에 항복했다' 고 한다. 그러므로 실직곡국은 현재의 강원도 삼척시에 있던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직곡국을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던 소국으로 파악하기도 한다(申滢植, 1975, “新羅軍主考“, 白山學報 19, p. 68).” (동방미디어 삼국사기 주석).

79) 六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冬十一月 始命所司藏冰 又制舟楫之利(三國史記 卷 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六年(서기 505년)).

신라 지증왕으로부터 진흥왕 때에 이르기까지 매우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의 면모를 지녔다. 신라는 이러한 이사부를 내세워 울릉도를 뛰어난 전략을 사용하여 복속시킬 수 있었다.

울릉도에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울릉도를 지방행정 조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독립된 정치단위가 울릉도라는 한정된 영역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주변국인 신라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 패망과 관련된 설화는 울릉도의 활동영역이 대마도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⁰⁾

독립된 정치세력으로서 우산국의 생활권은 울릉도와 독도 너머 훨씬 넓은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도는 울릉도의 영역 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울릉도의 영역인식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강조되어 등장하게 되었으며, 「고려사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

80) 투구봉, 사자바위 전설(울릉군청 홈페이지).

“서면 남양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사자암과 투구봉은 서기 500년 전 울릉도를 우산국이라 부를 때, 우산국의 비화를 담고 있다.

우산국의 우해왕은 대마도에서 풍미녀를 데려와 왕후로 맞고부터는 나라일은 돌보지 않고 풍미녀의 환심을 사기에만 급급하였다. 또 별남이란 딸을 얻고부터는 도가 심해져 갔다. 왕후의 사치를 위해 백성과 신하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신라까지 노략질을 뺏쳤다.

한편 신라백성들은 왕에게 우산국을 토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라왕은 강릉군주 이사부를 보냈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으나 우산국 군선에 패하고 말았다.

이사부는 군사를 재훈련하고 계략을 세워 이듬해 다시 토벌의 길에 올랐다. 이사부가 먼저 항복을 권했지만, 우해왕은 한번 이긴 터라 이를 업신여기고 사자(使者)마저 죽여 싸움을 부추겼다. 이에 신라군은 짜인 전략대로 전투를 이끌었다. 군선의 뱃머리에 목사자부터 일제히 불을 뿜게 하고 또 화살을 쏘게 하며 군선을 몰게 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짐승이 입에서 불을 뿜으며, 신라군사들이 큰소리로 창과 칼을 즉시 거두지 않으면 이 짐승을 풀어 섬사람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자, 우해왕을 축출하고 신라의 속국으로 매년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우해왕이 투구를 벗고 이사부에게 항복했다.

결국 목각사자 때문에 싸움에 지고 만 우산국왕은 ‘내가 죽더라도 그 불사자로 하여금 영원히 우산국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신라 이사부는 우해왕의 소원을 덜어주기 위해 목각사자를 물에 띄웠고, 그 순간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쳐 목각사자와 우해왕이 던진 투구가 돌로 변해서 사자암과 투구봉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지」 등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의 중요한 섬으로 인식한 결과를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려와 울릉도

가. 우산국과 고려

고려가 나라를 건국하고 아직 신라가 멸망(935년)하기 전인 태조 13년(930년) 8월에 울릉도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頭)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을 정위(正位)로 삼고,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⁸¹⁾(“丙午, 芋陵島, 遣白吉·土豆, 貢方物, 拜白吉爲正位, 土豆爲正朝.”).

고려 현종(顯宗) 9년(1018년)에 于山國이 동북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농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농기구 등을 보내주었다. 여진의 침략시에 다수의 우산국주민들이 육지로 피해왔다. 다음해(현종 10년 7월) 섬으로 돌아갈 것을 명(“己卯, 于山國民戶, 曾被女眞虜掠來奔者, 悉令歸之.”)하지만 일부는 계속남아서 현종 13년에는 남아있는 우산국 주민들을 예주(禮州)에서 관리토록 한다.

덕종(德宗) 원년(1032년) 11월에는 우릉성주(羽陵城主)가 그의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郎)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丙子, 羽陵城主, 遣子夫於仍多郎, 來獻土物. 西女眞正朝大浦·古之門等十四人, 來獻土物.”)고 하는데, 그 때 서여진(西女眞)인들도 ‘내헌토물(來獻土物)’ 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우산국에서 우릉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81) 향직(鄉職)의 1품은 삼중대광(三重大匡) 중대광(重大匡)이라 하고 2품은 대광(大匡) 정광(正匡)이라 하고 3품은 대승(大丞) 좌승(佐丞)이라 하고 4품은 대상(大相) 원보(元甫)라 하고 5품은 정보(正甫)라 하고 6품은 원윤(元尹) 좌윤(佐尹)이라 하고 7품은 정조(正朝) 정위(正位)라 하고 8품은 보윤(甫尹)이라 하고 9품은 군윤(軍尹) 중윤(中尹)이라 하였다

一品曰三重大匡·重大匡, 二品曰大匡·正匡, 三品曰大丞·佐丞, 四品曰大相·元甫, 五品曰正甫, 六品曰元尹·佐尹, 七品曰正朝·正位, 八品曰甫尹, 九品曰軍尹·中尹 (高麗史 志 選舉 銓注 鄉職).

있다.

나. 고려의 지방조직으로서 울릉도

그 후 100년만에 나타난 기록에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타난다.

인종(仁宗) 19년(1141년) 7월에는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시켜 울릉도에서 과핵(果核)과 목엽(木葉)이 이상한 것을 취하여 바쳤다고 했다 (“己亥, 溟州道監倉使李陽實, 遣人入蔚陵島, 取菓核木葉異常者, 以獻.”).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의종(毅宗) 11년(1157년) 5월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종이 동해중의 우릉도(羽陵島)가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옛날에 현(顯)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유립을 파견하니, 김유립이 돌아와 살 수 없다고 하므로 논의를 그만두게 했다(丙子, 以朴純, 爲樞密院副使. 王, 聞東海中, 有羽陵島, 地廣土肥, 舊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金柔立, 往視, 柔立回奏, 土多巖石, 民不可居, 遂寢其議.).⁸²⁾

울릉도에 사람을 살게 하는 문제는 명종(明宗) 27년(1197년)에 최충헌이 울릉도의 토지가 비옥하고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이 많아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다가 풍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민호를 돌아오게 했다⁸³⁾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2세기 어떤 사정으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82) 世宗實錄 地理志 江原道 三陟都護府 蔚珍縣 條에는 김유립이 고한 내용이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맷미나리[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83) 增補文獻備考 31 輿地考 19 蔚珍府 于山島 鬱陵島 條.

그러던 중 고종(高宗) 33년(1246년)에는 울릉도(蔚陵島) 안무사(按撫使)를 파견한다(“甲申, 以國學學諭權衡允·及第史挺純, 爲蔚陵島安撫使.”). 이는 울릉도에 사람들이 있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안무사를 파견하는 것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아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던 섬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안무사가 무신(武臣)이 아니라 유학자인 문신(文臣)들이라는 사실은 백성을 보살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종(元宗) 원년(1259년) 7월에는 울진현령 박순(朴淳)이 처와 노비와 가재를 싣고 울릉도로 들어가려다가 성안의 사람에게 발각되어 성에 들어갔다 구금되고 뱃사람들이 배에 실은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庚午, 遣監門衛錄事韓景胤·權知直史館洪貯于日本, 請禁海賊. 北界別抄都領郎將李陽著, 率兵, 將移于椒島, 麾下曰, 請下陸而, 遂殺陽著, 及京兵, 浮海而逃, 蔚珍縣令朴淳, 船載妻·臧獲, 并家財, 將適蔚陵, 城中人知之, 會, 淳入城, 被拘留, 舟人, 以其所載, 遁去.”).

원종 14년(1273년) 2월에는 “첨서(簽書) 추밀원사(樞密院使) 허공(許珙)으로 울릉도 작목사(蔚陵島斫木使)를 삼아서 이추(李樞)와 함께 가게 하였다. 왕이 울릉(蔚陵)의 작목(斫木)을 파(罷)하고 홍다구(洪茶丘) 휘하(麾下) 5백인의 의복(衣服)을 감(減)하고 삼별초(三別抄)를 평정(平定)한 뒤에 제주(濟州) 인물(人物)을 출륙(出陸)하게 하지 말고 구(舊)에 의하여 안업(安業)하게 하기를 주청(奏請)하였더니 제(帝)가 모두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원나라에 항복하고 원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울릉도 별목에 나서게 됐는데, 왕이 원나라 황제에게 이를 파해달라고 주청하고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는 내용이다.⁸⁴⁾

충목왕(忠穆王) 2년(1273년) 3월에는 동계(東界) 우릉인(芋陵人)이 조정에

84)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자원을 침탈하는 대상이 울릉도가 된 것은 19세기말 러시아가 울릉도 별목권을 획득했고, 일본인들은 무단침입과 불법적인 별목을 자행했던 것을 생각해 한다.

들어왔다(“戊申, 東界芋陵島人, 來朝.”). 충목왕 때에는 울릉도가 동계의 하부 지방행정조직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는 여전히 독립성이 어느 정도나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정에서 “우릉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마치 내조하거나 복속해오는 거란인, 여진인과 비슷하게 울릉도인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왕(禡王) 5년(1379년) 7월에는 왜구가 보름 동안 울릉도에 머물다가 갔다(“倭, 寇樂安郡. 遣永寧君王彬, 如北元, 賀郊祀·改元, 前判三司事孫洪亮, 卒, 贈諡靖平. 李子庸, 還自日本, 九州節度使源了俊, 歸被虜人二百三十餘口, 獻槍劍及馬. 倭, 入武陵島, 留半月而去”).

고려사 열전에 신종(神宗)의 후손 중 왕환(王環)은 처제(妻弟) 신순(辛珣)이 신돈(辛旽)에 붙어 복주(伏誅)됨에 연좌되어 1371년 무릉도(武陵島)에 유배되어 존몰(存沒)을 알지 못한 지 19년인데 처 신씨(辛氏)가 왕환(王環)이 표풍(飄風)으로 일본국(日本國)에 이르렀음을 듣고 가노(家奴)를 시켜 회례사(回禮使)를 따라가서 구하기를 네 차례나 하였다. 신창(辛昌) 원년(1389년)에 그 노(奴)가 왕환(王環)이라 일컫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와 친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처가 그를 알아보고 마침내 환의 둘째 아들, 환의 형, 그리고 종실제군이 환(環)인줄 알았다(“環, 封永興君, 妻弟辛珣, 附辛旽伏誅, 緣坐流武陵島, 不知存沒者十九年, 妻辛氏, 聞環飄風至日本國, 請都堂, 私備金銀, 令家奴, 隨回禮使物色求之者數四, 辛昌元年, 其奴以所謂環者來, 爲人形容不類甚癡, 不知祖父名及所居田里, 辛氏從弟前判事克恭, 及其姻親前判開城府事朴天祥·前密直副使朴可興·知密直李崇仁·河崙曰, 吾等識環甚熟, 此實非環也, 辛氏自京山府來見, 喜甚曰, 知夫莫若妻, 遂訟于憲府, 憲府與門下府郎舍·典法司·巡軍雜治, 聚宗室及天祥等對辨, 環二子及兄僧髓·宗室諸君, 皆曰, 眞永興也”).

고려말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폭풍으로 일본으로 표류해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배기간 중인 우왕 5년에

왜구가 울릉도에서 보름이나 머물렀으므로 이 때 끌려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우산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려시대 중엽부터는 우산국이 우릉성으로 변화하고, 다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지역으로 바뀌어 간다. 고려말에 유배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3) 조선초 울릉도 쇄환정책과 삼봉도 탐사

조선이 건국되어 고려말에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여진과 왜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었다. 북방여진에 대한 대책은 세종때 김종서를 보내 육진(六鎭)을 개척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왜구의 문제는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를 정벌하고 왜관을 개설하여 대마도가 공식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울릉도는 고려시대에 여진과 왜구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울릉도는 동해안의 방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을 쇄환하기로 한다. 태종과 세종은 안무사(按撫使)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육지로 쇄환한다.

그러나 성종때에는 울릉도 외에 동해에 삼봉도가 존재한다는 함경도 사람 김자주(金自周) 등의 건의가 있어서 삼봉도를 탐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안무사 파견을 시도한다. 하지만 삼봉도를 찾지 못하였고, 울릉도만 확인하고 돌아온다. 원래 찾고자 한 삼봉도가 우산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울릉도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비옥한 땅으로서 삼봉도 탐색은 우산도를 발견한 사실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우산도를 발견하였더라도 삼봉도라고 보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울릉도를 삼봉도라는 새로운 섬으로 착각한 것일 가능성도 컸

다.85) 함경도 경성 땅에서는 시달거리 밖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절대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함경도민들이 보았다는 삼봉도는 울릉도나 독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울진으로부터 삼봉도 탐색을 떠났다는 것은 울릉도 이외에 존재하는 섬이 울릉도 부근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쇄환정책은 한편으로는 무릉·우산 양도에 도망간 유민들이 숨어사는 문제, 섬에서의 열악한 삶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연안의 민호를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우산국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반역배들이나 왜구의 소굴로 변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나타나 있다.

실제로 조선후기에 정조, 순조, 철종 때 역모 관련사건에서 울릉도는 반역배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을 계획이었다는 내용이 실록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우산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류

1) 동해의 지리

1953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는 세계의 바다를 66개의 해양과 바다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52번째 바다로서 남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 한반도 및 러시아의 연해주와 일본열도,

85)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지명 혼란의 이유로 제시하는 가상의 섬 Argonaut은 울릉도를 다른 섬으로 착각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명치유신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와 교역하던 일본 상인이 울릉도를 동해상의 새로운 섬이니 일본영토에 편입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예도 있었다. 이처럼 울릉도를 새로운 섬으로 인식한 사례가 근세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로 있어서는 우산도를 재발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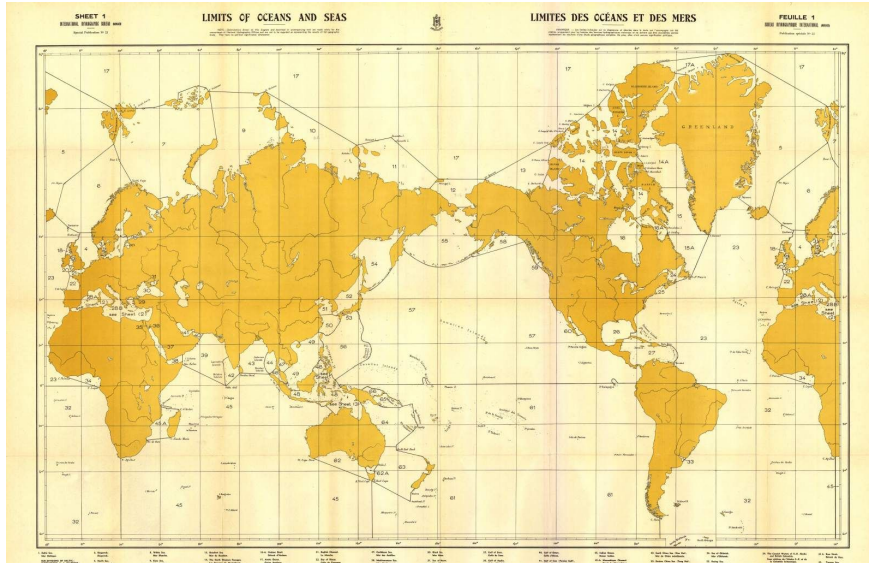
사할린섬으로 둘러싸인 연해(緣海)로 남북의 길이 약 1,700km, 동서의 최대 길이 약 1,110km이며, 넓이는 약 1,007,300km²이다. 동해는 신생대 제3기말에 대단층 운동으로 함몰하여 생성된 해분(海盆)으로 태평양과는 쓰가루해협(津輕海峽), 동중국해와는 대한해협(大韓海峽), 오호츠크해와는 라페루즈해협(일명 宗谷海峽)과 타타르해협을 통하여 연결된다. 동해는 3,000m이상의 심해부(深海部)는 약 30만km²나 되며, 평균수심은 1,68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북동쪽 오구시리섬(塙尻島)부근의 3,762m이다. 대륙붕은 약 21만km²로 전체 넓이의 약 1/5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부보다 서부가 깊고 남부보다 북부가 깊다. 해저지형은 북위 40°선을 기준으로 북부가 단순하고 남부는 복잡하다. 동해의 남부중심에는 울릉도(37° 29'N, 130° 55'E)와 독도(37° 14'N, 131° 52'E)가 있고, 일본측 서남부에는 오키제도가 있다.⁸⁶⁾ 동해의 북쪽 40°N 부근에서는 대한난류와 북한한류가 마주쳐 이른바 조경(潮境)을 이루어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해저곡(海底谷)이 발달한 동한만은 저서어류(底棲魚類)의 어장으로 세계 4대어장의 하나인 북태평양서부 어장 중에서 중심어장을 이룬다.”⁸⁷⁾

“동해의 순환은 쓰시마 해협을 통한 쓰시마난류의 지류의 유입에 의한 계절변동과 이 지류를 따라 발생하는 중규모 와동류 형성과 같은 현상의 영향을 받아 뚜렷한 시·공간 변화를 나타낸다. 열적대조 현상은 따뜻하고 차가운 해류, 와동류, 용승과 연관한다. 울릉도로부터 단지 20~50km 밖의 연안의 좁은 해역에서 1000~2000m에서 50m의 가파른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그 해역의 만입된 연안선 또한 복잡한 해수 운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수중의 기복이 있는 해류와 섬의 상호작용이 전선, 소용돌이, 와동류를 형성한다.”⁸⁸⁾

86) 동해의 규모와 지형적 특징에 비추어 봤을 때, 오키제도를 포함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므로 일반 설명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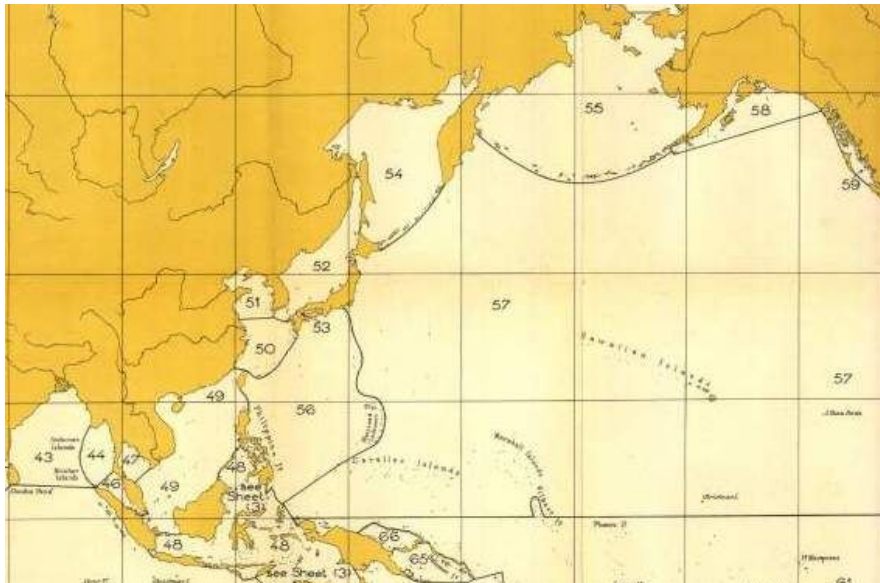
87) 국립해양조사원 동해바로알기(http://eastsea.nori.go.kr/east_info.asp).

88) 윤홍주 외, 2005, RS 및 GIS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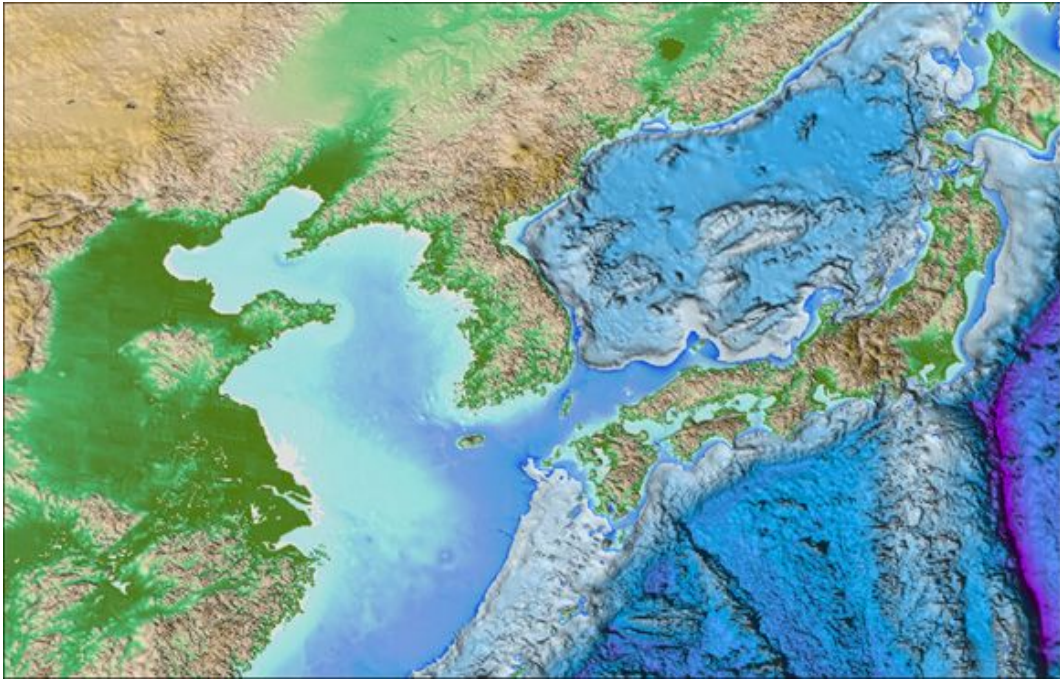
자료: 국제수로기구(IHO: <http://www.iho-ohi.net>).

<그림 3> 국제수로기구(IHO) 대양과 바다의 경계(1953)



<그림 4> 대양과 바다의 경계(1953) 동해부분도

단, p.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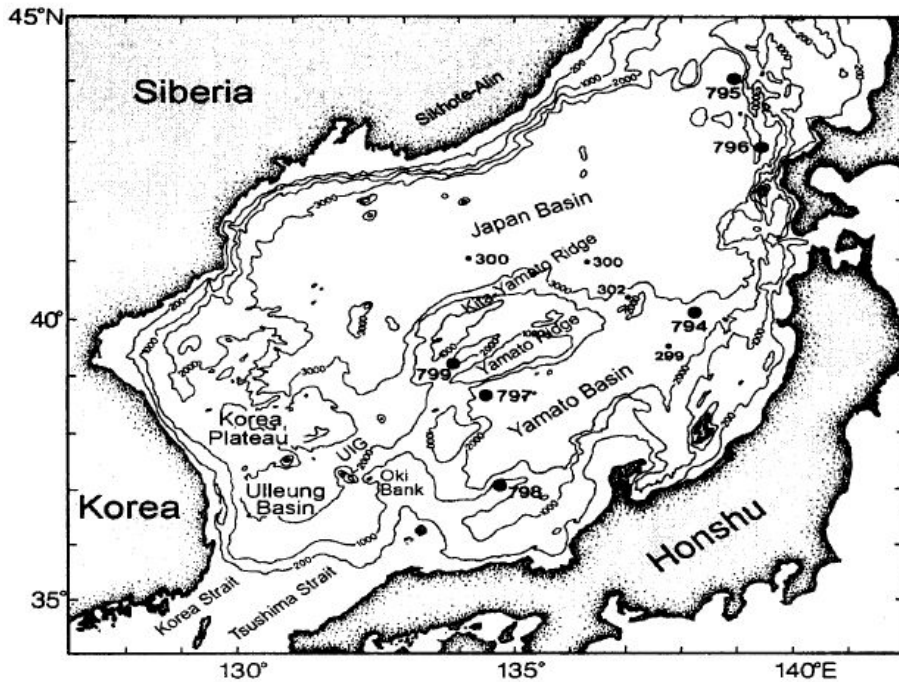


자료: 국립해양조사원(<http://www.nori.go.kr/>).

<그림 5> 동해 해저지형

“동해는 태평양과 수심 150m 이하의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심부의 수심은 3,000m에 달하여 해수 평균 체류시간이 1,000년 정도인 매우 깊은 분지이다. 따라서 동해에 일단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대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동해분지에 머무르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해는 환동해 3국의 수산 자원의 보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또한 최근 환동해권의 정치환경 변화로 한국, 일본, 러시아 3국의 산업 및 운송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해양환경의 악화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3년 3월의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백서발간과 1993년 10월 청진 동쪽 300km 해상에서의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환동해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이는 타국의 경제수역 내 오염물질 투기가 인접국의 국익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예이다. 즉 동해 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과정



자료: 양우현, 2002.

<그림 6> 동해의 해저지형

등을 이해하고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및 규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⁸⁹⁾

“동해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그리고 시베리아 동남안 의해 둘러싸인 반폐쇄 구조의 대륙주변해(marginal sea) 또는 후열도 분지(back-arc basin)로 알려져 있다.

해양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변 여러 나라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1934년 Terada, 1959·1961 Zenkevitch, 1969년에 미 해군 해양국, 1979년 Mogi 등에 의해 지도화된 바 있다. 평균수심은 1350m이며, 최대수심은 북동쪽에서 3700m이다.

89) 김구정·종률·김경렬, 1997, 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p. 1.

해저는 편평하게 펼쳐진 단순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해저에도 우리가 육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산맥과 평원이 있고, 육상의 분지와 같은 지형의 해저분지도 있다. 동해는 크게 세 개의 해저분지(submarine basin) 즉 해분(海盆)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각각 한반도 동쪽의 울릉해분(Ulleung Basin)과 일본열도 북쪽의 야마토해분(Yamato Basin) 그리고 연해주 이남의 일본해분(Japan Basin)⁹⁰⁾이다. 울릉해분의 북쪽으로 울릉도를 포함하는 수심 500m 이내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를 형성하는 한국대지(Korea Plateau), 울릉해분의 북동쪽과 야마토해분의 남서쪽을 나누는 오키뱅크(Oki Bank)가 있으며, 야마토해분과 일본해분 사이에는 야마토해령(Yamato Ridge)이 존재한다.”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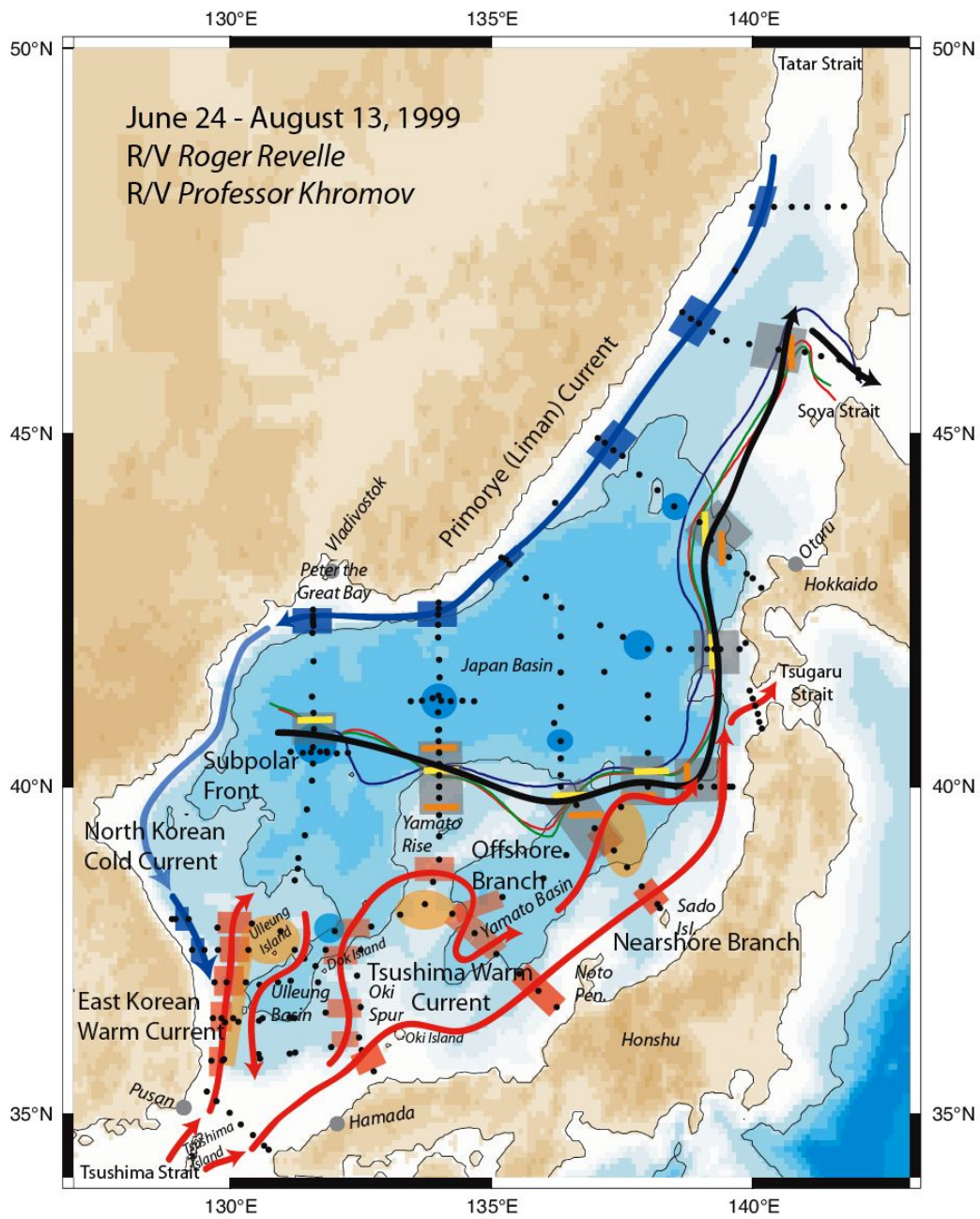
2) 동해의 해류

대한해협을 지나온 동한난류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을 중심으로 독특한 형태의 표층해류 흐름을 보여준다. 울릉분지와 한국대지 등 해저지형은 심해저에 냉수성 수괴를 형성함으로써 표층해류의 유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해역과 울산·포항 해역 사이에 순환형 해류가 형성되기도 한다. Talley(2006)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1999년 6월~8월 사이의 우리나라 동해안 표층해류는 대한해협을 지난 동한난류가 포항앞바다에서 울릉도를 향해 흐르고, 다시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해역으로부터 포항·울산 앞바다를 향한 해류의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순환하는 해류흐름을 보여준다.

2006년 해양조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계(6, 7, 8월)의 경우(그림 8)에 동한난류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북위 38도 근처에서 울릉도 북쪽을 향해 동쪽으로 흐른다. 이때 울릉도 남쪽 바다에서는 약한 남서향 해류들이 형성된다. Talley(et al., 2006)의 경우에는 울릉도와 독도사이로 해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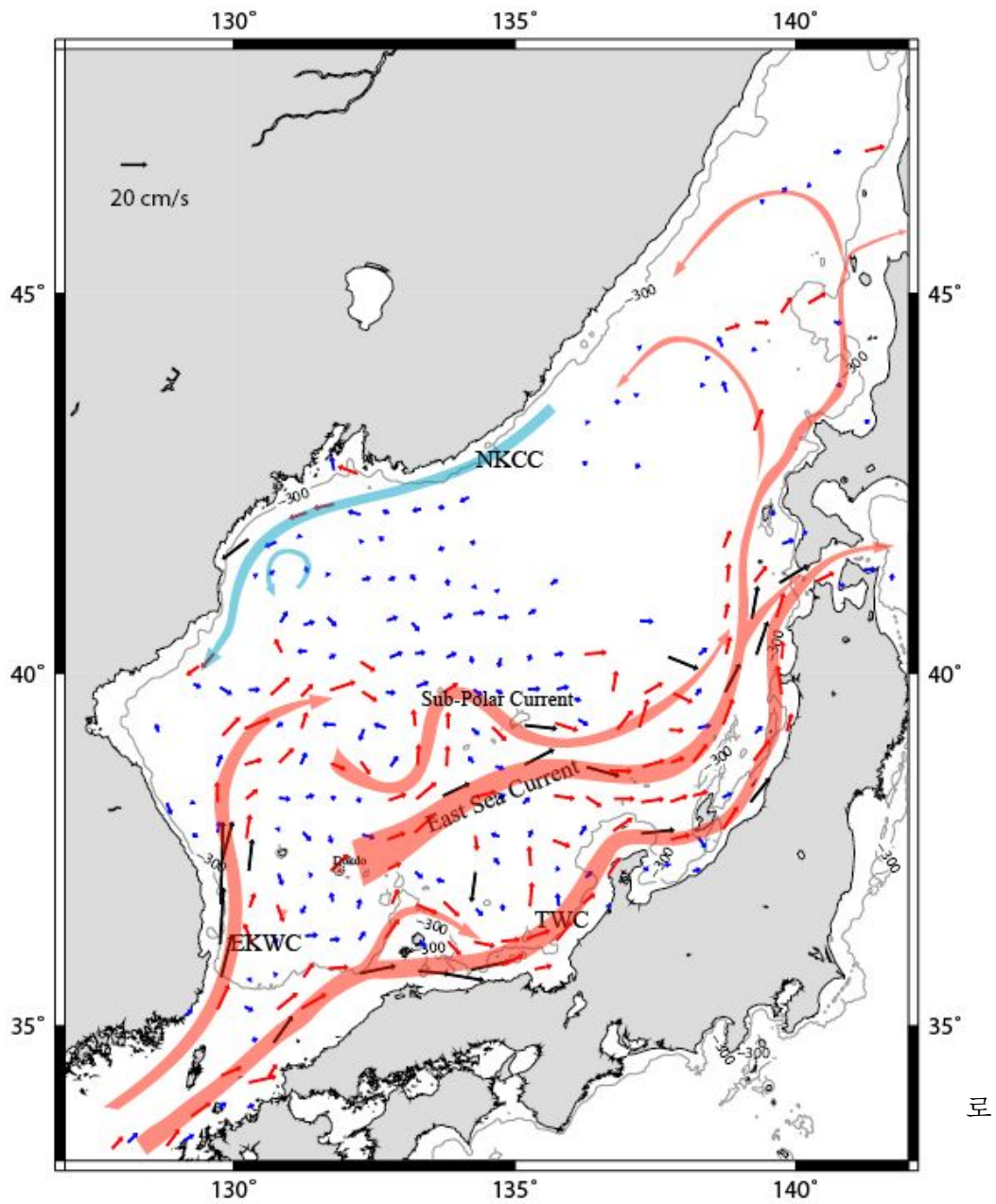
90) 동해해분(East Sea Basin)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91) 양우현, 2002, “동해의 해저지형과 형성과정,” 교육과학논총, 27,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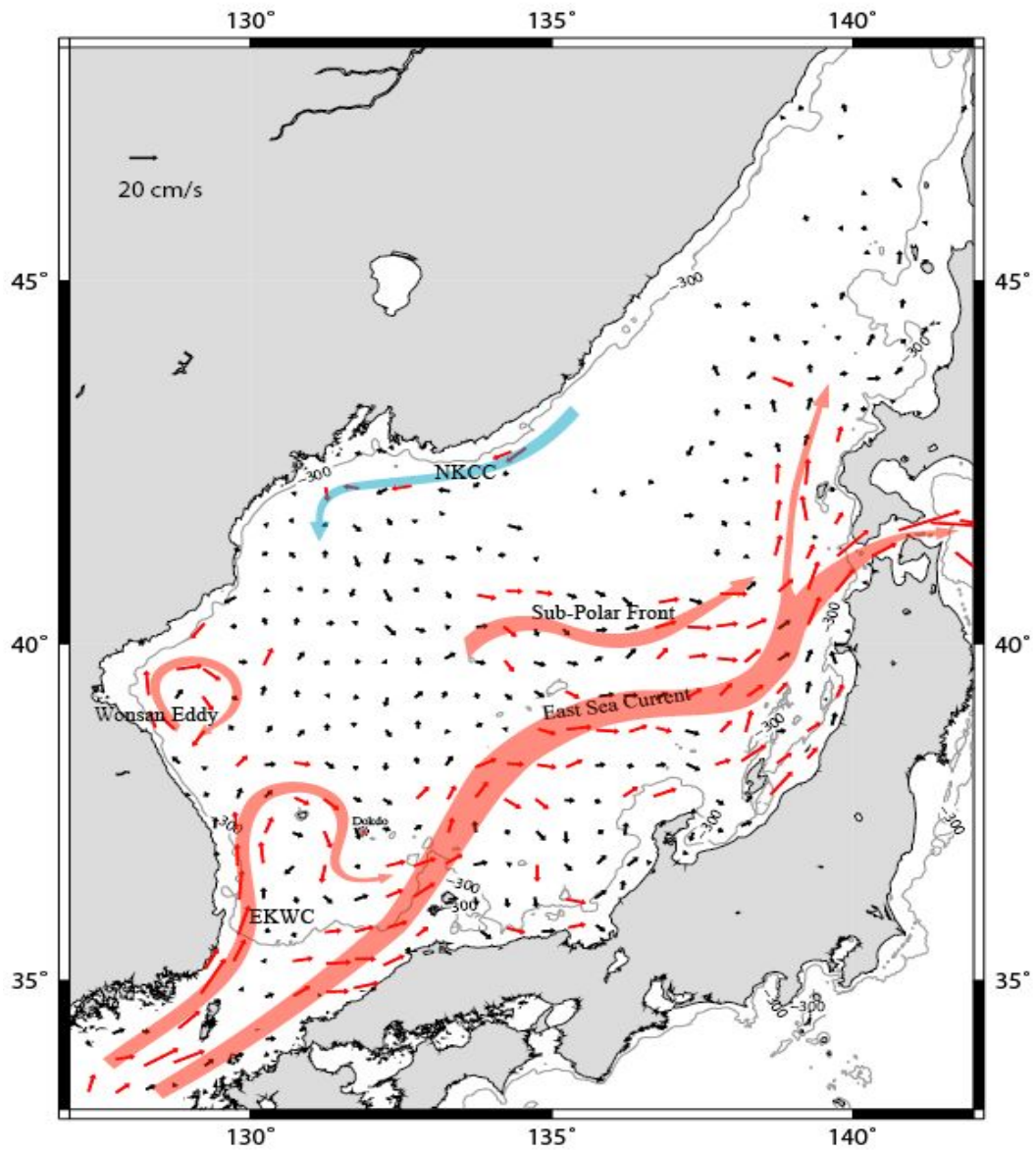
자료: Talley et al., 2006.

<그림 7> 1998년 하계(6월~8월) 동해해류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006.

<그림 8> 하계(6월~8월) 동해 표층 해류의 모식도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006.

<그림 9> 비하계 동해 표층 해류의 모식도

부터 포항·울산을 향해서 뚜렷한 해류흐름이 관측되었던 1996년과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울릉도를 선회하는 완전한 순환유형은 아니라는데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하계의 경우(그림 9)에는 동해안을 따라 올라온 난류가 북위 38도 근처에서 동쪽으로 흐른 후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역S자형으로 빠져나가는 해류를 보여준다.⁹²⁾

동해표층해류의 특성은 남해의 어부들과 포항 울산 근처의 어부들이 해류를 타고 울릉도에 쉽게 갔다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강한 해류는 울릉도에 쉽게 도달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어서 울릉도 항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숙종 19년(1693년)에는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 갔다가 박어둔(朴於屯)과 안용복(安龍福) 2명이 왜인들에게 잡혀서 백기주(伯耆州)에 간다. 안용복의 제1차도일사건도 해류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⁹³⁾ 즉 처음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 간 계기는 표류이다. 울산과 동래 사람들의 울릉도 표류는 울릉도를 향해 흐르는 강력한 동한 난류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류는 뜻이나 노를 사용하기 힘든 표류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정조 때 해류의 영향으로 일본의 표류자들이 울진이나 양양이 아닌 그 사이

92) 백인가·심문보, op. cit., pp. 69-71.

93) 肅宗實錄, 권25, 숙종 19년(1693년) 11월 18일 丁巳.

“...대체로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해변(海邊)에서 표류(漂流)하여 울릉도(鬱陵島)에 이르렀는데, 섬 위에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섬 가운데는 수십(數十) 호(戶)되는 인가(人家)의 허물어진 터가 있었으며, 초목으로는 대나무와 갈대가 많았고 날짐승과 길짐승으로는 까마귀·소리개·고양이·너구리·살쥬가 많았는데, 왜인(倭人)들이 잡아가는 바가 되었으며, 그 섬으로부터 백기주(伯耆洲)까지는 7주야(晝夜)가 걸린다. 이때 왜(倭)가 국경을 침범한 죄(罪)로 고기잡는 사람을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1694년) 2월 23日 辛卯.

“계유년(1693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피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굴진중(橘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 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에 있는 강릉이나 삼척에만 표착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⁹⁴⁾ 장한상은 동해 안에는 강력한 동한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울릉도 귀환시에 힘들게 노를 저어서야 겨우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해 항해자들은 표류하게 되더라도 한반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일본에 표착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동해해류의 특성은 동해남부지역과 남해안지역 연안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항해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3. 동일한 전통항해 영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1) 전통항해

가. 남태평양의 전통항해

Tuan(1977)은 항해술과 관련된 지리적 지식을 논하면서, “태평양 섬의 항해자들이 습득하는 것은 일련의 이름들이 아니라 별과 섬과 암초들의 패턴”이라고 하였고, “시각적으로 그러한 패턴들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해류를 몸으로 느끼면서 방향을 잡는다”⁹⁵⁾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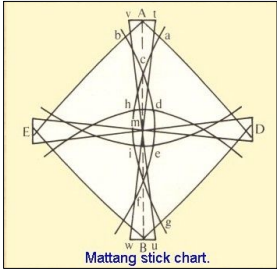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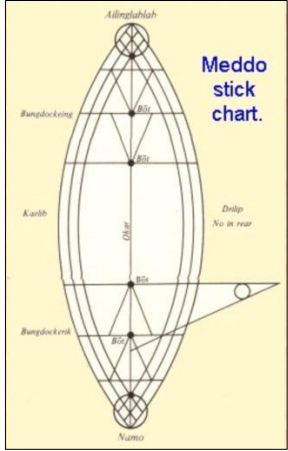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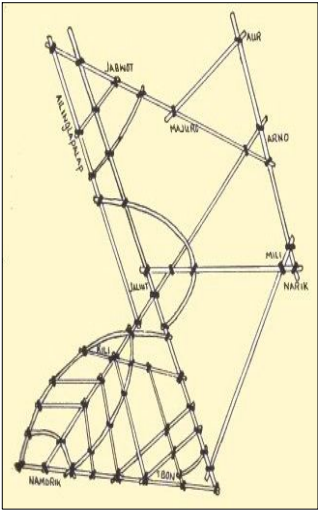
서태평양의 마살제도에서는 야자잎의 줄기를 뼈대로 하고 코코넛 섬유로 엮은 ‘나뭇가지 해도(stick chart)’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 나뭇가지 해도에는 조개껍질을 묶어 섬을 표시하였다. 뼈대가 되는 줄기는 해류(swell)의

94) 일성록, 정조 2년(1778년), 12월 23일 기사.

“...내가 이르기를, ‘표류해 온 왜인(倭人)이 꼭 강릉과 삼척(三陟)에 정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유의양이 아뢰기를, ‘영동(嶺東) 9읍(邑)이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으나 왜선(倭船)이 양양(襄陽), 울진(蔚珍) 등지에 정박하지 않고 반드시 강릉과 삼척 두 경계에 정박하는 것은, 물살의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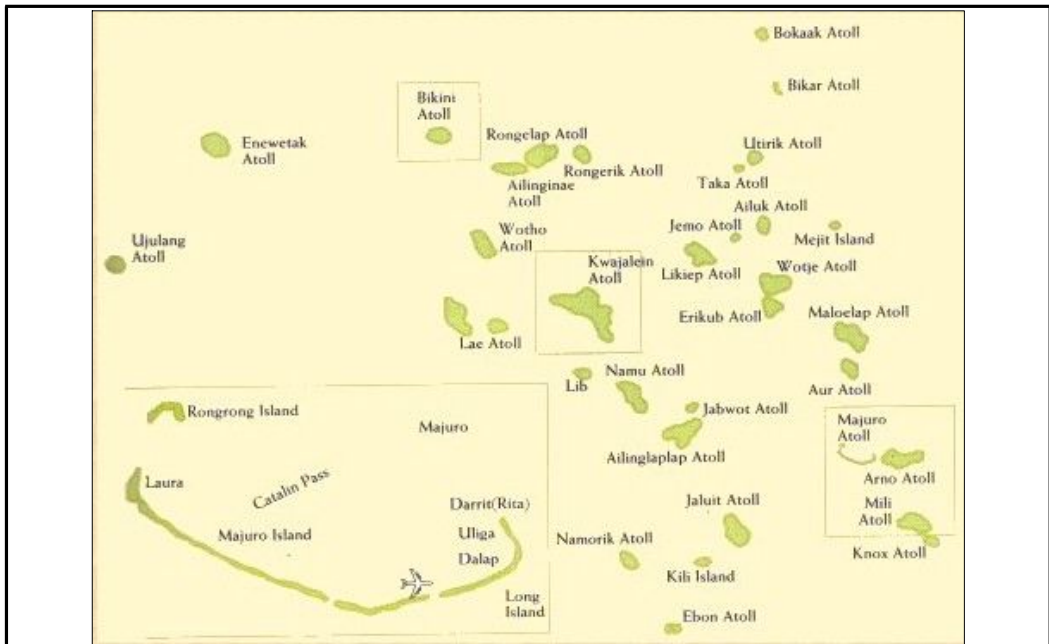
95) Tuan, Y. P., 1972, *Place and Sp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pp. 80-84.

<표 6> 마살제도 나뭇가지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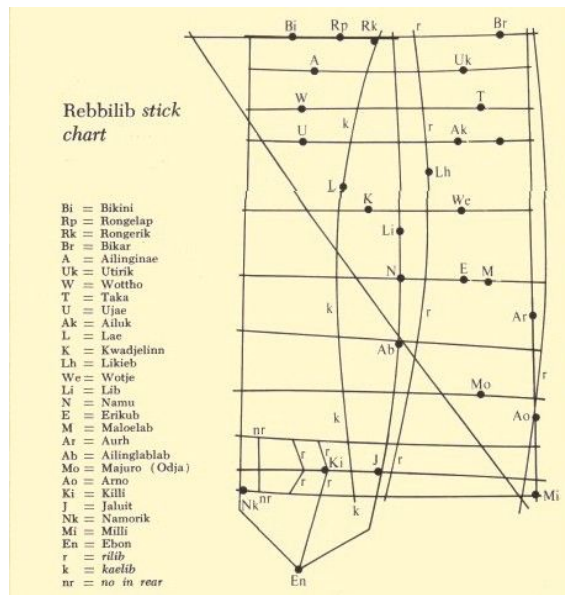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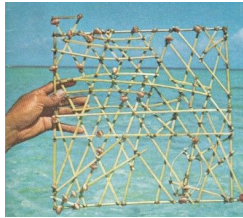
<i>Mattang</i>	<i>Meddo</i>	<i>Rebblib</i>
 <p>Mattang stick chart.</p>	 <p>Meddo stick chart.</p>	
<p>Mattang은 3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서구 해도와 다르다. 1) 일반 해도에는 없는 해류의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 덧붙여지는 조개껍질은 상황별로 가장 적합한 각도에서 나뭇가지 해도가 지향하는 어떤 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 3) 항해자 개인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개인용 해도이다.</p>	<p>Mattang의 확장형으로서, 다수의 섬들과 관련하여 해류의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도 자체는 이들 섬들의 해류 패턴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ddo는 관측할 수 있는 해류현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섬들의 위치를 표시한다. 섬들 사이의 거리나 방향은 부차적이다.</p>	<p>Rebblib은 군도(群島) 전체 혹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로서 기본적으로 해류보다는 섬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p>

출처: Marshall Islands Chamber of Commerce(2006)
http://www.marshallislandschamber.net/Stick_Chart.htm

<표 7> Rebbilib 나뭇가지 해도(stick chart)



마셜군도



Rebbilib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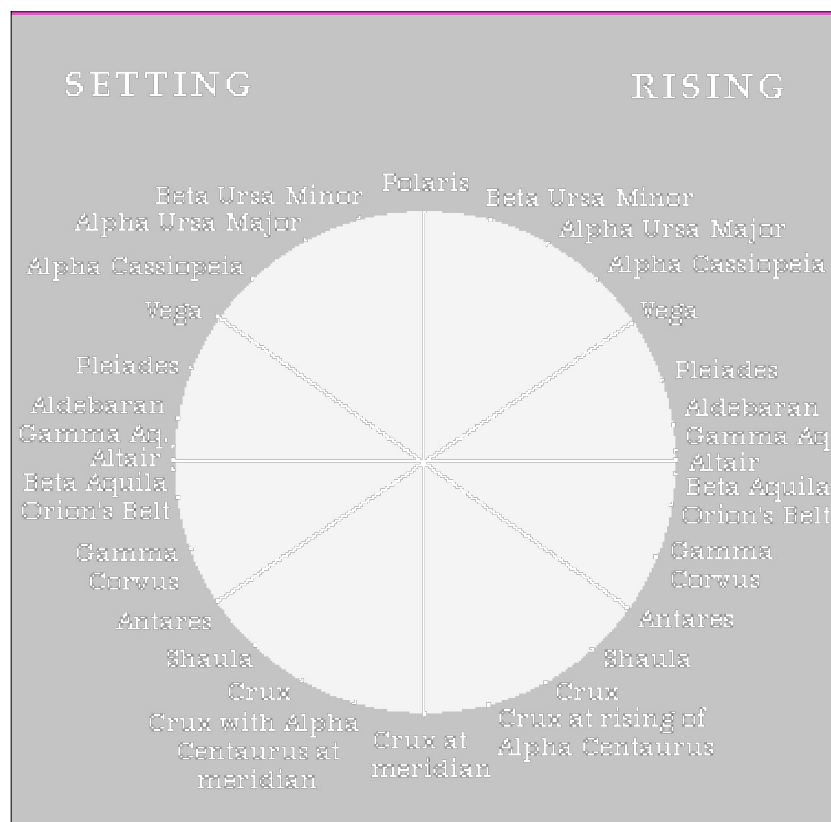
도식화한 마셜제도 Rebbilib

출처: Marshall Islands Chamber of Commerce(2006)
http://www.marshallislandschamber.net/Stick_Chart.htm

패턴을 표시함으로써 섬들의 위치와 해류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였다. 이들 나뭇가지 해도에도 *mattang*, *meddo*, *rebblib* 등 3가지가 있다. “96)

전형적인 *Rebbilib* 해도로 표현된 마샬제도의 나뭇가지 해도와 마샬제도의 섬의 위치 그리고 단순화된 마샬제도의 도식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마샬제도 인근의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의 캐롤라인제도(Caroline islands)에서는 천체항해 기법을 사용해서 항해를 하였다.⁹⁷⁾



자료: <http://www.museum.upenn.edu/Navigation/Geography/micronesia.html>.

<그림 10> 미크로네시아 32방위 16쌍 천체방위도

96) http://www.marshallislandschamber.net/Stick_Chart.htm(2008. 10. 12 방문).

97) <http://www.museum.upenn.edu/Navigation/Geography/micronesia.html>.

미크로네시아 내 산호초의 “낮은 섬(the low islands, 산호섬)”⁹⁸⁾에서는 항해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높은 섬(high islands, 화산섬)”인 팔라우(Palau), 얍(Yap), 트룩(Truk), 포나페(Ponape), 그리고 코스라에(Kosrae)에 사는 사람들은 항해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산호초 거주자들에게 무역과 대양항해를 의존하고 있다. 트룩(Truk)의 서쪽에 있는 플루왓(Puluwat), 풀랍(Pulab) 그리고 사타왈(Satawal)에는 캐틀라인 제도의 전통 항해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고,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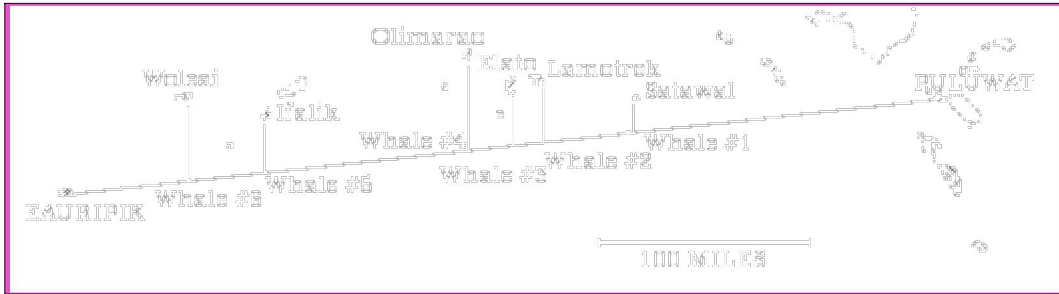
이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600km이상의 거리에 해당한다. 에아우리픽(Eauripik)에서 플루왓까지 항해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32개의 방위로 나뉜 16개 쌍의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항해중간 섬(대부분 보이지 않음)을 참조점으로 하여 몇 개의 단위로 나누고, 관측 대상이 되는 16개 쌍의 별들, 북극성 그리고 참조되는 섬과의 각도를 통해서 항로를 잡아간다. 또한 항로를 잃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구간에서 참조된 섬들과 관련된 살아있는 생물들을 참조하게 된다. 이들 특정구간의 특정 생물을 만난다는 것은 항로를 벗어났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항해자는 이러한 살아있는 지표를 만나게 되면 항로를 재조정하게 된다.¹⁰⁰⁾

전통항해자들은 바다의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가면서 항해에 나섰다. 특히 항로와 관련된 해류의 특성에 대해 훨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울릉도 항해자들도 서태평양의 전통항해자들처럼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형성된 탁월한 해류를 잘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98) 태평양의 섬들은 크게 “높은 섬(the high islands)”과 “낮은 섬(the low islands)”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섬은 지질학적으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을 말하며, 낮은 섬이란 산호초의 퇴적이나 성장으로 생겨난 섬을 말한다.(http://en.wikipedia.org/wiki/High_Island). 따라서 “높은 섬”은 화산섬으로, “낮은 섬”은 산호섬으로 부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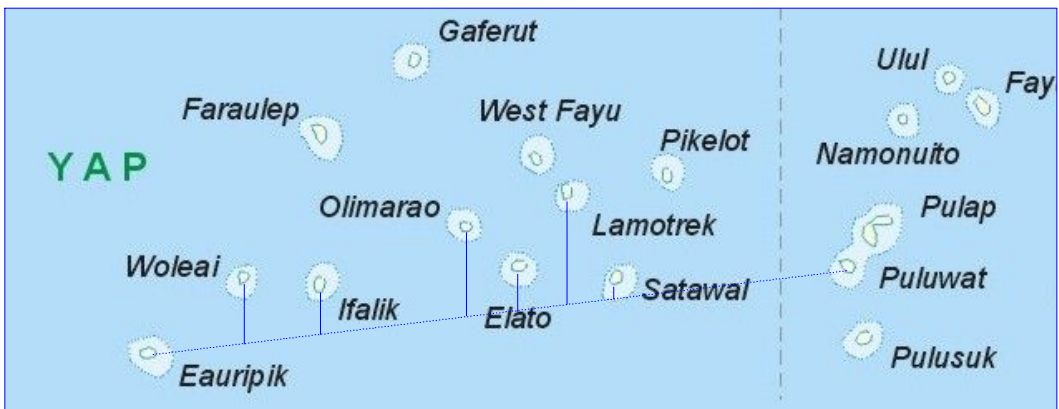
99) op. cit.

100)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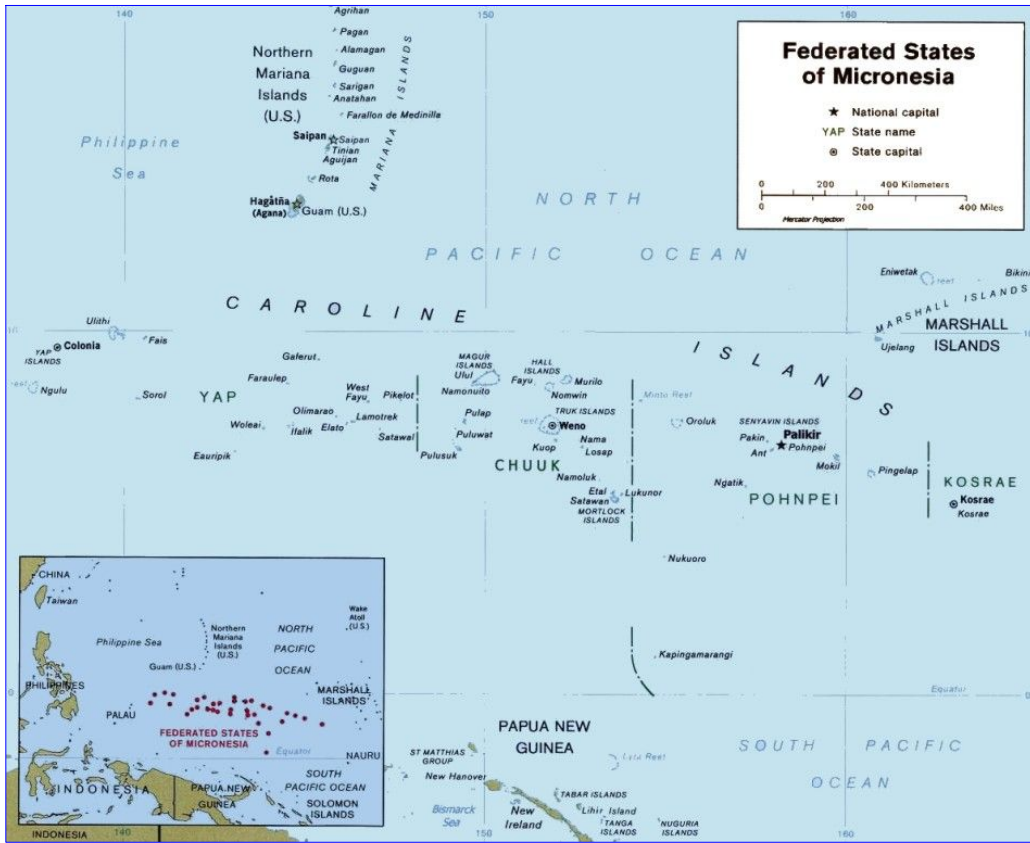
출처: <http://www.museum.upenn.edu/Navigation/Geography/micronesia.html>.

<그림 11> 캐롤라인제도의 전통항해 사례



출처: <http://www.adb.org>

<그림 12> 미크로네시아 Yap州 일부 및 Chuuk州 일부



<그림 13>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연방 지도

나. 우리나라의 전통항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는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왔다. 고려초 동여진과 고려수군과의 동해회전이나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교전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배의 특징은 강력한 충돌 능력, 전투시 신속한 항해능력, 그리고 배의 구조적 견고함 등이다. 또한 이러한 배를 건조하는 능력도 뛰어나 고려초에 동해 수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면 한 달 평균 100여척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몽고가 일본

을 정벌하고 하면서 고려에 6개월 내에 건조토록 지시한 다양한 배의 건조 요구사항에서도 알 수 있다.

울릉도 항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잘 발달된 조선(朝鮮)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56년 평해로 가려다 오키에 표류한 전라도 홍양 선박에는 돛이 2개 있고, 노가 한 쌍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형적인 범선으로 보인다. 안용복(1796년)이 타고 간 배도 돛이 2개인 범선이었다.¹⁰¹⁾

“조선후기 배는 강을 운항하는 강선(江船)과 바다를 운항하는 해선(海船)으로 구분된다. 강선에는 노를 젓는 노선(櫓船)과 노가 장착되지 않은 거룻배와 같은 광선(廣船)이 있었으며, 해선에는 뱃전이 있는 삼선(杉船)과 뱃전이 없는 통선(桶船), 그리고 삼선의 종선(從船)으로서 급수선(汲水船)이나 조난시 대피용으로 사용된 소규모 선박인 협선(挾船)이 있었다. 조류가 미치지 못하는 강 상류지역을 운항하는 수상선(水上船)인 강선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었던 반면, 조류가 미치는 강의 하류지역과 바다를 운항한 수하선(水下船)인 해선은 강선에 비해 폭이 넓고 길이가 짧았다. 해선은 풍량이 많은 바다를 운항해야 하므로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밑바닥이 넓은 반면, 강선은 폭이 좁거나 암초가 많고 물살이 센 지역을 운항해야 했으므로 좁고 길었던 것이다.”¹⁰²⁾

다방면에 많은 관심과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던 정조대왕은 배에 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겼다. 정조실록과 홍제전서 등에 나오는 조선의 대선에는 군사가 6~70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선을 조운선으로 병용할 경우에는 1,200~1,400석을 실을 수 있다고 하였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중국의 수군들이 고구려에 도착하지도

101) 송병기, op. cit.

102) 고동환, Ibid., pp. 311-312.

못하고 패퇴한 사례, 고구려가 왜와 교류하고, 백제가 중국·왜 등과 교류한 사례, 장보고가 한중일 해상무역을 지배한 사례, 고려 초기에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여 단기간에 강력한 수군을 건설하고 이들을 격파한 사례, 여몽연합군이 일본정벌시 대규모의 선박을 건조한 사례, 임진왜란 때 왜와의 해전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선시대에도 훌륭한 선박과 항해기술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인들의 장거리 항해용 선박의 규모와 놀라운 항해능력, 아라비아의 삼각돛을 가진 도(dhow)의 대양항해능력 등을 생각하면 근대 이전의 뱃사람들이 조선능력과 항해능력은 매우 우수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에 압도된 역사인식과는 별도로 해양민족의 우수성을 유지시켜온 해양기술과 해양문화는 동해안과 남해안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항해가 활성화되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울릉도 해역 항해와 독도

울진·삼척 등지의 동해안에서는 울릉도가 잘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를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숙종대 안용복의 활약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파견하였으며, 이때 동해안 어민들이 수군 또는 격군(格軍)으로서 수토에 참여하였다. 울릉도 수토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도의 배들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동해안 어민들에게 울릉도는 공식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기성(箕城, 울진군 기성)에 유배를 가게 된 영의정 이산해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울릉도에 가지 않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가봐야 한다고 하였다.¹⁰³⁾

조선후기에 남해안 어부들이 울릉도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은 공식적으

103) 이산해, 鬱陵島, 鵝溪遺稿.

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남해의 선상(船商)들이 연안항로를 따라 동해안의 항포구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동해안 어민들의 울릉도 항해지식을 습득했을 수도 있고, 울릉도와 독도 해역으로 표류함으로써 울릉도 해역을 재발견 했을 수도 있다.

과거 표류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일단의 표류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다시 떠난 곳으로 귀환하게 될 때, 이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다. 이들이 들려주는 정보는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모험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만난 보물을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선다. 또한 모험심이 뛰어난 항해자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된다.

마치 대항해 시대에 성공적인 항해를 마친 후, 얼마 경과되지 않아서 해양국가들은 너도나도 대양항해에 뛰어든 것과 같은 일들이 남해안 어부들의 울릉도 항해를 둘러싸고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가. 일본으로의 표류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리 날씨가 맑은 날이라도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바람에 의존하는 범선의 경우에는 날씨가 나쁘면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잃고 표류하기 쉽다. 조선의 어민이 표류하게 된 경우 표류자에 대한 송환체계가 발달한 일본, 유구, 중국 등에 도달하면 송환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길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표류과정은 자의는 아니지만 표류하는 해역에 대한 항해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항해자들이 표류를 하게 되면 대개 강한 북서풍과 동한난류(East Sea Warm Current)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 표착(漂着)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일본 표류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1990년대 규장각 표류관련 자료의 영인 등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⁰⁴⁾

이훈(2003)에 따르면, 조선후기 표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1599~1867년까지 일본에 조선인이 표착한 것은 모두 1,020건, 표류민의 숫자는 10,037명 정도이다. 1년에 평균 거의 4건에 가까운 표착 사고가 발생한 셈이나, 실제로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표착사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같은 기간 일본인이 조선 표착이 약 113건, 표류민이 1,100여명 정도 발생한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웠다. 조선인 표류민은 동·서·남해안의 연안포구에서 발생했으나, 전라도와 경상도가 거주지 내지는 출항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표류사고의 거의 90%를 차지하였다.”¹⁰⁵⁾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기 이전에는 조선과 일본의 표류민들을 상대국에 무상으로 송환하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표류민을 송환하기 위한 송환선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표류민 송환을 계기로 왜관에서 조공무역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송환하려 하였고, 이에 조선정부는 잦은 송환사를 맞이하는데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¹⁰⁶⁾ 조선

104) 정성일, 2003, “전라도 주민의 일본열도 표류기록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사학연구, 제72호; 이훈, 2003, 표류를 통해본 근대 한일관계, 한국사연구 123, pp. 271-307; 민덕기·손승철·하우봉·이훈·정성일 저, 2000, 한일간 표류민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12집, pp. 5 ~ 69; 고동환, 2003, “조선후기 상선의 항행조건-영·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pp. 309-339.

105) 이훈, 2003, p. 275.

106) 중종 20년(1525년) 4월 28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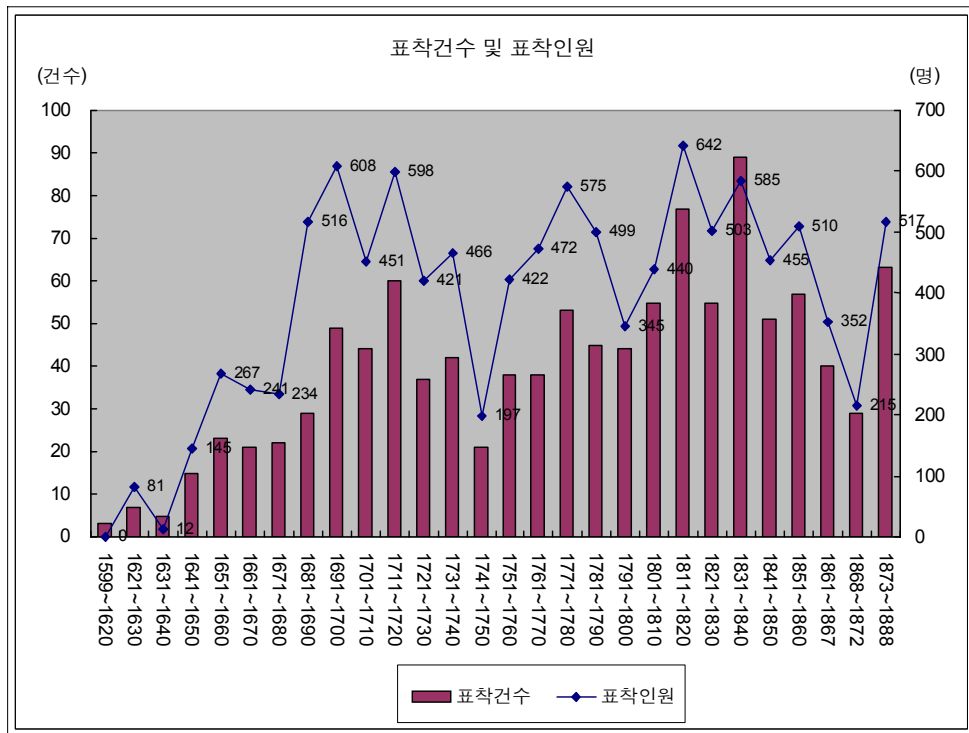
“...우의정 권균(權鈞)은 의논드리기를, “경림(景林)의 글을 보건대, 표류한 사람들을 쇄환한 것을 큰 공으로 여겨 기필코 바라는 일들을 모두 이루려는 것이니, 이번에 만일 경솔하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뒤에는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호초는 국왕(國王)이 무역하는 것이어서 사지 않을 수 없고, 도주(島主)의 특송선은 사신의 요청에 의해 접대한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이번은 표류한 사람들 쇄환한 것을 구실 삼으니 역시 끝까지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허락할 수는 없으니, 선위사

<표 8> 조선인의 일본표착

시기	표착 건수	표착 인원	표착시 사망내역								생존율	년 표착 건수	년 표착 인원
			의사	아사	동사	병사	사망	사체	실종	공선			
1599~1620	3	0										0.1	0.0
1621~1630	7	81										0.7	8.1
1631~1640	5	12										0.5	1.2
1641~1650	15	145				10					93.1%	1.5	14.5
1651~1660	23	267	1								99.6%	2.3	26.7
1661~1670	21	241					5				97.9%	2.1	24.1
1671~1680	22	234	28			1	1	2			86.3%	2.2	23.4
1681~1690	29	516	11		4	1	1	2		3	96.3%	2.9	51.6
1691~1700	49	608	3		1	4		2			98.4%	4.9	60.8
1701~1710	44	451	10			3		10			94.9%	4.4	45.1
1711~1720	60	598	4			2	1			1	98.8%	6.0	59.8
1721~1730	37	421									100.0%	3.7	42.1
1731~1740	42	466	2							2	99.1%	4.2	46.6
1741~1750	21	197	5								97.5%	2.1	19.7
1751~1760	38	422	10		3		1				96.7%	3.8	42.2
1761~1770	38	472	33							1	93.0%	3.8	47.2
1771~1780	53	575	2		5	2		1			98.3%	5.3	57.5
1781~1790	45	499	11	12	3	2	1			2	93.8%	4.5	49.9
1791~1800	44	345	4		1	2	1	1		2	97.4%	4.4	34.5
1801~1810	55	440	3		1	1		1		1	98.6%	5.5	44.0
1811~1820	77	642	15		2	5		2		3	96.3%	7.7	64.2
1821~1830	55	503	36	2		9		7		3	89.3%	5.5	50.3
1831~1840	89	585	6	1	1	5		1		12	97.6%	8.9	58.5
1841~1850	51	455	20					1		1	95.4%	5.1	45.5
1851~1860	57	510	3	20		8		4		4	93.1%	5.7	51.0
1861~1867	40	352	2			1		2		1	98.6%	5.0	44.0
1868~1872	29	215	1			3					98.1%	3.2	23.9
1873~1888	63	517	10			1	15			7	93.6%	3.9	32.3
계	1,112	10,769	220	35	21	60	26	36	11	32	96.2%	5.6	53.8

자료: 이훈, 2003, p. 274.

로 하여금 다시 더 반복해서 타일러 그들의 뜻을 시험해보도록 한 다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떠 하리까?...”



자료: 이훈, 2003을 자료로 재작성

<그림 14> 표착건수 및 표착인원

도 또한 중국인, 유구인, 일본인 등 표류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대접하고 송환하였기 때문에 표류민들은 육지나 섬에 도달하면 무사히 송환될 수 있었던 사실은 조선의 어민들이 동·서·남해안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의 표류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표류 1,212건 중 경상도가 579건(47.8%)으로 가장 많고, 전라도가 207건(24.5%), 제주도 130건(10.7%), 강원도 70건(5.8%)의 순으로 일본과의 근접해 있고,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람들이 표류한 경우가 88.8%를 차지한다. 그리고 동해안의 함경도 출신이 표류한 경우도 19건(1.6%)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안도, 경기도, 충청도에서 출항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남해안에서 항해하다가 일본으로 표류된 경우가 모두 19건이 있다.

<표 9> 표류자의 출항지 및 표착지

표착지 출항지	對馬島	五島	壹岐	肥前	肥後	築前	大隅	薩摩	流球	長門	石見	隱岐	出雲	伯耆	因幡	但馬	丹後	駿河	蝦夷地	長崎縣	島根縣	계
평안도	2							1		1												4
경기도	2							1		3												6
충청도	6	2									1											9
전라도	80	84	12	30	1	10	3	14	2	25	25	2	5				1	1		2		297
제주도	26	60	1	17			2	15		1	1					1				5	1	130
경상도	249	6	7	6		43		1		115	115	9	22	1	1	2			1		1	579
강원도	7					1				27	27	4	2	1							1	70
함경도	3					2				4	4		3			1	2					19
불명	28	2	1	2		2		1		30	30						2					98
계	403	154	21	55	1	58	5	33	2	206	203	15	32	2	1	4	5	1	1	7	3	1212

*流球(1879년 이후), 蝦夷地, 長崎縣, 島根縣 등은 명치유신 이후(인용자)

자료: 이훈, 2003, p. 276.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일본과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강력한 북서계절풍과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대마도 동북쪽 해역에서 표류하는 경우에 일본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사료 및 수토키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울릉도 항해¹⁰⁷⁾

울릉도까지의 거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시대인 1281년에서 1283년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의 우산국 정벌 기사에 “풍편이일정(風便二日程)”이라고 한 것이다.¹⁰⁸⁾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울릉도와 왕래가 잦아지면서 울릉도 항해와 관련

107) 백인가심문보, 2006.

108)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一 智哲老王(512년).

“...又阿瑟羅州[今溟州] 東海中 便風二日程 有弓陵島[今作羽陵] 周廻二萬六千七百三十步 島夷恃其水深 橋檝不臣 王命伊餐朴伊宗 將兵討之 宗作木偶師子 載於大艦之上 威之云 不降則放此獸 島夷畏而降 賞伊宗爲州伯...”

된 내용들이 점점 상세해진다.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년) 7월 15일 기사에 호군(護軍) 남희(南薺)와 사직(司直) 조민(曹敏)이 무릉도에서 돌아와 포획한 남녀 66명과 각종 산물을 바쳤는데, 장계에“배를 출발하여 하루하고 하룻밤 만에 도착(發船一日一夜乃至)”이라고 하여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조실록』 세조 3년(1457년) 4월 16일 기사에 유수강(柳守剛)이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글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서풍이 바로 불어주면 약 20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미풍에 노를 저으면 하루 정도(一晝一夜) 걸리고, 바람이 없이 노를 저어가더라도 2일1야(二日一夜)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西風直吹 則丑時發船亥時到泊, 風微用櫓 一晝一夜可到, 無風用櫓 亦二日一夜可到).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三峯島 敬差官 朴宗元)의 1472년 삼봉도 탐색은 울진에서 출발하였다가 삼봉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다.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三峯島 敬差官 朴宗元)이 5월 28일(양력 7월 4일) 4척의 배로 울진포를 출발하여 울릉도로 향했으나 큰 바람에 배가 흩어지고, 5월 29일 29일 새벽[平明]에 동남쪽을 향하여 무릉도(武陵島)를 바라보니 15리(里) 쯤 되었는데 다시 큰 바람을 만나 닻줄[纜]이 끊어져서 대양(大洋) 가운데로 표류(漂流)하여 동서(東西)를 알지 못한 지 7주야(晝夜)가 되었다가 이달 초6일(양력 7월 11일) 오시(午時)에 간성군(杆城郡)의 청간진(淸簡津)에 이르렀다”¹⁰⁹⁾

울진현에서 울릉도까지는 약 1일 1야가 소요되었고 돌아오는 길은 7일이 걸렸다. 나머지 세 척의 배는 5월 29일에 울릉도에 도착해서 3일을 머무르고 역시 6월 6일에 강릉 우계현 오이진(梧耳津) 도착했다. 출발일자를 6월

109) 『成宗實錄』 권19, 성종 3년(1472년) 6월 12일.

2일이나 3일로 잡으면 돌아오는 데는 3~4일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성종실록』 성종 4년(1473년) 1월 9일자 기사는 성종이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정난종(鄭蘭宗)에게 유시한 내용으로 임금이 직접 삼봉도 탐색 경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조사할 것을 명하고 있다.

“...김한경(金漢京)의 말이, ‘경흥(慶興)에서는 청명(淸明)한 날이면 삼봉도(三峯島)를 바라볼 수 있는데, 회령(會寧)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레 밤낮을 향해하여 도착하고, 북쪽으로 나흘 밤낮을 향해하여 돌아왔습니다. 전년에 사람을 보내어 무릉도(茂陵島)를 찾아 가게 하였는데, 울진(蔚珍)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하루 밤낮을 향해하여 도착하고 서쪽으로 사흘 밤낮을 향해하여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가 말한 지세(地勢)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세상에서 전해 오기를, ‘무릉도의 북쪽에 요도(蓼島)가 있는데 한 사람도 다녀온 사람이 없다.’ 하니, 이것도 의심스럽다. 경(卿)이 다시 바닷가에 사는 늙은 뱃사람을 찾아가 물어 상세히 밝혀서 아뢰라...”

여기에는 삼봉도와 무릉도가 명확히 다른 섬으로 출발하는 곳도 다르고 항해기간도 각각 다르게 나와 있다. 무릉도(茂陵島, 울릉도)는 울진에서 동쪽으로 1주야(1일)가 걸리며, 돌아올 때는 서쪽으로 3주야(3일)가 걸린다고 하였다. 삼봉도는 날씨가 맑으면 두만강 하구인 경흥에서 볼 수 있으며, 회령에서 동쪽으로 7주야(7일)면 도착할 수 있고, 돌아올 때는 북쪽으로 4주야(4일) 걸린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은 삼봉도가 울릉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한경이 삼봉도에 가려면 함경도 회령에서 출발해야 하며, 무릉도에 가려면 강원도 울진에서 가야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보면 박종원은 삼봉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무릉도를 찾아간 셈이 된다.

안용복 사건의 와중인 숙종 20년(1694년) 11월 6일 기사에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할 것에 대한 상소에 “근년 영동과 영남의 어부들이 울릉도에 일상적으로 왕래한다”(近年嶺東 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 도항에 대한 사실이 조정에 보고 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이 보다 앞서 같은 해 9월에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 하는데, 이 때 수도결과인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에는 9월 19일(양력 11월 6일) 사시(巳時)에 출발하여 험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다음날인 9월 20일 사시(巳時)에 울릉도 남쪽 해안에 도달한 것으로 나와 있다. 큰 바다에서 비바람과 수종(水宗)을 만나면서 걸린 시간도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¹¹⁰⁾ 출항 초기에는 파도 때문에 지체되었지만,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 울릉도에 도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남해안(전남 고흥) 어부들의 울릉도 항해

일본으로 표류한 사례중 특히 울릉도·독도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록은 흥양(興陽, 전라도 고흥)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사례이다. 일본으로 표류한 사례는 실록에 기록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안용복 사건이 나기 훨씬 전인 현종 5년에 전라도 흥양사람들의 일본 표류가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주가 바람을 만나 표류된 흥양(興陽) 사람 19명을 송환하였다. 흥양현 사람 모신복(毛信福) 등 19명이 배를 타고 영해부(寧海府)로 장사를 하러 가다가 지난해 11월 4일¹¹¹⁾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일본(日本) 은주(隱州)에 당도하였다. 은주에서 장기(長崎)로 보내고 장기에서 대마도로 보냈는데, 대마 도주가 굴성중(橋成重)을 차견하여 동래(東萊)로 인솔하여 보내온 것이다.”¹¹²⁾

110) 장한상, 『울릉도사적』, pp. 1-3.

111) 양력 1663년 12월 3일(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변환, <http://www.kasi.re.kr>).

112) 현종실록, 현종 5년(1664년) 5월 12일.

홍양인 표류자들의 여정은 홍양(興陽, 고흥) → [영해] → 은주(오키섬) → 나가사키(長崎) → 대마도 → 동래(東萊)이다. 이들의 표류시기가 양력 12월 초이므로 오늘날의 태풍이라기보다는 큰 폭풍을 만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비하게 동한난류의 흐름을 보면 포항에서 동해안을 따라 울진 앞바다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흐름을 형성하는데 연안쪽으로 북한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은 동북쪽으로 치우쳐 울릉도 북쪽 방향으로 흐르며, 다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역 S자형으로 흘러 일본 오키섬 쪽으로 흘러나간다. 또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형성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남동쪽에 있는 오키섬 해역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류와 계절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들의 표류해역은 울릉도·독도 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울릉도·독도 해역에 진입했다가 표류하였거나, 아니면 울릉도·독도 근해로 떠밀려 갔다가 오키섬에 표착했을 수 있다. 즉 이들의 표류는 울릉도·독도와 관련성이 매우 커 보인다.

유사한 표류 사례로 약 200년 후인 1856년 9월에도 전라도 홍양 주민 9명이 강원도 평해에 갔다가 은기(隱岐, 오키섬)에 표류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이들은 長崎를 거쳐 송환되기 전에 대마도에서 조사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興陽(현재의 高興) 주민 9명이 1856년 9월 28일 한 척의 배에 타고서 홍양을 출발하여 10월 6일 강원도 평해에 도착 건어물을 구입하였다. 일행 중 1명(상륙)을 제외한 8명이 그 해 11월 11일¹¹³⁾ 평해를 출발하여 홍양으로 돌아오던 중 강한 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11월 16일 일본의 隱岐 赤灘에 표착하였다. 그곳 주민들에 의해 구조된 8명은 12월 15일 표착지를 출발, 이듬해인 1856년 1월 6일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조사를 받은 표류민들은 3월 8일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3월 18일 쓰시마

113) 양력 1856년 12월 8일(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변환, <http://www.kasi.re.kr>).

에 닿는다. 쓰시마에서 1명이 病死한다. 표류민들은 쓰시마로 송치된 뒤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들은 석가를 믿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호패는 모두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행 8명의 성명과 나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朴hanniu(46세, 病死), 李chikuwan(29세), 朴chechun(64세), 林imuoku(36세), 裴hutohu(28세), 金sekunou(22세), 朴kuiboku(20세), 李uikun(20세)이 그들이다[원문의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를 편의상 영어 알파벳으로 바꿈]. 또한 표착한 선박의 크기는 長 10尋, 幅 3尋, 深 5尺이었으며, 그 배에는 檣 2本, 楫 1羽, 帆 2下, 笥 7枚, 步板 3枚, 太鼓 1, 皮籠 1, 匕 8本, 庖丁 1挺, 打錐 1本, 大瓶 1, 釜大小 2, 鋸 1挺, 小鋸 1挺, 鑿 1挺, 鉞 1挺, 斧 1挺, 常平通寶 26寬文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적혀있다(『漂民被仰上』, 日本 對馬歷史民俗資料館 宗家文庫, 記 I, 表書札方 M45)¹¹⁴⁾

1664년 표류자들이 영해를 들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들 1856년 표류자들은 평해에서 건어물을 구입한 후 귀로에서 강한 서풍을 만나 오키섬으로 표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56년 표류자들도 양력 12월 초에 표류하였으며, 이들은 강한 서풍을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영해 근처에서 표류한 경우보다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이 시기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 장기(長鬢)의 어부들이 울릉도에 쉽게 드나든다고 기록한 이후로도 50여년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키섬으로 표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어쩌면 이들은 울릉도로 가던 중에 표류하여 곧장 오키섬에 도착했는지도 모른다.

약 2백년의 사이를 두고 전라도 흥양 사람들이 흥양(고흥) → 영해, 평해 → 은기(隱岐)에 이르는 비슷한 표류경로를 보이고 있다. 울릉도에서 가까운 영해나 평해에 갔다가 은기도(隱岐島)로 표류했다는 사실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갔을 가능성을 크게 한다.

전라도 흥양 사람들의 표류기록은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당시 기

114) 정성일, op. cit., p. 103.

륙과도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1856년 표류로부터 26년 후인 1882년, 전체 울릉도 조선인 체류자 140명 중에서 115명에 이르는 전라도 홍양(94명)과 낙안(21명)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조선(造船)과 채광(採鑛)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라도 홍양지역과 울릉도·독도가 매우 오래전부터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즉, 전라도 고흥에서 울릉도까지의 항로가 매우 안정적이며, 이 항로에 대한 항해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앞선 표류기록들과 함께 생각하면 이러한 항해지식이 이 고흥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해나 평해는 남해안에서 울릉도로 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지역이다.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관의 출발지로는 삼척영장이 출발한 곳은 장한상의 예에 따르면 남면(南面) 장오리진(莊五里津)¹¹⁵이고, 월송만호가 출발한 곳은 평해의 구산포(邱山浦)¹¹⁶이었다. 만은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시에 출발한 곳도 구산포이다.

오랫동안 동해안을 왕래하던 전라도 홍양(고흥)의 상선들은 다양한 계기로 울릉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였고, 표류에 의한 송환 과정 등을 거치면서 그들의 울릉도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정확하고 자세한 형태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잘 숙련된 항해기술과 조선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라도 어민들인 고흥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울릉도로 항해하고 울릉도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용복이 처음 울릉도에 갔을 때 이미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어채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¹¹⁷은 울릉도에서 자원이용이 안용복 사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5) 항만 형상이 장오리(雄鳴)와 흡사하므로 옛날에는 장울리(藏鬱里), 장오리(藏吾里;藏五里)라 하더니 지금은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莊湖里)라 한다(<http://www.samcheok.go.kr/>).

116)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117)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2월 23일 기사.

북택정성(北澤正誠)은 『竹島考證』(1881)에서

“죽도(=울릉도)는 실로 우리나라(=일본) 사람이 발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는 섬 중의 하나이다. 그곳에서의 해상 이권을 우리가 장악한 후 74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 조선인은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그런데 元祿 5년(1692) 봄부터 조선인이 죽도에 와서 어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오게 되었다. 이에 그 나라 사람 들을 잡아 이 일을 에도[江戸]에 탄원하였다. 막부는 대마도에 명령하여, 그 나라 정부에 서신을 보내 그 나라 사람이 다시 건너오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서신이 몇 차례 오고간 후, 우리가 죽도라고 하는 섬이 그들이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고 오래전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알게 되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섬에 가는 것을 금하게 되었다.”¹¹⁸⁾

라고 하였는데, 1692년부터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갔다는 내용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용복 사건을 기록한 숙종실록의 기록에는, 일본이 보낸 서계에 “매년(比年) 조선의 어민들이 죽도에서 어채를 하고 있으니 이를 금해 달라”고 하였다. 이미 그 이전부터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채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1881년 北澤正誠의 주장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현종 5년(1664)에 동해에서 오키섬으로 표류한 전라도 고흥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일본인들의 서계에서 지적한 대로 조선인들이 매년 울릉도에서 어채에 종사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측 자료에 죽도도해를 통해 울릉도에서 어채를 하던 어민들의 기록에 1693년부터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와서 자신들이 어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한 사실과 관련해서 일본측 죽도도해관련 자료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선행될 때 좀더 자세한 추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18)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경인문화사, p. 2.

안용복이 2차도일시에 하루 만에 울릉도에 도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후기 울릉도 항해에 이용된 배들은 대양항해에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119)

1801년 다산 정약용이 장기(포항시 장기면)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가득 싣고 돌아왔다”¹²⁰⁾는 사실은 울릉도 항해가 매우 편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나무가 매우 유용하고 상당히 고가의 자원임에는 분명하지만, 배(造船), 전복(全鰓), 산삼(山蔘)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떨어지는 자원이다. 이를 채취하기 위해 울릉도로 갔다는 사실은 항해에 따르는 비용에 비해 한 배 가득 실은 대나무의 가치가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와 울릉도 사이의 항로가 특수한 경우일 수 있지만, 울릉도 항해에 대해 장기의 어민들은 위험을 포함한 항해관련 비용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長鬢)와 울릉도의 관계는 일상적인 항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일상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일기에서는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만난 조선인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거나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나아가 강원도에서 온 선상의 경우에는 폭풍우로 배가 부서져 울릉도에 왔으며, 배를 수리하도록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울릉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사람들이 살만한지 살피라는 고종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파악한 연안어민들의 울릉도 실태를 법에 맞추기 위해 특별히 거스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119) 송병기, 2007,

120) 정약용, 鬢城雜詩, 다산시문집,

4. 소결: 육지와 동일한 생활공간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가와카미 겐조(1966)는 오키도에서 울릉도에 오는데 유리한 해류와 풍향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계·비하계를 막론하고 주된 해류의 흐름은 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에서 오키섬으로 가거나 일본의 북부 해안으로 흐른다.

해류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평해, 영해 등지에서 표류한 조선인들이 오키섬으로 표류한 경우에 비추어 봐도 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비하계에 형성되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강력한 와류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와류가 약화되는 하계에는 오히려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 보다 강력한 난류의 흐름이 동향 혹은 동북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이나 다른 수단의 도움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하다.

동해안의 어부들은 수토활동 이전부터 울릉도를 이용하고 있었고, 숙종대의 정기적인 수토활동이 시작된 이후로는 울릉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채삼(採蔘)꾼의 파견이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인 장기체류에 의한 약초의 채취가 행해지게 되었다. 여기에 남해안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조선(造船)과 어채(魚採)에 종사하면서 울릉도 자원을 매개로 한 생활공간이 확대되었다.

독도는 단순하게 울릉도 항로상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울릉도·독도 해역으로서 울릉도 항해의 중요한 목표해역을 형성한다. 또한 울릉도의 대안적인 전복·미역 등의 어채(魚採) 장소로서 중요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동일한 해역이며 동시에 생활공간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 생활권에 포섭된 지역이다. 이는 우산국이래로 전통적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의 중요한 섬으로서 인식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형성하고 있는 지리적 관계의 특성상 울릉도와 독도를 해양에서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IV. 지리적 인식으로서의 지명인지

지명은 한 사회의 지리적 인식을 반영한다. 지명이 정착되기까지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과정, 즉 표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 번 지명이 부여되면, 지명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 명명했던 사회적 특성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고대 언어에 대한 자료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고대의 지명은 다른 언어적 자료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공간적 관성 혹은 지리적 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산국 이전부터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한반도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명 또한 최소한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다.

1.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 문제와 지리적 인식

1) 울릉도와 독도 지명 문제 개요

일본이 도발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울릉도와 독도 지명의 핵심은 ‘우산도가 독도인가, 석도가 독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의 죽도(竹島, 독도)엔 대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독도(獨島)는 지리적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지명이기 때문에 독섬, 돌섬, 석도(石島), 독[瓮]섬, 외로운 섬, 홀로 섬 등 다양한 이름을 갖더라도 독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사용하는 지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명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이다.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위한 근거로 주인이 없는 새로운 섬이라는 사

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과거에 독도가 송도였으며, 울릉도가 죽도였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하였다. 또한 울릉도를 송도라고 칭하고 있는 사실이 명치유신 후의 일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송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Lebensraum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위치를 확실하게 점유해야 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주변 약소국을 병합하여 국토를 확장함으로써 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 당시 지정학적 사고에 따른다면, 영토의 침략행위는 강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외교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우수한 결정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행하는 속입수를, 전쟁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야말로 최상의 전략인 것과 동일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1904년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지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또한 러일전쟁 이전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장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외교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서 남의 땅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영국의 지리학자 할포드 맥킨더(Halford MacKinder)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심장지역(heartland)'라고 부르면서,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섬(世界島, World Island,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을 지배하고,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대륙 주변부의 연안과 해안에 위치한 국가들이 이들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러시아 봉쇄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은 대러시아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킨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섬을 일방적으로 무주지라 판단하고 은밀하게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해 버린 행위는 근대 침략주의적 시각과 논리 중에서도 최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와 해양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독도에 대한 영토침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해양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가상의 논리를 개발하려다 보니, 주장 자체의 진실성과 설득력 그리고 논리성이 빠져버린 모순된 주장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에 대한 현란한 수사와 언설에도 불구하고 지명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랑고도라 부르던 독도(獨島, どくしま, 도쿠시마)를 다케시마(竹島, たけしま)로 명명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한일 정부간 왕복문서를 교환하면서 “일본 정부견해①”로서 최초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관련 주장을 일본 자신의 송도와 죽도의 지명 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19세기 초 일본에 체류했던 서양인 학자인 지볼트(Siebold)가 그 당시 측량의 오류로 울릉도 북쪽에 또 다른 섬 Argonaut이 존재하며, 그 섬을 竹島라 하고, 기존의 울릉도를 松島라 했기 때문에, 울릉도를 송도라 부르고 기존의 죽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랑고도(Liancourt Rocks,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면서 竹島라 부르게 되었다고 강변하였다. 가와카미(川上健三, 1966)가 그의 책의 첫 장을 “지명의 혼란”에 할애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며, 가와카미 자신이 외무성 관리로서 20년간 독도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 문제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면서 전통적인 송도(松島)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울릉도를 지칭했던 죽도(竹島)라는 명칭을 새로운 섬으로 인식된 랑고도(Liancourt Rocks)의 일본 이름으로 명명

한다. 이것은 명백히 “착오(錯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국제법을 도입한 일본은 일본 주변 바다의 새로운 섬을 일본에 편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다. 이러한 도서의 편입과정은 서구 열강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면서 일본은 이들 서구열강에게는 영토편입 사실을 자세히 통고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 존재한다는 어부의 말만 믿고 영토편입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가공의 섬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이 영토편입 행위는 러일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04년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에 이르고, 일본인들에게는 새로운 섬으로 알려져 있었고,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도에서 독점적인 강치잡이를 영위하고자 1903년부터 조선정부로부터 그러한 독점권을 획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던 中井養三郎을 내세워 랑고도(독도)를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비밀리에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

이러한 국운을 건 러시아와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에 의한 일본의 손실이 커가는 가운데 다급하고 은밀하게 추진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태생적으로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누구보다 일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견해①은 죽도-송도 지명혼란에 대한 장황한 해설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료로는 ① 안용복 활동 관련 진술, ②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 ③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도군의 범위로서 석도(石島)가 있으며, 일본은 이 세 가지 사료를 부정하는데 가능한 한 모든 논리를 집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 안용복 사건에서 울릉도와 독도 인식의 중요성

안용복은 2차에 걸쳐서 일본에 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분명히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미 1차로 일본에 끌려가게 됐을 때, 안용복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의 어채활동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지만, 대마도를 거쳐 송환되어온 안용복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으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에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도항할 계획을 세우고, 전라도 선상을 회유하여 울릉도로 간다. 거기서 일본인들을 만나 그들을 쫓아내다시피 한다. 이에 대해서 일본측에서는 1696년 당시에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항 금지가 내려진 시점이어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1693년에는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해 갔었는데, 1696년에는 이들이 순순히 안용복의 말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송도(松島, 독도)에 사는데 지나는 길에 울릉도에 들렀다는 변명을 하자, 안용복이 송도(松島)는 우리나라의 자산도(子山島)라는 것을 밝히고, 이들을 쫓아 독도에 간다. 독도에서 이들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바로 오키섬을 거쳐 백기주로 가서 다시 한 번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땅임을 밝힌다.¹²¹⁾

안용복이 송도(松島)가 자산도(子山島)라고 한 것은 독도(獨島)를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라고 불렀고 우리측에서는 자산도(子山島)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우산도(于山島, 子山島)가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등에서 울릉도와 함께 언급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안용복사건 이후에 조선후기 대축척지도 등에서 나타나는 울릉도에 근접한 섬을 “于山島”라 하지 않고, “所謂 于山島”라고 하는 사실과도

121) 여기에 대해서 종전 일본측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5년 발견된 일본측에서 안용복을 심문한 자료(『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가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울릉도와 자산도가 강원도에 속한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축척 고지도에 나타나는 “소위 우산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지도제작자들이 수집된 지도와 지리지식 등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편집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하는 지도에서 실제적인 거리나 위치는 왜곡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 또는 우산도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지도 제작자들은 대축척지도에서 우산도의 형태나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울릉도 수토지도에 나타난 섬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울릉도로부터 보이는 거리에 있지만 동남쪽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우산도에 대한 지리정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축척 지도에 “소위 우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세종실록지리지」의 울릉도와 독도 관계 기술의 중요성

「세종실록지리지」의 독도 인식 문제는 한일간 최대 쟁점의 하나였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재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관계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미 세종대에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한국은 1904년 이전에 우산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많은 가공의 논리를 제기하였고,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66)는 시달거리(示達距離) 개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시달거리 공식을 따

르는 경우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이를 문제삼는 학자나 전문가가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리이며…(于山·武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 于山國, 一云 鬱陵島. 地方百里…])

“風日清明, 則可望見”이므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날씨가 맑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관계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리적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관련된 핵심 증거자료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정부에서 간행한 문서이며, 울릉도와 독도를 울진현의 소속, 즉 울진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의 중요성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¹²²⁾에는 울도군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22) “勅令 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第二條(제이조) 郡廳位置(군청위치)는 台霞洞(태하동) 으로 定(정)하고 區域(구역)은 鬱陵全島(울릉전도)와 竹島(죽도) 石島(석도)를 管轄(관할)할 사”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도군의 행정구역으로 공포한 것은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보다 5년 가까이 앞선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비밀리에 내부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만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포한 근거조차도 불분명할 정도로 은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제국은 관보를 통해 이 사실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을 통해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석도=독도라는 점을 부정하고자 한다.

일본은 석도=독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반대하는 일본 학자들조차도 석도가 확실하게 한국의 독도인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은 석도(石島)는 돌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독도(獨島)와 표기만 다를 뿐 같은 지명으로서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의 칙령과 같은 공식문서에는 음훈차(音訓借)보다는 훈차에 의해 지명을 표기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이용하는 차자(借字)표기를 사용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자는 음차(音借), 훈차(訓借), 음훈차(音訓借)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독섬(돌섬)을 훈차하면 석도(石島)가 되고, 음훈차하면 독도(獨島)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석도는 울릉도 주변의 바위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울도군의 설치에 따라 임명된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은 1906년 3월 일본인 독도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울도군수 심홍택의 행동은 대한제국 칙령에서 정한 울도군의 범위에 독도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中正良三郎) 마저도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만큼,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다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인은 없었다.

또한 1904년 9월 25일 독도를 조사한 일본 「전함신고호행동일지」에는 “松島에 대해 「리양코루도」암 실견자로부터 청취한 정보. 한국인은 리양꼬르드島를 ‘獨島’라고 쓰고, 일본인들은 이를 ‘리양꼬島’라고 호칭한다(松島ニ於テ「リアニコルド」岩實見者ヨリ聽取リタル情報. 「リアンコル」岩韓人之ヲ獨島ト書シ本邦漁夫等略シテ「リヤンコ」島ト略稱セリ)”¹²³⁾라고 한국측의 독도(獨島)를 기록하고 있다. 1904년에는 이미 울릉도의 관리들이 獨島라고 쓰고, 일본인들이 사용했다는 ‘량고도’나 ‘리양코루도’ 등을 음차한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Liancourt Rocks’=‘독섬(돌섬)’=‘石島’=‘獨島’라는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지명이라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

2.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을 크게 나누어 보면 안용복사건 이전의 독도가 분리되지 않은 울릉도 인식, 안용복 사건으로 막부가 인정한 울릉도와 독도(자산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인식, 명치유신 후 1886년까지 조선땅 죽도(울릉도), 송도(독도) 인식기, 1886년부터 1904년 독도 시마네현 편입 이전까지 조선땅 량고도(독도) 인식기, 1904년 량고도 무주지 인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안용복사건 이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123) 신용하, 2000, 戰艦新高行動日誌,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일본은 조선초인 태종 7년(1407년) 대마도 守護 종정무(宗貞茂)가 무릉도(茂陵島) 이주(移住)를 청했으나 거절하였다¹²⁴).

광해군 6년(1614년)에는 대마도 번주(藩主)가 동래부사에게 德川家康의 명으로 “기죽도(磯竹島)를 탐견하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날까 우려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였으나 禮曹에서 기죽도는 울릉도로서 우리나라에 소속된 땅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회답문을 보내고, 다시 경상감사와 동래부사로 하여금 왜인의 來去를 금한다는 뜻을 대마도주에게 전하도록 하였다.¹²⁵

광해군 6년 대마도주가 울릉도에 가고자 하였으나 조선의 땅이므로 불허한다는 서계를 대마도주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막부에 전달되지 않아서인지, 1617년(광해군 9년)에 막부에서 「죽도도해면허」를 백기주(伯耆州) 米子에 사는 大谷家와 村川家에게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대마도주는 ‘기죽도(磯竹島)’라고 한 반면에 막부에서는 ‘죽도(竹島)’라고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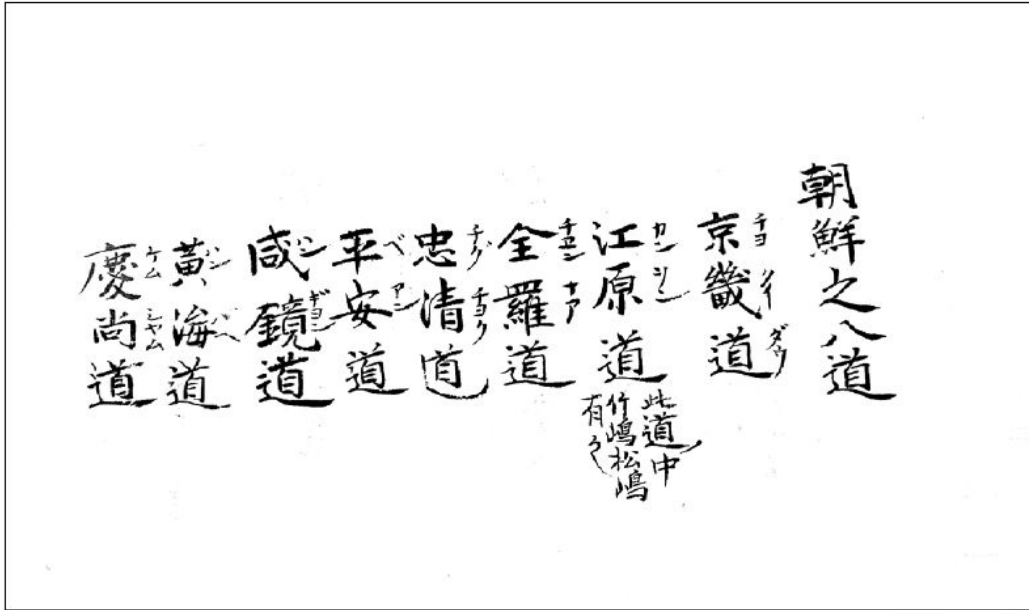
2)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안용복은 1차 도일(1693년)시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및 독도에서의 어채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일본인들이 조선땅에서 함부로 어채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단순하게 잠행을 통해 사적으로 어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막부정부는 조선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696년 1월(元祿 9년) 죽도도해를 금한다¹²⁶).

124) 태종은 대마도주가 울릉도에 옮겨 살고자 한 것은 조선에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국과 외교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허락하지 않았다(태종실록, 태종 7년 3월 16일).

125)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 9월 2일.

126) 朝鮮通交大紀 8. “…米子村の漁人其島に漁せん事を願ひしに依て是を許されしなり、今其地理を計るに、因幡を去るもの百六十里許、朝鮮を距る四十里許なり、是曾て披が地界たる其疑なきに似たり。(米子 마을의 어민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그 땅의



자료: 송병기, 2006.

<그림 15>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중 竹島, 松島の 소속

일본 막부정부가 안용복의 요청대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킨 사실을 모르는 안용복은 2차도일시에 울릉도에서 조우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松島(독도)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송도는 곧 우리나라 자산도(子山島)임을 밝힌 후 이들을 쫓아 松島(독도)에 이르러 이들을 섬에서 쫓아내고, 곧장 은기도(隱岐島, 오키섬)로 가서 가지고 간 조선팔도 지도를 내 보이며, 일본이 말하는 죽도와 송도가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자산도(독도)임을 명확히 한다.¹²⁷⁾ 이후 일본 막부는 울

지리를 헤아려 보건대 因幡州와의 거리는 160리쯤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40리쯤이어서, 일찍이 그 나라 땅이라는 것이 의심 없을 것 같다.) …しかも其の初是を彼に取に非ざる時は、今また是を返すを以て詞とすべからず、唯我人の往て漁ずるを禁ぜらるべきのみ、しかも其の初是を彼に取に非ざる時は、今また是を返すを以て詞とすべからず、唯我人の往て漁ずるを禁ぜらるべきのみ、(그리고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고기 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 (신용하, 1999b,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2권,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학회, 2005,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은 왜 오류인가?, 팸플릿).

127) 송병기, 2006, op. cit.

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

3)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명치유신 이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인식을 유지한다.¹²⁸⁾ 명치 2년(1869년) 명치정부 태정관은 “죽도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을 조사토록 하자 이에 대한 보고서에서 “松島는 竹島の 隣島로서 松島の 건에 付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 竹島の 건에 付해서는 元祿度後는 잠시 조선으로부터 差遣한 바 있다.”라고 하여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 스스로 확인했다.¹²⁹⁾ 명치 10년(1877년) 내무성에서는 지적편찬과 관련하여 시마네현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일본해(동해) 내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에 대해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태정관에 질의한다. 여기에서 내무성은 죽도가 “일본과 무관(本邦無關)하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품의”한다.¹³⁰⁾ 특히 별지서류에서는 “磯竹島는 竹島라 칭한다…(磯竹島一ニ竹島ト稱ス…)”라고 하고 죽도의 위치와 산물에 대해 기록한 후에 “다음의 一島는 松島라 부른다(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 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 隱岐ヲ距ル八拾里許 樹竹稀ナリ. 亦魚獸ヲ産ス)”라고 하여 竹島外一島에서 一島가 松島(독도)임을 밝히고 있다. 같은 해(1877년) 태정관(太政官)은

128) 일본관련문헌은 신용하(1999a)의 원문, 초역, 그리고 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29) 「日本外交文書」 제3권,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69”. “一.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松島ハ竹島ノ隣島ニチ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 竹島ノ儀ニ付テハ元祿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爲差遣シ置候處當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人參等自然ニ生シ其餘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

130) 明治政府 內務省 公文書, 1877,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何出取調候處該島之儀ハ元祿五年朝鮮人入島以來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祿九年正月第一號舊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二號譯官ヘ達書三號該國來東四號本邦回答及ヒ口上書等之如ク則元祿十二年ニ至リ夫夫往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聞候得共版圖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候也. 明治十年三月十七日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 殿”

竹島外一島에 대하여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¹³¹⁾이라고 한다.¹³²⁾

이상과 같이 1877년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의 소속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아무런 혼란이 없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독도를 송도라 부르지 않게 된 것은 1886년 일본 해군성의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에 松島(독도) 대신에 “リアンコルト列岩”이라고 수록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환영수로지를 ‘일본수로지’와 ‘조선수로지’로 나누면서 “リアンコルト列岩”을 명칭변화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송도(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정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일본수로지가 아닌 조선수로지에 수록한다. 이는 독도를 “リアンコルト列岩”이라 부르면서도 그 소속은 조선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3년 中井養三郎이 독도의 강제잡이를 위해 원래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은 조선 정부에 랑고도(독도) 대하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1904년 “랑고도의 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뀌게 된다.

4)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04년 이전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

131) 明治政府 太政官 指令文 明治十年三月二十日(1877년).

132) 태정관의 竹島外一島에 대한 지령문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죽도의일도란 지볼트의 지도에 나타난 Argonut(竹島), 松島(울릉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자료를 무시하고 왜곡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일본인들도 있다. 이것은 태정관의 지령문만을 보고, 내무성의 품의서(질의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지 않은데서 오는 명백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독도 시마네현 편입 각의결정문

明治 38年 1月 28日

內務總理大臣 法制局長官

外務大臣 大藏大臣 海軍大臣 文部大臣 遞信大臣

內務大臣 陸軍大臣 司法大臣 農商務大臣

別紙內務大臣請議無人島所屬ニ關ス

ル件ヲ審査スルニ右ハ北緯三十七度九

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

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無人島ハ

他國ニ於テ之ヲ占領シタリト認ムヘキ形跡

ナク一昨三十六年本邦人中井養三郎

ナル者ニ於テ漁舍ヲ構ヘ人夫ヲ移シ

獵具ヲ備ヘテ海驢獵ニ着手シ今回領

土編入竝ニ貸下ヲ出願セシ所此際所

屬及島名ヲ確定スルノ必要アルヲ以テ

該島ヲ竹島ト名ケ自領島根縣所屬

隱岐島司ノ所管ト爲サントスト謂フ

ニ在リ依テ審査スルニ明治三十六年

以來中井養三郎ナル者カ該島ニ移

住シ漁業ニ從事セルコトハ關係書類ニ依

リ明ナル所ナレハ國際法上占領ノ事實

アルモノト認メ之ヲ本邦所屬トシ島根

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爲シ差支

無之儀ト思考ス依テ請議ノ通閣議

決定相成可然ト認ム

으로 관련성이 없는 새롭게 발견한 섬인 것처럼 파악한데 있다.¹³³⁾ 일본은 독도를 랑고도(リャンコ島)라 부르면서도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울릉도를 지칭하는 이름인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독도에 명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1905년 편입조치는 역사성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섬의 발견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형식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 독도에 기존의 송도(松島)라는 지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섬으로서 竹島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된다.

독도를 죽도(竹島, たけしま)라 한 것은 단순히 송도(松島)와 죽도(竹島)의 교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독도(獨島)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도쿠시마(どくしま)라 하기 때문에, 이를 본 떠서 유사한 다케시마(たけしま)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1904년 당시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 형성된 영토의 경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섬으로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고자 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지명표기로 본 한일간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

1) 한자를 이용한 지명표기

한자를 이용해서 지명을 표기하는 문제는 울릉도의 지명과 독도의 지명

133) (일본)国立公文書館, 公文類聚·第二十九編·明治三十八年·第一卷(<http://www.jacar.go.jp>).

을 표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영역을 지정하면서 우산도나 독도 대신에 석도(石島)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석도가 독도(獨島)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만 일본은 석도가 독도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도수희(2003)¹³⁴)는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훈차(訓借), 훈음차(訓音借), 음차(音借) 등으로 나눈다.

훈차는 ‘샘골: 천동(泉洞), 돌다리: 석교(石橋), 한밭: 대전(大田), 안골: 내동(內洞), 갯골: 변동(邊洞), 대실: 죽곡(竹谷)’ 등처럼 한자의 뜻(훈)의 표기한 것이다.

훈음차는 음차와 훈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팥거리: 두마(豆磨)’처럼 훈차처럼 팥갈이로 해석할 경우 팥밭이 많지도 않고 팥이 많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팥(豆)을 팥과 무관한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도안의 밖에 있다는 뜻에서 안-팥의 구분에 따라 팥거리란 지명이 생겼고 이를 표기한 것이 두마(豆磨)이다.

음차는 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리만을 표시한 경우이다. 대전 둔산(屯山)의 경우 군부가 오래도록 주둔한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谷’을 의미하는 고유 지명소 ‘屯’에서 온 지명이다.

또한 일단 지명이 음차(音借)한 한자로 표기되면, 원래 한자가 지닌 의미가 두드러져서 지명을 한자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도수희(2003)는 이것을 음차 표기의 한자를 훈차 표기로 착각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대전시 하천 중에 ‘버드내’(柳等川>柳川)가 있는데 이 지역 노인들은 ‘넋가에 버들이 많아서 지어진 지명’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넋가에 독을 만들고 10여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일제 시대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버드나무를 심을 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의 양편에 ‘벌

134)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판'(坪)과 '들판'(坪)이 넓게 펼쳐져 있다. 과거에 이 내가 양쪽 벌판과 들판에 범람하였고, 이 벌판과 들판 사이를 흐르는 내이기 때문에 '벌들내'라는 지형을 명명한 것이라 한다.¹³⁵⁾

일본어에서는 고유명사를 읽을 때 혼독하는 경우와 음독하는 경우 양자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독도에 적용하면 쓸 때는 석도(石島) 혹은 독도(獨島)라고 쓰고 읽을 때는 모두 독섬이라고 읽는다. 처용가(處容歌)에서 동경(東京)이라 쓰고 읽을 때 '셔불(서울)'이라 읽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 울릉도와 독도 지명의 다양성 및 일관성과 일본의 지명 혼란

가.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 지명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은 『삼국사기』(고려 仁宗 23년, 1145년)의 于山國(우산국) 관련 기사의 于山國과 鬱陵島(울릉도)¹³⁶⁾로부터 시작된다.

于山(우산)이라는 이름은 于(우)山, 亏(우)¹³⁷⁾山, 子(자)山, 千(천)¹³⁸⁾山 등

135) 도수희,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3, pp. 41-50.

13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13년(512년) 6월조; 지명을 비교설명하기 위해 한자(한글) 형식을 사용함

137) 일본의 지도에 나타나는 지명변화를 보면, “朝鮮京都日本大阪西國 海邊航路地圖”(1748년)에는 于山島(우산도), “朝鮮國細見圖”(1873)에는 亏山島(우산도), “五畿八道 朝鮮國細見圖”(1874)에는 亏山島(울산도), “朝鮮國細圖”(1882)에도 亏山島(울산도)로 표기되어 있다. 亏는 于의 본자(本字)이다. 따라서 亏를 亏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편으로 우(亏)와 울(亏)은 자형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발음도 ‘우’와 ‘울’로서 고대나 중세에는 발음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다. 1004년(고려 목종 4년, 일본 寬弘 원년) 울릉도인들의 인번주(因幡州) 표류기록에 한자로는 ‘宇流麻島’, 가다가나로는 ‘우루마(ウルマ)’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412년(태종 12년) 태종실록에는 “유산국도(流山國島)”라고 하고 있는 점이나, 우릉(羽陵), 무릉(武陵, 茂陵) 등에서 받침 소리 ‘ㄹ’이 계속되는 점 등은 신용하(2002, pp. 46-50)의 ‘于山=우르되’설의 가능성을 크게 한다.

138) 우리나라의 실록에는 나오지 않고 지도의 표기로 나타난다. 千山島(천산도)는 특히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에서 울릉도의 중국어식 표기인 Fan-ling-tao로, 우산도의 또 다른 명칭인 千山島의 중국어식 표기인 Tchian-chan-tao로 서양에 소개된 후 당빌류의 서양지도에 계속등장하게 된다.(국립박물관, 『가고

으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거나 자형(字形)이 유사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붓글씨에서는 우(于)의 본자인 우(亏)를 사용함으로써 우(于)자가 다른 글자로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역으로 우(亏)자는 울(亏)자, 궁(弓)자, 무(无)로 혼동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형의 혼란은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견된다.

울릉도의 경우에도 鬱陵島(512년), 芋陵島(930년), 于陵島(1004년), 羽陵城(1032년), 蔚陵島(1260), 武陵島(1379), 茂陵島(1407), 流山國島(1412) 등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졌다. 또한 실록에는 울릉도를 일본인들이 竹島(죽도), 磯竹島(의죽도)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⁹⁾

『실은 우리 땅 독도』, 2006, pp. 104-119)

139)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1694년) 8월 14일 己酉.

…남구만이 전일의 회서(回書)를 고치기를,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해(東海) 가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 갔다 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본도(本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產物)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강호(江戶)까지 잡아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경을 침범해 와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뜻을 가지고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九萬改前日回書曰: “弊邦江原道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產,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值,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貴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

신석호(申奭鎬), 이병도(李丙燾) 교수 등이 독도의 지명에 대해 연구한 이래로 독도 지명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신석호(1960)는 “독도의 내력”에서 독도의 독을 옹기인 독(瓮)과 같이 생겨서 독섬이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⁴⁰⁾ 이병도(1963)는 탐진(耽津)과 교류하는 제주가 탐라(耽羅)가 되었듯이 울진(蔚珍), 우진야(于珍也)와 교류하는 섬으로서 우산(于山), 울릉(蔚陵)이 되었다고 하였다.¹⁴¹⁾ 인용하는 일본의 기록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를 우루마(うるま)島라 부른 것으로부터 우산을 우르되라 보고, 울릉도 성인봉의 이름도 우르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¹⁴²⁾

나.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지명

고지도는 당시 사람들의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달려있는 ‘조선전도’와 ‘강원도도’이다. 이들 지도는 ‘동람도(東覽圖)’라 표기되어 있어서 ‘동람도’라 불린다. ‘동람도’는 조선 초기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동람도’에서 보이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바뀌어 있다. 우산도가 강원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우산도(于山島)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치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부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고지도

隣之情，出於尋常，欽歎高義，感激何言？雖然我氓漁採之地，本是鬱陵島，而以其產竹，或稱竹島，此乃一島而二名也。一島二名之狀，非徒我國書籍之所記，貴州人亦皆知之。而今此來書中，乃以竹島爲貴國地，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拘執我氓之失，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深望將此辭意，轉報東都，申飭貴國邊海之人，無令往來於鬱陵島，更致事端之惹起，其於相好之誼，不勝幸甚。”(…)

140) 申奭鎬, “獨島의 來歷,” 1960.

141) 李丙燾, 「獨島의 名稱에 대한 史的 考察」,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教史學論叢』, 1963.

142) 愼鏞廈, 1999b, “獨島·鬱陵島의 名稱變化 연구 - 명칭변화를 통해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證明,”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2권, pp. 293-358.

<표 11> 조선시대에 제작된 주요지도 상의 독도의 명칭, 위치, 형태

지도명	유형	제작시기	판형	크기(cm)	독도명	위치	소장처
八道摺圖(帖 東國輿地勝覽)	전도	16세기 전기	목판본	25.6×35.0	于山島	左	奎章閣
八道總圖(帖 東覽圖)	전도	16세기	목판본	28.3×34.0	于山島	左	역박(이찬 기증)
華東古地圖	세계	16세기	채색사본	179.0×198.5	于山島	左	奎章閣
八道總圖(帖 東覽圖)	전도	1530년	목판본	27.0×34.2	于山島	左	역박(이찬 기증)
朝鮮全圖	전도	16세기 중기	필사본	37.0×46.0	于山島	上	윤형두
混一歷代國都疆理之圖	세계	16세기 중기	채색사본	178.9×198.5	于山島	기타	仁村記念館
江原道(帖 東國地圖)	도별도	16세기 중엽	목판본		于山島	左	奎章閣
八道總圖(帖 東覽圖)	전도	16세기 후반	목판본	26.0×34.6	于山島	左	嶺南大 博物館
江原道(帖 東覽圖)	도별도	16세기 후반	목판본	26.0×34.6	于山島	左	嶺南大 博物館
八道總圖(帖 東覽圖)	전도	16세기 후반	목판본	28.0×34.7	于山島	左	嶺南大 博物館
海東地圖	전도	16세기 후반	채색필사	48.6×32.3	于山島	左	奎章閣
八道摺圖(地圖)	전도	17세기	채색필사	28.5×34.4	于山島	左	역박(이찬 기증)
江原道(地圖)	도별도	17세기	채색필사	28.5×34.4	子山	下	역박(이찬 기증)
朝鮮本天下輿地圖	세계	17세기	채색사본	154.1×183.5	平山島	左	서울역사박물관
강원도이십육관	도별도	17세기 초	목판본	83.7×56.2	于山島	左下	역박(이찬 기증)
八道摺圖(帖 歷代地圖)	전도	17세기 전기	필사	25.0×34.4	于山島	左	奎章閣
朝鮮八道古今總攬圖	전도	1673년	목판본	137.5×107.0	于山島	上	崇實大 博物館
朝鮮八道古今總攬圖	전도	1673년	필사본	127.5×88.4	于山島	上	허영환
朝鮮八道古今總攬圖	전도	1673년	목판본	141.2×107.0	于山島	上	역박(이찬 기증)
八道總圖	전도	1683년	채색사본	124.0×90.5	于山島	左	奎章閣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전도	17세기 후기	채색사본	218.0×149.0	于山島	左	高麗大 圖書館
朝鮮八道摺覽之圖	전도	17세기 후기	목판본	106.5×71.0	于山島	右	윤형두
朝鮮八道	전도	17세기 후반	채색사본	48.0×32.8	于山島	上	역박(이찬 기증)
江原道(地圖)	도별도	18세기	필사본	28.0×35.0	于山	下	역박(이찬 기증)
江原道(地圖)	도별도	18세기	채색필사	29×29.4	于山島	左	역박(이찬 기증)
天下大摺一覽之圖	세계	18세기 초기	채색사본	128.5×155.0	于山島	左	國立中央圖書館
朝鮮摺圖(帖 天下地圖)	전도	18세기 전반	채색사본	36.5×30.0	方山島	左	嶺南大 博物館
輿圖	전도	18세기 전반	채색사본	153.7×95.0	于山島	左	嶺南大 博物館
八道全圖(帖 八道地圖)	전도	19세기 전반	채색사본	98.3×61.5	于山	右	嶺南大 博物館
東國地圖	전도	18세기 전반	채색필사	92.6×65.3	于山島	左	역박(이찬 기증)
江原道(帖 八道地圖)	도별도	18세기 전반	채색사본	71.0×71.0	于山島	右	嶺南大 博物館
朝鮮地圖(帖 廣輿圖)	전도	18세기 전반	채색필사	31.6×24.3	于山島	左	奎章閣
八域總圖(帖 朝鮮地圖)	전도	18세기 전기	채색필사	32.6×42.4	于山	左	奎章閣
四郡二府漢時分界之圖	전도	18세기 전기	채색필사	41.8×33.2	羽山島		奎章閣
新羅百濟高句麗肇造區域地圖	전도	18세기 전기	채색필사	41.8×33.2	羽山島	섬안	奎章閣
朝鮮全圖(帖 關東地圖)	전도	18세기 전기	채색필사	52.5×62.5	于山島	左上	奎章閣
海東輿圖	전도	18세기 전기	채색필사	107.8×75.4	于山島	左	奎章閣
八道摺圖	전도	18세기 전기	채색필사	122.4×90.8	于山島	左	奎章閣
朝鮮八道總覽之圖	전도	18세기 전기	목판본	105.8×69.9	于山島	上	奎章閣
八道總圖	전도	18세기 중기	채색사본	30.0×37.5	于山島	左	國立中央圖書館
鬱陵島(帖 海東地圖)	군현도	18세기 중기	채색사본	47.5×30.0	于山島	右	奎章閣
江原道(帖 東國地圖)	도별도	18세기 중기	채색사본	104.0×63.0	于山島	右	이찬
東國八道大總圖(帖 瑤圖)	전도	18세기 중기	채색필사	26.4×35.2	于山	下	奎章閣
我國摺圖(帖 輿地圖)	전도	18세기 중기	채색필사	151.0×81.5	于島	右	奎章閣

자료: 양보경, 2005.

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면서도 부정확성이란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양보경(2005)은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고지도를 세계지도, 전국지도, 도별지도,군현지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¹⁴³⁾

양보경은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1402)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어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고, 16세기 세계지도인 “혼일역대강리지도”(混一歷代疆里之圖)에는 우산도(于山島)라고만 그려져 있으며,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조선본천하여지도”(朝鮮本天下輿地圖)에는 울릉도와 평산도(平山島)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산도의 경우 울릉도의 좌측(서쪽)에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18세기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摠一覽之圖)에도 울릉도의 서쪽에 우산도(于山島)가 그려져 있다고 하였다.

양보경의 분석 결과를 보면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도 울릉도가 포함될 정도로 울릉도에 대한 인식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지만,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보경이 정리한 고지도 상의 독도 지명을 통해 볼 때, 17세기에 제작된 『地圖』 중 도별도인 「강원도」에 ‘子山’이라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안용복이 일본에 가지고 간 팔도지도와 유사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산도(于山島)의 이지명(異地名)으로는 평산도(平山島), 방산도(方山島), 우산도(羽山島), 우도(于島) 등이 있다.

고지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표시이다.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표시된 경우에도 울릉도와 너무 가깝게 표시한 지도들이 문제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은 오상학(2006)이다.¹⁴⁴⁾

오상학(2006)은 울릉도와 독도 관련 고지도들을 크게 4시기로 나누어서

143) 양보경, 2005, op. cit.

144) 오상학, op. cit.

고찰하고, 지도상의 오류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상학은 기존의 고지도 연구에서 일관되게 모든 우산도는 독도라고 보는 시각과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특히 동람도식 지도에서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의 서쪽에 나타나는 것과 함께 우산도의 크기가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진 점 등을 볼 때 우산도를 독도로 보는 시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¹⁴⁵⁾ 또한 동람도식 지도에서 보이는 다양한 우산도의 위치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산도의 지명 표기에서 보이는 변화들(子山島, 方山島)과 함께 고려하면, 모두 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고 하였다.

오상학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수토관을 통한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증대 및 울릉도 수토지도의 등장으로 지도제작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후 국가적 차원의 지도제작에 적극 활용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그러나 19세기 지도제작의 특징은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확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김정호가 필사본 『청구도』에서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를 그리고 있는데,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는 우산도가 빠져있고 울릉도만 그려져 있는 점에 대해서 우산도가 울릉도에 근접한 죽도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⁴⁶⁾

대동여지도 제작을 위해 작성한 『대동지지』 울진현조 울릉도 기사에는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은 성종 때 삼봉도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 박원종을 보내 수색토록 했으나 울릉도만 보고 갔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¹⁴⁷⁾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울릉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좀더 부연하고 있다. 울진현의 높은 곳에 올라보면 구름처럼 울릉도를 볼 수

145) ibid. p. 83.

146) ibid. pp. 94-95.

147) 대동지지, 강원도 울진현(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있다고 하며, 바람이 좋으면 2일이면 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김정호가 우산도(독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오상학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이 지도학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어쩌면 조선 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해안에서 울릉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산도의 위치를 구태여 울릉도와 강원도 사이에 배치한 이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동한 해류의 영향을 받는 울릉도와 독도 항로를 고려하면, 동해안 남부지역의 경우에 육지에서 울릉도에 가거나 특히 울릉도에서 육지로 귀환할 때에는 독도 근처를 지나 육지로 돌아오는 항로를 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동해 울릉분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울릉도 와류의 존재는 포항 등지에서 출발한 배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해류를 타고 울릉도로 직향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는 울릉도에서 독도사이를 지나 포항 앞바다로 흐르는 약화된 울릉도 와류를 이용하면 쉽게 포항이나 장기 근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랍도에 나타난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는 울진이나 삼척 등 동해 중부지역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동해남부지역 어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서구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지명

가마카미 겐조(1966)는 일본의 죽도(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취약한 요소를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을 혼동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일본의 공식정부견해의 서두에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혼동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서양고지도의 영향이라고

<표 12> 서구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년도	鬱陵島	竹島(현재)	근거
1787	Dagelet		La Perouse 발견 명명
1789	Argonaut		Colnett 발견 명명
1811	Dagelet		John Cary 지도
1811	Argonaut, Dagelet		Arrow Smith 지도
1815	Argonaut, Dagelet		Thomas 지도
1840	Argonaut(Takasima), Dagelet(Matsusima)		Siebold 지도
1842	Argonaut, Dagelet		James Gardner 지도
1849		Liancourt	Liancourt호 발견 명명
1851	Argonaut, Dagelet		John Tallis & Co. 지도
1854			Pallada호 Argonaut 위치 측정 오류 확인
1855	Argonaut	Hornet	Hornet호 발견 명명
1856 (1858)	(nicht vorhanden) Dagelet(Matsusima) Argonaut	Hornet	Perry. Heinet 원정기
1859	Dagelet(Matsusima) Argonaut	Hornet	James Wylde 지도
1868	Dagelet(Matsusima)		Keith Johnson 지도
1872	Matsusima(Dagelet)	Liancourt or Hornet	Peterman 지도 Gotha: Justus Perthes
1879	Taka Shima Matsu Shima	Liancourt Rks.	Stanford 지도
1880	Matsusima	Hornet Is	Rittau 지도
1881	Argonaut Dagelet(Matsusima)	Hornet	James Wylde 지도
1894	Argonaut(Takasima), Dagelet(Matsusima)	Hornet Is (410 feet)	Stanford 지도
1896	Matsusima(Dagelet I.)	Liancourt(Hornet)	
1929	Matsusima(Dagelet I.)	Liancourt Rks.	
1950	Matsusima(Dagelet)	Liancourt Rock (Hornet Is.)	

자료: 가와카미, 1966, pp. 17-8.

밝힌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를 변명하기에 급급해 하는 것 같다.

가와카미는 지볼트(Siebold)가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엘고너트섬을 죽도(竹島)로, 그리고 독도(獨島)를 리앙쿠르암(巖)으로 지도에 표현한 후, 그의 지도의 영향이 다시 일본의 지도 제작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도가 다즐레와 엘고너트라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섬이 있는 것처럼 지도상에 기재된 이후 1854년 러시아 군함 팔라다(Pallada)號가 울릉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 결과 콜넷의 측량한 엘고너트섬의 경위도가 부정확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후 구미의 지도 중에는 엘고너트섬을 점선으로 표시한다든지 “현존하지 않음(nicht vorhanden)”이라고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엘고너트라는 島名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죽도라 부르고 엘고너트를 송도라고 부르는 지도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혼동을 겪었다고 하는 그 시기에 일본은 태정관 문서를 통해서 울릉도는 다케시마이고 독도는 마츠시마임을 분명히 하였다. 태정관이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한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일본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태정관문서의 부속서에는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의 일도(一島)가 송도(松島)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일본의 지명 혼란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공인한 관찬 일본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에 역사적으로 확립된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호사카유지(1999)는 일본의 관인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막부정권이 안용복 활동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하였고, 대마도 도주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일본의 막부가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을 확인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영유권 주장은 사라졌으며 따라서 울릉도와 독

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지도제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또한 설혹 민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일본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이전까지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제기된 수차에 걸친 영토편입 요청에 대해서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가와카미는 일본내에서 독도의 인지가 부족하고, 그러한 인지의 결여에 따른 송도(울릉도) 개척 건의가 제기되었던 상황을 인식하고, 독도 시마네현 편입시에 독도를 죽도라고 명명한 오류를 타개하기 위한 훌륭한 구실로서 시볼트 지도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일본에 있어서 울릉도와 독도 지명표기

일본은 전통적으로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島)라 불렀다. 그런데 19세기말에 이르면 울릉도를 송도(松島) 혹은 죽도(竹島)라 혼용해서 부르고 독도를 량고도(Liancourt島)라고 불렀다. 1905년에는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독도를 죽도(竹島)로 부르게 된다.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시마네현 독도 편입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던 일본은 죽도 명칭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들은 한국에 보낸 독도관련 첫 번째 일본정부견해의 서두에서 죽도지명의 문제를 변호한다. 죽도지명의 혼란은 서양지도에 나타난 지명표기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일본은 단지 지명을 착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松島와 竹島로 부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竹島 혹은 磯竹島로 독도를 松島로 불렀다. 울릉도와 독도

를 발견한 서양인들은 울릉도에 대해서 다즐레(Dagelet, 1787), 엘고너트(Argonaut, 1789) 등의 이름을 붙였고, 독도에 대해서는 리앙쿠르(Liancourt Rock, 1849), 메넬라이·올리부차(Menelai(동도)·Olivutsa(서도), 1854), 호넷(Hornet Rock, 1855) 등으로 명명했다.¹⁴⁸⁾

3. 울릉도와 독도 지명이 일본의 지명표기에 미친 영향

일본의 죽도(竹島, たけしま) 표기는 우산(于山)→우산(弓山)→궁산(弓山)→궁숭(弓嵩, いそたけ)¹⁴⁹⁾→죽도(竹島, たけしま, 울릉도)로 이어지는 변화와 우산(弓山)→우릉도(弓陵島)→무릉도(无陵島)→무릉도(武陵島)→무도(武島, たけしま)→의죽(磯竹, いそたけ)→기죽도(磯竹島, いそたけしま)→죽도(竹島, たけしま, 울릉도)로 이어지는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케’라는 소릿값에는 변화가 없고 이를 표기하는 한자만 무(武), 숭(嵩), 죽(竹)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케시마’의 어원은 한국에서 부르는 무릉도(武陵島)가 일본에 전해져 무도(武島)가 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를 무릉도(武陵島)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산(弓山)으로부터 유래한 우릉도(弓陵島)를 무릉도(无陵島)와 같이 읽음으로써 시작되었을 수 있다. 무릉도(无陵島)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고려 후기에 울릉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울릉도에 대한 지배를 확장하면서, 당시 유학 및 한문학의 발달결과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울릉도를 무릉도(武陵島)로 인식하고 이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릉도(武陵島)가 일본에 전해져 무도(武島, 다케

148) 이진명, 2005, pp. 27-9; 김병렬,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1998, pp. 31-58

149) 이병도 박사에 의하면 궁숭(弓嵩)에서 ‘弓’은 곰(熊)을 ‘嵩’은 ‘수리’·‘술’[上岳峰]의 借字로서 성인 봉의 명칭도 ‘곰수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イソ’는 ‘快男’ 또는 ‘五十’의 뜻이라고 하였다. (신용하, 2003, p. 70.)

< 표 13 > 일본 다케시마 표기와 울릉도 지명의 관계

한국지명	일본지명	일본지명	한국지명
우산(弓山)			
于陵島(1004년) (弓陵島)			
{무릉도(无陵島)}			
武陵島(1379년)	武島(タケシマ)	{궁산(弓山)}	우산(弓山)
	↓	궁송(弓嵩) (이소다케이소타케) (1785년)	
	기죽도(磯竹島) (이소다케이소타케) (1614년)	↓	
	五十猛 (이소다케, 일본의 神名)		
	죽도(竹島, タケシマ, 1617)		

{ } 안은 확인되지 않고, 추정되는 내용임.

자료: 필자 작성

시마)로 불리게 됨으로써 죽도(竹島, 다케시마)의 명칭으로 이어지게 된다.¹⁵⁰⁾

林子平의 「三國接壤地圖」(1785)에는 울릉도에 궁송(弓嵩)이라 쓰고 ‘이소타케(イソタケ)’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부르는 다케시마(竹島)는 대나무가 나오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무릉도(武陵島)에서 온 무도(武島)의 다케시마에서 ‘다케’라는 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150) 대서준휘는 다케시마의 어원이 대나무섬이라는 죽도(竹島)가 아니라 원래는 다른 이름인 武島에서 온 것이라하고, 그 어원이 한국에서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1919년 中井猛之進의 『울릉도식물조사서』에 “이섬의 옛 명칭은 타케시마(武島)라 한다. 원래는 타케(武)의 섬으로 그것이 어느 사이에 타케(竹)의 섬이 되었다한다. 타케(武)의 섬이란 울릉도의 옛 이름 ‘武陵島’를 말한다”고 한 것과 그리고 1921년 坪井九馬三도 “울릉도(역사지리 38, 3)”에서 “섬의 고명(古名)은 원래 우루, 우, 무로, 그것을 한자인 武나 于에 해당시킨 것이라 한다. 우노시마(武の島), 우노시마(于の島)라는 의미이다.”라고 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于나 羽는 우, 武는 중국음으로는 ‘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권오엽 역, 2004, 獨島, 제이앤씨(大西俊輝, 일본해와 독도-일한 영토문제), pp.

다. 일본인들의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생겨나면서 울릉도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보고, 즉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케시마’에 대한 한자를 기죽도(磯竹島, 물가에 대나무가 있는 섬)라고 쓰다가, 竹島라고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케시마’, 특히 ‘다케’라는 명칭의 어원은 무릉도(武陵島)의 ‘무(武, 다케)’로부터 시작하여 ‘숭(嵩, 다케)’, ‘죽(竹, 다케)’로 한자만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1905년 독도 시마네현 편입시에 ‘량고도’ 대신에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한 것은 발음이 유사한 ‘독도(獨島, 도쿠시마)’의 영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울도군수 심홍택이나 편입의 청원자 나카이(中正良三郎)나 모두 독도를 우리의 땅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보거나 ‘독섬’과 ‘獨島’는 일본발음으로는 모두 ‘도쿠시마(トクシマ)’라서 유사성에 근거해 볼 때, 그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량고도’보다 오히려 ‘도쿠시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 소결: 지명으로 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일관성

독도의 지명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대한 제국칙령 제41호에서 말하는 울도군의 관할에 속하는 석도(石島)가 독도인가 하는 문제와, 『고려사지리지』 및 『세종실록지리지』에서부터 언급된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산도가 독도인가 하는 것은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분명해졌다. 숙종실록에서 안용복이 “송도(松島)도 또한 우리 땅인 자산도(子山島)¹⁵¹⁾이다¹⁵²⁾”

151) 자산도(子山島)라고 한 것은 다양한 이름들(우산도(于山島), 우산도(汚山島), 울산도(汚山島), 방산도(方山島), 간산도(干山島), 천산도(千山島), 자산도(子山島) 등 특히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관각 상의 오류 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한자명이 존재한다.) 가운데서도 특히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용복이 사용한 용어이다. 울릉도는 모도(母島)이고 독도는 자도(子島)이기

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의 기록에도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자산도가 강원도에 속하는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속종실록의 기록과 일본측 안용복 진술기록을 통해서 우산도가 일본의 송도임이 밝혀지고, 우산도는 독도라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

대한제국칙령제41호(1900년)의 울릉도 관할 중 '석도(石島)'가 독도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이다. 칙령제41호는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편입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한다. 즉,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조치보다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5년이나 빠르기 때문이다. 독도가 돌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일치된 이름이고, 석도(石島)는 돌섬을 음차한 한자식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울릉도 주변의 바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할을 명명하면서 울릉도, 죽도 등은 고유명사이고 석도는 일반명사라고 한다는 것도 어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바위들을 지칭하여야 한다면 “鬱陵等處” 혹은 “武陵等處”라고 하는 기존의 지명관련 명명법에서 사용되었듯이 “석도 등”이라는 복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죽도와 석도”라고 한정하였

때문에 자산도(子山島)라고 의도적으로 명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152)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술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신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渠倡言：‘鬱島本我境，倭人何敢越境侵犯？汝等可共縛之。’仍進船頭大喝，倭言：‘吾等本住松島，偶因漁採出來。今當還往本所。’松島卽子山島，此亦我國地，汝敢住此耶？’遂以翌曉，挖舟入子山島，倭等方列釜鬻煮魚膏。渠以杖撞破，大言叱之，倭等收聚載船，舉帆回去，渠仍乘船追趁，猝遇狂飆，漂到玉岐島。(속종실록 권30, 속종 22년(1696년) 9월 25일 戊寅)

다는 점은 “武陵于山二島 在縣東海中” 등의 표현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법률의 열거주의적 성격과 관련해 봤을 때도 죽도와 석도는 별개의 독립적인 섬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자를 통해 지명을 표기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애매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돌섬을 훈차(訓借)한 석도(石島)나 음차(音借)+훈차(訓借)한 독도(獨島)가 표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표기(異表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암석으로 이루어진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Liancourt Rocks’=‘돌섬(독섬)’=‘石島’=‘獨島’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홍택은 일본 독도 시찰단의 방문을 받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일본인들은 울도군수에게 독도 편입사실을 알렸으며, 군수의 환대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¹⁵³⁾ 그러나 심홍택은 곧장 강원도 관찰사에게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대한제국정부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박탈의 주범인 일본에 항의하고자 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만다.

심홍택의 즉각적인 행동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칙령에 의해 임명받은 울도군수는 독도를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조사단이 방문한 바로 다음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독도 편입요청자로 알려진 나카이(中正良三郎)도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정부가 조선에 독도를 자신에게 대하(貸下)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일본 정부가 종용해서 ‘량고도 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꾼 것이었다. 심홍택, 나카이 등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들 모두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에 대한 논란은 1952년 이후에 제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153) 奥原碧雲, 1907, 竹島及鬱陵島(2005 復刻板), ハーベスト出版.

V.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과 이용

1.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 이용실태 관련 주요 자료

1)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1882년)¹⁵⁴⁾

가. 검찰일기 개관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는 19세기 말 조선의 울릉도에 관한 정책이 수토정책(搜討政策)에서 울릉도 개척을 통한 이주정책(移住政策)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1881년 강원도 관찰사가 그 해 실시된 울릉도 수토결과에 대한 장계에 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몰래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사실을 고하자, 이를 들은 고종은 기존의 수토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확고한 영토수호의지를 보이면서 무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삼아 울릉도를 검찰토록 한다. 울릉도 검찰은 해를 넘겨 1882년 음력 4월에서 5월 사이에 행해지게 되는데, 이때의 기록이 『울릉도 검찰일기』이다. 이 검찰일기에는 고종에게 올릴 장계를 쓰기 위한 계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울릉도 검찰일기』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성인봉에 올라가 살펴보니 섬이 없었다는 내용과, 검찰을 전후로 행해진 검찰사 이규원이 고종을 알현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서 검찰사 이규원이 우산도(=독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내용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대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 검찰일기』는 조선말 울릉도 이용실태와 관련된 가장

154) 이해은·이형근, 2006.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선후기 울릉도 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 울릉도 검찰의 경위

① 강원도 감사의 보고 및 울릉도 검찰 결정

1881년 5월 22일(6월 18일) 강원도 감사 임한수의 장계에 울릉도 수토관이 보고하기를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벌목을 하여 원산과 부산 등으로 실어가려 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한다.

그러자 통리기무아문에서는 일본 외무성에 서면으로 울릉도 왕래를 금하도록 항의하는 한편,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하여 울릉도에 관한 실상을 조사할 것을 청하게 되고, 고종은 이를 윤허한다.¹⁵⁵⁾

② 울릉도 검찰관련 고종의 지시

고종실록의 기사¹⁵⁶⁾ 및 승정원일기¹⁵⁷⁾에 울릉도 검찰을 결정한 고종이

155) 고종실록 18권, 18년(1881년) 5월 22일 계미.

統理機務衙門啓: “卽見江原監司林翰洙狀啓, 則枚舉鬱陵島搜討官所幸, 以爲: ‘看審之際, 有何伐木, 積置海岸, 剪頭着黑衣者七名, 坐其傍. 故以書問之, 則答「以日本人, 而伐木, 將送于元山、釜山」爲言. 彼舶去來, 挽近無常, 指點此島, 不無其弊. 請令統理機務衙門稟處’矣. 封山自是重地, 搜討亦有定式. 而彼人之潛斫暗輸, 邊禁攸關, 不容不嚴防乃已. 將此事實, 撰出書契, 下送萊館, 轉致于日本外務省. 而第伏念是島處在淼茫之中, 任他空曠甚屬疎虞, 其形止要害之何如, 防守緊密之何如, 合有周審而裁處. 副護軍李奎遠, 鬱陵島檢察使差下, 使之從近馳往, 到底商度, 具意見修啓, 以爲稟覆何如?” …

156) 고종실록 19권, 19년(1882년) 4월 7일 임술.

初七日. 召見檢察使李奎遠. 辭陛也. 教曰: “鬱陵島, 近有他國人物之無常往來, 任自占便之弊云矣. 且松竹島、芋山島, 在於鬱陵島之傍, 而其相距遠近何如, 亦月何物與否未能詳知. 今番爾行, 特爲擇差者, 各別檢察. 且將設邑爲計, 必以圖形與別單, 詳細錄達也.” 奎遠曰: “芋山島卽鬱陵島, 而芋山古之國都名也. 松竹島卽一小島, 而與鬱陵島, 相距爲三數十里. 其所產卽檀香與簡竹云矣.” 教曰: “或稱芋山島, 或稱松竹島, 皆《輿地勝覽》所載也. 而又稱松島、竹島, 與芋山島爲三島統稱鬱陵島矣. 其形便一體檢察. 鬱陵島本以三陟營將、越松萬戶, 輪回搜檢者, 而舉皆未免疎忽. 只以外面探來, 故致有此弊. 爾則必詳細察得也.” 奎遠曰: “謹當深入檢察矣. 或稱松島、竹島, 在於鬱陵島之東, 而此非松竹島以外, 別有松島、竹島也.” 教曰:

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종은 “울릉도(鬱陵島)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 하였다.

이에 이규원이 아뢰기를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里)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이규원이 우산도가 울릉도라고 하자, 고종은 재차 하교하기를,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규원은 “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송죽도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한다.

다. 울릉도 이용관련 주요 내용

검찰사 일행이 울릉도에 도착하여 검찰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다수의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어채, 조선, 벌목, 채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或有所得聞於曾往搜檢人之說耶?” 奎遠曰: “曾往搜檢之人, 未得逢著. 而轉聞其梗概矣.”
157)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19년 임오(1882년), 4월 7일.

<표 14> 이규원의 검찰일기 주요 내용

날짜	장소	주요내용	비고
4월 30일 (양 6월 15일)	소황토구미 (小黃土邱尾, 학포동)	전라도 흥양(興陽) 삼도(三島) 김재근(金載謹)과 격졸 13명 造船採藿	
5월 1일 (양 6월 16일)	소황토구미	신당(神堂)에 고사를 지냄	
5월 2일 (양 6월 17일)	소황토구미	오후에 생원 전서일(全瑞日)을 만남	
	대황토구미 (大黃土邱尾, 태하동)	평해(平海) 선상(船商) 최성서(崔聖瑞)와 격졸 13명(난파)	
		경주(慶州)사람 7명 채약(採藥) 연일(延日)사람 2명 채죽(採竹) (延日人 二人 伐煙竹次 來島)	
5월 3일 (양 6월 18일)	대황토구미	신당에 고사	
	흑작지 (黑斫支, 현포리)		
	천년포(千年浦)		
	왜선창포 (倭船倉浦, 천부리)	전라도 낙안(樂安) 이경칠(李敬七)과 격졸 20명, 造船	
		전라도 흥양(興陽) 초도(初島) 김근서(金謹瑞)와 격졸 19명, 造船	
나리동	채약인 40~50명 초막에 흩어져 있음 대구(大邱) 박기수(朴基秀) (초막에 없음) 파주(坡州) 사인(士人) 정이호(鄭二祜)	채약인	
5월 4일 (양 6월 19일)	성인봉(聖人峰)		
	나리동	함양(咸陽) 사인(士人) 전서일의 초막에서 다시 만남(採隱者)	
	저포(苧浦, 저동리)		
5월 5일 (양 6월 20일)	장작지 (長斫支, 사동리)	전라도 흥양(興陽) 초도(初島) 김내언(金乃彦)과 격졸 12명, 造船	
5월 6일 (양 6월 21일)	중봉(中峰)		
	통구미(桶邱尾)		
5월 7일 (양 6월 22일)	소황토구미		
5월 8일 (양 6월 23일)	황토구미(소황토구미)	통구미와 황토구미에 섬이름과 사람이름을 바위에 새기도록 함	
5월 9일 (양 6월 24일)	향목구미(香木邱尾)		
	대황토구미		

<표 14> 이규원의 검찰일기 주요 내용(계속)

날짜	장소	주요내용	비고
5월 9일 (양 6월 24일) 계속	대풍포(待風浦)		
	현작지(玄斫支)		(黑斫支의 異表記)
	왜선창(倭船倉)		선창
	선판구미(船板邱尾)		
	와달웅통구미(臥達雄桶邱尾, 와달리)	해민(海民)들이 그물이나 총으로 물개나 해우(海牛)를 잡아 그 고기를 먹음	
5월 10일 (양 6월 25일)	도방청포(道方廳浦, 천부리)	왜 소선 1척, 왜인 6~7인 영접	왜인 일꾼 78명
		전라도 흥양(興陽) 삼도(三島) 변경화(卞敬化)와 격졸 13명	계초본 '李敬化'
	장작지포(長斫支浦)		
	현포(玄浦, 감을계)		
	통구미	전라도 흥양(興陽) 삼도(三島) 김내운(金乃允)과 격졸 20명,造船	
	동포(洞浦, 남양)		
	사태구미(沙汰邱尾)		
	소황도구미		
5월 11일	출선	오전 9시경 출선, 바람이 자고 물이 거꾸로 흘러 배가 나아갈 길이 없음	
5월 12일	항해중	그 다음날에도 낮을 보내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전날과 동일함	
5월 13일 (양 6월 28일)	도착	저녁에 울진군을 향했으나 파도가 심해 정박하지 못하고 노를 저어 겨우 밤 10시쯤 평해(平海) 구산포(邱山浦)에 상륙	

<표 15>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검찰일기)

날짜	장소	출신지역	만난 사람	인원	비고
4월 30일	소항토구미(학포동)	全羅道 興陽 三島	金載謹과 格卒 13명	14명	造船採藿
5월 2일	소항토구미	咸陽	生員 全瑞日	1명	
	대항토구미	江原道 平海	崔聖瑞와 格卒 13명	14명	破船
		慶州	7명	7명	採藥
5월 3일	왜선창포	延日	2명	2명	伐煙竹
		全羅道 樂安	李敬七과 格卒 20명	21명	造船
	나리동 중봉	全羅道 興陽 初島	金謹瑞와 格卒 19명	20명	造船
		大邱	朴基秀		採藥
		미상	散在各處 採藥人	4~50명	採藥
5월 4일	성인봉-저포	坡州	士人 鄭二祐		採藥
5월 5일	장작지(사동)	咸陽	士人 全瑞日	중복	採藥
5월 10일	도방청포	全羅道 興陽 初島	金乃彦과 格卒 12명	13명	造船
		왜인(倭人)	6~7인	78명	벌목
	통구미	全羅道 興陽 三島	卞敬化와 格卒 13명	14명	採藿
계				245~255명	

자료: 검찰일기

<표 16> 울릉도 체류자 분석(검찰일기)

구분	내용	인원(명)	구성비
한일 구성비	조선인	177	69.4%
	왜인	78	30.6%
	계	255	100.0%
조선인 출신지역	全羅道 興陽 三島	49	27.7%
	全羅道 興陽 初島	33	18.6%
	全羅道 樂安	21	11.9%
	전라도 소계	103	58.2%
	강원도	14	7.9%
	경상도	11	6.2%
	경기도	1	0.6%
	미상	48	27.1%
	비전라도인 소계	73	41.8%
계	176	100.0%	
조선인 도항목적	造船	103	58.2%
	採藥	58	32.8%
	採藿	14	7.9%
	伐煙竹	2	1.1%
	계	176	100.0%

*채약인 58명에는 경주인 7명+ 전서일 1명+ 채약인 50명 (박기수와 정이호 포함)

자료: 검찰일기

<표 17>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계초본)

날짜	장소	출신지역	만난 사람	인원	비고
4월 30일	소항토구미	全羅道 興陽 三島	金載德과 格卒 23명*	24명	造船採藿
5월 2일	대항토구미	江原道 平海	船商 崔聖瑞와 格卒 13명	14명	난파
		慶州	7명	7명	採藥
		延日	2명	2명	採竹
5월 3일	왜선창포	全羅道 樂安	船商 李敬七과 格卒 20명	21명	造船
		全羅道 興陽 初島	金謹瑞와 格卒 19명	20명	造船
	나리동	坡州	藥商 鄭二祐	1명	採藥
5월 4일	성산봉-저포 사이	咸陽	採藥人 全錫奎	1명	入島10年
5월 6일	도방청포	倭人	6~7인	78명	벌목
		全羅道 興陽 三島	敬化와 格卒 13명	14명	採藿
	장작지포 (사동)	全羅道 興陽 三島	金乃彦과 格卒 12명	13명	造船
	통구미포	全羅道 興陽 初島	金乃允과 格卒 22명	23명	造船
계				218	

* 검찰일기에는 金載謹 率 格卒一十三名
자료: 계초본

<표 18> 울릉도 체류자 분석(계초본)

구분	내용	인원(명)	구성비
한일 구성비	조선인	140	64.2%
	왜인	78	35.8%
	계	218	100.0%
조선인 출신지역	全羅道 興陽 三島	51	36.4%
	全羅道 興陽 初島	43	30.7%
	全羅道 樂安	21	15.0%
	전라도 소계	115	82.1%
	강원도	14	10.0%
	경상도	10	7.1%
	경기도	1	0.7%
	비전라도인 소계	25	17.9%
	계	140	100.0%
조선인 도항목적	造船	115	82.1%
	採藥	9	6.4%
	採藿	14	10.0%
	伐煙竹	2	1.4%
	계	140	100.0%

자료: 계초본

이선근(1961)에 의해 검찰일기가 공개됨으로써 조선시대에 이미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가서 배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시대 공도정책으로 울릉도에 아무도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때에 조선후기 1882년에 전라도 홍양(고흥) 사람들을 포함해 115명의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전복을 따는 등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고 수토관들만이 드나드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조선은 독도를 인지할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울릉도이용에 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나무를 베러 온 연일인 2인이다. 이들의 존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대나무 자체의 가치의 문제와 두 사람이 대나무를 벨 수 있는 양의 문제이다. 해변 가까이 자생하는 대나무를 두 사람이 베어낸다고 해도 그 양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베어낸 대나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연일인 두 사람이야말로 울릉도 이용을 밝혀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안용복 활약시의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자원채취 갈등

실록의 기록에 제1차 도일시에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 간 것은 울산의 어민 40여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본측 기록에는 전복을 따러 온 일본배들이 조선어민들 때문에 전복을 채취하기 힘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울릉도에서 중요한 해산물은 전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용복은 동래의 격군(格軍)으로서 1793년 동래 수영의 훈련에 참가했다가 풍랑을 만나 울릉도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일본 대곡가(大谷家)의 울릉

도 도해선(渡海船)에 박어둔과 함께 납치되어 일본에 가게 된다.

안용복은 일본 백기주의 조사과정에서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당당히 밝히고, 일본은 조선땅인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일본이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는다는 서계를 받고 귀환길에 오르게 된다.

귀환과정에서 대마도에 들fms 안용복은 조선시대 조선정부와 일본정부의 외교관계를 중재하고 있던 대마도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대마도주는 서계를 빼앗고, 단지 안용복을 표류한 조선인의 예에 따라 송환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대마도주는 죽도(竹島, 울릉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조선정부에 요구한다.

하지만 영의정 남구만이 나서서 일본이 죽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울릉도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나 『여지승람』을 보더라도 우리의 강토이니 대마도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고 안용복도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하여 대마도의 의도를 무산시킨다.

안용복으로서는 대마도의 간계에 따라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듯한 생각에 재차 일본에 갈 준비를 갖춘다. 1796년 마침 울산에서 순천의 商僧인 뇌헌 등을 만나 울릉도에 자원이 풍부하니 울릉도에 가기를 청한다. 그는 이때를 위해 관복과 통정대부라는 호패 등을 준비하여 울릉도에 들러 일본으로 간다.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만난 안용복은 자신을 “울릉자산양도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칭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범을 책하자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송도(松島)에 거주하는데 우연히 고기잡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자 안용복은 “송도(松島)는 곧 자산도(子山島)로서 또한 우리땅인데 너희가 어찌 거기에 사는가?”라고 질책한다(倭言 吾等本住松島 偶因漁採出來 今當還往本所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以翌曉挖舟入子山島 倭等方列釜鬻煮魚膏 渠以杖撞破 大言叱之).

안용복은 은기도(오키섬)를 거쳐 백기주로 가서 다시 제1차 도일시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오지 않겠다고 한 서계를 지키지 않음을 따진다. 그

러나 이미 막부에서는 1796년 1월에 일본인들의 죽도(울릉도) 도해를 정식
으로 금한 상태였다. 막부의 결정을 지방에서 지키지 않은 바와 같았다.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안용복은 신분이 비
천하며, 그가 일본에서 ‘울릉자산양도감세’와 같이 관직을 가진 사람처럼 행
세했는데, 실제로는 격군(格軍)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을 기초로 봤을 때 안
용복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제2차 안용복 도일시에 일본에서 작성
된 자료(『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
난 안용복의 진술과 일본측 진술이 일치함을 보여주었다.¹⁵⁸⁾

“안용복의 도일과정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한국측에서는 주로 『朝鮮王
朝實錄』, 『承政院日記』, 『疆界考』, 『增補文獻備考』 등의 사료를 근거
로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池田家文書を 비롯하여 『竹島考』, 『竹島紀
事』, 『인부연표』, 『通航一覽』, 『朝鮮通交大紀』, 『對馬島宗家文書』
등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기록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
며,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기록에는 자의적인 부분이 많아, 사료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는
일본측의 종래 주장을 뒤엎는 아주 귀중한 것이다.”¹⁵⁹⁾

손승철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내용은, 첫째, 인적사
항이 기존의 조선측 사료와 일치한다는 점, 둘째, 안용복이 도항 때에 조선
팔도지도를 휴대했다는 점, 셋째,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팔도지도의 강
원도 내에 속해 있다는 점과 그 관할은 동래부에 있다는 점, 넷째, 제2차 도
항이 제1차 도항과 같은 목적인 영유권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 등”¹⁶⁰⁾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용복은 백기주에서 막부에 재차 울릉도 자산도 양 섬이 조선의 땅임

158) 손승철, 2006. op. cit.

159) Ibid., pp. 294-297.

160) Ibid.

을 주장하는 소를 올리겠다고 하자, 이를 들은 대마도주가 이를 말리면서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¹⁶¹⁾라고 하는 대마도주의 확답을 다시 받게 된다.

안용복은 백기주에서 출발하여 양양현에 상륙한 후 관부에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고한다.

3) 라페루즈 탐험대의 항해일지 상의 울릉도

이진명(2005)은 라페루즈 탐험기를 분석하여 1787년(조선 정조 11년) 5월 27일 서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발견하고 측량한 사실을 발굴하였다.¹⁶²⁾ 이 기록이 발굴됨으로써 안용복의 기록과 이규원의 검찰일기의 내용 간에 상호 연관성 검토를 통해서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 이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서양인들이 관찰한 울릉도 이용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과는 다른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페루즈 탐험대의 항해일지에는 “1787년(정조 11년) 5월에 적어도 2개 집단이 한국 사람들이 울릉도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해변에서 배를 건조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섬에 항시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시로 건너가 여러 달 동안 살면서 어로, 벌목, 선박 건조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⁶³⁾

울릉도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사람들이 프랑스인들에게 기록됨으로써, 이

161)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 10월 23일.

162)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개정증보판), 삼인.

163) Ibid., p. 56.

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의 배를 만드는 전라도 사람들의 기록과도 지속적인 연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900년 우용정의 울도기에도 “전라도 사람들이 매년 10척 내외의 배를 만든다”¹⁶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울릉도에서의 조선은 최소한 정조 때부터 계속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 수토기록 및 다산 정약용의 기록

『정조실록』 정조 11년(1787년) 7월 25일자 “울산(蔚山) 해척(海尺)”에 관한 기사는 울릉도에서 어채를 한 울산어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바로 이해 5월에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를 다녀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 선박의 출현에 따라 동해안의 방비가 강화되어, 평상시처럼 삼척항구에 도달한 울산 관할의 울릉도 도항 선박을 취조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한 기록으로 보인다.

이때를 전후로 울릉도 수토관련 자료가 두 건 있는데 울릉도를 이용하는 어민에 대한 기록은 담겨 있지 않다. 1786년(정조 10년) 4월 19일(양력 5월 16일)~ 5월 5일(양력 5월 31일)까지 김창윤(金昌胤)의 울릉도 수토기록이 『일성록(日省錄)』에 남아있으며, 1794년(정조 18년) 4월 21일(양력 5월 19일)~ 5월 8일(양력 6월 5일) 한창국(韓昌國)의 수토기록이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영조 45년(1769년) 11월 29일 기사에는 울릉도의 산삼이 연안지역에 사사로이 통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12월 9일 기사에는 울릉도 삼을 몰래 캐다가 발각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⁶⁵⁾ 울릉도의 산삼이 문

164) 우용정, 1900, 울도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박사 초역에서 확인).

165)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2월 9일(국사편찬위원회).

命遞江原監司洪名漢. 初, 鬱陵島有潛商之採蔘者, 三陟營將洪雨輔誦執, 而多有醜謗. 事覺, 雨輔坐貶, 至是名漢以交關參涉, 掌令元啓英上疏論劾曰: “鬱陵禁令, 何等嚴重, 而乃者江原監司洪名漢, 與其族武三

제가 되자 영조는 결국 울릉도에서 산삼을 캐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울릉도의 이용과 관련해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격함이 계속해서 유지된 것 같지는 않다. 1801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유배길에 오르게 된 다산 정약용의 첫 유배지인 장기(長鬢, 포항시 장기면)에서 남긴 시에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가득 싣고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엄격성과 지방에서 활동은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울릉도와 독도 이용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이용은 공식적으로는 제한되었다. 고려후기로부터 고려가 멸망하기까지 연안지방과 섬에 대한 왜구의 침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만주의 말갈족들의 침입으로 다수의 도민(島民)들이 납치되는 일도 있었다.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왜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에 대한 강온양면 정책의 성공으로 조선에 대한 왜구의 침략이 거의 사라진다. 그러나 섬에 거주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태종과 세종조에 주민들을 쇄환할 때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전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선은 매우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들이 쇄환정책 이후에도 반영되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그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陟營將洪雨輔，暗地交關，募人潛入，採取人蔘，多至累數十斤。及其現發於地方官，則犯禁之民，刑配道內，屬公之蔘，還給私賣，仍又曲引他事，狀罷本官，要爲彌縫之計，此已是難貸之罪也。論其罪犯，實浮於營將，而薄譴但止於營將，誅罰不及於名漢。國法之不行，誠非細故，日後之弊，亦不可不慮。臣以爲江原監司洪名漢，亟施削職之典可也。”疏入，上以挾雜責諭，不許。復以問於大臣，領議政洪鳳漢以爲。“名漢必引嫌。”上命遞之。問誰可代者，鳳漢薦徐命善，上曰：“吾相定矣。”

숙종 때 안용복사건이 나기 전까지 공식적인 기록에서 울릉도는 거주가 제한된 섬으로 인식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해안을 방문하게 된 조선의 사대부들은 동해안 주민들이 울릉도를 금기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다. 임진왜란 발발시에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나 후대의 미수 허목 같은 이들은 울릉도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것은 안용복에 의해서이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땅임을 일본정부에 정확히 밝혔고, 막부의 죽도도해금지 결정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안용복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울릉도의 자원에 대한 한일간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안용복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숙종은 수토제도를 확립하고 3년마다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번갈아 울릉도를 수토하고 수토기록과 수토증거들을 제출하도록 한다. 수토와 관련한 자세한 기록들 중에 일부가 실록과 일성록 또는 개인문집의 형태로 남아있다. 제출된 수토기록의 원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종때는 수토관이 제출한 수토의 미비함과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하고 자세한 사정을 파악토록 한다. 이에 검찰사 이규원은 수토보고서인 계(啓)를 작성하기 위해 검찰일기와 계초본을 만들었는데, 검찰일기와 계초본이 집안에 보관되어 와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울릉도 관련 개인문집 등의 자료에 울릉도 관련 기사들이 보이는데, 특히 다산의 문집 속에는 울릉도 관련 시가들이 남아있어서 그 당시 울릉도 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1)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의 자원

울릉도의 주요 산물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 志 地理 東界 蔚珍縣’에 의
 종(毅宗) 11년 金柔立을 울릉도에 보내 可居여부를 살피게 한 때부터 구체
 적인 특산물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보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山)이 있어
 산정(山頂)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가면 바다에까지 10,000여 보(步)가 되고
 서쪽으로 향해 가면 13,000여 보(步)가 되고 남쪽으로 향해 가면 15,000여
 보(步)가 되며 북쪽으로 향해 가면 8,000여 보(步)가 되며 촌락(村落)의 기지
 (基址)가 7개소 있으며 석불(石佛)·철종(鐵鐘)·석탑(石塔)이 있으며 시호(柴
 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가 많이 나서 있으나 그러나 바위가 많아 사람
 이 살 수 없다(島中, 有大山, 從山頂, 向東行至海一萬余步, 向西行一萬三千余
 步, 向南行一萬五千余步, 向北行八千余步,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佛·鐵鐘·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然多岩石, 民不可居, 遂寢其議, 一云, 于山·武陵, 本二
 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하였다. 고려사 세가에서는 방물(方物),
 토물(土物) 또는 果核木葉 등으로 표현할 뿐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지리지의 내용에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였
 다.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에는 태조가 삼척사람 김인우(金麟雨)
 를 안무사를 삼아서 사람들을 쇄환(刷還)케 하였는데, 김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
 승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¹⁶⁶⁾

태종 12년(1412)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우마(牛馬)와 논이 없으나, 오직 콩 한 말

166) 인적이 드문 섬에서 채취되는 홍합이나 전복은 매우 크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어부들이 큰 홍합
 이 먹고 싶으면 울릉도에 간다고 했다. 천적이 적은 울릉도에서 쥐들도 육지 보다는 훨씬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러나 대나무는 몇 해씩 자란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식물이고, 복승아도 또한
 종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나무와 복승이는 동해안 삼척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 심으면 20석 혹은 30석이 나고, 보리 1석을 심으면 50여 석이 납니다. 대나무가 큰 서까래 같고, 해착(海錯, 각종 해산물)과 과목(果木)이 모두 있습니다.(命議政府議處 流山國 島人. 江原道 觀察使報云: “流山國 島人 白加勿等十二名, 求泊 高城 於羅津, 言曰: ‘予等生長 武陵, 其島內人戶十一, 男女共六十餘, 今移居本島. 是島自東至西自南至北, 皆二息, 周回八息. 無牛馬水田, 唯種豆一斗出二十石或三十石, 麥一石出五十餘石; 竹如大椽; 海錯果木皆在焉. ’ 竊慮此人等逃還, 姑分置于 通州 高城 杆城.”)¹⁶⁷⁾

세종실록에는 세종 20년(1438) 7월 15일 남회·조민이 무릉도에서 돌아와 포획한 남녀 66명과 각종 산물을 바친 것과 관련하여 울릉도의 산물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생포(生鮑) 즉 생전복을 바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⁶⁸⁾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사직(司直) 조민(曹敏)이 무릉도(茂陵島)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사철(沙鐵)·석중유(石鍾乳)·생포(生鮑, 생전복)·대죽(大竹) 등의 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발선(發船)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엄습(掩襲)하온즉,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하였고, 동서는 하루의 노정(路程)이고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하였다.”

“護軍 南薈, 司直 曹敏 回自 茂陵島 復命, 進所捕男婦共六十六及產出沙

167) 太宗實錄 태종 12년(1432년) 4월 15일 기사. 이 기사에는 60여명이 거주할 만한 섬이 울릉도 주변에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사는 곳은武陵島인데, 지금은 본도(本島)에 옮겨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도를 설명하는데 이는 울릉도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168)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7월 15일 기사.

鐵石鍾乳生鮑大竹等物，仍啓曰：‘發船一日一夜乃至。日未明，掩襲人家，無有拒者，皆本國人也。自言聞此地沃饒，年前春潛逃而來。其島四面皆石，雜木與竹成林，西面一處，可泊舟楫。東西一日程，南北一日半程。’”

음력 7월 15일이면 한 여름에 해당하는데, 이 때 생전복을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진상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과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인다. 생전복은 서울에서 가까운 황해도 등에서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해서 썩지 않도록 진상하게 한 사례들이 있는데, 세종대에 생전복을 바쳤다는 것은 전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안용복이 처음으로 울릉도에 갔을 때, 일본인들에게 말린 전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으며, 대곡가(大谷家)와 촌천가(村川家)에서는 울릉도 도항의 대가로 막부에 말린 전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 울릉도의 자원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검찰일기이다. 거기에는 벌목(伐木), 채약(採藥), 어채(魚採), 채곽(採藿), 채연죽(採煙竹)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전복(全腹)의 채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전복 채취는 안용복의 도일 사건의 중요한 계기로서 전복은 연안에 있는 고을과 연안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릉도의 전복은 “채복공문(採腹公文)”을 발급받아 채취하려 올만큼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원별 이용실태

가. 벌목 및 조선

울릉도의 벌목은 몽고 항쟁기에 최충헌이 울릉도에서 벌목을 시도한 것이나, 몽고에 항복한 후에는 울릉도 작목사(斫木使)를 파견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시대부터 울릉도 목재에 대한 관심이 컸다.

왜구의 침략 속에서 탄생한 조선은 태조, 태종, 세종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주민을 쇠환함으로써 왜구가 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울릉도 쇠환정책으로 울릉도 자원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도 멀어지게 되었다.

울릉도의 재목에 대해서는 19세기말에는 러시아의 울릉도 벌목권과 울릉도 개척이후 일본인들의 불법 벌목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81년 수토관에 의한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고종의 명에 의해 1882년 울릉도 검찰이 실시되어 일본인들의 벌목 실상이 밝혀졌다. 1882년 일본각지에서 온 80명에 가까운 일본인 벌목꾼들이 울릉도에서 벌목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벌목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것이었다. 1787년 라페루즈 탐험대는 울릉도에 훌륭한 나무가 많다는 사실과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¹⁶⁹⁾

오늘날에도 목재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조선후기에 목재는 궁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목재자원의 희소성 매우 컸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에서 얼마간 벗어나 있는 울릉도에서의 벌목은 대단히 매력적인 일로 추정할 수 있다.

울릉도에는 모든 것들이 크다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통해 봤을 때, 울릉도의 목재도 또한 매우 실하고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항해비용과 벌목비용 그리고 지방관리들의 이해라는 비용 등을 제하고도 울릉도에서 벌목을 하거나 배를 만드는 일은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169) 이진명, op. cit.

나. 채약(採藥)

검찰일기에는 약초꾼 40~50명이 울릉도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캐는 약초는 항해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고가의 약초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울릉도의 중요한 약초에 관련된 기록은 영·정조대의 울릉도 산삼 채취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그 실상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울릉도 산삼의 채취는 수토관이 울릉도에 수토하러 떠날 때 숙련된 약초꾼을 선발해서 동행하여 채취토록 하였다. 전의(典醫)들은 울릉도 산삼 채취와 관련하여 질 좋은 산삼을 얻기 위해 수토시기의 조정을 건의하기도 한다. 또한 영조 때에는 일본인들과의 산삼무역에서 일본인들의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울릉도 산삼이 몰래 일본인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기도 한다.

그러나 울릉도 산삼의 문제는 영·정조시기를 지나면 실록에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검찰일기에서 파악된 약초꾼들은 움막을 짓고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약초를 캐고 있었으며, 약초꾼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다. 어채(魚採): 채복(採鰻), 채곽(採藪) 등

조선시대 공식기록인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나오는 전복에는 전복(全鰻), 생복(生鰻), 건복(乾鰻), 반건복(半乾鰻), 회전복(灰全鰻) 등이 나온다.

오늘날에는 남해안의 전복양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복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복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복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전복양식이 거의 없고, 잠수채복(潛水採鰻)을 통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전복의 채취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상류층의 전복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컸다. 전복은 왕실의 각종 제사 및 행사와 중국 진상품으로 상당한 수량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전복의 진상을 맡은 해변 고을들은 전복진상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복(大鰓)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며, 최상품은 전라도의 4, 5개 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¹⁷⁰⁾

정조때에 매년 제주도에서 진상해야 할 전복의 양은 약 5,000접(50만개)이었다. 요즘 전복의 양을 1kg을 기준으로 10개로 보면 껍질을 포함했을 때 약 50톤가량 된다.

전복을 진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연해의 어민들과 지방관리들은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울릉도로 도항하는 것을 허가 하게 되고, 이것의 허가장이 채복공문이다.

진공(進貢)용 해산물을 주로 생산하던 사람들을 포작인(鮑作人) 또는 포한(鮑漢) 등으로 불렀다. 포작인이란 어채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포한(鮑漢)이라 부른 것은 이들이 때때로 약탈을 하는 수적(水賊)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3. 자원의 이용과 “채복공문”의 의의

1) 수토정책과 울릉도 이용

숙종대에 수토정책이 실시된 이래로 울릉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늘었다. 영조 45년(1769)에는 울릉도에서 몰래 산삼을 캐는 것이 문제가 된다.

170)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대개 5종류이며, 여기서 난류성의 말전복이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품으로 치는 전남 해안 섬들의 전복은 아마도 말전복보다는 냉수성인 참전복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이에 영조는 산삼캐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미 이때에도 공식적으로 울릉도에서 산삼을 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19년(1795)에는 산삼의 절기에 맞추어서 삼척영장으로 하여금 채삼군(採蔘軍)을 보내고자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울릉도의 수토는 울릉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잠상(潛商)의 활동 또한 수토활동을 통해 활성화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토활동이 지속되면서 수토활동은 단순히 울릉도를 수색하는 것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토에 참가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울릉도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수토에 참가한 격군 등은 사사로이 울릉도의 자원을 이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남아있다.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를 발견한 해인 정조 11년(1787)에 울릉도에 갔다가 삼척에 도착한 울산 해척들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채복공문”을 가지고 울릉도에 다녀온 것이었다. 채복공문은 중앙정부의 수토활동에 따른 울릉도의 이용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울릉도 이용을 허가한 공문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채복공문의 의의

“채복공문”은 울릉도의 이용이 단순하게 어민들에 의한 사사로운 울릉도 이용이 아니라 관의 허가를 받아 행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배들은 중앙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정부에서 소유한 배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등록된 후 운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이 배들의 운항 또한 공식적인 항해허가를 받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포작인(鮑作人)과 같이 관의 통제

를 받지 않으려는 떠돌이 어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은 어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수산물은 품질이 뛰어나 주로 진공(進貢)을 위한 물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해안지방에서는 바쳐야 하는 공물 중에 특히 전복(全鰓) 진상(進上)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정 지방에서는 채복선(採鰓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채복을 위한 어로활동이 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전복은 채취가 쉽지 않고 그 수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편차가 커서 해안지방에서 전복의 채취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관들은 울릉도의 전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의 채취를 위해 “채복공문”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복은 단순히 궁정으로만 진상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와의 조공무역에도 막대한 양이 소요되었다. 또한 진상과정에서 전복의 수요는 사대부와 지방관 그리고 고을 아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희소하고 고가의 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울릉도의 전복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기회였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울릉도 항해의 위험과 비용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 일이었다.

“채복공문”은 울릉도 항해에 대한 지방관의 허가장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간 어민들이 채복만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지방의 조선수요 내지는 조선을 빙자한 송림의 벌목을 피하는 경우에는 조선(造船)의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채복공문”이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복공문의 존재는 울릉도의 이용이 수토활동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울릉도 이용, 지방정부의 울릉도 이용, 그리고 민간인들의 울릉도 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선후기 활발한 울릉도 이용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수토활동 이외에도 공식적인 울릉도 이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4. 소결: 생활양식으로서 울릉도와 독도 이용

조선후기 울릉도는 공식적으로는 쇄환과 수토의 대상으로 거주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 초부터 군역 등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이용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울릉도에 거주하는 것은 불손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숙종 때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수토제도 등을 통해 격군(格軍) 등으로 수토에 참가하는 동해안 주민들은 울릉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해안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토제도가 정착되면서 수토는 단순한 울릉도 관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약초의 채취, 특히 울릉도 산삼의 채취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그에 따라 산삼의 채취에 유리한 시기에 맞춰서 수토관을 파견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울릉도에 풍부한 산림자원은 울릉도 이용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고종때 검찰사 이규원의 검찰일기 내용에서 조선(造船) 등을 위해 울릉도에 온 전라도 사람들이 백여 명에 달했고, 정조때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의 기록에도 울릉도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인 두 집단을 발견했으며,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는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과 러시아의 울릉도 벌목권 취득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점 등을 통해 울릉도 산림자원의 매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송림(松林)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에서 선박건조용 또는 궁실건축용 대목(大木)이 점차 희소해지면서, 선박의 개수와 재건조 시기에 엄격한 규정을 두는 등 소나무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울릉도의 전복은 안용복과 일본인들의 첫 번째 조우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죽도도해면허」를 가지고 상당기간 울릉도에서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복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채복공문(採鮑公文)”에서 찾을 수 있다. 정조실록에는 울릉도로 도항해서 전복을 채취한 배가 삼척에 다다르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이 울릉도에 도항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채복공문(採鮑公文)”을 제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에 전복채취를 위해 채복선(採鮑船)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복채취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산 정약용의 시에는 강진어부들이 큰 홍합를 먹고 싶으면 울릉도에 간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시에는 울릉도에서 어획을 한 배가 왔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1800년을 전후로 전라도 어부들이 어렵지 않게 울릉도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연안지방의 여러가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컸으며, 또한 이들 자원의 양이 줄어들어 따라 새로운 자원 생산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부족 및 가치상승은 울릉도 자원에 눈을 돌리게 하고, 중앙정부의 조공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관들과 연안어민들은 공식적으로 울릉도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활발한 항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울릉도와 독도의 이용은 남해안 어민들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생활권의 형성과 지속적인 이용은 하나의 문화적 형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자신들만의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아마도 독도(獨島)의 어원인 ‘독섬’ 인식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즉 비달이 지적인 바와 같이 자연과 인간이 교섭하면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삶의 패턴 혹은 삶의 양식이 독도의 지명에 각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라도 고흥 앞 바다에는 다섯 개나 되는 ‘독도’, ‘독섬’이라고

부르는 섬들이 있다.¹⁷¹⁾ 신용하가 조사한 7개의 사례 중 5개가 전라도 고흥이고, 다른 하나는 인접한 전라도 장흥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울릉도와 고흥 사이의 통영지역에 있는 것이었다. 전라도 고흥 사람들의 울릉도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고흥사람들과 울릉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실록에 나오는 고흥사람 표류사례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 볼 수 있다. 즉, 최초의 울릉도 인식이 표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 항로를 따라 수송을 하던 선상 및 행상들은 전국 연안을 항해하였기 때문에 동해안 항해시에 울릉도에 대한 항해지식을 획득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지만 이들에게 울릉도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자원의 부족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전라도 어민들이 구태여 울릉도에 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전복, 소나무 목재의 부족 등의 상황은 지역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관들은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항해를 공공연하게 지원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결합되어 검찰일기에 보듯이 전라도 어민의 상당히 큰 규모의 선박과 인원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항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가 독섬(石島, 獨島)이라는 지명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산국 시대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울릉도의 영역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만한 근거가 확실치 않았다. 울릉도와 독도가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하게 독도는 울릉도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171) 신용하, 2003, pp. 69-74.

VI. 결론

본 논문은 울릉도와 독도의 관련성을 지리학적 개념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라첼의 생활공간론(Lebensraum), 비달의 생활양식론(genre de vie), 그리고 지리적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사료와 문집 그리고 해양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즉 Lebensraum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단일 영토적 관계, 지리적 인지로서 지명과 일본의 죽도(竹島)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울릉도와 독도지명의 영향, 울릉도의 자원과 전라도 남해안의 사회적 여건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민들의 생활양식과 남해안 생활권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사료·문집·해양자료를 바탕으로 규명하였다.

라첼의 생활공간론을 적용해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우산국(于山國)의 복속이 지리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가유기체설에 따르면 독립적인 정치단위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며, 인접 정치세력의 방해가 없으면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산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신라 및 고려에 조공을 바치면서 독자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산국은 울릉도와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인지, 이용,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역에 포함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식물의 천이과정이나 동물의 먹이공간을 기초로한 영역활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독립적인 사회는 자신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할 수 없다.

또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우산국의 독도 영유를 더욱 확정적으로 증명해준다. 인간과 사회는 자신들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지리적 호기심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것이다. 시각적으로 파악된 세계 속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요소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의무이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바라보이는 공간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는 동일한 세계, 동일한 영역, 또는 모도(母島)와 자도(子島)의 관계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양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동해는 한반도, 울릉도, 독도 사이의 해저에 울릉분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해로부터 흘러들어가는 매우 빠른 동한 난류가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와류를 형성함으로써 포항 근처에서 울릉도 북부지역으로 흘러가서 울릉도 남부지역에서 곧장 포항쪽으로 흐르거나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해역에서 포항 쪽으로 흘러가는 순환적인 표층해류를 형성한다. 순환해류의 존재는 동남해안 지역의 어민들뿐만 아니라 남해안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이용에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해류는 동남해안의 표류자들을 울릉도에 데려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차린 표류자들을 다시 육지로 데려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남해안 항해자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는 등대이자 구원선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 사회의 지리적 인식을 반영하는 지명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 명명했던 사회의 특성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명은 공간적 관성 혹은 지리적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산국 이전부터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울릉도 지명의 영향을 일본의 울릉도 지명에서 찾아보았더니, '다케시마', 특히 '다케'라는 명칭의 어원은 무릉도(武陵島)의 '무(武, 다케)'로부터 시작하여 '숭(嵩, 다케)', '죽(竹, 다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또한 1905년 독도 시마네현 편입시에 ‘량고도’ 대신에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한 것은 ‘독도(獨島, 도쿠시마)’의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 당시 울도군수 심홍택이나 편입의 청원자 나카이(中正良三郎)나 모두 독도를 우리의 땅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독섬’과 ‘獨島’는 일본발음으로는 모두 ‘도쿠시마(トクシマ)’이기 때문에 ‘다케시마’를 새로운 지명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것은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石島)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된다. 칙령에 의해 울도군수가 된 심홍택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석도에 대한 일본의 의문은 독도영유권 논쟁 이후에 제기된 문제일 뿐이다.

“조선 후기에 남해안의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라는 내용을 처음 접할 때만 해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라페루즈 탐험대의 항해기록, 안용복의 사건의 울릉도 항해, 다산 정약용의 울릉도 항해관련 기록 등을 통해서 울릉도가 단순히 쇄환정책, 수도제도 등에 의해서만 관리된 것이 아니라, 남해안 어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방관리 등이 결합된 공공연하고 주기적이며 적극적인 울릉도 이용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인들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조선후기 중앙정부의 수도(搜討)와 채삼(採蔘) 활동,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다수의 어민들에 의한 울릉도 이용 등 조선후기 울릉도 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부족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채복공문(採鯨公文)’은 지방관들이 발행한 것으로서 지방에서도 울릉도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자연환경과 사회적 여건 속에서 오랫동안 울릉도를 이용한 전라도(특히 고흥) 어민들은 독도를 우산도라 부르는 대신에 자신들이 늘 그렇게 전라도 고흥 앞 바다의 돌섬들을 ‘독섬’이라 했듯이 독도를 ‘독섬’이라 불

렀다. 즉 우산도가 수토관과 실록의 이름이라면 독도는 연안어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르던 이름이었다. 이 이름이 개척민들에게 알려지고, 다시 칙령에는 석도(石島)로, 울도군에서는 독도(獨島)로 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지리학자들의 연구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도문제가 역사학과 국제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까닭에 방대한 사료와 이들 사료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성과 등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독도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세분화된 자료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지리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도문제는 역사학적이거나 국제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학문의 연구성과가 집적됐을 때, 논리적으로 일관된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독도는 지리적인 대상으로서 다양한 지리학적 개념과 지리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역사학이나 국제법적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太宗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국역일성록』
『국역승정원일기』
張漢相, 『蔚陵島事蹟』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 강봉룡, 변남주, 2006, “조선시대 호남지역 포구 조사·연구-무안반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8, pp. 249-250 (247-298).
- 강용균, 1993, “바다의 강,” 월간바다, 1권 4호.
- 경상북도 편, 2006, 독도 올바른 알기, 경상북도 독도지킴이팀.
- 고의장, 1984,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경관에 관한 비교연구,” 지리학연구 9, pp. 481-506.
- 공우석, 2001, “대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6(4), pp. 444-457.
-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韓國史學報 28, 353-383.
- 권오엽 역, 2004, 독도, 제이앤씨(大西俊輝, 일본해와 독도-일한 영토문제).
-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아카데미.
- 권용우 외 공저, 2002, 도시의 이해(개정판), 박영사.
- 권용우·이원호 외, 2007, “수도권의 주거여과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41(2), pp. 151-163.
- 권용우, 1986, “독일지리학의 전개과정,” 지리학연구 11, pp. 1-23.

- 권용우, 1993, “메갈로폴리스 연구에 대한 상론,” 응용지리 16, pp. 21-62.
- 권용우, 1999, “대도시권 설정의 필요성과 설정기준 대안,” 지리학연구 33(4), pp. 195-210.
- 권용우, 2001,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설정,” 국토계획 36(7), pp. 197-219.
- 권용우, 2002,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 권용우, 2004, “도시개혁과 시민참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7(1), pp. 13-27.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도량형.
- 국립해양조사원, 1969~2005, 수로기술연보.
- 국립해양조사원, 1998, 한국해양환경도.
- 국립해양조사원, 2002, 국가해류도 제작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보고서.
- 국립해양조사원, 2006, 국제공동해류조사, 국립해양조사원 보고서.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6, 「독도문제」, 예산정책참고자료 96-03.
- 김기혁, 2007, “조선-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변화,” 한국지명연구, pp. 415-448
- 김두일, 1992, “「여도비지」에서 경위도 일도의 거리,” 지리학 27(1), pp. 21-28.
- 김두일, 1994, “대동여지도의 도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9(1), 대한지리학회, pp. 39-45.
- 김두일, 1966, “지정학적으로 본 독도,” 한국군사, 3, pp. 10-22.
- 김두일·황철수·유우익, 2001, “세계지리경시대회를 통해 본 고등학교 지리교육 학업성취도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6(1), pp. 66-77.
- 김문길, 2001, “일본의 고지도로 본 독도문제,” 일본학보 49, 한국일본학회.
- 김병렬, 1996, 독도냐 다케시마냐, 다다미디어.
- 김병렬, 1998, 독도-독도자료집, 다다미디어.
- 김병렬, 2001,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 김병렬, 2001,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 김병렬, 2005, 독도논쟁 :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다다미디어.
- 김상수, 1989,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보 8, 한국지적학회, pp. 185-229.
- 김선경, 1993, “조선후기 山訟과 산림 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 77·78·79,

- pp. 497-535.
- 김영성, 1995, "도서지역의 사회복리: 어릉도의 사회지표," 사회과학연구 8, 상명여자대학교, pp. 43-64.
- 김영성, 2004a, "도서지역의 인구변동," 지리학연구 38(3), pp. 227-240.
- 김영성, 2004b, "서남해 도서 인구의 역사지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9,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16.
- 김용환, 2008,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 23(1), pp. 27-63.
- 김형태·김희원, 2008, "인터넷 지도와 백과사전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국토 지리정보 -동해와 독도 관련 이슈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42(3), pp. 377-390.
- 김호동, 1999, "군현제 시각에서 바라 본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김호동, 2000, "조선시대 울릉도 수도정책의 역사적 의미,"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정년기념, 論叢刊行委員會.
- 김호동, 2005,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空島政策'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호동, 2005, "조선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pp. 257-250.
-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1, 경인문화사.
- 김홍순, 2008, "조선후기 산림정책 및 산림황폐화: 시장주의적 고찰과 그에 대한 비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 pp. 169-192.
- 남기훈, 2005, "17세기 朝·日 양국의 울릉도·독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3, 한일관계사학회.
- 독도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독도·다케시마-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독도수호대.
-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다.
- 동북아역사재단, 2008, 독도와 시민사회-독도 시민활동 백서.
- 李漢基, 1969, 한국의 영토-영토 취득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대출판부.
-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 2005, 독도자료집 1.
- 박관숙, 1969,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기갑, 1998, “국제법상 CRITICAL DATE 설정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3(2).
- 박배근, 2001,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50.
- 박배근, 20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관한 一考,” 국제법학회논총』 50(3).
- 박배근·박성욱, 2006, 독도영유권과 ‘결정적 기일’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병익·윤석은, 1997, “한국의 동계 상수 분포에 관한 중관기후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2(1), pp. 31-46.
- 박지만·황철수, 2008, “공간적 의사결정과정 지원을 위한 온톨로지 연구,” 지리학연구 42(1), pp. 103-115.
- 박희도, 1997, “울릉도의 자연지리,” 지리학연구 31, pp. 27-40.
- 배성준, 2002,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29-54.
- 백인기, 심문보, 2006,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백충현·송병기·신용하, 1981, “학술좌담: 독도문제 재조명,” 韓國學報 7(3), 일지사.
- 손승철, 2006, “1696년, 安龍福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 손승철, 2006,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의 사료적 가치,” 東아시아의 領土와 民族問題－한일관계사학회국제학술대회』, 한일관계사학회 편.
- 손승철, 2006, “1696년, 安龍福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pp. 251-300.
- 손용택, 2005,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 실태와 대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pp. 363-373.
- 송병기, 1987, “조선후기 고종조의 울릉도 수토와 개척,” 한국사학논총－최영희선생 화갑기념, 탐구당.
- 송병기, 1998, “조선후기 울릉도 경영-수토제도의 확립,” 震檀學報 86, 진단학회.

- 송병기, 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송병기, 2008, “안용복의 활동과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 *동양학* 43, pp. 325-337.
- 시모조 마사오, 1998, “「죽도」의 문제점,” *한국논단* 108, pp. 132-152.
- 신각수, 1987, “決定的 時點의 理論,” *국제법학회논총* 32(2).
- 신동규, 2007, “근세시기(朝鮮後期·江戶時代) 韓·日 간 獨島 연구의 쟁점과 문제점 고찰,” *한국사학보* 28, pp. 245-286.
- 신용하 저·한성 역, 1997, 獨島(竹島), 인터出版.
- 신용하, 1991, “韓國의 固有領土로서의 獨島領有에 대한 역사적 연구,” *사회와 역사* 27, 한국사회사학회.
-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신용하, 1998, “독도 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 - 명칭 변화를 통해 본 독도의 한국고유영토 증명,” *한국학보* 24(2,3), 일지사, pp. 2-60.
- 신용하, 1999a,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1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신용하, 1999b,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2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신용하, 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용하, 2003,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 pp. 7-46.
- 양태진, 1996,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의 역사,” *역사비평* 35, 역사문제연구소.
- 양태진, 1996, 한국의 영토관리정책, 한국행정연구원.
- 엄찬호, 2007, “개화기 독도의 연구 성과와 쟁점,” *한국사학보* 28, pp. 287-318.
-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편, 1998,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편, 2005, 전근대 동해안 지역사회의 운용과 양상, 경인문화사.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도서출판 선.
- 오남현, 2001,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pp. 14-28.

-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오성, 1983, “조선 후기 목재상인에 대한 일연구,” 동아연구 3, pp. 233-278.
-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 현대 지도학적인 고찰,” 지리학 26(2), 대한지리학회, pp. 151-158.
- 유미림, 2008,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pp. 73-102.
- 유미림, 2007, 죽도문제연구회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 이찬, 1978, “韓國古地圖에서 본 獨島,” 獨島學術調查研究, 한국사학회.
- 이근택, 1997, “1693~1699년 安龍福의 鬱陵島·獨島 수호활동: 搜討制실시와 관련하여,”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독도연구보전협회.
- 이병도, 1963, “獨島의 名稱에 대한 史的考察—于山·竹島 名稱考—,”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教史學論叢刊行委員會.
- 이상면, 2001, “독도영유권의 증명,” 법학 42(4), 서울대학교, pp. 215-241.
-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우리땅, 경세원.
- 이석우, 1983, 물리해양학통론, 집문당.
- 이선근, 1963, “近世 鬱陵島 問題와 檢察使 李奎遠의 探險成果—그의 檢察日記를 中心한 若干의 考察,” 大東文化研究 창간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295-335.
- 이원호·박삼옥, 200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이해-소외성의 형성과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pp. 171-201.
- 이원호·주성재·이재준, 2006, “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효과분석: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1), pp. 83-94.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개정증보판, 삼인.
- 이한기, 1966, “Critical Date의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총 11(1).
-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임영정, 1997, “朝鮮時代 海禁政策의 推移와 鬱陵島·獨島,”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독도연구보전협회.
- 장보웅, 1977,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집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2(2), pp. 25-34.

- 전영권, 2005, “독도의 지형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pp. 19-28.
- 전웅, 1997, “지정학의 기원과 발전과정,” 홍익대 인문과학 5, pp. 211-231.
- 정광중, 2006, “이규원(李奎遠)의『울릉도검찰일기』에 나타난 지리적 정보,” 지리학연구 40(2), pp. 213-228.
- 정병준, 2005,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와 ‘독도분쟁’의 시발,” 역사비평 71, pp. 140-170.
- 정재준·박상숙, 2006, “GIS를 이용한 학습자 성취도 향상 방안,” 지리학연구 40(3), pp. 419-431.
- 정재준·신은주, 2007, “고등학교 지리수업의 전자지리부도 활용,” 지리학연구 41(3), pp. 327-338.
- 町田洋·新井房夫·이병설·森脇廣, “제4기후기 한국의 남구주기원화산회와 울릉도의 Tephra,” 지리학 29, pp. 48-71.
- 조명철, 2007,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일본의 대독도 방침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9, pp. 251-283.
- 최장근, 2005,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pp. 75-81.
- 최장근, 2007, “독도관련 연구경향 1905-현재 분석 역사학 분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목록.
- 최장근, 2007, “독도영유권의 일본적 논리 개발의 유형,” 일어일문학 36, pp. 409-430.
-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독도연구.
- 한국해양연구소, 1996, 동해종합연구기획.
- 한상복, 1997,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 한일관계사학회, 2008, 독도는 한국땅이다.
- 한철호, 2007, “明治時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韓國史學報 28.
- 해양수산부, 2000, 아름다운 섬 독도.
- 허영란, 2003, “明治期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 -島嶼 편입 사례와 ‘竹島 편입’의 비교,” 국제법연구 10(1), pp. 1-32.
- 허영란, 2002,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 한국사론 34, 국사편찬위원회.
- 호사카 유지, 2005, “일본의 관인 고지도와 ‘울릉도 외도(外圖)’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일어일문학연구 55(2), 한국일어일문학회.

- 호사카 유지, 2005,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가 없다, 자음과 모음.
- 호사카 유지, 2006, “일본의 양태 영토분쟁: 서로 다른 대처태도를 보이는 영토분쟁 - 일본 영토문제의 핵심쟁점들,” 민족연구 25, 한국민족연구원.
- 호사카 유지, 2006, “임자평도(林子平圖)와 독도(獨島),” 일어일문학연구 58(2), 일어일문학회.
- 호사카 유지, 2007, “下條正男의 竹島領有權의 歪曲에 대한 비판,” 日本アジア文化研究 4, 한국일본문화학회.
- 황상일·박경근, 2007, “독도 동도 서쪽 해안의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pp. 422-437.
- 황철수·구자용, 1999, “국가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DEM 생성,” 대한지리학회지 34(3), pp. 319-336.
- 황철수, 2001,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공간자료의 공유 모형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5(4), pp. 308-323.
- 皆川 洸, 1963, “竹島紛争と國際判例,” 國際法學の諸問題: 前原光雄教授還曆記念, 前原光雄教授還曆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 慶應通信.
- 皆川 洸, 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續 - 日韓條約の批判的檢討,” 法律時報 37(10).
- 皆川 洸, 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續,” 法律時報 37(10).
- 高野雄一, 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學出版會.
-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 內藤正中, 2000, “竹島(獨島)問題の 問題点,” 北東アジア文化研究(鳥取女子短大), pp. 1-19.
- 內藤正中, 2001,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 內藤正中, 2006, “竹島の 領土編入を めぐる 諸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4, 鳥取女子短大, pp. 1-19.
- 大江志乃夫, 1976, 日露戰爭の軍事史的研究, 岩波書店.
- 大熊良一, 1968, 竹島史稿, 原書房.
- 島根縣總務局總務課 編, 2006, フォトしまね 竹島 特집호.
- 梶村秀樹, 1978, “竹島=獨島問題と日本國家,” 朝鮮研究 182, 日本朝鮮研究所.
- 山邊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7(2).

- 山邊健太郎・梶村秀樹・堀和生 著・임영정 역, 2003, 獨島 영유권의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한 일본인 논문집, 경인문화사.
- 松田甲, 1929, “享保乙卯日本人の朝鮮漂流記,” 日鮮史話 5, 朝鮮總督府.
- 植田捷雄, 1965, “竹島の歸屬をめぐる日韓紛爭,” 一橋論叢 54(1), 一橋大學 一橋學會編.
- 深津榮一, 1976, “孤島の歸屬に関する法理,” 日本法學 35(3).
- 安岡昭男, 1980, 明治維新と領土問題, 教育社.
- 奥原碧雲, 1907(2005 復刻板), 竹島及鬱陵島, ハーベスト出版.
- 外務省條約局,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條約局.
- 隱岐の島町教育委員會 編, 2007, 내고향(ふるさと) 교육 부교재.
- 入江啓四郎, 1959, 領土・基地, 三一新書.
- 田畑茂二郎, 1972, 國際法, 有信堂.
- 田川孝三, 1988,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 20, 東洋文庫.
- 田村清三郎, 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 竹島問題研究會 編, 2006,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島根縣總務部總務課.
- 竹島問題研究會 編, 2007,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縣總務部總務課.
- 竹内利美・原口虎雄・宮堅常一編, 1972,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20, 三一書房.
- 中村榮孝, 1961, “「磯竹島」(鬱陵島)についての覺書,” 日本歴史 158, 日本歴史研究會.
- 池内敏, 1999, “竹島渡海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1, 鳥取地域史研究會.
- 池内敏, 2001, “竹島一件の再検討－元祿六～九年の日朝交渉,”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文集: 史學 47, 名古屋大學文學部.
- 池内敏, 2005, “前近代竹島の歴史學P的研究序説-『隱州視聽合紀』の解釋をめぐって,” 青丘學術論集 25,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池内敏, 2007, “隱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 鳥取地域史研究 9, 鳥取地域史研究會.
- 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 川本秀吉, 1960, 獨島の歴史的法的研究－獨島の領有權, 愛知大學 朝鮮文化研究會.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1996년 재발행)(해양수산부

- 역,竹島の 역사지리학적 연구, 1996).
-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嶋)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 内藤正中, 2005,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 内藤正中・朴炳涉, 2007,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 内藤正中・朴炳涉, 2007,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 塚本 孝, 1996,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第2版), 調査と情報—ISSUE BRIEF—289, 國會圖書館.
- 塚本 孝, 2000,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 - 先占法理と竹島の領土編入を中心に,” アジア近代史, ゆまに書房.
- 塚本孝, 2002, “竹島領有權をめぐる日韓兩國政府の見解(資料),” レファレンス617,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太壽堂鼎, 1966,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 64(4・5).
- 河鍊洙, 1999, “「竹島紛争」再考,” 龍谷法學 32(2), 龍谷大學法學會.
- 下條正男, 1996, “竹島問題考,” 現代코리아361, 現代코리아研究所.
- 下條正男, 1996, “証據を擧げて實証せよ,” 韓國論壇, 1996년 8월호.
- 下條正男, 1996, “竹島が 韓國領土であるという 証據は 歪曲されている,” 韓國論壇 1996년5월.
- 下條正男, 1997, “續 竹島問題考(上),” 現代코리아 371, 現代코리아研究所.
- 下條正男, 1997, “續 竹島問題考(下),” 現代코리아 372, 現代코리아研究所.
- 下條正男, 1999, 日韓. 歴史克服への道, 展轉社.
- 下條正男, 2000, “竹島問題の現代的課題,” 國際開發學研究 2(1), 拓植大學國際開發研究所.
- 下條正男, 2003, “竹島・東海, そして歴史認識問題(特集:混迷する朝鮮半島情勢),” 海外事情 51(6), 拓植大學海外事情研究所.
- 下條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文庫.
- 下條正男, 2005, “日對中韓大論争: 竹島ま絶対我々の領土だ,” 文芸春秋, 2005年8월호.
- 下條正男, 2005, 「竹島」その 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議.
- Alexander, Lewis M., 1968, "Geography and the Law of the Se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8(1), pp.

177-197.

- Alexander, Lewis M., 1979, "The Seventh Session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Geographical Review* 69(3), pp. 349-350.
- Bowman, Isaiah, 1942, "Geography vs Geopolitics," *Geographical Review* 32(4), pp. 646-658.
- Gottman, Jean, 1942, "The Background of Geopolitics," *Military Affairs* 6(4), pp. 197-206.
- Hartschorne, Richard, 1935, "Recent Developments in political geography II,"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9(6), pp. 943-966.
- Harvey, David, 1969, *Explanations in Geography*, St. Martin's Press.
- Jakle, John A., 1971, "Time, Space, and the Geographic Past: A Prospectus for Historical Geograph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4), pp. 1084-1103.
- Kristof, Ladis K. D., 1959, "The nature of frontiers and boundar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9 (3), pp. 269-282.
- Lee, D. K. and P. Niiler, 2005, The energetic surface circulation patterns of the Japan/East Sea, *Deep-Sea Res. II*, 52, pp. 1547-1563.
- Lyu, S. J., 2003, *Temporal Variation of the Transport from Cable Voltage across the Korea Strait and Its Mechanism*, Ph. D. theses. Seoul National Univ.
- Murphy, Alexander B., 1990, "Historical justifications for territorial clai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0(4), pp. 531-548.
- Ratzel, Friedrich, 1897, "Studies in Political Areas I: The Political Territory in Relation to Earth and Contin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pp. 297-313.
- Ratzel, Friedrich, 1898, "Studies in Political Areas II: Intellectual, Political, and Economic Effects of Large Areas," *The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3(4), pp. 449-463.
- Ratzel, Friedrich, 1898, "Studies in Political Areas III: The Small Political Area,"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3), pp. 366-379.
- Royle, Stephen A., 2001, *A Geography of Islands*, Routledge.
- Sack, Robert D., 1986, *Human Territoriality*, Cambridge Univ. Press.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atts, D.R. Wimbush, M. Tracey, K.L. Teague, W.J. Oark, J.H. Mitchell, D.A. Yoon, J.H. K.I. Chang, "Currents, Eddies, and a fish Story in the southwestern Japan/East Sea," *Oceanography*, Vol. 19, No. 3, pp. 64-75.
- Weikart, Richard, 1993, "The Origins of Social Darwinism in Germany, 1859-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54(3), pp. 469-488.

Abstract

Paik, In Ky

Major in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Yongwoo)

'Takesima(竹島, pronounced as Dakesima)' means a Bamboo Island. However, there is no bamboo. This island is called 'Dokdo' in Korea. Dokdo means rock island. And Dokdo or another Korean Dokseom is pronounced as Dokusima in Japanese. In 1905, Japan incorporated Liancourt Rocks into Shimane Ken without any notification to Korea. And Japan named them as Takesima.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this island a 'disputed area' from 1952. During the process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tween 'Allied Forces' and Japan, Japan didn't want to make restitution of Dokdo to Korea. In 1952,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Peace Line on the seas based on SCAPIN no. 677. Japanese Government refused the Peace Line claiming their sovereignty over Dokdo.

Dokdo has continued to be an integral part of Korean territory since 512 A.D. At that time, there was "Usan-State(于山國)" including Ulleung Island, Dokdo and small islands. Until about 1400 A.D. "Usan-State" had maintained the political autonomy.

One of the Japanese claims is that the Koreans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Dokdo before 1905.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it's

not logical. The geographical reasoning about the territory of "Usan-State" is as follows. First, following Ratzel's Lebensraum and the law on spatial expansion of nation, Dokdo was a territory of "Usan-State". Second, the geographical curiosity made people to explore, use, and territorialize it. Third, Ulleung Island and Dokdo have been historically conceived as an inseparable area by both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In Chosun Dynasty, the management policies for these islands were the prohibition of residence in the islands and the recall of illegal residents by dispatching officials. But people permitted by local government could sail to these islands and built their boats, caught fishes, and collected medical herbs(i.e. Korean ginseng, 山蔘) every year. In 1900, it was reported that about 10 ships were built in Ulleung Island by Korean people every year. Especially, the active Korean users of these islands were from the south coast of Korea which is much remoter than the nearest Japanese area.

The Korean users from the south coast had experienced the shortage of resources which were pine trees for ship building, high quality abalones for tributes, precious herbs for many purposes, and so on. Ulleung Island was an alternative place for extracting necessary resources for them. Their final destination was Ulleung Island. But the traditional navigation needed extensive information on routes including sea currents, winds, and the geographical knowledge of the destination. Compared to the Micronesians, Dokdo was an important reference to Ulleung island for both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For long time, the Koreans living around the south coast had called Dokdo as Dok-seom which is a dialectic of Dol-seom(rock island). It

must have influenced on Seok-do(石島, rock island) in chinese character and the new name of Takesima.

The names of Ulleung Island were U-leung-do(亏陵島), Muleung-do(武陵島, 茂陵島) and Ulleung-do(蔚陵島, 鬱陵島). The name of Muleung-do was brought to Japan as Mu-do(武島). Japanese pronounced it Takesima(武島). Japanese called Takesima as Iso-takesima(磯竹島) alternatively. It is assumed that Iso-take(弓嵩), another Japanese name of Ulleung Island, was originated from Usan-State(亏山國). 'U'(于 or 亏) might had been read as 'Iso'(弓) and 'San'(山, mountain) as 'Take'(嵩, high mountain).

Both Dokdo and Dol-seom are pronounced as Dokusima in Japanese. About 1905 A.D. Japanese visitors in Ulleung Island must have been heard or used the name of Dokdo. This might influenced on the new name of Liancourt Rocks.

In conclusion, the geographical study of Ulleung Island and Dokdo is necessary to settle the disputes.

부 록

<부록 표 1> 삼국시대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三國史記	512년	<p>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 우산국은 명주의 正東에 있는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혹은 鬱陵島라고도 이름하는데, 땅의 둘레는 100리로 사람들이 험한 것만 믿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이찬 이사부를 아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p> <p>(智證王)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飡異斯夫 爲阿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p>	三國史記는 고려 1145년(인종 23년) 김부식에 의해 편찬
三國史記		<p>이사부(異斯夫)(혹은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는 성은 김씨이며 내물왕의 4세손이다. 지도로왕(智度路王, 지증왕) 때에 바닷가 지방의 관원이 되어 거도(居道, 탈해왕 때의 장수)의 전술을 물려받아 말을 타고 하는 놀이로써 가야(加耶)(혹은 가라(加羅)라고도 한다)를 속여 이를 쳐서 빼앗았다.</p> <p>13년 임진(512)에 하슬라주(何瑟羅州)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于山國)을 함치려 하였으나, 그 나라 사람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 항복받기 어려우므로 피로써 굴복시키기로 했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실어 그 나라의 바닷가에 가서 속여 말했다.</p> <p>“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 밟아 죽이겠다.”</p> <p>그 나라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항복했다.</p> <p>진흥왕 11년, 태보 원년(550)에 백제가 고구</p>	「列傳」 異斯夫 條

<부록 표 1> 삼국시대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三國史記 계속</p>		<p>려의 도살성(道薩城)을 쳐 빼앗으니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사부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쳐서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하고, 갑사(甲士)를 머물러 이를 지키게 했다. 이때 고구려에서 군사를 보내어 금현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이사부가 이를 추격하여 크게 이겼다.</p> <p>異斯夫 [或云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誤加耶 [或云加羅] 國 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何]瑟羅州軍主 謀并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艦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其人恐懼則降 眞興王在位十一年 太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主[王]乘兩國兵疲 命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戍之 時 高句麗遣兵 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大勝</p>	<p>「列傳」異斯夫 條 계속</p>
<p>三國遺事</p>		<p><박이종을 시켜 섬 오랑캐를 치다> 또 아슬라주(지금의 명주) 동해 안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곳에 우릉도(弓陵島)(지금은 우릉도(羽陵島)라고 쓴다)가 있었다. 주위가 2만 7천1백30보나 되었다. 섬의 오랑캐들은 그 깊은 바닷물을 믿고 교만하여 조공(朝貢)하지 않았다. 왕은 이찬 박이종(朴伊宗)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했다. 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싣고 그들을 위협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놓아버리겠다.” 섬 오랑캐는 두려워서 항복했다. 왕은 이종을 포상하여 아슬라주의 장관으로 삼았다.</p> <p>又阿瑟羅州 [今溟州] 東海中 便風二日程 有弓陵島 [今作羽陵] 周迴二萬六千七百三十步 島夷恃其水深 驕傲不臣 王命伊滄朴伊宗 將兵討之 宗作木偶師子 載於大艦之上 威之云 不降則放此獸 島夷畏降 賞伊宗爲州伯</p>	<p>三國遺事 第一卷, 第二紀異篇 上, 智哲老王</p> <p>(삼국유사는 一然(1206-1289)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p>

<부록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高麗史	930	병오에 우릉도(芋陵島)가 백길과 토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거늘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 丙午 芋陵島 遣白吉土豆 貢方物 拜白吉爲正位 土豆爲正朝.	태조 13년 9월
高麗史	1018	우산국(于山國)이 동북 여진(女眞)의 침입을 입어 농업을 폐하므로 이원구(李元龜)를 보내어 농기구를 내려 주었다. 以于山國 被東北女眞所寇 廢農業 遣李元龜 賜農器	현종 9년 11월
高麗史	1019	기묘(己卯)에 우산국(于山國) 민호(民戶)로서 일찍이 여진(女眞)에게 잡혔다가 도망쳐온 자를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己卯 于山國民戶 曾被女眞虜掠來奔者 悉令歸之	현종 10년 7월
高麗史	1022	병자(丙子)에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주(奏)하기를, “우산국(于山國) 백성으로 여진(女眞)의 노략질을 입어 도망하여온 자는 예주(禮州)에 두고 관(官)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 아주 편호(編戶)를 삼으소서.” 하니 이를 받아 들었다. 동여진(東女眞)과 서여진(西女眞) 아라대(阿羅大)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丙子 都兵馬使奏 于山國民 被女眞虜掠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東西女眞阿羅大等 來獻土物.	현종 13년 7월
高麗史	1157	병자에 박순충(朴純冲)으로 추밀원 부사를 삼았다. 왕이 동해 가운데 우릉도(羽陵島)란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지가 기름져서 예전에 주현이 있었던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監倉) 전중내급사 김유립(金柔立)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김유립이 돌아와 아뢰기를,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더이다.” 라고 하니, 드디어 그 의론을 그만두었다.	의종(毅宗) 11년 5월

<부록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高麗史	1246	국학 학유(國學學諭) 권형윤(權衡允)을 급제 시키고, 사정순(史挺純)을 울릉도 안무사(蔚陵島安撫使)로 삼았다.	고종(高宗) 33년 5월
高麗史	1273	대장군姜위보(姜渭輔)를 울릉도 작목사(蔚陵島斫木使)로 삼고 이추와 함께 가게 하였는데, 추가 위보의 관직이 낮은 것에 노하니 이에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허공(許珙)을 보내어 대신하였다. 드디어 사신을 원 나라에 보내어 울릉도에서 나무 베는 것을 그만두고, 다구의 부하 5백 명의 의복을 감하며, 적을 평정한 후 탐라 사람들이 육지로 나오지 않고 예전처럼 각기 생업에 안착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모두 들어주었다	원종(元宗) 14년 2월
高麗史	1379	왜적이 무릉도(武陵島)에 들어와서 반 달을 머물다가 물러갔다.	신우(辛禡) 5년 7월
高麗史	1389	영흥군(永興君) 환(環)이 일찍이 어떤 일로 무릉도(武陵島 울릉도)로 귀양갔는데, 생사를 알지 못 한 지가 19년이나 되었다. 그의 아내 신씨(辛氏)가 환이 풍파에 표류하여 일본국(日本國)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조정에 청하여 가노(家奴)를 시켜 사신을 따라가서 물색하여 찾은 것이 서너 번이었다. 이때에 와서 그 가노가 환이라고 칭하는 자와 함께 왔는데, 위인이 매우 어리석고 얼굴도 닮지 않았으며, 말도 많이 잊어버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과 성이며 마을도 알지 못하였다. 신씨의 아우 전 판사 극공(克恭)과 인천(姻親) 전 판개성부사 박천상(林天祥), 전 밀직부사 박가흥(朴可興), 지밀직 이승인(李崇仁)·하륜(河崙)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환이 아니다." 하였으나, 신씨가 경산부(京山府)로부터 와서 보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는 것이 어찌 아내의 아는 것만 같으랴." 하고, 드디어 사헌부에 송사하였다. 사헌부에서 종실(宗室)과 천상 등을 모아 대질하니, 환의 두 아들과 형인 중 참수(忠髓)와 종실의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진짜 영흥이다." 하니, 천상 등을 탄핵하여 무고죄(誣告罪)를 주었다.	공양왕(恭讓王) 원년 9월

<부록 표 2> 고려시대 우산국과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高麗史</p>	<p>地理志</p>	<p>울진현(蔚珍縣)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고우이군(古弓伊郡)이라고도 하였음)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郡)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내려 현(縣)을 삼아 영(令)을 두었다. 울릉도(鬱陵島)가 있다.(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우산국(于山國)이라 칭하고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도 하였다. 넓이가 100리이며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 백길사두(白吉士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의종(毅宗) 11년에 왕이 울릉도(鬱陵島)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적에 주현(州縣)을 두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溟州道監倉) 김유립(金柔立)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니 김유립(金柔立)이 돌아와 아뢰기를, “섬 가운데 큰 산(山)이 있어 산정(山頂)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가면 바다에까지 10,000여 보(步)가 되고 서쪽으로 향해 가면 13,000여 보(步)가 되고 남쪽으로 향해 가면 15,000여 보(步)가 되며 북쪽으로 향해 가면 8,000여 보(步)가 되며 촌락(村落)의 기지(基址)가 7개소 있으며 석불(石佛)·철종(鐵鐘)·석탑(石塔)이 있으며 시호(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가 많이 나서 있으나 그러나 바위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니 드디어 그 의론을 중지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蔚珍縣 本高勾麗于珍也縣 (一云古弓伊郡)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郡, 高麗, 降爲縣置令, 有鬱陵島,(在縣正東海中,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智證王十二年, 來降, 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士豆, 獻方物, 毅宗十一年, 王, 聞鬱陵地廣土肥, 舊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 往視, 柔立, 回奏云, 島中, 有大山, 從山頂, 向東行至海一萬余步, 向西行一萬三千余步, 向南行一萬五千余步, 向北行八千余步,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佛·鐵鐘·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然多岩石, 民不可居, 遂寢其議, 一云, 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p>	<p>志 12, 地理, 東界, 蔚珍縣 지증왕 12년은 지증왕 13년의 오기(誤記). 世家에는 태조13년 백길사두(白吉士豆)가 아니라 백길토두(白吉士豆)가 방물(方物)을 바칩.</p>

<부록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태종실록	1407	<p>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보내와 토물(土物)을 바치고, 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무(貞茂)가 무릉도(武陵島)를 청(請)하여 여러 부락(部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p> <p>“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나더러 반인(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니, 남재(南在)가 대답하기를,</p> <p>“왜인의 풍속은 반(叛)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상사(常事)로 여기므로 금(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계책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p> <p>“그 경내(境內)에서는 상사(常事)로 여기지만, 만일 월경(越境)해 오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p>	<p>태종 7년 3월 16일</p> <p>대마도주가 울릉도에 옮겨 살고자 한 것은 朝鮮에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국과 외교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음.</p> <p>무릉도(武陵島)</p>
태종실록	1412	<p>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p> <p>“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 백가물(百加勿) 등 12명이 고성(高城) 어라진(於羅津)에 와서 정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릉도(武陵島)에서 성장하였는데, 그 섬 안의 인호(人戶)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본도(本島)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이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가 모두 2석(息) 거리이고, 둘레가 8석(息) 거리입니다. 우마(牛馬)와 논이 없으나, 오직 콩 한 말만 심으면 20석 혹은 30석이 나고, 보리 1석을 심으면 50여 석이 납니다. 대[竹]가 큰 서까래 같고, 해착(海錨)과 과목(果木)이 모두 있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갈까 염려하여, 아직 통주(通州)·고성(高城)·간성(杆城)에 나누어 두었습니다.”</p>	<p>태종 12년 4월 15일</p> <p>유산국도(流山國島)</p>
태종실록	1416	<p>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按撫使)로 삼았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박습(朴習)이 아뢰기를,</p> <p>“신이 일찍이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로 있을 때에 들었는데, 무릉도(武陵島)의 주회(周回)가 7석(息)이고, 곁에 소도(小島)가 있고, 전지가 50여 결(結)이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겨우 한 사람이 통행하고 나란</p>	<p>태종 16년 9월 2일</p> <p>金麟雨 爲 武陵等處 安撫使</p>

<부록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태종실록 계속	1416 계속	<p>히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방지용(方之用)이란 자가 있어 15가(家)를 거느리고 입거(入居)하여 혹은 때로는 가왜(假倭)로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삼척(三陟)에 있으니, 청컨대, 그 사람을 시켜서 가서 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삼척 사람 전 만호(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불러 무릉도의 일을 물었다. 김인우가 말하기를,</p> <p>“삼척 사람 이만(李萬)이 일찍이 무릉(武陵)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섬의 일을 자세히 압니다.”</p> <p>하니, 곧 이만을 불렀다. 김인우가 또 아뢰기를,</p> <p>“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軍役)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접(住接)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어 김인우를 무릉 등지 안무사로 삼고 이만(李萬)을 반인(伴人)으로 삼아, 병선(兵船) 2척, 초공(抄工) 2명, 인해(引海) 2명, 화통(火通)·화약(火藥)과 양식을 주어 그 섬에 가서 그 두목(頭目)에게 일러서 오게 하고, 김인우와 이만에게 옷[衣]·입(笠)·화(靴)를 주었다.</p>	<p>태종 16년 9월 2일 계속</p> <p>“武陵島 周回七息, 傍有小島, 其田可五十餘結. 所入之路, 纔通一人, 不可並行. 昔有方之用 者率十五家入居, 時或假 倭 爲寇. 知其島者, 在三陟, 請使之往見.”</p>
세종실록	1426	<p>병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계하기를,</p> <p>“도(道)에서 바치는 염초(焰硝)는 영동 연해(嶺東沿海)의 각 고을에서 구워 만드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람마다 그 기술을 전해 배웠사온 바, 간사한 백성이나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무릉도(茂陵島)나 대마도 등지로 도망하여 가서 화약(火藥)을 만드는 비술(秘術)을 왜인에게 가르치거나 앗을까 염려되오니, 이제부터는 연해(沿海)의 각 수령들로 하여금 화약을 구워 만들지 못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종 8년 12월 13일 茂陵</p>
세종실록	1438	<p>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사직(司直) 조민(曹敏)이 무릉도(茂陵島)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사철(沙鐵)·석종유(石鍾乳)·생포(生鮑)·대죽(大竹) 등의 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p> <p>“발선(發船)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엄습(掩襲)하온즉,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p>	<p>세종 20년 7월 15일 護軍 南薈司直 曹敏 回自 茂陵島 復命</p>

<부록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하였고, 동서는 하루의 노정(路程)이고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438	형조에서 아뢰기를, “김안(金安)이 수모(首謀)가 되어서 무릉도(茂陵島)로 도망해 들어갔사오니, 율이 마땅히 교형에 처하는 데에 해당하옵고, 그 밖의 종범(從犯)은 모두 경성(鏡城)으로 옮길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0년 11월 25일 무릉도(茂陵島)
성종실록	1471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성순조(成順祖)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듣건대, 영안도(永安道)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무릉도(茂陵島)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다. 세종조(世宗朝)에 일찍이 이 섬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토벌(討伐)하였는데, 지금 반드시 그때에 왕래한 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찾아서 심문하도록 하라. 또 그 곳에 가기를 원(願)하는 자를 모집하고 아울러 선함(船艦)을 준비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2년 8월 17일 무릉도(茂陵島)
성종실록	1472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치계(馳啓)하기를, “삼봉도 경차관(三峯島敬差官) 박종원(朴宗元)이 거느린 군사와 더불어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지난 5월 28일에 울진포(蔚珍浦)로부터 출발하여 가다가 곧 큰 바람을 만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종원의 배는 동북쪽으로 가서, 29일 새벽(平明)에 동남쪽을 향하여 무릉도(武陵島)를 바라보니 15리(里) 쯤 되었는데 다시 큰 바람을 만나 닻줄[纜]이 끊어져서 대양(大洋) 가운데로 표류(漂流)하여 동서(東西)를 알지 못한 지 7주야(晝夜)가 되었다가 이달 초6일 오시(午時)에 간성군(杆城郡)의 청간진(淸簡津)에 이르렀습니다. 사직(司直) 광영강(郭永江) 등의 세 배는 지난 5월 29일에 무릉도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는데, 섬 가운데를 수색(搜索)하여 보니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옛 집터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섬 가운데 대[竹]가 있어 그 크기가 이상하였으므로 광영강 등이 두어 개[數竿]를 배에 싣고 돌아와, 이달 초6일에 강릉(江陵) 우계현(羽	성종 3년 6월 12일 무릉도(武陵島)

<부록 표 3> 조선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성종실록 계속	1472 계속	溪縣) 오이진(梧耳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바람 기운이 점점 높고 바다의 물결도 험악하여 다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본도의 군사와 서울의 군사를 놓아 보내는데, 운(運)을 나누어서 올려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성종 3년 6월 12일 무릉도(武陵島)
중종실록	1511	선위사(宣慰使) 허굉(許礪)이 와서 아뢰기를, “봉중이 올라올 때에 말은 없다가, 낙생역(樂生驛)에 와서 신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할 때에 봉중이 말하기를 ‘당신이 조정에 돌아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 하였으니, 대개 화친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나 안색을 보면, 오로지 화친을 위하여 왔습니다. 전에 온 왜인 등의 일에 대하여는 거의 거론하지 않으니, 대마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절도사 유담년(柳聃年)이 신에게 말하기를 ‘영해(寧海)에 사는 군관 박자범의 말이, 「강원도 무릉도(武陵島)가 그 곳과 서로 바라다 보이는데, 밤에 불빛이 있으니 왜선(倭船)이 숨어 닿았든가, 혹 우리나라에서 죄를 얻고 도망간 사람이 비밀히 우거(寓居)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한다’ 합니다. 신이 들은 것이 이러하므로 감히 아뢰니 다.” 하였다.	중종 6년 5월 21일 무릉도(武陵島)
명종실록	1556	상이 사정전 처마 밑의 주강에 나아갔다. 【이때 재변으로 정전(正殿)을 피했다.】 검토관(檢討官) 박계현(朴啓賢)이 아뢰기를, “요즈음 천재와 괴변이 잇달아 나타나는데 고사(古史)를 상고해 보니, 산이 무너지고 샘이 마르며 혜성이 나타나는 것은 난리가 날 징조하고 했습니다. 송 신종(宋神宗) 때에 큰 수재가 있자 사마광(司馬光)이 자기에게 죄를 돌리고 구언(求言)하기를 주청하니 대궐 아래에서 상소하는 자가 수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구언의 교서를 내렸으나 상소하는 사람이 없으니 언로(言路)가 막힌 듯하여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강원도 울릉도(鬱陵島)에 검은 새가 하늘을 뒤덮고 연해(沿海) 등처로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늘 있는 일이 아니고 보면 어떤 기(氣)에 몰려서 그런 듯합니다. 황해도 풍천(豊川) 땅에서는 누런 쥐와 검은 쥐가 들에 갈려 서로 싸우다가 누런 쥐가 패사(敗死)하여 땅에 널렸다고 하므로 서울 안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소문이요 잘못 전해진 말이기는 하나 상서롭지 못하니 빨리 수소문해 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은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험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천지의 운행이 어긋나니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몰라 위에서도 걱정이 그지없다.” 하였다.	명종 11년 2월 3일 江原道 蔚陵島 , 黑鳥蔽天, 飛出沿海等處.

<부록 표 10>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광해군일기	1614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릉도에 왜노(倭奴)의 왕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書啓)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回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본도(本島)가 우리나라에 소속되었음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물(方物)을 거두기도 하고 도민(島民)을 조사 정리하기도 한 전고(典故)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 일을 회답하는 서계 가운데 갖추어 기재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깊이 꾸짖어서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막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경상 감사와 부산(釜山)의 변신(邊臣)에게 공문을 보내 온 배에 특별히 유시를 하고 이 글을 전적으로 맡아 싸가지고 속히 돌아가 도주(島主)에게 보고하여 조정의 금약(禁約)을 준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광해군 6년 9월 2일 鬱陵島 禁止 倭 奴來去之意
현종실록	1664	대마도가 흥양(興陽)의 표류인 19명을 송환하였다. 예조로 하여금 편지를 써 그들의 호의에 답하게 하였다. 흥양현 백성 모주복(毛注福) 등 19명이 배를 타고 영해부(寧海府)로 교역을 하러 가다가 지난해 11월 4일 태풍을 만나 표류해 일본 은주(隱州)에 닿았다. 은주에서 장기(長崎)로 보내졌고, 장기에서 다시 대마도로 보내졌는데, 대마도주가 굴성중(橋成重)을 보내 동래(東萊)로 거느리고 와 인계한 것이다.	현종 5년 5월 12일 대마도가 흥양현의 모주복 등 19명의 표류인을 송환하다
숙종실록	1693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하직 인사를 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홍중하와 함께 청대(淸對)하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이른바 죽도(竹島)는 바로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린다면 그만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人民)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목내선·민암은 아뢰기를, “왜인들이 민호(民戶)를 옮겨서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백 년 동안 비워서 내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혼단(蠱端)을 일으키고 우호(友好)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上)이 민암 등의 말을 따랐다. 대체로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해변(海邊)에서 표류(漂流)하여 울릉도(鬱陵島)에 이르렀는데, 섬	숙종 19년 11월 18일 ...“倭人 所謂 竹島。 卽我國 鬱陵島。 今以爲不關而棄之則已， 不然則不可不預爲明辨。 且彼若以人民入接， 則豈非他日之憂乎？” 來善 黯 俱以爲“倭人之徙入民戶， 既不能的知， 此是三百年空棄之地。 因此生蠱失好， 亦非計也。” 上從 黯 等言。 蓋 蔚山 漁人， 自海邊漂至 鬱陵島， 島上三峰接天， 中有數十戶人家遺址。 草木則多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계속	1693 계속	<p>위에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섬 가운데는 수십(數十) 호(戶)되는 인가(人家)의 허물어진 터가 있었으며, 초목으로는 대나무와 갈대가 많았고 날짐승과 길짐승으로는 까마귀·소리개·고양이·너구리·살쥬이가 많았는데, 왜인(倭人)들이 잡아가는 바가 되었으며, 그 섬으로부터 백기주(伯耆洲)까지는 7주야(晝夜)가 걸린다. 이때 왜(倭)가 국경을 침범한 죄(罪)로 고기잡는 사람을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조(太宗朝)의 재신(宰臣) 신숙주(申叔舟)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펴보고 그곳의 형지(形止)를 기록하여 왔었는데, 지금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말한 바가 그 기록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부합이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것은 분명 울릉도라고 여겼지만, 묘당(廟堂)에서는 버려둔 땅과 같이 여기고 분변하여 다루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p>	<p>竹葦 禽獸則多烏鳶貓狸 爲倭人所執去 自其島至 伯耆洲 七晝夜 時倭請以犯境之罪 罪漁人 太宗朝 宰臣 申叔舟 浮海入審 鬱陵島 記其形止而來 今漁人所言 與其記言相符 議者皆以爲 此明是 鬱陵島 而廟堂乃以爲等棄之地 而不欲辨爭 其計誤矣</p>
숙종실록	1694	<p>계유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띄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궐진중(橋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書信)에 이르기를,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울릉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회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 “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漁船)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다 백성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生計)로 삼게 되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지 않는,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서도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犯人)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p>	<p>숙종 20년 2월 23일 울릉도에 대해 왜인에게 보냈던 서계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속중실록 계속</p>	<p>1694 계속</p>	<p>좌계(左契)를 가지고서 점거(占據)할 계책을 삼으려고 했으니,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든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나라의 것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왜인들이 반드시 울릉이란 두 글자를 고치려고 하면서도, 끝내 죽도가 울릉도가 된 것을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대개 그 왜곡(歪曲)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스스로 걱정했기 때문이다. 아! 조종(祖宗)의 강토(疆土)는 남에게 줄 수가 없으니 명백히 분변하고 엄격히 물리쳐서 교활한 왜인(倭人)으로 하여금 다시는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 의리가 분명한데도, 주밀하고 신중한 데에 지나쳐서 다만 견제(牽制)하려고 한 것이 범인(犯人)들에게 과죄(科罪)하는 말과 같이, 더욱 이웃 나라에 약점(弱點)을 보였으니, 이루 애석함을 견디겠는가?] 하였다.</p> <p>이내 교리(校理) 홍중하(洪重夏)를 접위관(接慰官)으로 임명하여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이르게 했는데, 풀진중이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서신중에 ‘우리나라의 울릉도란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여 통역관(通譯官)에게 이르기를, “서계(書契)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이내 여러 번 산개(刪改)하기를 청하고는, 사사로이 그 따라온 왜인을 보내어 대마도에 통하여 의논하기를 거의 반 달이나 되면서 시일을 지체하여 결정하지 않으므로, 홍중하가 통역관으로 하여금 이를 책망하니, 따라온 왜인이 사사로 통역관에게 이르기를, “도주(島主)는 반드시 울릉(鬱陵)이란 두 글자를 깎아 버리려고 했으니, 난처(難處)한 일이 있는 듯하며, 또한 자세히 고치기를 청하는 정관(正官)의 서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하고는, 또 번갈아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다투므로, 우리 조정에서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다. 풀진중이 피가 다하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그제야 서계를 받고서 돌아갔다. 이에 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을 치죄(治罪)하여 혹은 형신(刑訊)하기도 하고, 혹은 귀양보내기도 하였다.</p> <p>후에 승지 김만귀(金萬龜)가 강연(講筵)에 모시고 있다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옛날에 강원 도사(江原都事)가 되었을 때, 바닷가에 이르러 거주하는 사람에게 울릉도를 물었더니 가리켜 보이므로, 신이 일찍이 일어나 멀리서 바라보니 세 봉우리가 뚜렷했는데, 해가 뜰 때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영암(靈巖)의 월출산(月出山)에서 제주(濟州)를 바라본 것에 비한다면 오히려 가까운 편입니다. 신은 마땅히 이 섬에 진(鎭)을 설치하고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기잡는 사람을 귀양보낸 일은 아마 지나친 듯합니다.”</p>	<p>속중 20년 2월 23일 계속</p> <p>울릉도에 대해 왜인에게 보냈던 서계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속중실록 계속	1694 계속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또한 소견(所見)이 있다.” 하였다.</p> <p>[사신(史臣)은 논한다. 왜인들이 말하는 죽도란 곳은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인데, 울릉이란 칭호는 신라(新羅)·고려(高麗)의 사서(史書)와 중국 사람의 문집(文集)에 나타나 있으니 그 유래(由來)가 가장 오래 되었다. 섬 가운데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또한 죽도란 칭호가 있지만, 실제로 한 섬에 두 명칭인 셈이다. 왜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죽도에서 고기잡는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말을 얻어서 그 금단(禁斷)을 허가받은 후에 이내 이해 여름에 남구만(南九萬)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보고에 왜인이 또 말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은 우리의 죽도에 마땅히 다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臣)이 《지봉유설(芝峰類說)》【고(故) 판서(判書) 이수광(李睟光)이 저술한 책으로, 지봉(芝峰)은 그의 호(號)이다.】을 보니, 왜놈들이 의죽도(儀竹島)를 점거(占據)했는데, 의죽도는 곧 울릉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왜인의 말은 그 해독이 장차 한정이 없을 것인데, 전일 왜인에게 회답한 서계가 매우 모호했으니, 마땅히 접위관을 보내어 전일의 서계를 되찾아와서 그들이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자하게 구는 일을 바로 책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라 때 이 섬을 그린 그림에도 또한 나라 이름이 있고 토공(土貢)을 바쳤으며, 고려 태조(太祖) 때에 섬사람이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우리 태종(太宗) 때에 왜적이 침입하는 근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안무사(按撫使)를 보내어 유민(流民)을 찾아 내오게 하고는, 그 땅을 텅비워 두게 했으나, 지금 왜인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의 강토를 또한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신여철(申汝哲)은 아뢰기를, “신이 영해(寧海)의 어민에게 물으니, ‘섬 가운데 큰 물고기가 많이 있고, 또 큰 나무와 큰 대나무가 기둥과 같은 것이 있고, 토질도 비옥하다.’고 하였는데, 왜인이 만약 점거하여 차지한다면 이웃에 있는 강릉(江陵)과 삼척(三陟) 지방이 반드시 그 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남구만의 말을 들어 써서 전일의 서계를 돌려오도록 명하였다.</p>	<p>속중 20년 2월 23일 계속</p> <p>울릉도에 대해 왜인에게 보냈던 서계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p>
속중실록	1694	<p>당초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鬱陵島)에 관한 일로 임금에게 아뢰어, 접위관(接慰官)을 보내 맞바로 회빈작주(回賓作主)하는 것을 책망하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왜차(倭差)가 돌아오면서 봄 무렵에 받아 간 회서(回書)를 가지고 왔고, 또한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이르기를, “우리의 서계에는 일찍이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서에는 갑자기 ‘울릉’ 두 글자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알기 어려운 바이니 오직 삭제하기 바랍니다.” 하였다.</p>	<p>속중 20년 8월 14일</p> <p>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숙종실록 계속</p>	<p>1694 계속</p>	<p>남구만이 그만 그 말을 따라 앞서의 서계를 고치려고 하자, 윤지완(尹趾完)이 안 된다고 고집하기를, “이미 국서(國書)로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붙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와서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번엔 책망하기를, ‘죽도(竹島)는 곧 우리 울릉도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것이 어찌 경계(境界)를 범한 것인가?’ 하고 한다면, 왜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p> <p>남구만이 드디어 이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임금의 이르기, “교활한 왜인(倭人)들의 정상(情狀)으로 보아 필시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니, 전일에 의논한 대로 바로 말을 하여 대꾸해 주라.” 하였다.</p> <p>남구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들건대, 고려 의종(毅宗) 초기에 울릉도를 경영하려고 했는데, 동서(東西)가 단지 2만여 보(步)뿐이고 남북도 또한 같았으며, 땅덩이가 좁고 또한 암석(巖石)이 많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해외(海外)에 있고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살피게 하지 않았으며, 왜인들의 말이 또한 이러하니, 청컨대 삼척 첨사(三陟僉使)를 가려서 보내 섬 속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여, 혹은 민중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고 혹은 진(鎭)을 설치하여 지키게 한다면, 곁에서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드디어 장한상(張漢相)을 삼척 첨사로 삼고, 접위관 유집일(兪集一)이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갔다.</p> <p>대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 처음 일본(日本)에 갔을 적에 매우 대우를 잘하여 의복과 호초(胡椒)와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는데, 장기도(長碕島)에서 침책(侵責)하기 시작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죽도(竹島)’란 말은 곧 장차 강호(江戶)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유집일이 안용복에게 물어보자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p> <p>그제야 왜차(倭差)를 꾸짖기를, “우리나라에서 장차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侵責)한 상황을 갖추어 말한다면, 모든 섬들이 어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고 비로소 스스로 굴복하였다.</p>	<p>숙종 20년 8월 14일 계속</p> <p>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계속	1694 계속	<p>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전일의 회서(回書)를 고치기를,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해(東海) 가운데 있고 과도가 험악하여 배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갔다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본도(本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産物)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강호(江戶)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경을 침범해와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뜻을 가지고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p> <p>했었는데, 왜차(倭差)가 보고서 ‘침범해 오다[侵涉]’와 ‘붙잡아 갔다[拘執]’ 등의 어구(語句)를 고치기를 청했으나, 유집일이 들어주지 않았다. 왜차가 또한 제2의 서계의 【‘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 주기를 청한 서계이다.】 회답을 받기를 청하므로, 유집일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상선연(上船宴)을 받기로 한다면, 내가 마땅히 돌아가 조정에 아뢰어 마련해 보내겠다.” 하였으니, 대개 입시변통하여 한 말인데, 왜차가 드디어 상선연을 받았고, 유집일도 이에 복명(復命)하였다. 그러나 왜차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한상(張漢祥)이 9월 갑신에 배를 타고 갔다가 10월 경자에 삼척(三陟)으로 돌아왔는데, 아뢰기를, “왜인(倭人)들이 왔다갔다 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또한 일찍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水宗)이 【바다 가운데 물이 부딪치는 곳이니, 육지의 고개가 있는 데와 같은 것이다.】 또한</p>	<p>숙종 20년 8월 14일 계속</p> <p>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계속	1694 계속	<p>평탄하지 못하여 오고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알려고 모맥(麩麥)을 심어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에 다시 가 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남구만이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없고,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수토(搜討)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조(禮曹)에서 간직하고 있는 문서에는 ‘정묘년에 백기주(伯耆州)의 왜인이 그의 식읍(食邑) 죽도(竹島)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리나라 지경으로 표류(漂流)해 왔다.’는 글이 있고, 동래부(東萊府)에 간직한 문서에는 ‘광해(光海) 갑인년에 왜(倭)가 사자(使者)를 보내 의죽도(礮竹島)를 탐시(探視)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정에서 답하지 않고, 동래부로 하여금 준엄하게 배척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왜인들이 이 섬에서 여채(漁採)해 온 지가 또한 오래 된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p> <p>하였다. 이때 장한상(張漢相)이 그러서 올린 산천(山川)과 도리(道里)가 《여지승람》의 기록과 틀리는 것이 많으므로, 혹자는 장한상이 가 본 데가 진짜 울릉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p>	<p>숙종 20년 8월 14일 계속</p> <p>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p>
숙종실록	1696	<p>동래(東萊) 사람 안용복(安龍福) · 흥해(興海) 사람 유일부(劉日夫) · 영해(寧海) 사람 유봉석(劉奉石) · 평산포(平山浦) 사람 이인성(李仁成) · 낙안(樂安) 사람 김성길(金成吉) 과 순천(順天) 중[僧] 뇌헌(雷憲) · 승담(勝淡) · 연습(連習) · 영률(靈律) · 단괘(丹賁) 과 연안(延安)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 에 가서 일본국(日本國) 백기주(伯耆州) 로 들어가 왜인(倭人) 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襄陽縣) 지경으로 돌아왔으므로, 강원 감사(江原監司) 심평(沈淸) 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치계(馳啓)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 내렸다.</p>	<p>숙종 22년 8월 29일</p> <p>동래 사람 안용복 등 이 일본국에서 왜인 과 송사하고 돌아오 니 잡아 가두다</p>
숙종실록	1696	<p>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安龍福)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 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 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 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 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寧海)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기를, ‘울릉도 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 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p>	<p>숙종 22년 9월 25일</p> <p>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숙종실록 계속</p>	<p>1696 계속</p>	<p>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 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 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신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원(憤?)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칠릭(帖裏)을 입고 검은 포립(布笠)을 쓰고 가족신을 신고 교자(輻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물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낸 법을 여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나,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p>	<p>숙종 22년 9월 25일 계속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주문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1696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 이 말하기를,</p> <p>“ 안용복(安龍福)의 일을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돈녕(領敦寧) 윤지완(尹趾完)은 말하기를, ‘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혹 조정(朝廷)에서 시킨 것 처럼 하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그 죄를 논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 데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전부터 속여 온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강호(江戶)와 교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았으니,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이나, 안용복이 주살(誅殺)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또 그 길이 영구히 막힌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안용복을 죽이는 것이 법으로는 옳겠지만 계책으로는 그릇된 것이므로, 법을 폐기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하나 계책을 잃는 것도 아까운데, 대마도에 통보하고 왜관(倭館) 밖에 효시(梟示)하여 교활한 왜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스스로 손상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 ‘ 안용복이 계유년(9067)에 울릉도(鬱陵島)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대마도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대마도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백기주에 가서 정문(明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事端)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과 죽여야 하고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고, 대마도에 주는 쌀·베·종이를 줄이는 자질구래한 일은 다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나, 울릉도를 변환(變幻)하고 속인 정상에 관계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 기회로 인하여 동래부(東萊府)로 하여금 대마도에 글을 보내어 조목으로 열거하여 힐문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여 매우 배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다시 교묘히 꾸며서 승복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 또 글을 보내어 묻기를, 「 너희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신의가 없으니, 안용복이 풍랑에 표류한 잔약(殘弱)한 백성으로서 국서(國書)가 없이 스스로 정문(明文)한 것은 진실로</p>	<p>숙종 22년 10월 13일</p> <p>좌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p>숙종실록 계속</p>	<p>1696 계속</p>	<p>믿을 수 없으므로, 조정에서 따로 사신(使臣)을 일본에 보내어 그 허실(虛實)을 살피게 하려는데, 너희는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는가?」 하면, 대마도의 왜인 이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안용복의 죄를 우리 나라에서 그 경중을 의논하여 처치하고, 울릉도의 일은 왜인 이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면, 교활한 왜인 이 시험하여 보려는 생각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또한 동래부로 하여금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어 먼저 안용복 이 마음대로 정문한 죄를 말하고, 다시 본도(本島)에서 죽더라도 거짓 칭한 잘못을 말하되, 이치를 가려서 타이르고 자세히 조사(措辭)하고서 그 회답을 기다린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고, 안용복을 단죄(斷罪)한다는 뜻은 결코 서계(書契) 가운데에 말하여서는 안되니, 이것이 중책(中策)입니다. 대마도에서 간사한 술책으로 우리를 속인 정상은 힐문하지 않고서 버려두고, 안용복 이 정문하여 변정(辨正)한 죄는 먼저 논하여 죽인다면, 도주의 원한을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약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도주의 뜻은, 속으로는 원한을 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더라도 겉으로는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니, 이 뒤로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용복의 일을 핑계거리로 삼아 우리 나라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말의 근본을 삼고 오래지 않아 울릉도의 일로 말을 고집하여 잇달아 차인(差人)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하책(下策)일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외방에 있는 대신의 뜻은 다 안용복을 죽이는 것을 옳지 않다 하나, 남구만 의 상책은 쉽사리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용복을 죄주지 않고 오로지 대마도를 꾸짖으면, 마치 국가에서 시킨 것인 듯할 것이니, 안용복·이인성(李仁成)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고, 그 나머지 위협 때문에 따른 자는 이미 살리는 의논에 붙였으니, 먼저 석방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영상(領相)이 출사한 뒤에 상의하여 품처(稟處)하고, 사람들은 먼저 놓아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 지사(知事) 신여철(申汝哲) 이 말하기를,</p> <p>“ 안용복의 일은 매우 놀랍기는 하나,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므로 공로와 죄과가 서로 덮을 만하니, 일죄(一罪)로 결단할 수 없겠습니다.”</p>	<p>숙종 22년 10월 13일 계속</p> <p>좌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계속	1696 계속	<p>“신은 예문(禮文)을 모르므로 요상(僚相)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 부교리(副校理)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p> <p>“이것은 어려울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그러면 곧 정지하라.”</p> <p>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최규서(崔奎瑞)가 병자년의 사절인(死節人) 강흥업(姜興業)에게 서손(庶孫)이 있는데, 가난하므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니, 임금이 수용(收用)하라고 명하였다.</p>	<p>숙종 22년 10월 13일 계속</p> <p>최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하다</p>
숙종실록	1697	<p>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p> <p>“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뭄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鬱陵島)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혼란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면서 다루었으나,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23년 3월 27일</p> <p>안용복을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p>
숙종실록	1699	<p>강원도(江原道) 월송 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고 대풍소(待風所)로 돌아왔다. 본도(本島)의 지형(地形)을 그려 올리고, 겸하여 그곳 토산(土産)인 황죽(皇竹)·향목(香木)·토석(土石) 등 수종(數種)의 물품을 진상하였다.</p>	<p>숙종 25년 7월 15일</p> <p>월송 만호 전회일이 울릉도의 지형을 그려 올린다</p>
숙종실록	1702	<p>삼척 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과 왜역(倭譯) 최재홍(崔在弘)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돌아와 그곳의 도형(圖形)과 자단향(紫檀香)·청죽(靑竹)·석간주(石間朱)·어피(魚皮) 등의 물건을 바쳤다. 울릉도는 2년을 걸러 변장(邊將)을 보내어 번갈아 가며 찾아 구하는 것이 이미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삼척(三陟)이 그 차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준명이 울진(蔚珍) 죽변진(竹邊津)에서 배를 타고 이튿날 밤 만에 돌아왔는데, 제주(濟州)보다 갑절이나 멀다고 한다.</p>	<p>숙종 28년 5월 28일</p> <p>삼척 영장 이준명 등이 울릉도에서 돌아와 그곳의 도형과 자단향 등을 바치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숙종실록 보궐정오	1714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 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인(浦人)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障礙)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잇달아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년(1049)과 임진년(1050)에 모양이 다른 배가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지경에 표류(漂流)해 왔으니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조가(朝家)에서는 비록 영해(嶺海)가 격(隔)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변란이 반드시 영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영동으로 말미암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어(防禦)의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묘당(廟堂)에서 그 말에 따라 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하였다.	숙종 40년 7월 22일 강원도 어사 조석명이 영동 지방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에 대해 논하다
영조실록	1769	임금이 제조 원인손(元仁孫)에게 명하여 일찍이 삼척영장(三陟營將)을 지내어 사리를 잘 아는 자와 더불어 울릉도(鬱陵島)의 봉만(峰巒)·형승(形勝)·물산(物産)을 그려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영조 45년 10월 16일
영조실록	1769	또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는 지역이 왜인의 지경과 가깝기 때문에, 물산(物産)을 사사롭게 취하는 것을 금하는 법의(法意)가 매우 엄중한데, 근래에 듣건대 본도(本島)의 삼화(蔘貨)가 근처 고을에서 두루 통행되다가 현발(現發)되어 속공(屬公)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관이 어두워서 살피지 못한 것이니 지금히 해연(駭然)합니다. 청컨대 삼척 부사(三陟府使) 서노수(徐魯修)를 잡아다 추문해서 엄중하게 조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조 45년 11월 29일 울릉도 삼화(蔘貨)
영조실록	1769	강원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울릉도(鬱陵島)에 인삼을 캐는 잠상(潛商)을 삼척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가 염탐하여 붙잡았는데, 추잡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일이 발각되어 홍우보가 죄를 받아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홍명한이 서신(書信)을 왕래하여 참섭하였다는 것으로써 장령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여 논핵(論劾)하기를, “울릉도에 대한 금령(禁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강원 감사 홍명한은 그 집안의 무신인 삼척영장 홍우보와 몰래 서신을 왕래하여 사람들을 모아 몰래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한 것이 자그마치 수십 근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관에게 현발(現發)되기에 이르러서는 금령을 범한 백성은 도내(道內)에 형배(刑配)하고 속공(屬公)한 인삼은 돌려 주어 사사로이 팔았으며, 인하여 또 다른 일을 끌어대어 본관(本官)을 장과(狀罷)함으로써 미봉(彌縫)할 계책을 삼았으니, 이것은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 죄법(罪犯)을 논하면 진실로 영장보다 더한데, 가벼운 견벌(謹罰)이 단지 영장에게만 그	영조 45년 12월 9일 울릉도에 인삼을 캐는 잠상의 일로 강원 감사 홍명한의 체차를 명하다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영조실록 계속	1769 계속	치고, 주벌(誅罰)이 홍명한 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법(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며, 훗날의 폐단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원 감사 홍명한 에게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임금(임금이) 협잡(挾雜)이라고 책유(責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대신에게 물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홍명한 이 반드시 인협(引嫌)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체차하도록 명한 것이었다. 임금이 대신 할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홍봉한 이 서명선(徐命善)을 추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순상(巡相)이 정하여졌다.” 하였다.	영조 45년 12월 9일 계속 울릉도에 인삼을 캐는 잠상의 일로 강원 감사 홍명한의 체차를 명하다
영조실록	1770	강원 감사(江原監司) 서명선(徐命善)을 인견하였는데, 울릉도(鬱陵島)에서 삼(蔘) 캐는 일을 금지시켰다.	영조 46년 1월 4일
정조실록	1787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장계(狀啓)하기를, “울산(蔚山)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복(魚鰓)·향죽(香竹)을 채취하였는데, 삼척(三陟)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防禁)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兵營)의 채북 공문(採鯨公文)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 그 병사(兵使)와 부사(府使)를 감죄(勘罪)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강오성(姜五成)과 울산 부사 심공예(沈公藝)를 먼저 파직(罷職)하고 나서 잡아다 추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정조 11년 7월 25일 김재찬이 울산의 해척 등이 울릉도에서 어복을 채취하다 잡혔다고 장계하다
정조실록	1787	임금이 말하기를, “1백 근의 피짐을 30근으로 줄여도 왜인 이 오히려 사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역관이 이 때문에 실리(失利)한다 한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의 삼을 지극한 보배로 여기던 자가 이제는 갑자기 이러하니, 혹 저들이 강경하여 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삼의 품질이 나빠서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니, 김이성 이 말하기를, “삼화(蔘貨)가 흘러 들어가는 데에는 따로 열린 길이 있는 듯합니다. 울릉도(鬱陵島)의 삼이 혹 흘러 들어가는 폐단이 있다 합니다.” 하였다.	정조 11년 9월 30일 울릉도 삼화(蔘貨)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정조실록	1794	<p>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 이 장계하였다.</p> <p>“ 울릉도 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정식(定式)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토관 월송 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월송 만호의 첩정(牒呈)에 ‘4월 21일 다행히도 순풍을 얻어서 식량과 반찬거리를 4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학(倭學)이복상(李福祥) 및 상하 원역(員役)과 격군(格軍) 80명을 거느리고 같은 날 미시(未時)쯤에 출선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는데, 유시(酉時)에 갑자기 북풍이 일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고, 우레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시에 출발한 4척의 배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만호가 정신을 차려 군복을 입고 바다에 기원한 다음 많은 식량을 물에 뿌려 해신(海神)을 먹인 뒤에 격군들을 시켜 햇불을 들어 호응케 했더니, 두 척의 배는 햇불을 들어서 대답하고 한 척의 배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다. 22일 인시(寅時)에 거센 파도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바다 멀리서 두 척의 배 돛이 남쪽에 오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참에 격군들이 동쪽을 가리키며 ‘저기 안개 속으로 은은히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섬 안의 높은 산봉우리일 것이다.’ 하기에, 만호가 자세히 바라보니 과연 그것은 섬의 형태였습니다. 직접 북을 치며 격군을 격려하여 곧장 섬의 서쪽 황토구미진(黃土丘尾津)에 정박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계곡에서 중봉(中峰)까지의 30여 리에는 산세가 중첩되면서 계곡의 물이 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논 60여 섬지기의 땅이 있고, 골짜기는 아주 좁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왼편은 황토구미굴(黃土丘尾窟)이 있고 오른편은 병풍석(屏風石)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향목정(香木亭)이 있는데, 예전에 한 해 걸러씩 향나무를 베어 갔던 까닭에 향나무가 점차 듕성듬성해지고 있습니다.</p> <p>24일에 통구미진(桶丘尾津)에 도착하니 계곡의 모양새가 마치 나무통과 같고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그 바위는 섬과의 거리가 50보(步)쯤 되고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며, 주위는 사면이 모두 절벽이었습니다. 계곡 어귀에는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근근이 기어올라가 보니 산은 높고 골은 깊은데다 수목은 하늘에 맞닿아 있고 잡초는 무성하여 길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p> <p>25일에 장작지포(長作地浦)의 계곡 어귀에 도착해보니 과연 대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듕성듬성할 뿐만 아니라 거위가 작달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큰 것들만 베어낸 뒤에, 이어 동남쪽 저전동(楸田洞)으로 가보니</p>	<p>정조 18년 6월 3일</p> <p>한창국(韓昌國)의 울릉도 수토결과</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정조실록 계속	1794 계속	<p>골짜기 어귀에서 중봉 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 사이에 세 곳의 널찍한 터전이 있어 수십 섬지기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防牌島), 가운데의 것은 죽도(竹島), 동쪽의 것은 용도(瓮島)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把)씩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하도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p> <p>거기서 자고 26일에 가지도(可支島)로 가니, 네댓 마리의 가지어(可支魚)가 놀라서 뛰쳐나오는데, 모양은 무소와 같았고,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진(丘尾津)의 산세가 가장 기이한데, 계곡으로 십여 리를 들어가니 옛날 인가의 터전이 여태까지 완연히 남아 있고, 좌우의 산꼭이 매우 깊숙하여 올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죽암(竹巖)·후포암(幬布巖)·공암(孔巖)·추산(錐山) 등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나서 통구미(桶丘尾)로 가서 산과 바다에 고사를 지낸 다음,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머무르고 있었습니다.</p> <p>대저 섬의 둘레를 총괄하여 논한다면 남북이 70, 80리 남짓에 동서가 50, 60리 남짓하고 사면이 모두 층암 절벽이며, 사방의 산꼭에 이따금씩 옛날 사람이 살던 집터가 있고 전지로 개간할 만한 곳은 도합 수백 섬지기쯤 되었으며, 수목으로는 향나무·잣나무·황벽나무·노송나무·뽕나무·개암나무, 잡초로는 미나리·아욱·쑥·모시풀·다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도 이상한 나무들과 풀은 이름을 몰라서 다 기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충(羽虫)으로는 기러기·매·갈매기·백로가 있고, 모충(毛虫)으로는 고양이·쥐가 있으며, 해산물로는 미역과 전복뿐이었습니다.</p> <p>30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새달 8일에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섬 안의 산물인 가지어 가죽 2벌, 황죽(篋竹) 3개, 자단향(紫檀香) 2토막, 석간주(石間朱) 5되, 도형(圖形) 1벌을 감봉(監封)하여 올립니다.’ 하였으므로, 함께 비변사로 올려보냅니다.”</p>	<p>정조 18년 6월 3일 계속</p> <p>한창국(韓昌國)의 울릉도 수토결과</p>
정조실록	1795	<p>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p> <p>“ 울릉도 는 본래 산삼(山蔘)이 생산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한 해 걸러 산삼을 찾는 일이 늘 3,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캐낼 절기가 아니라서 번번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곤 합니다. 내의원의 의원들 모두 그 산삼의 품질이 매우 좋다고 말하는 만큼 관찮은 물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여 버린 물건 취급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애석합니다. 한 번 시험삼아 캐 내게 하더라도 손해될 것은 없으니, 내년 봄에 찾아내</p>	<p>정조 19년 6월 4일</p> <p>울릉도의 산삼 채취시기를 앞당길 것을 아뢰다</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정조실록 계속	1795 계속	<p>기로 예정된 일을 금년 6, 7월로 앞당겨 정한 뒤 삼척(三陟)의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채삼군(採蔘軍) 약간 명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채취하게 했으면 합니다. 거행할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해영(該營)에 문의하면 보고해 올 것이니, 비국에서 편할 대로 통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희하였다.</p>	<p>정조 19년 6월 4일 계속</p> <p>울릉도의 산삼 채취시기를 앞당길 것을 아뢰다</p>
정조실록	1799	<p>강원 감사 윤필병(尹弼秉) 이 비변사에 공문을 보내기를,</p> <p>“금년에 울릉도(鬱陵島)를 수색하는 것은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할 차례인데, 채삼 절목(採蔘節目) 가운데에는 단지 ‘영장(營將)이 갈 때에 채삼군(採蔘軍)을 들여 보낸다.’는 말만 있고, 만호가 갈 경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편리하게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p> <p>강릉 등 다섯 고을의 첩보에 의하면 ‘채삼군을 정해 보내는 것은 을묘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산골에서 성장하여 삼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을 강릉은 5명, 양양은 8명, 삼척은 10명, 평해는 4명, 울진은 3명씩 나누어 정해 보내는데, 이들은 모두 풍파에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간간히 빠지려고 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채삼군을 가려 뽑는 담당관이 중간에서 조종하며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진두(津頭)에서 바람을 기다릴 때에는 양식값이라고 하면서 민간에서 거두어들인다. 삼을 캔 것이 을묘년에는 2냥 8전이고, 정사년에는 5냥 6전인데, 이것은 캔 사람이 솜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서 미리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금년의 수색은 월송 만호가 원래의 차례이기는 하나 요즈음에 삼을 캐어 바친 전례에 따라 삼척 영장으로 바꾸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p> <p>“지금의 삼정(蔘政)은 실로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만일이 삼의 품질이 좋고 많이 캐기만 한다면 과연 그만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삼의 품질이 육지의 삼에 비하여 매우 형편없고, 집에서 재배한 삼보다 나은 점도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캔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두 번 가서 캔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색하는 것은 전과 같이 영장과 만호를 차례대로 보내 거행하게 하고, 채삼군을 들여보내는 것은 지금 우선 그냥 놔두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따랐다.</p>	<p>정조 23년 3월 18일</p> <p>울릉도 채삼(採蔘)</p>

<부록 표 4> 조선후기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순조실록	1804	심지어는 「고백령(古白翎) 과 울릉도 에서 병기(兵器) 를 만들고 군량(軍糧)을 쌓아 둔다」 는 설과 상소에 가탁하여 양서(兩西) 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순조 4년 9월 5일 대역죄인 추국(推鞠)
철종실록	1852	경상 감사(慶尙監司) 홍열모(洪說謨) 가 안동 영장(安東營將) 김재휘(金在徽) 의 비보(秘報)를 가지고 밀계(密啓)하기를, “ 영양현(英陽縣) 에 거주하는 정우룡(鄭禹龍) 과 그의 아들 정자성(鄭自性) , 이상우(李尙友) 와 그의 아들 이윤경(李允慶) , 박평양(朴平陽) 의 손자 박밀양(朴密陽) 등이 작당(作黨)하여 서로 왕래하며 허황된 말을 퍼뜨리어 인심을 선동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를 불러 모으니, 경전(耕田)하는 자는 걷어치우고 집을 짓는 자는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장차(將差)320) 를 보내어 여러 놈을 잡아 와서 근인(根因)을 끝까지 핵실하였던 바, 정우룡(鄭禹龍) 은 본시 남해(南海) 사람으로서 연전에 새로 본현(本縣)에 우거(寓居)하였고, 그의 아들 정자성(鄭自性) 은 성품이 본시 완악하여 스스로 환술(幻術)을 믿고는 감히 부도(不道)한 흉계(凶計)를 내어 도당(徒黨)을 이웃 고을에서 불러 모으고, 새로 우거(寓居)한 어리석은 백성과 체결(締結)하여, 이달 초7일에 본현(本縣)의 검마산(劍麻山) 속에 모여서 그대로 거사(擧事)할 것을 기약하였으며, 또 울릉도(鬱陵島) 의 도적들과 이달 초10일에 모이기로 기약하였다고 하였으니, 단서(端緒)가 죄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수(魁首) 정자성(鄭自性) 의 초사(招辭)에 나온 잡지 못한 자들은 기일을 정하여 엽탐해 잡으라는 뜻을 영양(英陽) 등의 고을에 관칙(關飭)하였습니다. 이 뒤의 형지(形止)는 수시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철종 3년 7월 11일 허황된 말로 인심을 동요한 정우룡·이상우 등을 잡아 문초한 사실을 아뢰다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81	<p>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p> <p>“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 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간십(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꺾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 과 부산(釜山) 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p> <p>봉산(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수토(搜討)하는 것도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찍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p> <p>그러나 생각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해지(要害地)로서 어떠한지 방수(防守)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 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헤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수계(修啓)하여 아뢰고 복계(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다.</p>	<p>고종18년 5월 22일</p> <p>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다</p>
고종실록	1882	<p>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 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陞)를 하였기 때문이다.</p> <p>하교하기를,</p> <p>“ 울릉도(鬱陵島) 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松竹島) 와 우산도(芋山島) 는 울릉도 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p>	<p>고종 19년 4월 7일</p> <p>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계속	1882 계속	<p>임(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우산도는 바로 울릉도 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우산국 의 국도(國都)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 와 떨어진 거리는 30리(里)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라고 합니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p> <p>“우산도 라고도 하고 송죽도 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 · 죽도 라고도 하는데 우산도 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 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라.</p> <p>울릉도는 본래 삼척 영장(三陟營將)과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둘러가면서 수검(搜檢)하던 곳인데 거의 다 소홀히 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지 외부만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보라.”</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송죽도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p> <p>“혹시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으나 대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p> <p>하였다.</p>	<p>고종 19년 4월 7일 계속</p> <p>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82	<p>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 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p> <p>“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열람했고 지도(地圖)도 보았다. 산 위에 있는 나리동(羅里洞) 이 넓기는 넓는데 단지 물이 없는 것이 흠이다. 그 속에 나무들이 하늘이 안 보이게 꼭 들어서 있던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나리동 산 위에 따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이른바 천부(天府)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기슭에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크고 작은 냇물들이 모두 복류(伏流)인 것이 하나의 큰 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꼭 들어서서 종일 걸어도 햇빛이 새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p> <p>“만일 고을을 설치한다면 서너 곳 중에서도 나리동 이 적당할 만하다.”</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진(鎭)이나 읍(邑)을 설치하자면 나리동 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p> <p>“그 골짜기 안에 300호(戶) 가량 들어앉을 곳이 왕왕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골짜기 안에 100~200호 가량 들어앉을 만한 곳은 6, 7곳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결함입니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p> <p>“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모시풀이 심지 않았는데도 자생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모시밭은 무성하여 수십 이랑이나 되었으며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 등속이 간간이 숲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옛날 백성들이 살 적에 심어놓은 듯합니다.”</p>	<p>고종 19년 6월 5일</p> <p>검찰사 이규원 복명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계속	1882 계속	<p>하였다. 하교하기를, “그곳을 만약 개척하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라가겠는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 “뱃놈과 약재 상인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니, 대부분 즐거이 따라갈 뜻이 있었습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약재도 캐고 배도 만들던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 “호남인(湖南人) 이 제일 많은데 전부 조선(造船)을 하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며 그 밖의 타도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습니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인(日本人) 이 꾀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 라 한데,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 “그들이 세워놓은 꾀말에는 송도 라고 하였습니다. 송도 라 한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서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차로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 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 “이 내용을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時任) 재상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어라. 지금 보니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 “이 전교를 일일이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 대신(時任大臣)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설사 한 치의 땅이라도 그것은 바로 조종(祖宗)의 강토인데 어떻게 등한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하교하기를,</p>	<p>고종 19년 6월 5일</p> <p>검찰사 이규원 복명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계속	1882 계속	<p>“비단 저들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개척에 있어서는 빨리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하여 모여드는 것을 본 연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p> <p>“배를 뭍 부두는 변통할 길이 없던가?”</p> <p>하니, 이규원 이 아뢰기를,</p> <p>“온 섬에 둘러있는 여러 포구가 돌과 자갈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착수하는 것이 실로 용이하지 않습니다.”</p> <p>하였다.</p>	<p>고종 19년 6월 5일</p> <p>검찰사 이규원 복명하다</p>
고종실록	1882	<p>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p> <p>“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 이, 일본인(日本人) 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꺾음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教旨)가 있었습니다.</p> <p>일본인 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까.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택하였다.</p>	<p>고종 19년 6월 16일</p> <p>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찍는 등의 일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p>
고종실록	1882	<p>홍순목 이 아뢰기를,</p> <p>“지난번에 검찰사(檢察使)가 복명(復命)할 때 울릉도(鬱陵島)의 지도와 서계(書契)를 삼가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섬은 바다 가운데 외딴 곳에 있는 하나의 미개척지로서, 듣자니 땅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우선 백성들을 모집하여 개간하게 해서 5년 후에 조세를 물리면 절로 점차 취락(聚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p>	<p>고종 19년 8월 20일</p> <p>울릉도 개간(開墾)을 윤택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계속	1882 계속	<p>그리고 양남(兩南)의 조선(漕船)들이 여기에 가서 재목을 취해다가 배를 만들도록 허락한다면 사람들이 번성하게 모여들 것이니, 이것은 지금 도모해 볼 만한 일입니다.</p> <p>그러나 만일 도맡아 다스릴 사람이 없어 잡다한 폐단을 막기 어렵다면, 성실하게 일을 주관할 만한 사람을 검찰사에게 문의하여 우선 도장(島長)을 차송(差送)하여 창립해서 규모를 제정해 두어 후일에 진(鎭)을 설치할 뜻을 미리 강구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허하였다.</p>	<p>고종 19년 8월 20일</p> <p>울릉도 개간(開墾)을 윤허하다</p>
고종실록	1884	<p>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p> <p>“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이 섬 도장(島長)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돈과 쌀을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은 공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p> <p>해당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p> <p>섬의 재목을 침범하여 베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書契)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설치할 것도 이런 일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것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서 범조문에 근거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p>고종 24년 1월 11일</p> <p>울릉도 도장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하도록 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84	<p>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p> <p>“ 울릉도(鬱陵島) 를 앞으로 개척하게 되는데 먼저 담당 관리를 둔 다음에야 백성들을 모집해서 토지를 개간하는 일에 대해 차례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삼척 영장(三陟營將)이 직접 형편을 살피고서 입주(入駐)를 도모하게 하고, 배치에 속하는 문제는 감사(監司)가 좋은 쪽으로 조치(措處)하게 하되 직명(職名)은 울릉도 첨사(鬱陵島僉使) 겸 삼척 영장(三陟營將)으로 하비(下批)한다는 내용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p>	<p>고종 24년 3월 15일</p> <p>울릉도에 첨사를 두다</p>
고종실록	1884	<p>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p> <p>“ 울릉도(鬱陵島) 를 장차 개척하자면 먼저 말아볼 관리가 있어야만 백성들을 모집하여 땅을 개간하는 등의 일을 순차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니, 평해 군수(平海郡守)를 겸 울릉도 첨사(兼鬱陵島僉使)로 하비(下批)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허하였다.</p>	<p>고종 21년 6월 30일</p> <p>평해 군수가 울릉도 첨사를 겸할 것을 비준하도록 명하다</p>
고종실록	1884	<p>신이 강릉(江陵) 지방에 있었으므로 울도(鬱島) 의 이해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은 바로 옛날 우산씨(于山氏) 가 나라를 세운 곳인데, 이번에 개척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조치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근의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개간하게 하고 3년 기한으로 조세를 거두지 말며, 모두 개간한 뒤에 수령(守令)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 방어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p> <p>“진달한 내용은 이치에 닿는 주장이 많이 있다.”</p> <p>하였다.</p>	<p>고종 21년 8월 26일</p> <p>울릉도에 관하여 이경렬이 상소하다</p>
고종실록	1888	<p>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p> <p>“ 울릉도(鬱陵島) 는 바로 바닷길의 요충지여서 도장(島長)을 두어 개척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규제(規制)가 처음 정해져서 아직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평해군(平海郡)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의 자리를 만들어 해당 도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함으로써, 왕래하며 검찰(檢察)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허하였다.</p>	<p>고종 25년 2월 6일</p> <p>월송진만호의 자리를 만들어 도장을 겸임하고 검찰하도록 하다</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90	<p>강원 감사(江原監司) 이원일(李源逸) 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陞)했기 때문이다.</p> <p>전교하기를,</p> <p>“ 영동(嶺東) 은 거리가 매우 먼데, 울릉도(鬱陵島) 로 말하면 더욱 멀고 궁벽한 곳이어서 외국 사람들이 서로 몰래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있다. 이것도 판도(版圖)에 실려 있는 땅인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일찍이 월송 만호(越松萬戶)에게 도장(島長)에 겸차하여 단속하게 했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별도의 검찰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려가거든 검찰하고 신칙하여 종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라.”</p> <p>하였다.</p>	<p>고종 27년 윤2월 18일</p> <p>강원감사에게 울릉도를 검찰하고 신칙하게 하다</p>
고종실록	1894	<p>1. 울릉도(鬱陵島) 를 수토(搜討)하는 선격(船格)과 짐물(什物)을 바치는 것을 영영 없애는 문제입니다. 그 섬은 지금 이미 개척되었는데 좌수영(左水營)에서 동쪽 바닷가 각읍에 배정하여 삼척(三陟) 월송진(越松鎭) 에 이속하는 것은 심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수토하는 선격과 짐물을 이제부터 영영 없애라고 경상도 와 강원도(江原道)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고종 32년 12월 27일</p> <p>강원도와 경상도에 울릉도 수토 선격과 짐물을 바치지 않도록 함</p>
고종실록	1895	<p>또 아뢰기를,</p> <p>“ 울릉도(鬱陵島) 를 수토(搜討)하는 규례를 이제 영구히 혁파하였으니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도장(島長)을 별도로 감당할 만한 1인을 택하여 도장으로 차정(差定)하여 도민 사무(島民事務)를 관령(管領)하게 하고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도민의 질고(疾苦)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허하였다.</p>	<p>고종 32년 1월 29일</p> <p>울릉도에 특별히 도장을 두다</p>
고종실록	1895	<p>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 이, ‘ 울릉도(鬱陵島) 에 도감(島監)을 두는 안건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조령을 내리기를,</p> <p>“재가(裁可)한다.”</p> <p>하였다.</p>	<p>고종 33년(건양 1년) 8월 16일</p> <p>울릉도에 도감을 설치하다</p>
고종실록	1896	<p>러시아인 [俄國人] 【 뿌리너 】 의 합성 조선 목상 회사(合成朝鮮木商會社)에 압록강(鴨綠江) 유역과 울릉도(鬱陵島) 의 벌목(伐木)과 아울러 양목(養木)의 권한을 허락하였다.</p>	<p>고종 33년(건양 1년) 9월 9일</p> <p>러시아인에게 울릉도 벌목과 양목권한을 줌</p>

<부록 표 5> 고종대 울릉도 관련 자료(계속)

자료	년도	주요내용	비고
고종실록	1898	칙령(勅令)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地方制度中鬱陵島監設置件)> 과 칙령 제14호, <성균관 관계 중 박사 3인을 판임관으로 증치하는 건 [成均館官制中博士三人判任增置件]> 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고종 35년(광무 2년) 5월 26일 울릉도 도감 설치 건을 반포하다
고종실록	1899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가 아뢰기를, “ 울릉도(鬱陵島) 를 개척한 지 이제는 벌써 여러 해가 되어 호구가 늘어나고 토지가 점점 개간되는데,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것은 그럴 겨를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 본부(本部)에서 시찰 위원을 임용하여 해당(該島)에 가서 일체 정형을 자세히 조사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안락시키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36년(광무 3년) 12월 15일
고종실록	1900	칙령(勅令) 제40호, <외국어 학교, 의학교, 중학교 졸업인을 각 해당 학교에 수용하는데 관한 안건 [外國語學校醫學校中學校卒業人收用於各該學校件]>, 칙령 제41호, <강원도 의 울릉도 를 울릉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 [江原道鬱陵島以鬱島郡改稱島監以郡守改正件]> 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고종 37년(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41호, 울도군 설치의 건 반포
고종실록	1904	칙선서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보내고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였다. <칙선서(勅宣書)> 1. 이전에 한국(韓國) 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일체 폐기하고 전혀 시행하지 말 것이다. 1. 러시아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나 회사(會社)에 인준한 특허 합동(特許合同) 가운데 지금까지도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은 이제부터 대한(大韓) 정부가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면 이전대로 그 인준해 준 것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두만강(豆滿江), 압록강(鴨綠江), 울릉도(鬱陵島) 의 산림 채벌 및 식수(植樹) 특허권은 본래 한 개인에게 허락한 것인데, 실상은 러시아 정부가 자체로 경영할 뿐 아니라 당해 특준(特準)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침략 접거 행위를 하였으니, 당해 특준을 폐지하고 전면 시행하지 말 것이다.	고종 41년(광무 8년) 5월 18일 황제의 칙선서를 반포하다 (러시아인의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벌목 특허를 폐지하다)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다산 시문집 제1권 詩	두치진 (豆卮津)	마부가 길을 몰아 골짜기를 벗어나니 / 鳴驪引頸欣出谷 푸른 봄물 들 나무에 배가 가로 떠 있구나 / 野渡舟橫春水綠 따뜻한 모래판에 이제 막 장이 서니 / 沙平日煖市初集 일만 부엌 연기 나고 술과 고기 널려 있네 / 萬竈煙生羅酒肉 강기슭의 마소는 서로 일러 장난하고 / 岸邊牛馬交相戲 포구에 모인 돛대는 다발처럼 뻗뻗하다 / 浦口帆檣森似束 서쪽에는 대방이요 북쪽에는 사벌이라 / 西通帶方北沙伐 큰 규모의 장사꾼들 여기에 모여드네 / 豪商大賈於斯簇 송경 애주 비단이 멀리 거쳐 들어오고 / 松京愛州轉錦綺 울릉도와 탐라도의 생선도 들어오지 / 鬱陵七羅輸魚鮓 어지러이 오고감은 모두가 이익 때문 / 穰穰往來摠爲利 물욕에 어두운 세상 뉘 능히 만회하려나 / 誰能挽世塗耳目 돌아보니 남악은 안개 속에 잠겼는데 / 回看南嶽鎖煙霧 청학이 높이 날아 쫓아가기 어렵구나 청학동은 지리산에 있는데 이때 나는 아내를 데리고 있었으므로 두루 구경하지 못했다.(原註) / 青鶴高飛杳難 逐	두치진은 하동부에서 10리 떨어진 곳이다(原註) 경상도 하동 근처 두치진에 울릉도의 생선과 전복이 들어옴
다산 시문집 제4권 詩	기성잡시 (鬐城雜詩)	3월 9일 장기(長鬐)에 도착하여 그 이튿날 마산리(馬山里)에 있 는 늙은 장교(莊校) 성선봉(成善封)의 집을 정하여 있게 됐다. 긴 긴 해에 할 일이 없어 때로 짧은 시구나 읊곤 하였는데 뒤섞여 순서가 없다. 성산포 포구에는 바위가 수문인데 / 星山浦口石爲門 동으로 부상까지 물만이 아스라하다 / 東直扶桑水氣昏 용이 와서 섬 없었다는 말 믿을 수 있겠는가 / 豈有龍來平島嶼 계림의 육부 역시 황폐한 마을이었다네 / 鷄林六部亦荒村 성산(星山)은 경주에 있는데, 지방인들 전설에 의하면 신룡(神龍)이 포구 에서 나와 모든 섬들을 다 깎아 없애버렸기 때문에 동해에는 섬이 없다는 것임.(原註) 모려령 위엘랑은 제발이지 가지 말게 / 莫向毛黎嶺山行 우거진 숲 험한 비탈이 시름을 자아낸다 / 萋萋厓峭使愁生 눈앞에 펼쳐진 끝도 없는 푸른 물이 / 眼前一碧無邊水 하어들 필련성을 연상케 만든다네 / 如見蝦夷匹練城 산꼭대기 쓸쓸하게 사십 채 있는 인가 / 峯頂蕭條四十家 비뚤어진 거적문이 지다 남은 꽃 속에 있네 / 縣門敝側倚殘花 물을 마실 샘이라곤 도무지 없어서 / 都無一眼泉供飲 성 위에도 줄 매달고 수차를 쓰리라네 / 將謂縋城用水車 조해루 용마루에 석양빛이 붉을 무렵 / 朝海樓頭落日紅 관리가 나를 몰아 성 동쪽에 나왔더니 / 官人驅我出城東 시냇가 자갈밭에 오막살이 한 채 있고 / 石田茅屋春溪上 농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집 주인일레 / 也有佃翁作主翁 집집마다 두 길 넘게 울짙을 세워두고 / 樹柵家家二丈強 처마 머리에 그물 치고 긴 창들을 꽂아놓았다 / 欄頭施苫插長槍 왜 이다지 방비가 심하냐고 물었더니 / 問渠何苦防如許 예부터 기성에는 범과 이리가 많아서라네 / 終古鬐城壯虎狼 여인들 말씨 화가 난 듯 또 어찌면 애교스러워 / 女言如慍復如嬌 손목처럼 쓴다 해도 묘사를 다 못해 / 孫穆書中未盡描 한 푼도 돈을 들여 다리 살 생각을 앓고 / 不用一錢思買鬚 두 가닥 머리채를 이마 앞에도 매둔다네 / 額前紅髮插雙條 새로 짠 생선기름 온 집안이 비린 냄새 / 新榨魚油腥滿家 들깨도 안 심는데 참깨가 있을손가 / 青蘇不種況芝麻	1801년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가서 쓴 시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베어오는 배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계속)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p>다산 시문집 제4권 詩 (계속)</p>	<p>기성잡시 (鬢城雜詩) (계속)</p>	<p>김 무침 집시에선 머리카락 끌려나오고 / 石苔充朮杳牽髮 가마솥에 지은 돌벼밥 모래가 있네그러 / 山糶烹銕飯有沙 구름 바다 사이의 한 조각 외로운 돛 / 一片孤帆雲海間 울릉도 갔던 배가 이제 막 돌아왔다네 / 藁碇新自鬱陵還 만나자 험한 파도 어떻던가는 묻지 않고 / 相逢不問風濤險 가득 실은 대쪽만 보고 웃으면서 기뻐한다 / 剗竹盈船便解顏 울릉도는 강릉(江陵) 바다 속에 있음.(原註) 애들은 항구에 가 고기잡게 말지어다 / 休放兒童港口漁 여덟 발 문어에게 걸려들까 무서워야 이 고기는 사람을 만나면 다리로 사람을 휘감아 물 속으로 끌어들임.(原註) / 怕他纏著八梢魚 근년에는 해구신이 이상하게 값이 뛰어 / 年來鹽膾逢刁躄 서울에서 재상들이 서신 자주 보낸다네 / 頻有京城宰相書 동산의 뇌록도 그 역시 진기하여 / 東山磊磽亦奇珍 돌에 박힌 파란 줄기가 복신처럼 생겼구나 / 石髓靑筋似茯神 염국에서 공물로 그를 받지 않았기에 / 染局不曾充歲貢 영릉의 종유혈이 천 년 내내 계속이라네 / 零陵乳穴自千春 뇌성산(磊城山)에서 녹석(綠石)이 나는데, 염료(染料)로 쓸 수 있는 돌로 그 지방 사람들이 그를 일러 뇌록(磊磽)이라고 하였음.(原註) 마산 남쪽에 자리잡은 죽림서원 / 竹林書院馬山南 느릅나무 대나무가 굽은비 속에 있네 / 脩竹新榆宿雨舍 멀리서 온 납죽을 쥐도 받지 않으면서 / 蠟燭遙來投不受 그래도 마을 사람들 송우암은 들먹인다 / 村人猶說宋尤庵 온돌방 한 칸에다 시원한 마루 한 칸 / 炕室涼軒各一間 주인과 마주 보면 서로 웃는 얼굴이지 / 主人相對有歡顏 새로 막은 대나무 울 영성하기 그물 같아 / 新補竹籬疏似網 앞산이 막혀서 못 볼 걱정은 없다네 / 不愁遮斷面前山 제주도산 말총모자로 소나무와상 기대앉아 / 毛羅驪帽據松牀 일본산 자기 잔에다 보리송늬를 마신다 / 日本瓷杯進麥湯 금년에는 해조들이 모두 잘 말랐는데 / 海菜今年都善曬 이른봄 날씨가 맑고 시원한 덕이라네 / 早春風日幸清涼 밥은 쌀로 국은 고기로 그것이면 그만이고 / 飯稻羹魚事便休 꽃과 나무 그걸 놓고 한가한 시름 앓아 / 不將花木費閒愁 울 사이에 울퉁불퉁 무슨 나무인지 몰랐다가 / 籬間擁腫知何木 잎 피기에 보았더니 그게 바로 석류였네 / 新葉看來是海榴 금화전에 오르고 옥당에 있을 생각 말게 / 休上金華倚玉堂 고기잡이 생리는 부러운 게 어부라네 / 魚蠻生理羨漁郎 아내 맞이할 때에는 고래수염 자를 주고 / 迎妻好贈鯨鬚尺 자식 분가시킬 때는 게딱지술 나눠준다 작은 술을 시속에서는 게딱지 (蟹甲)라고 함.(原註) / 析子皆分蟹甲鎗 밥 먹고는 잠을 자고 잠을 깨면 배가 고파 / 飯罷須眠眠罷飢 배고프면 술 찾는데 금사주를 데우라지 / 飢來命酒熬金絲 도무지 소일을 할 만한 일은 없고 / 都無一事堪銷日 이웃 영감 때로 와서 장기 두는 게 고작이야 / 隣叟時來著象棋 봄을 나자 습증이 증풍으로 변했는데 / 病濕經春癰瘕成 북녘 태생이 남쪽 음식에 적응을 못해서지 / 北脾不慣喫南烹 비방인 창출술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 思服禁方蒼朮酒 악술 들고 종은 와서 고향을 묻네그러 / 小奴持鏡問鄉名 이 인생 그르친 것 책인 줄을 잘 알기에 / 書卷深知誤此生 여생 동안은 맹세코 그 은정 끊으렸더니 / 餘生逝與割恩情</p>	<p>1801년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가서 쓴 시 (계속)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베어오는 배</p>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계속)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다산 시문집 제4권 詩 (계속)	기성잡시 (鬪城雜詩) (계속)	<p>아직도 마음속엔 그 뿌리가 남아 있어 / 心根苦未消磨盡 이웃 아이 책 읽는 소리 누워서 들노라네 / 臥聽隣兒讀史聲 놀도 아니요 구름도 아닌 보리가 크는 하늘 / 非靄非雲養麥天 복숭아는 술 취한 듯 버들눈은 조는 듯 / 小桃如醉柳如眠 슬슬 걸어 산 구경갈 생각이야 없으랴만 / 緩豈無步看山意 틀어박혀 지은 죄를 생각할 뿐이라네 / 只得深居念罪愆 옛날에는 오서에 올라 지는 해를 보았더니 / 憶上烏樓落日看 오늘은 또 동해에서 뜨는 해를 보네그려 / 桑溟又見浴金盤 내 어찌 동해 서해 다 구경하는 몸이던가 / 吾遊豈盡東西海 강도가 원래 그리 넓지를 앓아서지 / 疆場由來未許寬 옛날 금정(金井)에서 귀양살이할 때 오서산(烏樓山)에 올라가 해지는 것을 구경한 일이 있었음.(原註) 초봄에는 흰 털이 두 개가 났었지만 / 初春兩個白毛新 한 개는 검은 편이고 하나만 하얗더니 / 一個猶玄一個純 이곳에 와서는 또 하나가 더 보태져서 / 此地又來添一個 세 개 모두 천연스레 하얗기가 은빛 같네 / 天然三個白如銀 폭폭 찌는 비란내에 과리가 너무 많아 / 鮑腥蒸鬱苦多蠅 밥은 늘 늦게 들고 잠은 늘 일찍 깨네 / 飯每徐抄睡早興 이는 분명 하늘이 게으름을 징계합이리 / 天意分明懲懶散 옛사람이 무단히 부를 써서 미워했지 / 昔人詞賦枉相憎 살 깨무는 빈대 통에 잠을 잘 수가 없고 / 蠶蟲嚼肌睡不成 벽에는 또 지네가 다녀 사람을 놀라게 하지 / 吳公行壁又堪驚 작은 벌레들 이빨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 須知齧齒非吾有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 멋대로 하랄 수밖에 / 念此怡然順物情 날 따뜻해 작은 밭에 장다리꽃 활짝 피니 / 小園風暖菜花開 노랑나비 퍼령벌레 번갈아 드나든다 / 黃蝶青蟲遞去來 저걸 보면 장주가 몰화를 알았나봐 / 證得莊生知物化 죽장 짙고 느릿느릿 거닐면서 서성대네 / 徐携竹杖悄徘徊 옛날에 김정실로 짠 작은 은낭 너를 / 疇昔烏繩小隱囊 나 혼자서 끌어안고 이곳저곳 다 갔었지 / 隻身携汝到殊方 누우나 서나 네가 꼭 필요해서뿐 아니라 / 非唯臥起相須切 아버지가 만지시던 손때가 묻어서란다 / 爲是摩挲手澤方 은낭은 선인(先人)께서 쓰시던 것임.(原註) 서남해 바다 물빛 금릉과 맞닿아서 / 西南海色接金陵 장사배가 며칠이면 이곳까지 닿는다네 / 商舶東來數日能 경뢰가 바라보인다 그 말 믿지 못했더니 / 未信瓊雷解相望 뾰뾰하게 모인 섬들 푸르르고 험하구나 / 叢攢島嶼碧崢嶸</p>	1801년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가서 쓴 시 (계속)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베어오는 배
다산 시문집 제4권 詩	탐진어가 (耽津漁歌)	<p>계랑에 봄이 들면 뱀장어 몰때 좋아 / 桂浪春水足鰻鱺 그를 잡으로 활배가 푸른 물결 헤쳐간다 / 櫂取弓船漾碧漪 배 위에다 그물을 장치한 배를 방언으로 활배[弓船]라고 하였음.(原註) 높새바람 불어오면 일제히 나갔다가 / 高鳥風高齊出港 새[鳥]는 을(乙)이고, 을은 동쪽을 말하므로 동북풍을 일러 높새바람[高鳥風]이라 고 함.(原註) 마파람 세게 불면 그때가 올 때라네 / 馬兒風緊足歸時 말[馬]은 오(午)이므로 남풍을 일러 마파람[馬兒風]이라고 함.(原註) 세 물때가 지나가고 네 물때가 돌아오면 / 三汛纔迴四汛來 가령 첫째 날이 초승이면 셋째 날을 '한 물', 다섯째 날은 '세 물'이라고 함.(原註) 까치파도 세게 일어 옛 어대가 파문힌다 / 鵲濤波沒舊漁臺 루(濤)는 큰 파도를 말하는데, 파도가 하얗게 일어 마치 까치때가 일어나는 것 같 은 것을 일러 까치파도[鵲濤]라고 함.(原註)</p>	홍합이 연밥같이 작은 게 싫어서 / 뚝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를 간다네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계속)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p>다산 시문집 제4권 詩 (계속)</p>	<p>탐진어가 (耽津漁歌) (계속)</p>	<p>어촌에 사람들은 북어만 좋다 하고 / 漁家只道江豚好 놓어는 몽땅 털어 술과 바꿔 마신다네 / 盡放鱸魚博酒杯 북어를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자주 있었음.(原註) 물에 비친 관솔불이 아침노을 흡사한데 / 松燈照水似朝霞 긴 통들이 차례로 모래물에 꽂혀 있네 / 鱗次筒兒植淺沙 물 속에 사람 그림자 비쳐들게 하지 말라 / 莫遣波心人影墮 적호상어 그를 보고 달려들까 두렵구나 / 怕他句引赤胡鯨 상어 큰 눈을 신적호(新赤胡)라 하는데 그는 사람 그림자만 보면 뛰어 올라와 삼켜 버린다고 함.(原註) 추자도 장삿배가 고달도에 묵고 있는데 / 楸洲船到獺洲淹 추자(楸子)·고달(古癩)은 다 섬 이름임.(原註) 제주산 갓 차양을 한 배 가득 싣고 왔다네 / 滿載耽羅竹帽簷 돈도 많고 장사도 잘한다고 하지마는 / 縱道錢多能善賈 간곳마다 거센 파도 마음 놓을 때 없으리 / 鯨波無處得安恬 물머리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계집애들 / 兒女腕腕簇水頭 그 어미가 수영을 가르치는 날이라네 / 阿孃今日試新泅 그 중에서 오리처럼 물 속 헤엄 치는 여자 / 就中那箇花鳧沒 남포 사는 신랑감이 혼수감을 보내왔다네 / 南浦新郎納綵紬 작은 배 가죽신발 부두를 메웠는데 / 瓜皮革履滿回汀 올해에는 선첩을 선혜청에서 받는다네 / 船帖今年受惠廳 균역법[均役] 시행 이후로는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그 표첩(標帖)을 모두 선혜청(宣 惠廳)에서 받게 되었음.(原註) 어부들 살기가 좋아졌다 말을 말라 / 莫道魚蠻生理好 종다래끼 하나도 그냥 둘 상공 아니란다 / 桑公不赦小笊篋 종선이 떠나면서 북을 둥둥 울리고는 / 鯨船初發鼓鼙聲 자서(字書)에는 종(鯨)이란 글자가 없는데, 주교사(舟橋司)가 적씨(戚氏) 제도를 취 하면서 종선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조선(漕船)은 모두가 주교사에 소속된 배이기 때문에 종선이라고 한 것임.(原註) 지국충 지국충 들리느니 냇노래라네 / 歌曲唯聞指掬蔥 수신사 아래 가서 모두가 엎드려서 / 齊到水神詞下伏 칠산바다 순풍을 맘속으로 비노라 / 默祈吹順七山風 어촌에선 모두가 낙지국을 즐겨 먹고 / 漁家都喫絡蹄羹 붉은 새우 녹색 맛살은 치지를 얹는다 / 不數紅蝦與錄螿 홍합이 연밭같이 작은게 싫어서 / 澹菜憎如蓮子小 돛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를 간다네 / 治帆東向鬱陵行 낙계(絡緜)란 장거(章舉:낙지)를 말한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나와 있음.(原 註) 육방관속 서슬이 성주를 압도하고 / 掾閣嵯峨壓政軒 이진들이 날마다 어촌을 찾는다네 / 朱牌日日到漁村 선첩의 진짜 가짜 따질 것이 뭐라던가 / 休將帖子分眞價 관이란게 원래부터 문 지키는 호랑인데 / 官裏由來虎守門 궁복포 앞에는 나무가 배에 가득 바로 완도(莞島)임.(原註) / 弓福浦前柴滿船 황장목 한 그루면 그 값이 천금이라네 / 黃腸一樹值千錢 임금 관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나무를 황장목이라고 함.(原註) 수영의 방자놈은 인정이 두둑하여 / 水營房子人情厚 수양버들 아래 가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 / 醉臥南塘垂柳邊 이 나라 풍속에 너물을 일러 인정이라고 함.(原註)</p>	<p>홍합이 연밭같이 작은 게 싫어서 / 돛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를 간다네 (계속)</p> <p>외딴 섬에서는 홍합도 매우 크게 자란다고 함.</p>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계속)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p>다산 시문집 제6권 詩 송과수작 (松坡酬酢)</p>	<p>척주 도호부사 이광도가 부쳐 온 시에 화답하여 부치다 (和寄陟州 都護李廣度 見寄之作)</p>	<p>지방관살이 여러 해에 나이 응당 많으련만 / 宦遊經歲樂應多 검은 인끈이 흰 머리와는 관계됨이 없시오 / 墨綬非關鬢髮華 울릉도서 배가 오면 열심히 죽순을 먹을 게고 / 鬱島船歸癡啜筍 무릉에 봄이 오면 야단스레 꽃구경을 하겠지 / 武陵春入鬧看花 이민과 함께 태고 시대 나라를 만들고 / 吏民與作鴻荒國 처자를 거느리어 은둔의 집 이루었거늘 / 妻子携成隱遯家 길이 우스워라 친구들은 사리를 모르고서 / 長笑親朋不曉事 천애의 타관살이를 잘못 걱정들을 한다네 / 枉愁羈旅落天涯 부생의 꿈 깨고 나니 이미 관문을 넘었어라 / 浮生夢覺已踰關 아이들 장난 분분한데 한 배개가 한가롭네 / 兒戲紛紛一枕閒 패로의 새 물고기는 맛이 흔히 좋을 것이고 / 亭露新魚多美味 슬라의 늙은 기생은 아직도 반기어 주겠지 / 瑟羅老妓尙歡顏 남쪽 바다 가는 일은 매추라기에 관계 없고 / 溟圖不管搶榆鷄 서식하기엔 가시나무에 앉은 난새가 편안해라 / 棲息今安止棘鸞 바둑에 비하면 끝내 이 길이 높은 첫 수이니 / 畢竟此行高一著 구름과 함께 갔다가 구름과 함께 돌아오리 / 與雲偕往與雲還 달리는 세월 어느덧 늘그막에 이르러라 / 駉駉暮景忽焉徂 나는야 촌에 처박힌 불우한 한 늙은이로세 / 牢落田間一老夫 뜻이 있다면 서책만을 치우치게 좋아함이요 / 有志簡編祗是癖 근심 없으라 콩잎 먹는 게 야웬 무방하구려 / 無憂藿食不妨糲 일엽편주에 대삿갓은 예원진과 같고요 / 扁舟笠笠倪元鎮 작은 채마밭 오이 시렁은 범석호와 같시오 / 小圃瓜棚苑石湖 복령을 멀리 부쳐 나를 오래 살기 바라니 / 遠寄茯苓要久視 궁한 가운데 오직 사군만을 의지하는구려 / 窮途惟仗使君愚</p>	<p>삼척에서 울릉도에 간 배가 죽순을 가져오면 삼척도호부 사가 먹을 것이라 하고, 또한 삼척 무릉계곡에 봄이 오면 꽃구경을 할 것이라 함.</p>
<p>다산 시문집 제9권 策問 (策問)</p>	<p>문죽 (問竹)</p>	<p>묻는다. 대는 동남 지방의 아름다운 물건이다. 예악(禮樂)과 문무(文武)의 기구가 대를 사용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대의 쓰임이 중하지 않은가. 해곡(解谷)의 대는 황제현원씨(黃帝軒轅氏) 때에 나왔는데, 솟봉황새가 울면 암봉황새가 따라서 우는 것을 반드시 6의 수로 한 것은 그 이치를 구명하기 어려우며, 형주(荊州)의 대는 우공(禹貢)에 기재되었지만, 군가(菌筍)와 노가(籥筍)를 세 나라에 나누어 바치게 한 것은 그 지방이 미상한데, 지금 하나하나 분석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어린 대[筍竹]를 반드시 진뢰(震雷)에 짝하는 것은 무슨 법상(法象)을 따른 것이며, 살대[矢竹]를 반드시 음·양을 분변하는 것은 무슨 경전(經典)에 나오는가. 괘(卦)를 어찌하여 절(節)이라 이름했으며, 예(禮)를 어찌하여 대줄기[筠]에 비하는가. 강회(江淮) 이남에는 생산되지 않는 지방이 없는데도 《이아(爾雅)》의, 아름다운 식물에는 유독 회계(會稽)를 일컬었으며, 건옹(涇雍) 이북에는 기운이 몹시 한랭한데도 《사기(史記)》 식화전(殖貨傳)의 부자[富]에는 반드시 위천(渭川)의 대를 말했으니, 이는 물건의 생산되는 것도 토질에 관계된 때문인가. 백이(伯夷)·숙제(叔齊)의 나라는 북해(北海) 가에 있었는데, 고죽국(孤竹國)이라 이름한 것은 무슨 의미이며, 위(衛) 나라 사람의 시는 실로 왕추(王弼)를 읊었는데, 녹죽(萋竹)이라고 칭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변두(邊豆)와 보궤(篋篋)는 본래 모두 대그릇인데, 질기와로 대신한 것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생황(笙簧)과 큰 생황[竿簧]은 실재는 대로 만든 관악기(管樂器)인데 포음(匏音)에 기재한 것은 무슨 원리에서 징험한 것인가. 명사</p>	<p>대나무에 대해 물음 울릉도에서 는 배로 실어나르기도 하니...</p>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계속)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p>다산 시문집 제9권 책문 (策問) (계속)</p>	<p>문죽 (問竹) (계속)</p>	<p>(命士)의 홀(笏)은 반드시 문죽(文竹)으로 하는데, 본래는 상아(象牙)를 썼으며, 수위(守尉)의 병부는 분죽(分竹)이라 일렀는데, 점점 변하여 호부(虎符)가 되었으니, 그 제도와 연혁을 또한 자세히 말할 수 있겠는가.</p> <p>도죽(桃竹)의 자리는 어느 지방에서 생산되며 금죽(錦竹)의 명칭은 어느 책에 나오는가. 자죽(慈竹)은 무슨 이름이며 의죽(義竹)은 어디에 응하는가. 홍죽(紅竹)·단죽(丹竹)·흑죽(黑竹)·황죽(黃竹)은 그 색깔이 한결같지 않고, 종죽(棕竹)·부죽(扶竹)·녹죽(鹿竹)·편죽(匾竹)은 그 종류가 각기 다르며, 사뢰(思牢)의 대는 단단한 갑옷을 만들 수 있고, 임하(臨賀)의 대는 몇 이름이 되게 크다고 일컬었으며, 부남(扶南)의 운모죽(雲母竹), 계령(桂嶺)의 사마죽(沙摩竹), 점성(占城)의 관음죽(觀音竹), 운남(雲南)의 수사죽(垂絲竹)은 그 용도가 각기 마땅한 것이 있고, 검양(黔陽)의 적강죽(赤岡竹), 뇌주(雷州)의 전반죽(電斑竹), 영가(永嘉)의 용아죽(龍牙竹), 계산(稽山)의 공손죽(公孫竹)은 그 종류가 각기 다른데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할 수 있겠는가.</p> <p>안복(安福)의 대는 십이신(十二辰)으로 표시되었고 나부산(羅浮山)의 대는 둘레가 지름이 7척(尺)이나 된다 하는데, 이는 지나친 허풍이 아니겠는가. 묘두죽(貓頭竹)은 어느 시에 읊어졌으며, 구모(狗毛)는 생김새가 무슨 형태로 되었는가. 《죽보(竹譜)》를 지은 자가 무릇 몇 사람이나 되며 죽부(竹賦)에 나열된 것이 모두 몇 종류나 되는가.</p> <p>대저 대의 물건됨은 보통 일반적인 화훼(花卉)의 유(類)가 아니다. 이것으로 그릇을 만들 경우, 네모진 광주리[篋]·둥근 광주리[篋]·큰 상자[箱]·작은 상자[篋]·네모진 옷상자[篋]·채통[籠]·도시락 그릇[簞]·폐백상자[筭]가 대나무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못하고, 음성을 내게 할 경우, 통소[簫]·젓대[笛]·쌍피리[管]·피리[簫]·쟁(箏)·지(箎)·대통소[欸]·그칠풍류[?]가 대나무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무기(武器)를 할 경우 화살을 만들고 쇠뇌를 만들며, 문(文)에 대한 기구를 만들 경우 죽간(竹簡)을 만들고 붓을 만든다. 농사꾼은 취하여 키를 만들고 삿갓을 만들며, 길쌈하는 자는 취하여 자세를 만들고 바리를 만든다. 수레를 만드는 자는 취하여 수레 뒷창을 만들고 발[?]을 만들며, 고기잡는 자는 통발을 만들고 가리를 만든다. 의약가(醫藥家)에서는 취하여 죽여(竹茹)를 만들고 복서가(卜筮家)에서는 취하여 점대[筭]를 만든다. 햇대로써 옷을 걸고 울타리 대로써 밭을 짓고 부채로써 더위를 피하고 빗으로써 때[垢]를 긁어내고 빗자루로써 먼지를 제거하고 우산으로써 비를 막아 백공(百工)의 온갖 기교와 이용의 기구가 대나무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못하니 대의 쓰임이 중요하지 않은가.</p> <p>이 때문에 대나무를 재배하게 하는 정사를 역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삼황(三皇)·오제(五帝)의 시대로부터 가는 대와 왕대가 잘 자라는 것을 사관(史官)들이 경사로 삼았고, 산뽕나무와 참죽나무를 기록에 또한 빠뜨리지 않았으며, 문수(汶水)가의 대나무와 수원(淮園)에 심어진 대나무가 드러내나 일컬어지지 않음이 없었으니, 옛사람의 기록에 죽히 증거할 만하다.</p>	<p>대나무에 대해 물을 울릉도에서 는 배로 실어나르기도 하나... (계속)</p>

<부록 표 6> 다산시문집 울릉도관련 자료(계속)

자료	제목	주요내용	비고
다산 시문집 제9권 책문 (策問) (계속)	문죽 (問竹) (계속)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湖南)의 생산이 가장 많기로 알려졌으며, 영남(嶺南)에서 나오는 죽재(竹材)도 많기로 유명하다. 탐라(耽羅)에는 천묘(千畝)의 빼어남이 있고 울릉도(鬱陵島)에는 배로 실어 나르기도 하니, 기구에 쓰이는 재료가 마땅히 풍족해야 할 터인데, 근래로는 토지의 생산력이 점점 나빠져서 백성들의 쓰임이 넉넉하지 못하다. 국가의 대밭이나 민간의 대밭이 거의 대부분 황폐되고 수륙(水陸)으로 운반해 오는 것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살대가 무고(武庫)에 채워지지 못하고 대동구미와 대그릇이 시장 가계에 진열되지 못하며, 대나무를 바친 데 대한 폐단이 여러 번 임금의 교서(敎書)에 나오고 대나무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남북을 통래하지 못한다. 이는 비록 왕정(王政)에 우선할 바는 아니지만, 낭묘(廊廟)의 대신들이 마땅히 근심해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만일 집집마다 천호후(千戶侯)의 풍부함을 갖고 후원마다 만개(萬介)의 풍요함을 이루어 국가의 경비에 보태고 백성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생들은 반드시 본래부터 마음속에 강구한 바가 있을 것이니, 각기 모두 책편에 기술하라.	대나무에 대해 물음 울릉도에서 는 배로 실어나르기도 하니... (계속)

<부록 표 7>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및 독도의 지명

년도	명칭	자료	근거
512	于山國 鬱陵島	三國史記 (1145년)	지증왕 13년 夏6월, 이사부 우산국 복속
512	于陵島, 羽陵	三國遺事 권1 (1281년)	智哲老王, 512년, 이사부 정복 風便二日程
930	芋陵島	高麗史 권1	태조 13년 8월 丙午, 遣白吉 土頭貢方物拜
1018	于山國	高麗史 권4	현종 9년 11월 丙寅, 被東北女眞
1019	于山國	高麗史 권4	현종 10년 7월 己卯 여진 탈출 우산국인을 우산국에 돌려 보냄
1022	于山國	高麗史 권4	현종 13년 7월 丙子, 우산국인 禮州에 編戶
1032	羽陵城	高麗史 권5	덕종 1년 11월 丙子, 羽陵城主 아들 공물바침
1141	鬱陵島	高麗史 권17	인종 19년 초7월 己亥, 明州道 監倉使 李陽實
1157	羽陵島	高麗史 권18	의종 11년 5월, 王聞…羽陵島
1259	蔚陵	高麗史 권24	원종 1년 추7월, 울진현령 박순 울릉도 도망시도
1273	蔚陵島	高麗史 권27	원종 14년 2월 癸酉, 許珙 爲蔚陵島 斫木使
1273	蔚陵島	高麗史 권130 列傳 43	원종 14년 2월 癸酉, 李樞 울릉도 작목
1346	芋陵島	高麗史 권37	충목왕 2년 3월 戊申, 東界 芋陵島人 來朝
1379	武陵島	高麗史 列傳 134	우왕(辛禡) 5년 7월 倭 入武陵島
1403	武陵島	太宗實錄, 권6	태종 3년 8월 丙辰, 命出 江陵道武陵島居人
1407	茂陵島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3월 庚午, 對馬島守護 宗貞茂…貞茂 請茂陵島 欲率期衆落徙居
1412	流山國島, 武陵	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 4월 己巳, 武陵島, 11戶 60여명
1416	武陵等處	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9월 庚寅 以金麟雨 爲武陵等處按撫使
1417	于山島	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壬戌, 金麟雨 還自于山島 大竹, 水牛皮, 生苧, 綿子, 檢樸木, 15戶 86명
1417	于山 武陵 武陵居人 于山人	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乙丑, 議刷出于山武陵居人
1417	于山武陵	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8월 己丑, 倭寇于山武陵
1419	武陵	世宗實錄, 권21	세종 1년 3월 癸酉 夏4월, 武陵出來男婦
1425	于山武陵等處	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8월 甲戌, 金麟雨 爲武陵等處按撫使
1425	于山武陵等處 武陵島	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10월 20일 乙酉, 金麟雨 남녀20인 수색, 46명이 탄 배 한척을 잃음
1425	茂陵島	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1월 20일 乙卯 茂陵島 船軍 招魂祭, 김인우는 일본으로 갔다고 말함.
1425	茂陵島	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2월 28일 癸巳, 茂陵島 入島船軍 回自日本國
1436	武陵島于山	世宗實錄, 권73	세종 18년 윤6월 甲申, 武陵島于山 土沃多産
1437	茂陵島	世宗實錄, 권75	세종 19년 2월 戊辰, 茂陵島 土地膏腴
1438	茂陵島	世宗實錄, 권81	세종 20년 4월 甲戌 茂陵島巡審敬差官
1438	茂陵島	世宗實錄, 권82	세종 20년 7월 戊戌 回自茂陵島, 남녀66명 포획, 沙鐵, 石鐘乳, 生鮑, 大竹 …發船一日一夜乃至
1445	(蓼島)	世宗實錄, 권108	세종 27년 6월 甲寅, 襄陽府…東距府海路百餘里
1452	鬱陵島 一說 于山武陵二島	高麗史 권58, 地理志 12	一云武陵 一云羽陵 柴胡, 蒿本, 石南草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pp. 110-114.

<부록 표 7>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및 독도의 지명

년도	명칭	자료	근거
1454	于山 武陵 二島	世宗實錄地理志	二島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金)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柱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凡物稱是
1457	牛山島 茂陵島	世祖實錄 권7	세조 3년 4월 己酉, 柳守剛…可以設邑… 병조 설읍반대 주민쇄환 주장, 세조는 설읍 및 쇄환 모두 반대.
1470	三峯島	成宗實錄 권8	성종 1년 12월 甲寅, 永安道觀察使李繼孫…其投往三峯島者
1471	茂陵島	成宗實錄 권11	성종 2년 8월 丁巳, 有潛投茂陵島者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15	성종 3년 2월 庚午, 江原道海中 有三峯島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16	성종 3년 3월 壬寅, 三峯島在我江原之境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16	성종 3년 3월 丙辰, 三峯島敬差官 朴宗元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16	성종 3년 3월 20일 丙辰, 朴宗元에게 왜, 여진 통역 각 1인 을 딸려 보냄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17	성종 3년 4월 2일 丁卯, 朴宗元하직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17	성종 3년 4월 2일 丁卯, 三峯島在我封域之內 海路險惡 逃 賦避稅者潛往居之
1472	三峯島 武陵島	成宗實錄 권19	성종 3년 6월 丁丑,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 육지 귀환
1472	三峯島	成宗實錄 권21	성종 3년 8월 12일 丙子, 議三峯島搜覓事目 哨麻船 당 군인 40명, 뱃사공
1473	三峯島 蓼島 茂陵島	成宗實錄 권26	성종 4년 1월 9일 庚子, 영안도 관찰사 鄭蘭宗 金漢京言 在慶興遇清明日 可望見三峯島 自會寧 向東舟行七 晝夜而到 向北行四晝夜而還… 茂陵島 自蔚珍 向東舟行一晝夜而到 西行三晝夜而還 茂陵島之北 有蓼島 無一人往還者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64	성종 7년 2월 8일 壬午, 영안도 관찰사 李克均 金漢京 등이 慶元…發船行三日 得見三峯島…島中 七八人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68	성종 7년 6월 22일 癸巳, 영안도 관찰사 李克均 김한경 등이 1471년(신묘) 5월과 1475년(을미) 5월에 삼봉 도에 갔다 왔다는 말을 확인하라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72	성종 7년 10월 22일 壬辰, 永興人金自周 往見三峯島 於鏡城海濱 乘舟行四晝三夜 見島… 30여명, 흰옷, 조선사람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72	성종 7년 10월 27일 丁酉, 永興人金自周供云
1479	三峯島	成宗實錄 권107	성종 10년 8월 30일 癸丑, 敬差官 辛中琚 …人言可二日程
1479	三峯島	成宗實錄 권107	성종 10년 8월 30일 癸丑, 삼봉도 토벌 준비
1479	三峯島	成宗實錄 권108	성종 10년 9월 5일 무오, 三峯島 敬差官 曹偉
1480	三峯島	成宗實錄 권115	성종 11년 3월 17일 丁酉, 三峯島 招撫使 沈安仁
1480	三峯島	成宗實錄 권117	성종 11년 5월 30일 己酉, 장마로 三峯島 수토 중지
1482	三峯島	成宗實錄 권138	성종 13년 2월 5일, 김한경의 딸을 함원참 예속,
1511	武陵島	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5월 庚午 江原道武陵島, 與此相望, 夜有火光, 疑 是倭船隱接, 或我國逋亡人潛寓
1531	于山島 鬱陵島	新增 東國輿地勝覽	중종 26년 一說 于山鬱陵本一島
1556	鬱陵島	明宗實錄 권20	명종 11년 2월 壬辰, 울릉도에 검은새가 하늘을 덮다.
1614	鬱陵島	光海君日記 권82	광해군 6년 9월 辛亥, 울릉도에 왜노의 왕래를 금함 備邊司啓曰: “鬱陵島禁止倭奴來去之意…”

자료: 백인기·심문보, 2006, pp. 110-114.

<부록 표 7>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및 독도의 지명(계속)

년도	명칭	자료	근거
1693	鬱陵島 竹島	肅宗實錄, 권25	숙종 19년 11월 18일 丁巳,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1694	鬱陵島 竹島, 礮竹島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2월 23일 辛卯, 왜에게 보내 서계를 찾아오게 하다.
1694	鬱陵島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7월 16일 壬午, 鬱陵島 設鎮
1694	鬱陵島 竹島, 礮竹島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8월 14일 己酉, 울릉도 문제 왜와 교신
1694	鬱陵島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11월 6일 경오, 李秀彦 鬱陵島 設鎮 상소 近年嶺東 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
1699	鬱陵島	肅宗實錄, 권33	숙종 25년 7월 15일 壬午, 崑崙만호 田會一, 搜討鬱陵島…本島의 地形, 皇竹, 香木, 土石
1699	鬱陵島	肅宗實錄, 권36	숙종 28년 5월 28일 기유, 三陟營將李浚明 還自鬱陵島獻其圖形及紫檀香、靑竹、石間朱、魚皮等物…浚明乘船于蔚珍、竹邊津, 兩晝夜而還歸, 比濟州倍遠云
1769	鬱陵島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0월 14일 壬戌, 聞鬱陵島産人蔘, 商買潛入採之
1769	鬱陵島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0월 16일 갑자, 圖書鬱陵島峰巒形勝物産以入
1769	鬱陵島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1월 29일 丁未, 鬱陵島地近倭境, 故物産之禁其私取者, 法意甚嚴, 而近聞本島蔘貨, 遍行傍邑, 多有現發屬公者云
1770	鬱陵島	英祖實錄 권114	영조 46년 1월 4일 壬午, 引見江原監司徐命善, 禁鬱陵島採蔘
1787	鬱陵島	正祖實錄 권24	정조 11년 7월 25일 庚寅, 蔚山海尺等十四名, 潛入鬱陵島, 採取魚鱈、香竹, 被捉於三陟浦口. 本島防禁至嚴, 而蔚民每持兵營之採鱈公文, 年年犯禁, 該兵使、府使, 宜勘罪
1794	鬱陵島 可支島	正祖實錄 권40	정조 18년 6월 3일 戊午, 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
1799	鬱陵島	正祖實錄 권51	정조 23년 3월 18일 丙子, 울릉도 삼의 품질이 떨어지니 채삼군은 우선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함
1804	鬱陵島	純祖實錄 권6	순조 4년 9월 5일 辛卯, 반도 추국 고백령(古白翎)과 울릉도에서 병기(兵器)를 만들고 군량(軍糧)을 쌓아 둔다
1852	鬱陵島	哲宗實錄 권4	철종 3년 7월 11일 己未, 경상감사 밀계, 문초건 울릉도(鬱陵島)의 도적들과 이달 초10일에 모이기로 기약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pp. 110-114.

<부록 표 8>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항해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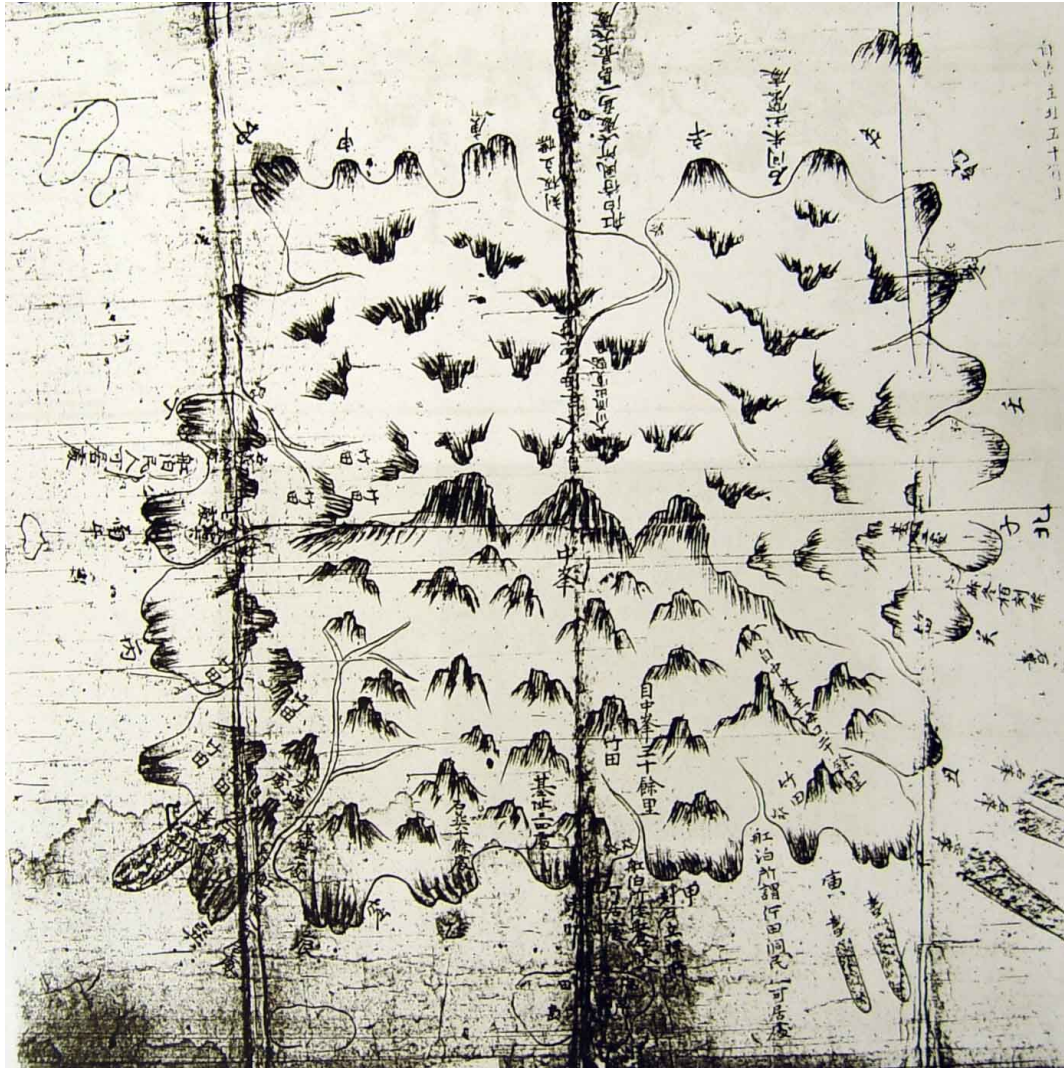
년도	울릉도 독도 명칭	자료	내용
1281	弓陵島, 羽陵	三國遺事 권1	智哲老王, 512년, 이사부 정복 風便二日程
1438	茂陵島	世宗實錄, 권82	세종 20년 7월 戊戌 回自茂陵島, 發船一日一夜乃至
1445	(蓼島)	世宗實錄, 권108	세종 27년 6월 甲寅, 襄陽府…東距府海路百餘里
1452	鬱陵島	高麗史 권58, 地理志 12	一云武陵 一云羽陵 柴胡, 蒿本, 石南草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1454	于山 武陵	世宗實錄地理志	二島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1457	牛山島, 茂陵島	世祖實錄 권7	세조 3년 4월 己酉, 柳守剛…可以設邑… 西風直吹 則丑時發船亥時到泊 (20시간), 風微用櫓 一晝一夜可到 無風用櫓 亦二日一夜可到
1472	三峯島 武陵島	成宗實錄 권19	성종 3년 6월 丁丑, 강원도 관찰사李克墩 계,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 5월 28일(양력 7월 4일) 蔚珍浦 출발, 大風四散 박종원의 배는 5월 29일 새벽(平明) 동남쪽 15 리 武陵島 를 봄, 다시 표류, 6월 6일 午時 到干城郡 清簡津(6일 만나 질) 곽영강 등 나머지 배 3척은 5월 29일 울릉도에 도착, 3일을 머물렀다가, 6월 6(양력 7월 11일)일 강릉 우계현 梧耳津에 도착.
1473	三峯島, 茂陵島, 蓼島	成宗實錄 권26	성종 4년 1월 9일 庚子, 영안도 관찰사 鄭蘭宗 金漢京言 在慶興遇清明日 可望見三峯島 自會寧 向東舟行 七晝夜而到 向北行四晝夜而還… 茂陵島 自蔚珍 向東舟行一晝夜而到 西行三晝夜而還 茂陵島之北 有蓼島 無一人往還者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64	성종 7년 2월 8일 壬午, 영안도 관찰사李克均 金漢京 등 慶元…發船行三日 得見三峯島…島中 七八人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72	성종 7년 10월 22일(양력 11월 8일) 壬辰, 永興人金自周 往見三峯島 於鏡城海濱 乘舟行四晝三夜 見島…30여명, 조 선사람
1476	三峯島	成宗實錄 권72	성종 7년 10월 27일 丁酉, 永興人金自周供云 9월 16일(양력 10월 3일) 宗성 옹구미發, 宿 부령 청암, 9월 17일 숙 회령 加隣串 9월 18일 숙 경원 未應大 9월 25일(양력 10월 12일) 西距島七八里許到泊

자료: 백인기·심문보, 2006, pp. 34-36.

<부록 표 8>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항해관련 기록(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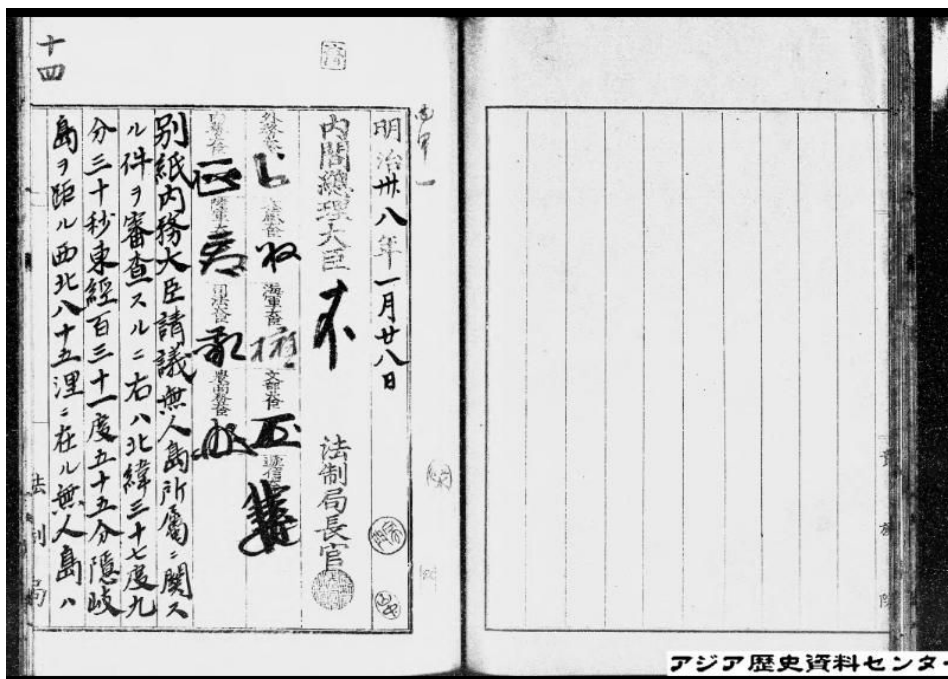
년도	울릉도 독도 명칭	자료	내용
1476 계속	三峯島 계속	成宗實錄 권72 계속	兵曹啓：“永興人金自周供云：‘本道觀察使，以三峯島尋覓事，遣自周及宋永老與前日往還金興、金漢京、李吾乙亡等十二人，給麻尙船五隻入送，去九月十六日於鏡城地瓮仇未發船向島，同日到宿富寧地靑巖，十七日到宿會寧地加隣串，十八日到宿慶源地末應大，二十五日西距島七八里許，到泊望見，則於島北有三石列立，次小島，次巖石列立，次中島，中島之西又有小島，皆海水通流，亦於海島之間，有如人形別立者三十，因疑懼不得直到，畫島形而來。’臣等謂往年朴宗元由江原道發船，遭風不至而還，今漢京等發船於鏡城瓮仇未，再由此路出入，至畫島形而來，今若更往，可以尋覓。請於明年四月風和時，選有文武才者一人入送。”從之。
1479	三峯島	成宗實錄 권107	성종 10년 8월 30일 癸丑, 영안도 敬差官 辛中踰 …人言可二日程
1511	武陵島	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5월 庚午 宣慰使許碶來啓曰 …寧海居軍官朴自範云, 江原道武陵島, 與此相望, 夜有火光, 疑是倭船隱接, 或我國逋亡人潛寓
1694	鬱陵島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11월 6일 경오, 李秀彦 鬱陵島 設鎮 상소 近年嶺東 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
1699	鬱陵島	肅宗實錄, 권33	숙종 25년 7월 15일 壬午, 崑崙만호 田會一, 江原道越松萬戶田會一, 搜討鬱陵島, 還泊待風所, 圖上本島地形, 兼進土產篔竹、香木、土石等數種.
1702	鬱陵島	肅宗實錄, 권36	숙종 28년 5월 28일 기유, 三陟營將李浚明 還自鬱陵島獻 其圖形及紫檀香、靑竹、石間朱、魚皮等物…浚明乘船于蔚珍、竹邊津, 兩晝夜而還歸, 比濟州倍遠云
1794	鬱陵島, 可支島	正祖實錄 권40	정조 18년 6월 3일 戊午, 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 4월 21일(양 5월 19일) 순풍출발 未時量, 到于大洋中 則西時, 4월 22일 黃土丘尾津에 정박 4월 30일 바람을 기대려 출발 5월 8일 본진귀환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pp. 3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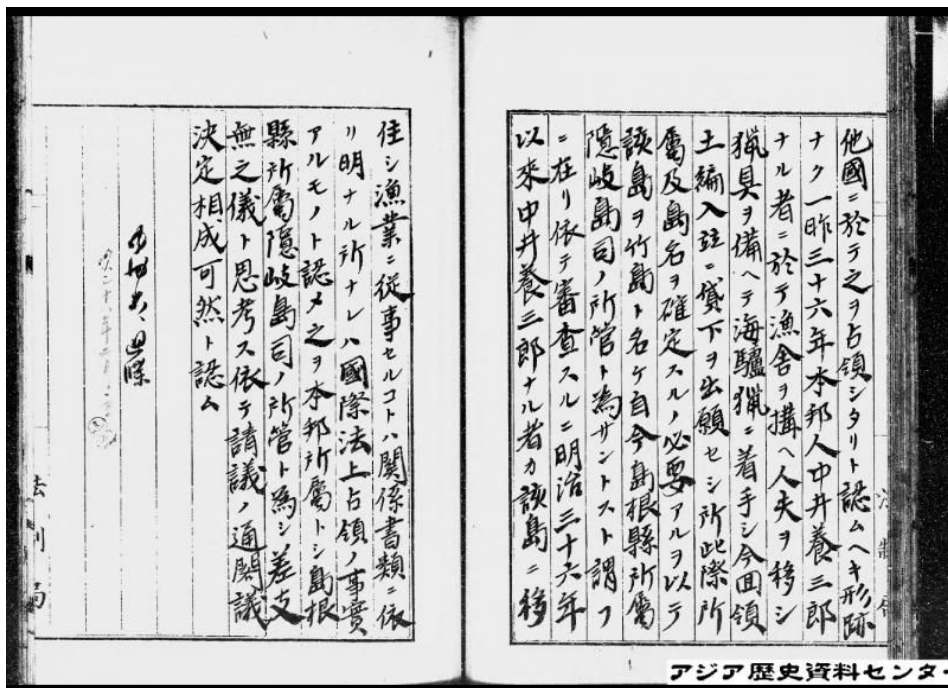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1> 박석창 수토지도 「울릉도 도형」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2> 일본 내각 각의결정문(독도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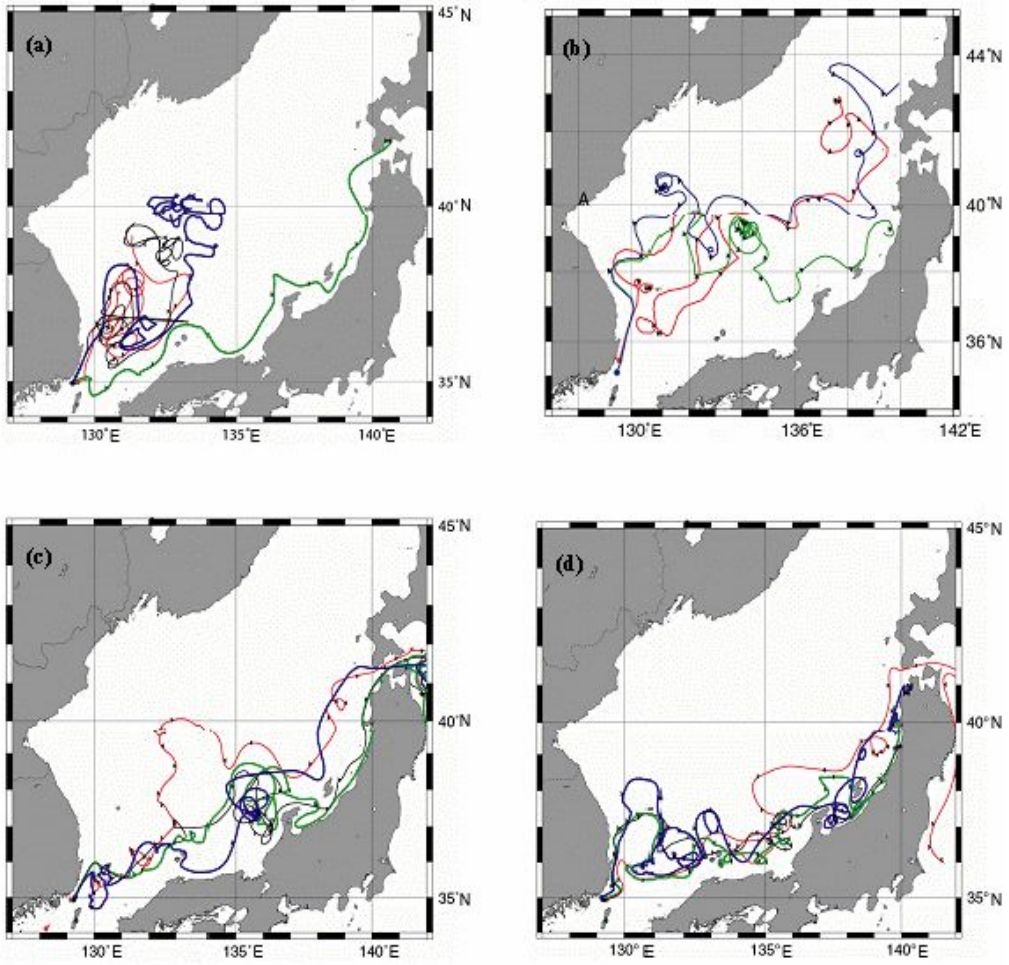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3〉 임자평의 『삼국통람도』 「조선지도」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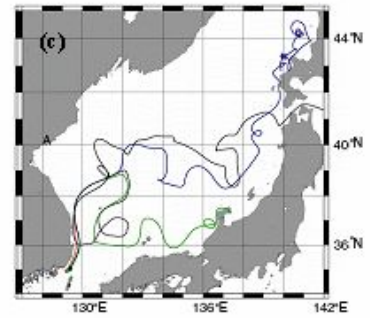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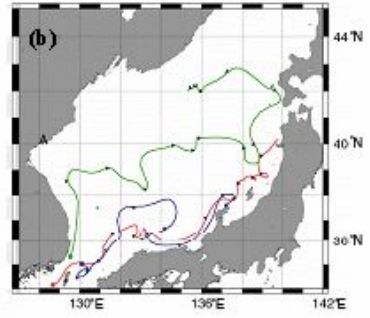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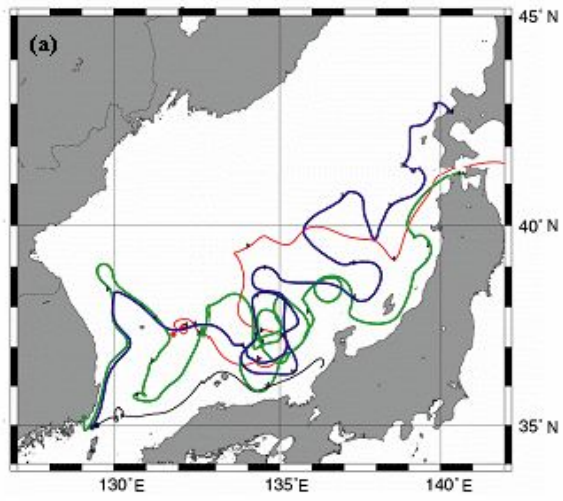
<부록 그림 4> 이찬 소장 『동람도』 「팔도총도」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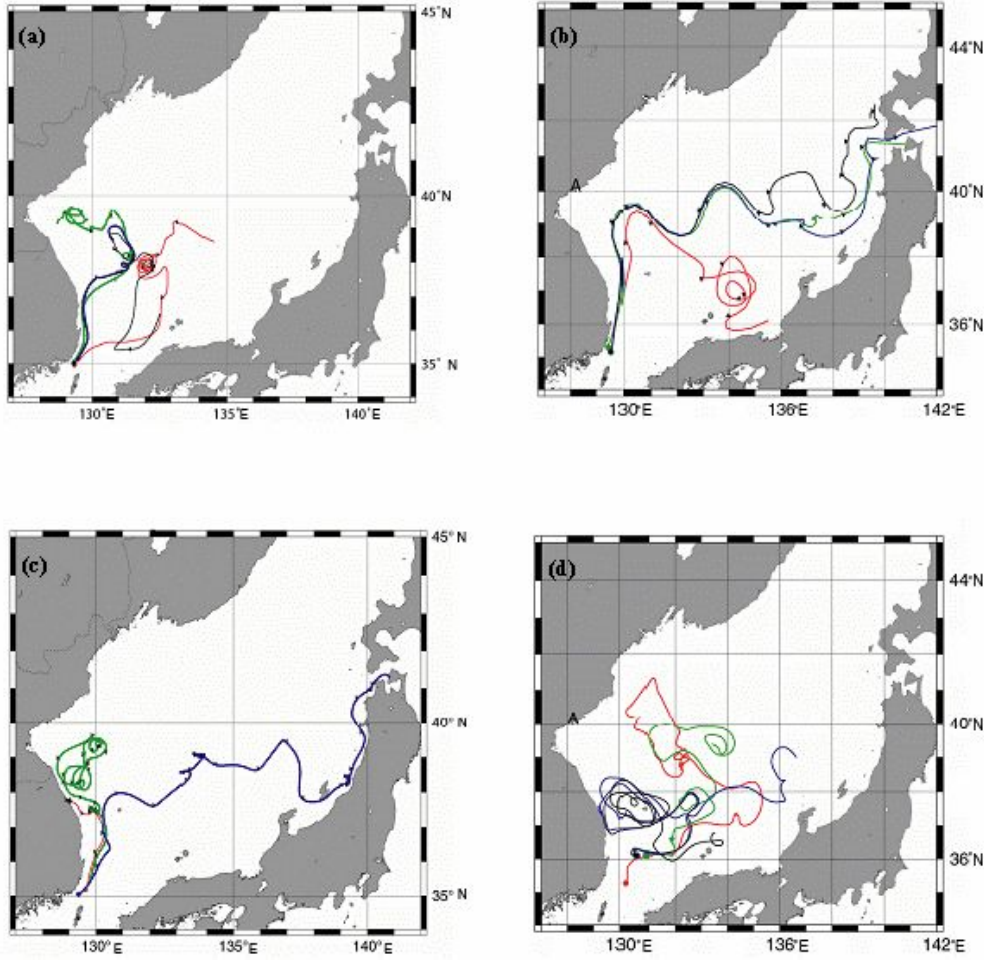
<부록 그림 7> 4월 위성들개의 궤적도 :

(a) '06년 (b) '03년 (c) '05년 (d) '04년 (10일 간격 세모표시).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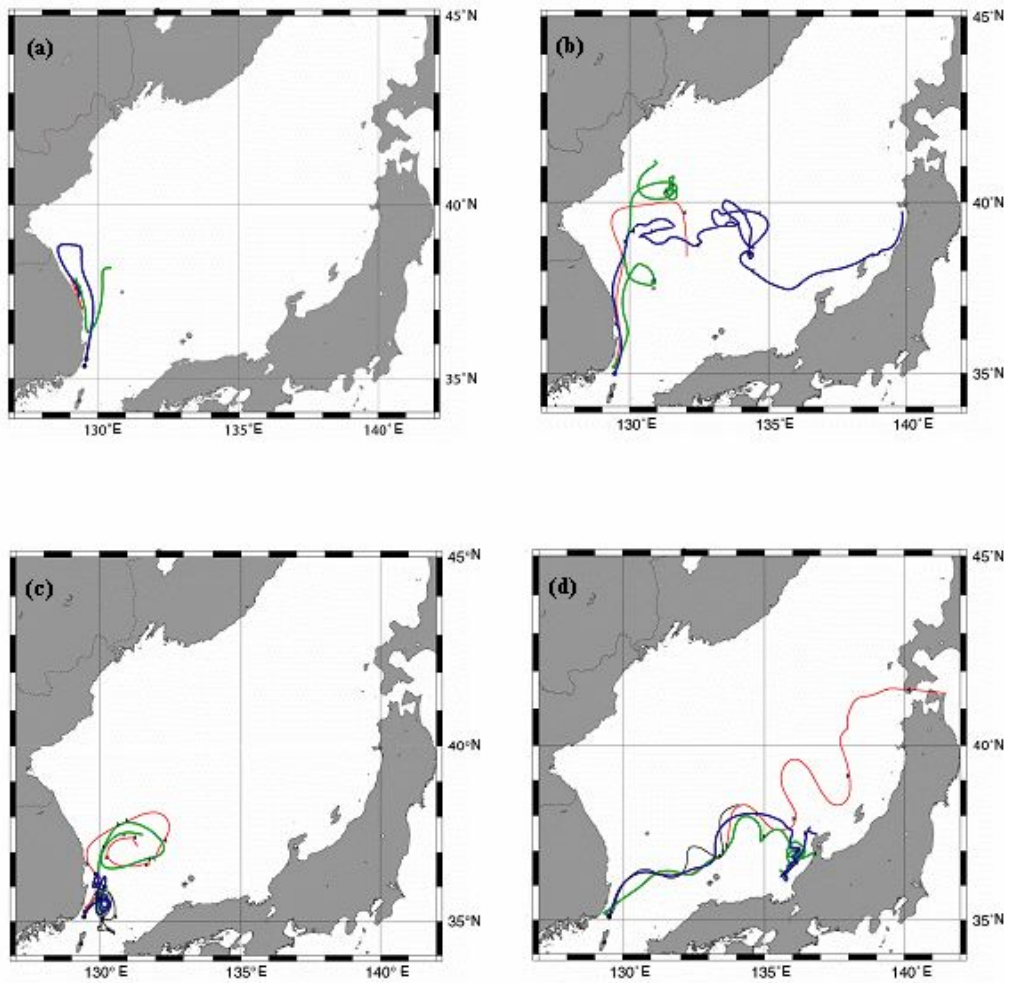
<부록 그림 8> 6월 위성들개의 궤적도 :
 (a) '05년 (b) '03년 (c) '04년 (10일마다 세모 표시)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9> 8월 위성뜰개의 궤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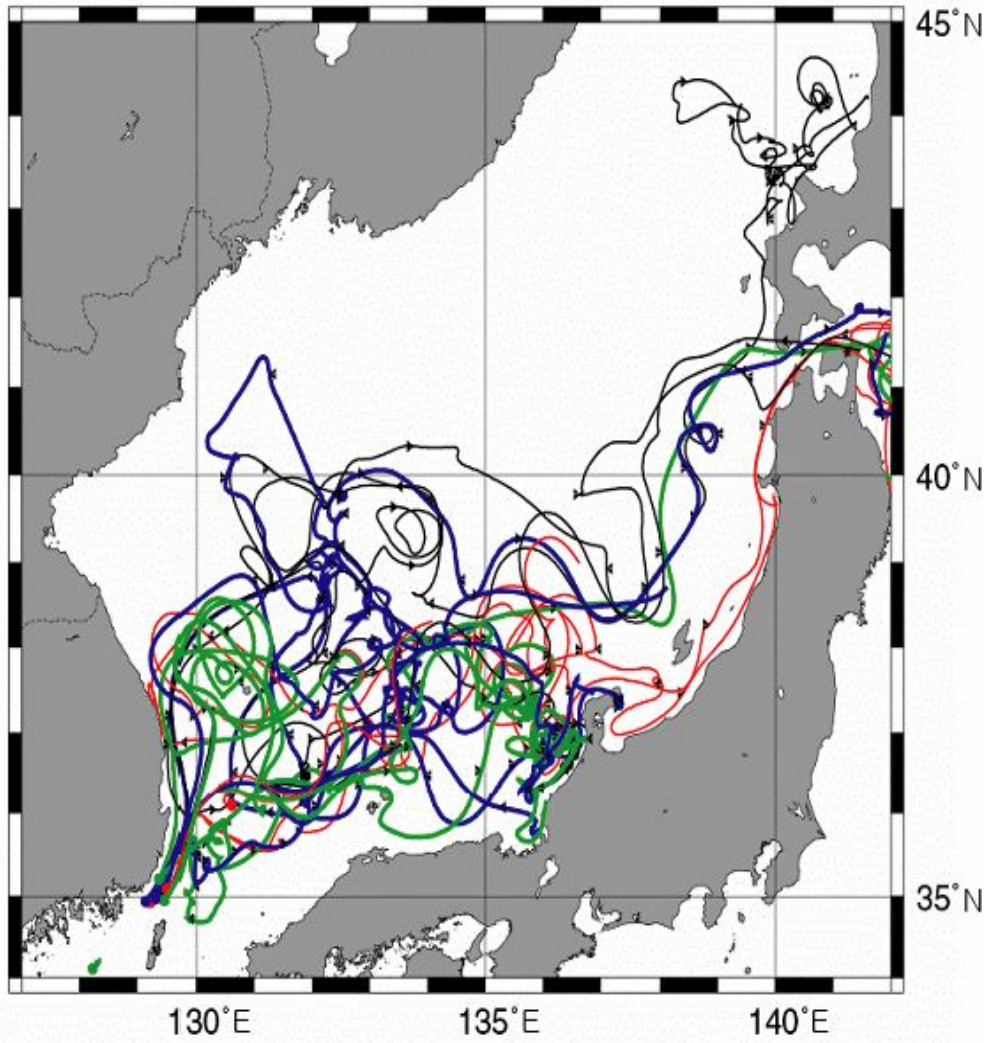
(a) '06년 (b) '03년 (c) '05년 (d) '04년 (10일 간격 세모표시)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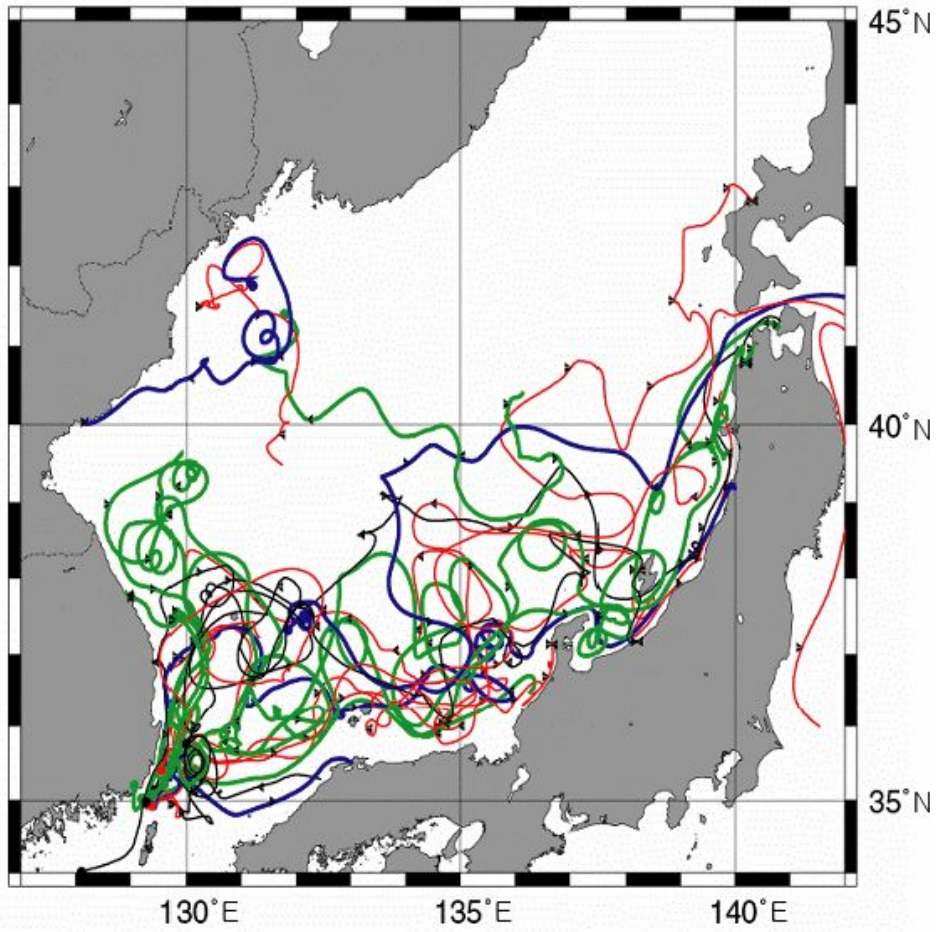
<부록 그림 10> 10월 위성들개의 궤적도 :

(a) '06년 (b) '03년 (c) '05년 (d) '04년 (10일마다 세모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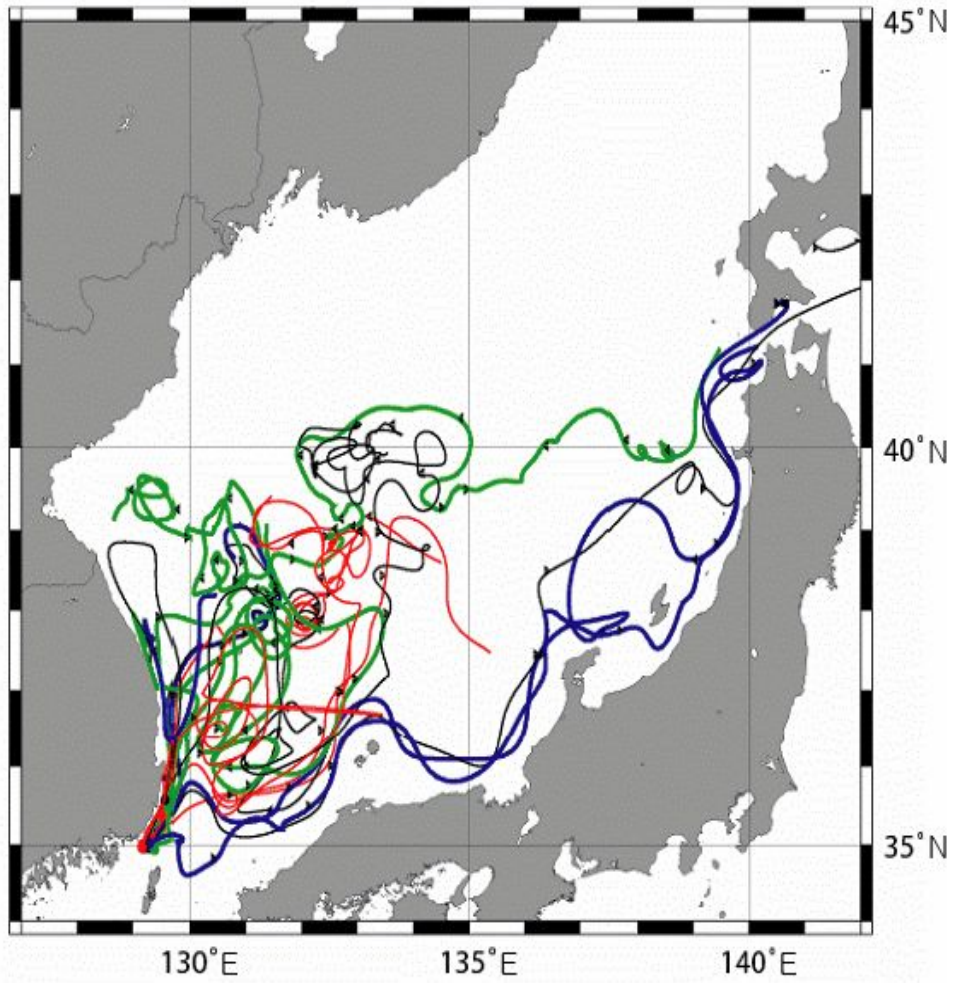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11> 위성뜰개 궤적도(2004) : 10일마다 세모 표시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12> 위성뜰개 궤적도(2005) : 10일마다 세모 표시



자료: 백인가심문보, 2006.

<부록 그림 13> 위성뜰개 궤적도(2006) : 10일마다 세모 표시